차　　례

혁명군사위원

1

이전에는 이따금 아이들이 반나마 무너진 헛간들사이에서 뛰여다니고 기여다니면서 노느라고 여기로 달려오군하였다. 여기는 참 좋았었다.

언젠가 우크라이나를 강점했던 도이췰란드놈들이 건초와 짚을 여기로 실어왔었다. 그런데 붉은군대가 와서 도이췰란드놈들을 쫓아내였다. 그리고 붉은군대가 간 뒤로 가이다마크(우크라이나민족군대의 기병)들이 왔는데 뻬뜰류라도당(1918～1919년 당시 우크라이나 반혁명군대)들이 가이다마크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뻬뜰류라도당들을 쫓아내였다. 그러다보니 건초는 거멓게 거의다 썩은채 그냥 무덕무덕 쌓여있었다.

빠빠하(털모자의 일종)에 누르푸릅한 줄을 어기여댄 바로 그 아따만 끄리월로브(까자크의 대장)라는자가 여기서 4명의 로씨야사

람과 한명의 우크라이나사람을 총살한 뒤로 아이들은 이 매혹적인 곳에서 숨박곡질을 하고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우중충한 헛간들은 돌보는 사람도 없이 버림을 받은채 쓸쓸하게 서있었다.

그러나 짐까만은 자주 여기로 찾아오군하였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쩐지 해별도 류달리 따스하게 내려쬐였고 매캐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쑥내가 상쾌하게 풍겼으며 활짝 핀 우엉꽃에는 벌들이 앵앵거리며 한가로이 날아다녔던것이다.

그러면 총살당한 사람들은?… 그것은 벌써 걷어치운지도 오래였다! 그들은 또쁘와 그 또래의 쪼무래기들은 보기만 해도 무서워하는 바로 그 늙은 거지 아브제이가 두개의 막대기로 든든한 십자가를 만들어서 남몰래 무덤에다 세워놓았다.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짐까만은 보았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말은 하지 않았다.

쓸쓸한 구석에서 발길을 멈춘 짐까는 주의깊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별로 이상스러운것을 감촉하지 못한 그는 짚무더기를 헤치고 총알알쌈 두개와 보총소제대 하나와 집이 없는 녹쓴 오스트리아총창 하나를 꺼내였다.

처음 짐까는 정찰병놀음을 하였다. 이를테면 무릎으로 기다가 적이 가까이에 있다고 가정할만한 근거가 있는 위험한 순간에 이르자 땅바닥에 바싹 엎디여 최대의 경각성을 다하여 앞으로 나가면서 적의 배치정형을 꼼꼼히 살피였다. 운수가 좋았는지 아니면 또 무슨 일때문이였는지 그는 오늘만은 일이 잘되였다. 그는 계교를 꾸며서 가상적인 초소까지 무사히 육박해갈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어 우박처럼 퍼붓는 보총, 기관총 때로는 지어 포중대의 포사격의 추격까지 받다가 마침내 아무 손실없이 자기 진지로 돌아왔다. 다음에는 정찰한 결과에 따라 기병대를 파견했는데 째는듯한 소리를 지르면서 우엉과 지느러미엉겅퀴가 무성한 풀밭 한복판으로 쳐들어갔다. 그들은 그와 같은 맹렬한 공격에도 도망을 치려 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전사하였다.

짐까는 아이들의 용감성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나머지는 포로로 잡는다. 그리고는 《모엿》과 《차렷》의 구령을 치고나서 노기등등하여 포로들에게 연설을 한다.

《누구를 반대해나서는가? 자기의 형제들인 로동자와 농민을

반대하는가? 너희들에게는 륙군대장들과 해군대장들이 필요한 거다. …》

또 이렇게도 말한다.

《공산주의를 바라는가? 자유를 바라는가? 합법적정권을 반대해서…》

그의 연설은 그때 그가 어떤 군대의 사령관역을 노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군한다. 왜냐하면 그는 매번 이 군대, 저 군대를 바꾸어서 지휘했기때문이다.

그는 오늘 어떻게도 장난에 열중하였던지 집으로 돌아가는 소무리들의 방울소리를 듣고서야 피뜩 정신이 들었다.

(이거 큰일났구나!)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제 어머니는 두들겨 패든가 그렇잖으면 저녁을 주지 않을거다.)

그래서 그는 얼른 자기의 무기를 감추고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럴듯하게 속여넘길가 하고 여러가지로 궁리를 하였다.

그러나 정말 이상하게도 그는 꾸중을 듣지 않았고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였다.

짐까는 현관에서 하마트면 어머니와 맞부딪칠번하였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거의나 그에게는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무엇때문인지 헛간에서 낡은 양복저고리와 바지를 꺼내느라고 열쇠를 쩔렁거리고있었다.

또쁘는 나무쪼각을 가지고 진흙더미에다 열심히 구멍을 파고있었다.

누군지 뒤에서 짐까의 바지가랭이를 슬며시 잡아당기면서 서글프게 바라보는것이였다.

《왜 그래 이 바보야?》 짐까는 곰살궂게 묻다가 문뜩 개주둥이가 무엇엔가 째진것을 보았다.

《어머니, 누가 이렇게 했어요?》 짐까는 막 성이 나서 물었다.

《애두 원 시끄럽다.》 하고 어머니는 외면하면서 역증을 내여 대답하였다. 《내가 따라다니며 봤니?》

그러나 짐까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건 아저씨가 장화발로 걷어찼어.》 또쁘가 대주었다.

《아저씬 또 무슨 아저씨야?》

《아저씬… 뿌연… 우리 집에 앉아있어.》
집까는 뿌연아저씨를 욕하고 방문을 벌컥 열었다. 그러자 그는 침대우에 군복저고리를 입은 힘꼴이나 쓰게 생긴 사나이를 보았다. 침대결의 걸상에는 뿌연 군인외투가 놓여있었다.
《골로웬!》하고 짐까는 깜짝 놀랐다. 《어데서 왔어요?》
《거기서.》외마디대답이 뒤따랐다.
《아저씨, 슈멜리를 왜 때렸어요?》
《슈멜리는 또 무슨놈의 슈멜리야?》
《내 개말이야요.…》
《좀 작작 짖으라구 해라. 그렇지 않다간 내가 고놈의 개모가질 아주 비틀어놓겠다.》
《아저씨, 모가질 누가 비틀어놓으라지요!》짐까는 화김에 이렇게 대꾸하고는 뻬치까뒤로 훌쩍 달아났다. 골로웬의 손길이 곁에 딩굴고있는 투박한 장화쪽으로 뻗었던것이다. 짐까는 골로웬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그는 바로 얼마전에 붉은군대에 들어갔었는데 벌써 집에 와있었던것이다. 붉은군대의 복무기간이 그렇게 짧을수는 없을것이다.
저녁을 먹을 때 짐까는 끝내 참지 못하고 이렇게 물었다.
《아저씨, 휴가를 받았나요?》
《휴가를 받았다.》
《그래요! 오래동안이예요?》
《오래동안이야.》
《거짓말!》하고 짐까는 자신있게 말하였다. 《붉은군대도 백파도 파랭이들(1919～1920년 탈주병들로 조직된 농민부대로서 주로 백파의 후방에서 그들을 반대하여 싸웠으며 때로는 부농의 무기로 되여 붉은군대를 반대해서도 행동하였다. 파랭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산림속에 숨어있는데서 나왔다.)도 지금은 오래 휴가를 주지 않아요. 지금은 전쟁을 하고있거든요. 아저씨는 틀림없이 도피분잘거예요.》
다음순간 짐까는 목덜미를 한대 든든히 얻어맞았다.
《아이는 왜 때려요?》하고 짐까의 어머니가 편역을 들었다. 《그저 아이들하구 같이 구는군요.》
골로웬은 얼굴이 더욱 빨개져가지고 귀가 쭈뼛한 (바로 쭈뼛

한 귀때문에 그는 별명을 들었다.) 머리를 저으면서 사납게 대꾸하였다.

《잠자코 있는게 좋을게요.… 뻬쩨르의 프로레타리아들… 두구보우. 이제 내가 모두 집에서 쫓아내구말테니.》

이런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는 어째선지 몸을 움츠리고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눈물을 삼키고있는 짐까를 꾸짖는것이였다.

《이 못난것아, 쓸데없이 삐치지 말구 좀 가만있어. 그러다 또 경치지 말구.》

저녁을 먹은 뒤에 짐까는 현관방에 들어가 숨었다. 그는 궤짝뒤에 있는 짚무더기에 어머니의 외투를 덮고 누운채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윽고 슈멜리가 슬며시 들어와서 대가리를 짐까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 뻬쩨르로 가요.》

《아유! 이제라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이야 갈수가 있냐? 여러가지 증명서가 있어야지, 게다가 또 보렴, 사방에서 싸움이 벌어지구들 있으니.》

《어머니, 뻬쩨르에는 어느 편이 있나요?》

《그걸 누가 알겠니! 소문엔 붉은군대들이 있다구들은 하더라만, 거짓말인지두 모르지. 요즘 세상에야 어디 갈피를 잡겠더라구.》

짐까는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는데 동의하였다. 하기는 구소재지촌이 어느 편의 손에 들어있는지조차 모르는 형편이다. 떠돌아다니는 말에는 얼마전에 끄졸루쁘가 그 촌을 차지했다는것이였다.

그런데 그 끄졸루쁘는 어떤 사람이며 무슨 당인지?

그래서 짐까는 생각에 잠겨있는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어머니, 끄졸루쁘는 파랭인가요?》

《모두 그저 한몽둥이에 없애치웠으면 시원하겠다!》 하고 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대꾸하였다. 《이전에는 그래두 사람들이 다 제구실을 했건만 지금은 글쎄 무슨 꼴들인지…》

현관방은 캄캄하였다. 열어제낀 방문으로 별이 총총한 하늘과 밝

은 쪼각달이 뵈였다. 짐까는 어제밤에 채 못본 재미있는 꿈의 계속을 볼 차비를 하면서 짚무더기를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솔깃이 잠이 들면서 곁에 기댄채 엎디여 자는 충실한 슈멜리가 자기 목을 기분좋게 덥혀주는것을 느꼈다.…

푸른 하늘에는 구름장들의 한끝이 해빛을 받아 은빛으로 물들었다. 바람은 넓은 들판에서 누렇게 익은 곡식과 더불어 노닐고 여름날은 유리빛처럼 고요하였다. 다만 사람만이 불안스러웠다. 우중충한 산림너머 어디선가 기관총들이 한동안 요란스럽게 따르륵거리였다. 어딘가 멀리서는 대포들이 쿵쿵 맞불질을 하였다. 그리고 기병부대가 어디론지 쏜살같이 달려갔다.

《어머니, 저건 누구하구 싸우는거야요?》

《성가시게 굴지 말어!》

짐까는 더는 성가시게 굴지 않고 울타리로 달려가서 울장에 기여올라 사라져가는 기병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한편 골로웬은 여전히 살기를 띠고있었다. 마을로 붉은군대부대가 지나갈 때면 그는 매번 어디론지 피하군하였다.

그래서 짐까는 그가 도피분자라는것을 알아차렸다.

언젠가 한번은 할머니가 골로웬에게 소금에 절인 돼지비게덩이와 빵덩이를 가져다주라고 짐까를 건초간으로 보낸 일이 있었다. 으슥한 구석으로 살금살금 다가간 그는 골로웬이 등을 돌려대고 앉아서 무엇인가 손질하고있는것을 보았다. (보총이구나!) 짐까는 깜짝 놀랐다. (이것참, 별 사람이구나! 그래 저걸 뭣에다 쓰려는걸가?)

골로웬은 격발기를 꼼꼼히 닦고는 헝겊으로 총구멍을 틀어막아서 보총을 건초속에다 감추는것이였다.

짐까는 그날밤과 다음 며칠동안 그것이 어떤 보총인지 보고싶은 생각에 속이 달았다. (로씨야건가, 혹은 도이췰란드건가? 아마 거기에는 나간권총도 있을지 몰라?)

마침 그때 주위가 온통 잠잠해졌다. 붉은군대는 꼬졸루쁘를 쫓아버리고는 계속하여 어느 전선으론가 떠나갔다. 조그만 마을은 조용해지고 인기척이 없어졌다. 그러자 골로웬은 건초간을 떠나서 한동안씩 어디론지 사라지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어느날 저녁무렵 노을이 붉게 물든 호수가에서 개구리들의 노래소리가 울리기 시작하고 날렵한 제비들이 미끄러지듯 하늘을 날으고 갈파리떼가 부

질없이 앵앵거리기 시작할 때 짐까는 건초간으로 몰래 들어가보기로 결심하였다.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그러나 짐까에게는 닭우리로 해서 들어가는 자기의 통로가 있었다. 한옆으로 물러나는 널판지가 삐걱소리를 내자 놀란 암닭들이 요란스럽게 꼬꼬댁거렸다. 짐까는 떠들썩한 소음에 질겁해서 얼른 우로 올라갔다. 건초간은 무덥고 조용하였다. 붉은 깃털베개가 딩굴고있는 구석으로 다가가서 지붕밑을 더듬기 시작하자 무엇인지 딴딴한것이 손에 마치였다. (총탁이다 !) 그는 귀를 기울였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잡아당기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보총을 아주 다 끌어내였다. 나간권총은 없었다. 보총은 로씨야것이였다. 짐까는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살펴보고 하면서 오래도록 그것을 만지였다. (격발기를 한번 빼보면 어떨가?)

그는 아직 제 손으로 격발기를 빼본적은 없었다. 그러나 병사들이 하는것은 자주 보았었다. 슬쩍 당기니 손잡이가 우로 올라왔다. 맨끝까지 당기였다. (못할게 뭐야.) 하고 그는 우쭐해서 생각하였다.

그런데 격발기밑 어디에서 훌떡 올라왔는지 노르스름한 총알을 보았다. 그래 그는 격발기를 도로 닫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좀 빽빽하였다. 그런데 짐까는 노르스름한 총알이 총신안으로 곧추 들어가는것을 보았다. 그는 총을 밀어놓은채 어찌할바를 모르고 멍청하고있었다.

(망할것, 어디로 들어가는거야!)

그러나 일은 서둘러야 했다. 그는 격발기를 닫고나서 총을 제자리에 쿡쿡 밀어넣기 시작하였다. 총을 거의다 밀어넣었을 때 별안간 문이 벌컥 열리면서 바로 짐까의 코앞에 당황하고 성난 골로웬의 얼굴이 나타났다.

《너 이 개자식, 예서 뭘해?》

《아무것도 안해요!》 하고 짐까는 놀라며 얼른 대꾸하였다. 《난 여기서 자고있어요. …》

그리고는 살며시 발끝으로 총탁을 건초더미속으로 밀어넣었다.

그 순간 야무진 총소리가 땅하고 났다. 짐까는 하마트면 골로웬이 사닥다리에서 밀치는바람에 떨어질번하면서 땅바닥으로 훌쩍 내리뛰여 남새밭으로 해서 마구 달리였다. 길옆에 있는 울타리를 뛰여넘는 서슬에 그는 그만 도랑에 빠지였다. 거기에서 뛰쳐나왔

을 때 그는 악에 받친 골로웬이 자기의 샤쯔를 움켜쥐는것을 느끼였다.
(날 죽일거야!) 하고 짐까는 생각했다. (어머니도 아무도 못보고, 이젠 마지막이구나.)
그러자 잔등에 억센 타격을 받고 눈앞이 아뜩해졌다. 그는 또다시 몇개라도 얻어맞을 잡도리를 하면서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런데…행길에서 무엇인지 뚜닥거리는 소리가 들리였다. 어째선지 골로웬의 손맥이 풀리였다. 그리고 누군지 노기띤 목소리로 엄하게 웨치는것이였다.
《때리면 안돼!》
눈을 뜬 짐까는 처음에는 말다리들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말다리의 울타리같았다.
누군지 억센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아서 그를 일으켜세웠다.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기병들과 검은 옷을 입고 가슴에 붉은별을 단 기사를 알아보았다. 그 기사앞에 골로웬은 어리둥절해 서있었다.
《때리면 안돼!》하고 그 낯선 사람이 되뇌였다. 그리고 울고난 짐까의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덧붙였다. 《울지 말어. 응, 이 장난꾸러기야, 그리구 무서워할것도 없어. 이젠 저 사람은 더는 너를 건드리지 못할게다.》
그는 한 기병에게 고개짓을 하고는 부대와 함께 앞으로 달려갔다.
한 기병이 남아서 엄격하게 물었다.
《자넨 웬 사람인가?》
《이 마을사람입니다.》하고 골로웬이 침울하게 대답하였다.
《어째서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어?》
《나이가 모자라섭니다.》
《성은?… 돌아오는 길에 조사해보겠다.》하고 기병이 박차를 가하자 말은 대번 구보로 내달렸다.
얼떨떨해진 짐까는 영문을 알지 못한채 길가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뒤를 돌아다보았다. 아무도 없다. 량옆을 둘러보았다. 골로웬도 없다. 앞을 바라보니 가뭇가뭇하게 지평선너머로 쏜살같이 달려 사라지는 붉은군대부대가 보였다.

2

눈에는 눈물이 마르고 아픔도 조금 가라앉았다. 그러나 짐까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무서워서 모두가 잠자리에 누울 야밤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강가로 나갔다. 강기슭의 나무덤불밑으로 흐르는 물은 시꺼멓고 잔잔하였다. 그것이 한가운데서는 장미빛섬광으로 반짝이면서 조약돌 깔린 강바닥을 돌돌 굴러내리며 조용히 속살거렸다.

맞은편기슭 니꼴스끼수풀가에서는 우등불이 가물거리기 시작하였다. 짐까에게는 어쩐지 그것이 아득히 멀고 마음을 사로잡는 수수께끼같이만 보였다.

(저게 누굴가 ?)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정말 목동들일가?…아니, 악당들인지도 몰라! 저녁을 끓이는군. 감자에 돼지비계를 둔것이 아니면 또 무슨 그런따위겠지.…)

그는 몹시 배가 고팠던것이다.

땅거미가 지자 우등불은 멀리서 소년에게 반가이 눈짓을 하는듯 깜빡거리면서 더욱 빨갛게 피여올랐다. 그러나 불안한 니꼴스끼수풀은 땅거미지면서부터 한층 더 음산스러워지며 컴컴해져갔다.

짐까는 오솔길로 내려가다가 무엇인지 매혹적인 소리에 우뚝 발길을 멈추었다. 강굽이 저쪽기슭에서 누군가가 멋지게 넘어가는 낮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의 말마디를 아름답게 끊어붙이기는 하지만 어쩐지 이상스럽게 들리였다.

동—지—들, 동—지—들
그는 대답대신 말했네
로—씨야 만—세!
쏘베트 만세!

(저것봐! 참 잘도 부르네!) 짐까는 황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래로 내려갔다. 강기슭에서 그는 허술한 배낭결에 누워있는 그닥 크지 않은 파리한 소년을 보았다. 그 소년은 발자국소리를 듣자 노래

를 그만두고 조심스럽게 짐까를 쳐다보았다.
《너 뭘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왔어.》
《아하!―》하고 소년은 아마 만족하다는 대답인듯 길게 뽑았다.
《그럼 싸움은 안한단말이지?》
《뭐라구?》
《싸움말이야.… 괜히 덤벼만 봐라! 난 작아도 대번에 녹초를 만들걸…》
짐까는 조금도 싸움을 하려고는 들지 않고 이번에는 자기쪽에서 이렇게 물었다.
《네가 노래를 불렀니?》
《내가 불렀다.》
《그런데 넌 누구냐?》
《난 쥐간(싸움군이란 뜻)이야.》하고 그 소년은 거만하게 대꾸하였다. 《도시에서 온 쥐간이란말이야.… 내 별명이 그래.》
땅바닥에 훌쩍 뛰여내린 짐까는 그 소년이 흠칫 물러나는것을 보았다.
《너는 쥐간이 아니고 잡살뱅이로구나. 그런 쥐간도 있다던?… 그런데 노래만은 멋지게 불러.》
《이봐, 난 모르는 노래가 없다. 정거장에서 군용렬차만 오면 늘쌍 노래를 부른다. 붉은군대건 뻬뜰류라도당이건 뭐가 오든지 마찬가지야.… 동지들에게는 이를테면 〈알료샤―샤〉나 부르죠아에 대한 노래를 부르지, 백파들한테는 다른걸 불러야 해. 〈옛날에는 돈이 있었네, 종도 있었네.〉든가 〈라쎄야는 멸망하였다.〉같은걸말이지. 그리고 또 다음엔 〈야블로츠꼬〉도, 그건 물론 량쪽에서 다 불러도 좋지만 가사만은 바꿔야 해.》
그들 둘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데 넌 왜 여길 왔니?》
《우리 이름 지어준 어머니가 여기 있어. 오누푸리하할머니말이야, 난 어디 한달쯤 배를 두드리며 실컷 먹어보자 생각했댔어. 그런데 어림도 없더라! 한주일이나 둬주일 있다가 가라질 않어!》
《그담엔 어디로 가니?》
《아무데고 더 좋은델 찾아갈판이지.》

《어데루?》
《어데냐구? 그걸 알면 걱정없게. 찾아봐야지.》
《얘, 쥐간, 너 아침에 강가로 나오너라. 가재를 잡자!》
《정말이야? 그럼 내 꼭 올게.》그 소년은 몹시 만족해하면서 대답하였다.
울타리를 뛰여넘어서 캄캄한 마당으로 살금살금 들어간 짐까는 현관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그는 어머니에게로 다가가서 머리수건을 당기면서 애틋하게 말하였다.
《어머니, 욕하지 말아요.… 골로웬이 날 그냥 때려서 난 우정 오래 있다 왔어요.》
《그래 싸지!》하고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면서 말하였다. 《너는 좀 더 맞아야 해.…》
그러나 짐까는 어머니의 그 말가운데서 모욕과 설음과 애달픈 음조를 느끼였다. 하지만 노기만은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날 하도 답답해진 짐까는 강가로 나왔다.
《얘 쥐간, 우리 도망을 가자꾸나 !》하고 짐까가 먼저 말을 꺼내였다. 《아무데나 좀 먼곳으로 달아나자. 정말!》
《어머니가 널 내놓겠니?》
《쥐간, 넌 바보로구나! 도망치는 사람이 누구보고 물어보기나새나. 골로웬은 독살스럽게 으르대기만 한단다. 나때문에 어머니하구 또쁘까지 못살게 군다니까.》
《또쁘라는건 또 뭐야?》
《우리 동생이야. 걸을 때 별스럽게 내디디거든,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었어. 정말 모두 싫증이 난다. 집에서 그래 뭘하겠니?》
《그럼 도망을 치자!》 하고 쥐간은 활기있게 지껄이기 시작하였다. 《내야 도망치지 못할게 뭐있어? 난 지금 당장이라도 문제없어. 군용렬차로 돌아다니면서 벌면 그만이거든.》
《벌다니, 어떻게?》
《아, 그야 간단하지. 내가 무슨 노래를 하나 부르고서 이렇게 말하거든. 〈여러 동지들에게 가장 큰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들에게 전선이 아니라 오직 위안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빵은 두토막씩 담배는 한갑씩 타시고 도중에 기관총에도 대포에도 맞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지. 그

러면 모두들 웃음보를 터뜨리지 않겠어. 바로 이때에 모자를 척 벗어 들고 이렇게 말하지. 〈공민여러분, 자비심을 베푸시고 어린것들의 수고에 대해서 삯전을 치러주십시오.〉 하고.》

짐까는 이런 말을 그렇게도 재치있게 주어치는 쥐간의 경쾌성과 확신성에는 그만 탄복하였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그닥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지원병으로 어느 부대에 들어가든가 자기네 부대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빨찌산부대로 가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하였다. 쥐간은 반대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오히려 짐까가 붉은군대는 《혁명을 위하여 싸우기때문에》좋다고 호의를 가지고 말했을 때 쥐간은 벌써 붉은군대에 복무한 일이 있다는것이 밝혀졌다.

짐까는 놀란듯이 쥐간을 바라보다가《게사니를 많이 먹이기때문에》파랭이도 괜찮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여기서 또 보충적으로 쥐간은 파랭이들한테도 복무했으며 하루에 게사니 반마리씩 자기몫으로 꼭꼭 탔다는것도 판명되였다.

그들은 도주계획을 오래도록 꼼꼼히 세웠다. 집에도 들리지 말고 당장 이 자리에서 도망을 치자는 쥐간의 제의는 결정적으로 거부되였다.

《무엇보다도 첫째는 처음 며칠을 위해서라도 빵을 마련해둬야 한다.》하고 짐까는 말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자마자 남의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게 되거든. 그리고 또 성냥도…》

《밥통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밭에서 감자를 캐면 제꺽 점심이 되거든!》

짐까는 골로웬이 가져온 든든한 구리밥통이 생각났다. 할머니가 재를 가지고 그것을 명절날 싸모와르처럼 번쩍거리게 닦아서 헛간에다 치웠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다닌단말야.》

《그까짓!》하고 쥐간이 말하였다. 《별의별걸 다 채워도 필요한 땐 열수 있는거야. 솜씨만 날래면 그만이지뭐.》

그리하여 그들은 식량저축을 곧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짐까는 헛간곁에 있는 짚무더기속에 감추자고 제의하였다.

《왜 헛간에다 감춰?》하고 쥐간은 반대하였다. 《다른데는 감

출 곳이 없을라구… 하필 송장이 있던데다가!》
《송장이 어때?》하고 짐까는 비웃듯이 물었다.
바로 그날로 짐까는 그리 크지 않은 소금에 절인 돼지비게덩이를 가져왔고 쥐간은 성냥 세개피를 종이에 꽁꽁 싸서 가져왔다.
《많이는 안돼!》하고 쥐간은 설명하였다. 《오누푸리하할머니한테는 모두 두곽밖에 없으니까 눈에 뜨이지 않게 해야 하거든.》
그리하여 이 순간부터 도망치는것은 아주 명백한것으로 되였다.
그런데 생활은 어데서나 뒤설레이고있었다. 어딘지 멀지 않은 곳에 큰 전선이 있었다. 그리고 가까이에도 몇개의 작은 전선이 있었다. 사방에서 붉은군대들이 악당들을 쫓고있거나 혹은 악당들이 붉은군대들을 공격하고 혹은 아따만들이 저희들끼리 싸우고있었다.
아따만 끄졸루쁘는 흉악한자이다. 그의 고집스럽게 생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로 패워있었고 두눈은 희슥희슥한 눈섭밑에서 험상스럽게 번뜩이였다. 음울한 아따만이다! 아따만 료브까는 악마처럼 교활한자이다. 그자의 말새끼까지도 바로 그자처럼 허연 이발을 드러내고 히힝 웃는것이였다. 그런데 이자가 끄졸루쁘의 통솔밑에서 떨어져나오자부터 그들사이에는 처음에는 은연한 가운데, 후에는 로골적으로 반목이 나타나게 되였다.
끄졸루쁘는 주민들에게 《사람이 먹을 돼지비게도, 말이 먹을 건초도, 숙영할 집도 료브까에게는 주지 말것.》이라고 명령을 써돌렸다.
료브까는 코웃음을 치고 다른 명령을 썼다.
붉은군대가 두 명령을 읽고 세번째 명령을 썼는데《료브까 및 끄졸루쁘를 법의 보호밖에 둠.》이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길게 쓸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전선이 자못 불리했던것이다.
그래서 그 무슨 영문모를 일들이 벌어졌다. 자하리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였던가! 전쟁에 세번이나 나갔던 할아버지이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조차도 흙무지우에 엎딘 붉은 강아지옆에 앉아서 (그 강아지의 한쪽귀는 술취한 뻬뜰류라의 졸개가 군도로 베여버렸었다.)말하는것이였다.
《세월두 원!》
오늘 파랭이들이 한 스무나문명 말을 타고왔다. 두놈이 골로웬을 찾아와서 떠들썩하게 지껄이면서 뿌연 독한 가양주를 차잔으로

마시였다.

짐까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있었다.

오래전부터 가양주의 맛을 한번 보았으면 해오던 짐까는 골로웬이 나간 다음에 차잔에 남은것들을 모두 한잔에다 모았다.

《짐까 나두!》하고 또쁘가 울상을 하고 보채기 시작하였다.

《남겨줄게, 남겨준대두!》

그런데 짐까는 잔을 입에 대고 기울이기가 바쁘게 기겁을 하여 뱉아버리고 마당으로 뛰여갔다.

그는 헛간곁에서 쥐간을 만났다.

《얘, 난 비밀을 알어.》

《무엇말이냐?》

《우리 뒤집에서 파랭이들이 길에다 구뎅이를 건네파고있어. 그런데 그걸 왜 파는지 모르겠어. 아마 아무도 말을 타고 못가게 하려는 걸거야.》

《뭐, 말을 타고 못가게 해?》하고 짐까는 미심쩍어하면서 말하였다. 《그건 보통일이 아니다. 반드시 무슨 간계를 꾸미는거다.》

그들은 자기네 저축물을 검사해보러 갔다. 아직 많지 못하였다.

돼지비계가 두덩이, 삶은 고기 한덩이 그리고 성냥이 열개피 있을뿐이였다.

그날저녁 벌겋게 타는 둥실한 태양이 나제즈진쓰끼들판의 아득한 지평선우에서 뉘엿뉘엿 넘어가고있었다.

멀리 니꼴스끼수풀가에 자리잡은 올리호브까촌에서 종을 몇번 두드렸다. 그러나 소란스러운 경종으로가 아니라 그저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리하여 무겁게 떨리는 은은한 종소리가 초가지붕들을 스쳐지나 자하리할아버지의 귀에까지 들려오자 조용한 종소리를 오래간만에 듣는 할아버지는 저으기 놀랐다. 그래 그는 천천히 십자를 긋고나서 기울어진 현관옆의 자기 자리에 태연히 앉았다. 그리고 앉아서는 생각하였다.

(래일이 무슨 명절이더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았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올리호브까에서는 교회기념제는 이미 지났고 성탄절은 아직 일렀던것이다. 그래서 자하리할아버지는 막대기로 창문을 두드리면서 밖을 내다보는 할머니에

게 물어보았다.
《고르삐나, 여보 고르삐나, 래일이 일요일이요?》
《원 늙은이두!》하고 밀가루를 잔뜩 뒤집어쓴 고르삐나할머니가 마뜩지 않게 대꾸하였다. 《아니, 그래 수요일 다음에 일요일이 오는 법도 있답디까?》
《허긴 나도 그렇겐 생각하는데…》
그리하여 자하리할아버지는 공연히 가슴에다 십자를 그은것은 아닌지, 그 종소리는 무슨 좋지 못한것은 아닌지 하고 걱정하였다.
선들바람이 불면서 흰 수염을 가볍게 날렸다. 그런데 자하리할아버지는 호기심많은 아낙네들이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대문에서 뛰쳐들 나가는것을 보았다. 그때 벌로부터 좀 더 자지러지고 길뿐이지 꼭 소무리중에서 어느 황소나 암소가 울부짖는듯한 이상한 소리가 늘어지게 들려왔다.
우―오―우우―우우―…
그러자 조금 있더니 별안간 공기를 째는듯한 소리가 나면서 목장가까이에서 총소리가 터졌다.… 창문들이 대번 닫기고 길가에서 아이들이 달아났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고르삐나할머니가 그를 보고 웨칠 때까지 한참동안 옴짝달싹할수 없었다.
《냉큼 들어와요. 늙은 등신같으니! 무슨 일이 시작되는지 보지도 못하우?》
그런데 이때 짐까의 심장은 바로 그 총소리모양으로 거칠게 높뛰였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밖으로 뛰여나가 알아보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무서웠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잠긴 목소리로 조용히 말을 했던것이다.
《엎드려… 짐까, 마루바닥에 엎드려라. 하느님맙소사, 제발 대포만 쏘지 맙소사!》
또쁘는 눈이 둥그래가지고 책상다리에 머리를 대고 마루바닥에 꼭 엎디여있었다. 그러나 엎드려있기가 마깝지 않아서 우는 소리를 하였다.
《엄마, 난 마루바닥엔 싫어. 뻬치까우에 올라갈래.…》
《가만 엎드려있어! 가이다마크가 온다.… 오기만 하면 널 잡아가!》
바로 그 순간 무엇인지 류달리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그바람

에 창문유리들이 짜르릉 울리였는데 짐까에게는 땅바닥이 흔들리는것 같았다. (포탄이 터지는구나!) 하고 생각한 그는 어두워진 창문앞으로 몇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터벅터벅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모두 조용해졌다. 또 반시간가량 지나갔다. 그때 누군지 현관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빈 물통에 부딪치고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윽고 방문이 벌컥 열리고 무장을 한 골로웬이 들어왔다.

그는 왜 그런지 잔뜩 성이 났다. 물 한바가지를 단숨에 들이키고 보총을 귀찮은듯 구석에다 홀 내던지고는 한탄을 하는것이였다.

《제길 그놈을 그저!》

이튿날 아침에 아이들은 일찍 만났다.

《얘, 쥐간.》 하고 짐까가 물었다. 《어제 왜들 그랬는지 너 모르지? 그건 어느 패하고 그랬니?》

쥐간의 재빠른 눈은 거만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는 우쭐해서 대답하였다.

《허 그걸 몰라! 어제일은 보통일이 아니야.…》

《너 거짓말은 좀 그만둬! 너도 인차 남새밭을 가로질러 내빼는걸 내가 다 봤는데.》

《네가 어떻게 알어! 멀찍이 돌아올수도 있지!》 하고 쥐간은 성을 냈다.

짐까는 그것을 매우 의심스럽게 여겼지만 말을 꺾으려들지는 않았다.

《어제 자동차가 오다가 올리호브까에서 고장이 나서 고쳤거든. 그리구 자동차가 떠나자 가브릴라 보제놈이 종을 땡땡… 쳤는데 그건 신호였단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됐지.… 자동차가 마을로 들어서는데 거기대고 총을 쏘지 않겠어. 그래 되돌아섰지. 그런데 벌써 울타리문이 닫겼거든.》

《누굴 붙잡았나?》

《아니지.… 자동차에서 총을 쏘아대서 다가서지도 못했어. 그런데 차탄 사람들이 보니까 형편이 글렀거든. 그래서 사방으로 쭉 흩어져서 달아났지.… 그때 그 사람들을 쏘았는데 그래도 한

사람은 도망을 쳤어. 코앞에다 수류탄을 던지고말이야. 그래서 오누푸리하할머니네 유리창이 몽땅 깨졌어. 그 사람한테 대고 총들을 쏘며 쫓아갔지만 그 사람은 울타리를 뛰여넘어 남새밭으로 해서 사라지고말았어.》

《자동차는 어쨌나?》

《자동차는 지금도 거기 있는데… 못쓰게 됐어. 도망을 치게 되니까 한사람이 수류탄을 던졌거든. 아주 찌그러졌어.… 나는 막 달려갔는데…페지까 마리인이 나보다 앞서가서 나팔을 가져오지 않았겠니. 고무를 누르면 그것이 뚜 한단말이야! 》

하루종일토록 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뿐이였다. 파랭이들은 벌써 간밤에 달아났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마을은 또다시 임자가 없는대로 남아있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도망을 칠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있었다.

이제는 밥통을 훔쳐내는 일만 남았는데 그것을 래일저녁에 끝에다 못을 박은 장대기를 남새밭쪽으로 난 뙤창으로 들이밀어서 꺼내기로 결정되여있었다.

쥐간은 점심을 먹으러 갔다.

짐까는 가만 앉아있을수가 없어서 그를 기다리러 헛간쪽으로 갔다. 그는 짚무더기에 뛰여올라 맹렬히 공격해오는 슈멜리를 방어하면서 장난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는 인차 기색이 좀 달라지면서 일어섰다. 짚단들이 어쩐지 여느때 있던대로 제자리에 놓이지 않은것만 같았던것이다.

(정말 아이들이 기여들어왔댔을가? 자식들, 보자!) 그래서 짐까는 길량식을 감춘 자리를 누가 들추지나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다가갔다. 손으로 더듬어보니 그 자리에는 없었다. 비게와 성냥과 빵은 있으나 고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이런 빌어먹을 자식!》하고 짐까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건 틀림없이 쥐간이 처먹었구나. 다른 아이들이 한 노릇이라면 여기 있는걸 몽땅 먹어버렸을텐데.》

이윽고 쥐간이 나타났다. 그는 금방 점심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건드러지게 휘파람을 불며 다가왔다.

《너 고길 먹었니?》 하고 짐까가 그를 지릅떠보면서 물었다.

《먹었다!》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맛이 좋—더라.…》

《맛이 좋아?》짐까는 성이 나서 그에게 덤벼들었다.

《누가 널더러 먹으랬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나말이야? 도중에선 어떡할테야?… 이자식 대가리를 한대 박아줄게 맛이 좋은가 봐라!…》

취간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건 집에서 점심때 먹은거야. 오누푸리하할머니가 선심을 써서 국에서 한덩이 꺼내주었어. 굉ㅡ장한걸말이야!》

《그럼 여기건 누가 꺼냈니?》

《그건 정말 몰라.》

《하느님앞에 맹세할테야?》

《그렇다. 하느님앞에 맹세한다! 내가 먹었으면 이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도 좋아.》

취간이 《이 자리에서》벼락을 맞지 않아서 그랬던지 아니면 자기에 대한 비난을 그렇게도 자못 열렬하게 부정해서 그랬던지 짐까는 이번만은 례외로 취간이 거짓말을 안한것이라고 치부하였다.

그래서 짐까는 짚무데기쪽을 힐끗 보고나서 마른 나무가지에 손을 뻗치면서 슈멜리를 불렀다.

《슈멜리, 이리 좀 와!》

그러나 슈멜리는 자기와 그렇게 말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래서 새끼줄을 물어뜯다말고 꼬리를 지리끼면서 옆으로 슬슬 피하였다.

《저놈의 개가 처먹었구나!》하고 취간이 분해하면서 생각하였다. 《굉장히 기름진 고기덩이였는데!》

이번에는 더 높은데로 자리를 옮겨서 모두 다시 감추고 널판자를 덮은 다음 벽돌장을 무져놓았다. 그리고나서 앞으로 올 생활의 아릿다운 모습을 눈앞에 그리면서 오래동안 누워있었다.

《숲속 우등불곁에서 잔다.… 참 좋아!》

《밤이 캄캄한게 글렀어.》하고 취간이 유감스러운듯이 말하였다.

《캄캄하면 어때? 우리는 총도 가지고있을텐데. 우리가 제몸쯤 지켜내지 못할라구.…》

《그러다 죽이면 어떡해.…》하고 취간은 다시 말을 꺼내더니 정색을 하면서 덧붙였다. 《이봐, 난 죽이는건 싫어.》

《나도 그래.》하고 짐까는 솔직히 말하였다. 《죽이구서는 구뎅이 속에 처넣을테지.… 저기 저 사람들처럼.》그는 짙어가는 황혼속에 겨우 드러나보이는 기울어진 십자가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이 말을 들은 쥐간은 몸이 오싹해지면서 저녁날씨가 별안간 싸늘해진것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용감한체 해보이려고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하였다.

《근데 이봐.… 나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때 짐까곁에 엎드리고있던 슈멜리가 대가리를 들고 귀를 쭈뼛거리면서 무엇을 경계하듯 으르릉대기 시작하였기때문에 이야기는 중단되였다.

《너 왜 그래? 무엇이 있니, 슈멜리?》짐까는 불안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슈멜리의 낯짝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슈멜리는 잠자코 대가리를 다시 앞다리사이에 놓았다.

《쥐냄샐 맡은게구나.》하고 쥐간이 귀속말로 속삭이였다. 그리고나선 하품을 하면서 덧붙여 말하였다. 《얘, 짐까, 집으로 가야겠다.》

《이제 가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니?》

그러나 쥐간은 이제는 이야기를 할 경황이 없었을뿐더러 거짓말하려고 꾸몄던것마저 머리속에서 달아나고말았다.

《그럼 가자.》하고 짐까는 동의하였다. 그는 쥐간이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하지 않는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했던것이다.

그들은 일어섰다.

슈멜리도 일어났다. 그러나 이어 발을 떼지 않고 짚더미곁에 뻗치고 서서 어둠속에서 누가 놀려대기나 하는듯이 불안스레 으르릉거리기 시작하였다.

《쥐냄새를 맡은게구나.》하고 이번에는 짐까가 되뇌이였다.

《쥐?》하고 목갈린 소리로 쥐간이 대꾸하였다.《그렇다면 벌써부터 냄새를 맡았을게 아니야?》

그리고는 나직이 덧붙여 말하였다.

《왜 그런지 좀 춥구나. 얘 짐까, 뛰여가자! …그런데 그 도망친 볼쉐위크는 마을근처 어디에 꼭 있어.》

《네가 어떻게 알아?》

《난 그렇게 생각해! 아까 오누푸리하할머니가 소금 반종지를 꾸

러 날 고르뻬나할머니네 집엘 보내지 않았겠니. 그런데 그 할머니네 집에서는 바로 그날 울타리에 걸어놓은 샤쯔가 없어졌대. 내가 들어가는데 현관방에서 누군지 이렇게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 〈어떤 녀석이 울짱밑에다 샤쯔를 내깔렸구려. 예고리하할멈과 둘이서 봤는데 죄 째졌어요. 조금 째졌으면 몰라두 온통 째졌다니까.〉 그런데 자하리할아버지가 듣다 못해서 말하는데 〈여보, 고르뻬나…〉하고 말이야.》

여기까지 말하고 쥐간은 짐까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말을 끊었다가 그에게서 성급하게 재촉을 받고서야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자하리할아버지가 말하는데 〈여보 고르뻬나, 혀바닥을 좀 작작 놀리우.〉 한단말이야. 그때 내가 방으로 들어갔지. 보니까 걸상우에 다 찢어지고 온통 피투성이가 된 샤쯔가 있거든. 그런데 고르뻬나할머니가 나를 보더니만 제꺽 그우에 올라 앉으면서 분부를 내리는게 아니야. 〈여보 령감, 저 애한테 반종지 내주.〉 그러면서 저는 일어서질 않거든. 나는 벌써 다 봤는데두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그 볼쉐위크가 총에 맞은거라고 생각할밖에.》

뜻밖에 들은 새 소식을 곰곰히 생각하면서 잠시 말들이 없었다.

한 아이는 실눈을 한채 까딱 않고 한곳만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다른 아이의 눈은 되록거리면서 반짝이였다.

마침내 짐까가 입을 떼였다.

《그것 봐, 쥐간 너도 지껄이지 않는게 좋아. 그러지 않아도 우리마을근처에서 붉은군대들을 많이 죽였어. 모두 한사람한사람씩 끌어다가 말이야.》

그들은 이튿날 아침에 도망치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짐까는 온종일 제정신이 아니였다. 저도 모르게 차잔을 깨뜨렸지, 슈멜리의 꼬리를 밟아서 하마트면 방안으로 들어오던 할머니의 손에서 우유단지를 떨어뜨릴번했고 또 그때문에 골로웬한테서 귀청이 미여지게 뺨을 얻어맞았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다. 이럭저럭 반나절이 지나고 점심을 먹자 어느덧 저녁때가 되였다.

그들은 울타리곁의 가막총나무뒤에 몸을 의지하고 남새밭에 숨어

서 기다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좀 일찌기 서둘렀다. 그래서 아직 한참이나 사람들이 마당으로 지나다녔다. 마침내 골로웬이 오고 어머니가 또쁘를 불렀다. 그리고 앞현관에서 소리를 치는것이였다.

《짐까! 짐ㅡ까! 어데서 뭘하니?》

(저녁을 먹어야겠다!) 하고 그는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는 물론 대꾸를 할 생각은 하지조차 않았다. 어머니는 서있다못해 들어가버리고말았다.

얼마동안 기다리고있다가 그들은 몰래 기여나왔다. 헛간 바람벽곁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뙤창이 높았다. 짐까는 두손을 무릎에 짚고 허리를 굽혔다. 쥐간이 그의 잔등을 디디고 올라서서 조심히 뙤창안으로 몸을 들이밀었다.

《얘, 좀 빨리 해라! 내 잔등이 돌덩인줄 아니.》

《깜깜하구나.》 하고 쥐간이 입속말로 대꾸하였다. 그는 겨우 밥통을 갈구리에 걸어서 앞으로 잡아당겨가지고 뛰여내렸다.

《됐다!》

《얘, 쥐간!》 하고 짐까가 물었다. 《너 순대는 어데서 났니?》

《그옆에 걸려있더구나. 빨리 가자!》

그들은 날쌔게 한옆으로 몸을 감추었다. 그런데 울타리를 넘어와서 보니 갈구리를 단 장대기를 바람벽에다 그냥 세워두고 온 생각이 났다. 짐까가 되돌아갔다. 가서 장대기를 얼른 덮쳐쥐고 보니 또쁘가 울타리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호기심에 싸여 쳐다보는것이였다.

장대기와 순대를 손에 든 짐까는 어찌나 당황했던지 또쁘가 물었을 때에야 피뜩 정신을 차렸다.

《너 왜 순대를 훔쳤니?》

《얘, 이건 훔친게 아니야. 이건 쓸데가 있어.》 하고 얼른 대답하였다. 《참새새끼들한테 주려구 그래. 또쁘 너 참새새낄 좋아하지? 짹짹… 짹짹… 너 절대로 말하지 말어. 응, 말하지 않지? 내 래일 멋ㅡ있는 못을 줄게!》

《참새새낀?》 하고 또쁘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 물었다.

《그래, 줄게! 걱정말어!… 그것들이 먹을게 없어.… 참 불쌍해!》

《모다구두 주지?》
《모다구도 주마.… 너 말하지 않지, 응? 그렇지 않으면 모다구도 안주고 슈멜리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겠어.》
그리하여 짐까는 가만 있겠노라는 다짐을 받고서야 (그것이 속으로는 몹시 의심스러우면서도)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는 쥐간한테로 달려갔다.
날은 어느덧 저물어서 아이들이 밥통과 운수사나운 순대를 감추려고 헛간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벌써 어두워졌다.
《빨리 감춰!》
《응!》 하고 쥐간은 틈사이로 기여들어갔다. 《얘 여긴 깜깜하구나.》 그는 불안스러운듯이 대꾸하였다. 《아무것도 찾아보질 못하겠어.》
《저런 바보같으니, 거짓말말어. 못찾긴 뭘 못찾는다구그래? 너 겁이 났구나!》
짐까도 올라갔다. 어둠속에서 쥐간의 손을 더듬어쥐였다. 쥐간의 손은 떨리고있었다.
《너 왜 이러니?》 하고 물은 그는 자기에게도 공포가 옮아옴을 느끼였다.
《저기…》 하고 쥐간은 짐까를 더 꽉 붙잡았다.
짐까는 캄캄한 헛간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을 짓눌리는듯한 괴로운 신음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다음순간 악 소리를 지르면서 아래로 굴러떨어진 두 소년은 겁이 나서 행길인지, 구뎅이인지, 오솔길인지 가려볼 경황도 없이 들구 뛰였다.

3

이날밤 짐까는 오래도록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뒤숭숭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쥐… 누가 고기를 먹었을가? 샤쯔… 신음소리…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가?)
그는 오래도록 몸을 뒤척거렸으나 아무리해도 귀찮게 거듭되는 한가지 생각을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벌써 헛간있는데 가있었다. 짚을 밀어치우고 구멍으로 빠져들어갔다. 많은 구멍으로 흘러들어오는 해살이

덩그렇게 빈 헛간의 어둠속을 뚫고 비치였다. 필시 대문이 있었을 바깥기둥들이 자빠져서 지붕이 입구를 꽉 막고 물러앉았었다. (여기인데.) 하고 생각하면서 짐까는 기여갔다. 흩어진 생벽돌무더기뒤로 돌아서자 그는 겁이 더럭 나서 발길을 멈추었다. 구석쪽에 어떤 사람이 짚우에 얼굴을 떨어뜨리고 누워있었다. 바시락소리를 듣자 그 사람은 머리를 들면서 한옆에 딩굴고있는 나간권총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기운이 모자라서 그랬던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리유에서였던지 그는 잠시 피기진 흐린눈으로 쳐다보더니 손을 펴고 권총을 놓았다. 그리고는 몸을 조금 일으키면서 겨우 혀를 놀리여 갈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물 좀 다고!》

짐까는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하늘엔 뭇별들이 반짝이였다. 이 낯설은 부상자가 언젠가 자기를 골로웬의 손에서 구해준 사람임을 알아보았을 때 짐까는 놀란 나머지 하마트면 소리를 지를번하였다.

모든 공포, 모든 의혹은 사라지고 그렇게도 열렬히 옹호해준 그 사람이 가엾다는 생각만이 남았다.

짐까는 밥통을 덥석 쥐고 강가로 물을 뜨러 내달렸다. 갔다가 달음질쳐 돌아오던 길에 그는 자칫했더면 저의 어머니와 젖은 빨래감을 맞들고 나가던 마리인 페지까와 마주칠번하였다. 짐까는 얼른 나무덤불속으로 들어가서 내다보았다. 페지까가 호기심에 자기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걸음을 늦추었다. 만약 어머니가 이내 광주리가 무거워지는것을 느끼고 《어서 가자, 도깨비같은 자식, 눈은 왜 팔아?》하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지 않았던들 필시 페지까는 누가 그렇게도 급작스레 나무덤불속으로 숨어버렸는가를 알아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였을것이다.

짐까가 돌아와보니 그 사람은 누운채 눈을 감고서 마치 꿈결에 그 누구와 이야기라도 하는듯 가볍게 입술을 움지락거리고있었다. 짐까는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자기앞에 있는 소년을 본 그는 말라든 입술에 희미한 미소와 같은 그 무엇이 떠올랐다.

물을 마시고난 그는 인제는 맑은 목소리로 똑똑하게 물었다.

《붉은군대는 먼데 있느냐?》

《먼데 있어요. 도무지 소식을 몰라요.》
《그럼 도시에는?》
《아마 뻬뜰류라네 패가 있나봐요.…》
부상자는 고개를 떨구고 짐까에게 물었다.
《얘야,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지?》
이 말이 어떻게나 근심에 차있는것으로 들리였던지 짐까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하지 않겠다는것을 확신시키려고 들었다.
《쥐간 한사람만 내놓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너하구 도망치려는 애말이냐?》
《그래요,》 하고 짐까는 무안해하면서 대답하였다. 《참 저기 그 애가 왔나봐요.》
찌꼴새가 자지러지게 떨리는 소리를 늘어지게 뽑았다. 그것은 자기 동무가 어디로 사라져서 놀란 쥐간이 짐까를 찾는 소리였다.
구멍으로 머리를 불쑥 내민 짐까는 소리를 칠념도 안하고 그에게다 돌멩이를 슬쩍 던졌다.
《너 어떻게 됐니?》 하고 쥐간이 물었다.
《쉬! 이리루 올라와.… 일이 있어.》
《그럼, 부를게지 돌멩인 왜 던져? 그래 벽돌장을 던질 생각은 안나던?》
두 소년은 구멍안으로 들어갔다. 낯선 사람과 짚우에 놓인 시꺼먼 권총을 본 쥐간은 그만 겁이 나서 우뚝 멈춰섰다.
낯선 사람은 눈을 뜨면서 심상하게 물었다.
《너희들이냐?》
《얘가 그 쥐간이예요!》 하면서 짐까가 슬쩍 쥐간을 앞으로 떠밀었다.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조금 끄덕이였다.
짐까는 자기네 저축물가운데서 빵 한덩이와 어제 그 순대를 가져왔다.
부상자는 굶주렸었지만 처음에는 조금밖에 들지 않고 물만 마셨다.
쥐간과 짐까는 그동안 내내 말이 없이 잠자코 앉아있었다.
그 사람은 파랭이들의 총알에 다리를 맞은데다가 사흘동안이나

물 한모금 입에 대지 못하여 몹시 지쳤었다.

요기를 좀 하고나니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의 눈에는 영채가 돌기 시작하였다.

《애들아!》 하고 그는 이젠 아주 똑똑히 말하였다.

그래서 짐까는 지금 그 목소리를 듣고 골로웬에게 《때리면 안돼.》 하고 소리치던 그 낯선 사람을 다시 한번 똑똑히 알아보았다.

《너희들은 참 기특한 아이들이야.… 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걸 자주 들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말만 내면 대번에 날 죽일거다.…》

《아마 그러진 않을거예요!》하고 쥐간이 자신없이 한마디 끼였다.

《아마 그러진 않을거예요란건 뭐야?》하고 짐까가 성을 냈다.

《안그러겠으면 안그런다고 하면 그만이지.… 아저씨, 저 애 말은 듣지 말아요.》

짐까는 눈물이 글썽해서 그 사람에게 애원하다싶이 말했다. 《정말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약속을 지켜요.… 입만 벌리면 두들겨패라요.…》

그런데 쥐간은 자기가 무슨 망측스러운 말을 했다는것을 스스로 깨닫고 미안해하는듯한 목소리로 대꾸하였다.

《그런데말이야, 짐까 나도 그래.… 아마라는건 절대로란 뜻으로 한 말이야.》

그때 짐까는 그 사람이 또 빙긋이 웃는것을 보았다.

점심을 먹을 때 가만히 앉아있던 또쁘가 뜻밖에도 지껄여대기 시작하였다.

《짐까, 모다구 빨리 줘, 안주면 너 순대 가져간거 엄마한테 대준다.》

짐까는 하마트면 감자알에 목이 멜번하였다. 그는 걸상을 요란스레 덜컹거리였다. 다행히도 골로웬은 집에 없었고 어머니는 뻬치까에서 국을 떠내고있었으며 할머니는 가는귀를 먹었었다. 짐까는 발로 또쁘를 쿡 찌르면서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점심 좀 먹게 가만있어. 너 주려구 벌써 얻어뒀어.》

(재수없는 자식같으니!) 하고 짐까는 걸상에서 일어서면서 생각하였다.(종내 혀바닥을 놀리구야 말았구나.)

그는 얼마동안 찾다가 헛간 바람벽에서 큼직한 못을 하나 뽑아다

가 또쁘에게 주었다.
《너무 커. 짐까!》하고 또쁘는 민하게 생긴 굵다란 못을 놀란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대꾸하였다.
《크긴 뭐가 커? 또쁘, 이게 좋은거야, 너무 작은거야 뭣에다 쓰겠니. 한번 치면 쑥 들어가버리고말거든. 그렇지만 이건 오래 앉아서 뚝딱 뚝딱!… 할수 있거든, 이게 좋은거야!》
그날 저녁 쥐간은 오누푸리하할머니네 집에서 붕대로 쓸 깨끗한 아마천쪼박을 찾아냈다. 그리고 짐까는 자기네 저축물가운데서 좀 큼직한 돼지비게덩이를 가지고 가서 요드팅크를 얻어오려고 마음먹었다.

뻬를라무뜨리신부는 길다란 실내옷바람에 장화까지 벗어던지고 널직한 안락의자에 누워서 벌써 지난해에 대포에 맞아 타버린 교회당때문에 모든 일이 틀어지는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잠시 누워있다가 그는 인차 다가올 교회 제례일과 그 명절과 뗄수 없는 좋은 일을 상기하였다. 그래서 돼지고기, 빠다그릇, 맵시있는 크림단지들의 형상이 아마 뻬를라무뜨리신부의 생각을 딴 방향으로 돌아서게 한 모양으로 그는 점잖게 기침을 헝 깇고는 히죽이 웃으면서 무엇인가 생각하였다.
짐까는 방으로 들어가서 돼지비게덩이는 등뒤에 감추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뻬를라무뜨리신부는 후 한숨을 쉬고 눈길을 짐까에게로 돌리면서 그냥 누운채로 묻는것이였다.
《너 이 녀석, 나한테 왔냐, 사모님한테 왔냐?》
《사모님한테 왔어요, 신부님.》
《음… 사모님은 어데 가고 없어. 그동안 내가 대신 본다.》
《어머니가 보내서 왔어요. 좀 다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요드팅크를 조금 주시지 않나 가보라고 했어요. 그리구 병도 보냈어요.》
《병을… 음…》하고 뻬를라무뜨리신부는 의심스러운듯 헛기침을 한번 하였다. 《병을 보냈다!— 그런데 이 녀석, 뒤에 쥐고있는건 뭐냐?》
《돼지비게덩이예요. 어머니가 약을 주면 인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

《약을 주면?》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오—호》 하고 뻬를라무뜨리신부는 일어나면서 중얼거렸다. 《그저 보내는 법은 없구, 약을 주면 주라구.》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래, 그 비겔 이리 내라.… 오래된거로군!》
《새건 아직 잡지 못했어요, 신부님.》
《나도 안다. 오랜거래도 기름이나 좀 진걸 보낼거지.… 병이 어데 있냐? 아니 네 어머니가 사이다병은 보내지 않더냐? 이렇게 큰 병에다 가득 채우란말이냐?》
《신부님, 거기다 두골미만 주세요. 그보다 더 작아서야 어데다 바르겠어요?》
신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시 서있었다.
《너 가서 어머니더러 오라고 해라. 내 손으로 발라줄테니, 약을 가져가긴… 바르기만 하면 될텐데.》
짐까는 머리를 딱 잡아 흔들었다.
《음… 너 머리는 왜 흔들어?》
《신부님, 어서 넣어주세요.》 하고 짐까는 속이 달아서 말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당부했어요. 〈약을 주지 않으면, 얘야, 비게를 도로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이예요.》
《그럼 네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라. 〈선사하는자는 자기 물건을 아까와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면목이 없느니라.〉 하고, 그래 외울만하냐?》
《외울만해요! …그렇지만 약은 넣어주세요, 신부님.》
뻬를라무뜨리신부는 맨발에 덧신을 신고 (짐까는 그 신발이 터무니없이 큰데 놀랐다.) 돼지비게를 덥석 쥐더니 병을 들고 다른 방으로 갔다.
《자 받아라.》 신부는 방에서 나오면서 말하였다. 《선심을 쓰는줄이나 알아라.…》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너의 집 암닭은 알을 낳느냐. 응, 이 녀석?》
《선심을 쓴다구요!》 하고 짐까는 성을 냈다. 《절반도 못되는데…》

그리고는 다시 묻는 말에 문을 나서면서 능청스럽게 대답하였다.
《신부님, 우리 집엔 암닭은 없구요, 수닭만 있어요.》

그런데 붉은군대에 대한 소문은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남몰래 자주 헛간으로 가서는 그 낯선 사람 곁에서 오래도록 시간을 보냈다.
그는 즐겨 아이들과 더불어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때로는 롱담까지 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특히 전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만은 량미간에 주름살이 잡혔으며 입을 봉한채 오래도록 무슨 생각에 잠기군하였다.
《얘들아, 그래 거기 소식을 못들었느냐?》
《거기》라는것은 전선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마을에는 앞뒤도 맞지 않은 맹랑한 소문들이 떠돌고있을뿐이였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그 사람은 얼굴을 찌프리고 몹시 신경을 썼다. 매 시각 다가오는 위험보다도, 자기 운명에 대한 공포보다도, 정세를 모르는것, 활동을 못하는것, 확정할수 없는 자기의 딱한 처지가 보매 그를 더 괴롭히는듯하였다.
소년들은 둘이 다 그 사람에게 정이 들었다. 더우기 짐까가 그러하였다.
하루는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고 집을 나온 짐까는 슬픔에 잠긴 쓸쓸한 얼굴을 하고 헛간으로 갔다.
《골로웬이 때려요.…》 하고 그는 하소연하였다. 《나때문에 어머니를 못견디게 굴어요. 또쁘까지도… 삐쩨르로 아버지를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갈수가 있어야지요.》
《왜 갈수가 없어?》
《통과시키지 않으니까요. 별의별 증명서가 다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차표는 어디서 얻구요? 그런게 없이는 못가요.》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붉은군대만 있다면, 짐까야, 내가 증명서를 얻어주련만.》
《아저씨?!》 짐까는 반색을 하였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벌써부터 궁금해하던 질문을 하였다. 《아저씨는 누구야요. 난 알아요. 아저씨는 기관총분대장이지요. 언젠가 아저씨곁에 〈류

이스〉(기관총의 한가지)를 든 전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빙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것은 그렇다는 표시같기도 하고 아니라는 표시같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짐까는 더욱더 마음을 조이면서 붉은군대가 한시바삐 왔으면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쾌한 일이 점점 더 많이 닥쳐왔다. 인정머리 없는 또쁘는 다섯번이나 못을 요구해서 매번 그것을 받고서도 끝내 어머니에게 지껄이고야 말았다. 그다음에는 어머니가 바지주머니에서 짐까가 부상자에게 주려고 훔쳐넣었던 써레기담배부스레기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제일 불쾌한 일은 오늘 일어났다. 뻬를라무뜨리신부가 명절날에 바칠 희사금때문에 짐까네 집에 들렸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면서 한마디 꺼냈다.
《그렇게 오래된것도 비게라고 줘요. 약값으로 닭알이나 여라문개 더 보낼게지.…》
《약이라니 무슨 약 말씀이예요?》짐까는 뒤가 켕겨서 의자에서 안절부절하였다. 그리고 자기에게 쏠린 시선들에 그만 몸을 움츠렸다.
《내가 어머니… 아니, 우리 슈멜리한테…》하고 그는 어물거리며 대답하였다. 《그게 가죽이 몹시 벗겨졌거던요.…》
모두들 잠자코 있었다. 그것은 골로웬이 긴걸상에 나앉으면서 말을 했기때문이였다.
《내 오늘 네놈의 개새끼를 쏴죽이고말겠다.》 그리고나서 어쩐지 이상스럽게 쏘아보면서 덧붙였다. 《게다가 또 너는 거짓말까지 하누나.》 그리고는 더는 말이 없었고 신기하게 때리지도 않았다.
《원 이런 변도 있나! 그따위 짐승에다, 그런 짐승에다 그런 귀한 약품을 쓰다니.》하고 뻬를라무뜨리신부는 분개해서 뇌까렸다. 《거짓말을 한자는 죄를 두배로 짓느니라, 땅과 하늘에.》 그는 의미있게 엄지손가락을 뽑아들고 눈길을 마루바닥에서 천정으로 옮기였다. 그리고 자기의 말이 응당한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확신하고 어머니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그럼 나는 열개는 더 받을것으로 알고있겠소.》
그날 저녁 집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다본 짐까는 골로웬이 울타

리결에 서서 자기뒤를 유심히 살피고있음을 눈치채였다.
그는 일부러 강가로 길을 잡았다.
《짐까, 마을에서 우리 그 아저씨 이야기들을 하고있어.》하고 쥐간이 만나자마자 그를 뻥뻥하게 만들었다. 《말들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까운 곳에 있을거라는거야, 샤쯔가 나졌지. … 게다가 또 교회당지기 쏨까가 고르삐나할머니네 울타리결에서 수첩을 얻었는데 그것도 피가 묻은거래. 나도 책장을 하나 봤어. 흰건데 한쪽 귀에 〈P.B.C〉(혁명군사위원회의 략어)란 글자가 있고 또 시계바늘같은 막대기들이 있더라.》
짐까는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것 같았다.
《얘, 쥐간》하고 그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지만 입속말로 속삭이였다. 《너 그쪽으로 곧장 가지 말고… 빙 둘러가라,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야.》
그들은 그 아저씨에게 위험을 알려주었다.
《어찌겠니.》하고 그는 말하였다. 《좀 더 조심을 할밖에 응, 구원을 못받게 되면 그때엔 하는수가 없지.…그렇게 값없이 죽고싶질 않다만…》
《그럼 어이있게라면요?》
《그런 말은 없어. 짐까, 그저 값싸게만 아니라면 괜찮지.》
《그런 노래도 있어요.》하고 쥐간이 불쑥 말참견에 뛰여들었다. 《지금같지만 않으면 내가 노랠 불렀을텐데… 참 좋은 노래예요. 공산당원을 끌어내왔는데 그 사람은 사형장에서 자기를 총살하려는자들에게 떳떳하게 말해요. 〈우리는 안다. 무엇때문에 싸우는가를, 우리는 안다, 무엇을 위해 죽는가를〉 하고 말이예요.… 말로만 해서는 맛이 안나요. 군대들이 전선으로 나갈 때 그걸 부르는데… 철도종업원들이 모두 입을 딱 벌리고 멍해서 듣질 않겠어요.》
그들은 한사람씩 따로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짐까는 먼저 갔는데 그는 정직하게 강가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쥐간은 그 무사태평한 성미로 해서 약속을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물을 길어오려고 그 아저씨의 물통을 들고 제일 가까운 길 남새밭을 지나서 가고있었다. 그는 공상에 잠겨서 휘파람까지 불기 시작했는데 무엇인가 나무덤불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곧 그

쳐버렸다.
《서라, 이 망할 자식!》하고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서지 못해, 개자식!》
그는 깜짝 놀라서 흠칫 물러서다가 옆으로 냅다뛰였다. 그 어떤 울타리를 뛰여오르는 순간 누군가 한쪽 바지가랭이를 꽉 거머쥐는것을 느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냅다찼는데 아마 면바로 그자의 상통을 찬 모양이였다. 그리고는 울타리를 넘어뛰여 배추밭에 떨어지자 물통을 내깔리고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간 짐까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곧 잠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20분도 되나마나하여 골로웬이 욕설을 퍼부으며 집으로 들어오더니 대번 어머니에게 큰소리를 치는것이였다.
《그 악마새끼같은놈을 영 사족을 못쓰게 만들어야겠소. 뒤다리로 내 얼굴을 찼단말이요. 아예 죽여버리고말아야지.…》
《언제 찼어요?》하고 어머니는 더럭 겁을 내며 물었다.
《언젠가구? 이자 방금말이요.》
《그 앤 벌써 자는지두 오랬는데.》
《무어 빌어먹을것! 금방 달려온게로군. 구두뒤축으로 내 얼굴을 짓쪘는데 그래 그 자식이 잔다구?》
그리고나서 그는 문을 벌컥 채며 짐까에게로 가려했다.
《이게 무슨 일이예요! 예, 이게 무슨 일이예요!》하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구두뒤축은 무슨 구두뒤축말이예요? 그 앤 봄부터 신이라군 신어본적이 없어요. 그 앤 맨발로 다녀요! 누가 사주기나 했어요?… 어떻게 정신이 나갔어요?》
아마 골로웬도 짐까에게 신발이 없다는것을 깨달은 모양이였다.
그는 멈춰서서 욕설을 퍼붓고는 방안으로 들어왔다.
《음…》그는 물통을 책상우에 내던지고 쪽걸상에 걸터앉으면서 웅얼거렸다. 《실수했군.… 그런데 어떤놈이 어디에다 그 자식을 숨겼나? 샤쯔가 나지고, 책장이 나지고, 물통이 나지고…》그리고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덧붙였다. 《어쨌든 그놈의 개는 내가 죽여버렸소.》
《아니 죽이다니요?!》하고 어머니는 되물었다.
《죽였소, 대가리를 한대 갈겼더니 그저 끝장이 나더군.》
짐까는 반슈바에 얼굴을 파묻고 외투를 푹 뒤집어쓰고서 몸을 들

먹거리며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슬프게슬프게 울었다.
모두 조용해지고 골로웬이 건초간으로 나갔을 때 어머니는 짐까한테로 다가와서 그가 흐느끼는것을 보고 달래면서 말하였다.
《얘 짐까야, 이젠 그만 울어라! 개같은걸 다 가지고…》
그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짐까의 눈앞에는 꼬리를 내젓는 귀여운 슈멜리의 모습이 더욱 똑똑하고 선하게 떠올라서 그는 한층 더 들먹이면서 눈물에 젖은 양털에 머리를 더 꾹 눌러대였다.…

《얘, 그게 뭐냐?》하고 짐까는 한마디 했을뿐 더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쥐간은 그 말에서 얼마나 비통해하고 노여워함을 느꼈던지 그만 당황하여 어찌할바를 몰랐다.
《내가 알고 그랬니? 짐까.》
《〈알고〉! 그래 내가 뭐랬어? 좀 돌아가는게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그랬어? 그래 지금 무슨 꼴이 됐나말이야? 골로웬이 말안장을 얹는데 어데 갈모양이야. 그래 어데로 가겠니? 거야 료브까나 또 어데 그런놈한데 갈게 빤하지, 수색을 하려고!》
그 아저씨도 쥐간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길에는 가벼운 비난이 보였을뿐이였다. 그는 부드럽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좋은 애들이야.…》그리고는 마치도 자기 일이 아닌것처럼 성도 내지 않았다.
쥐간은 우두커니 서있었는데 그의 눈은 여느때처럼 되록거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변명을 할 여지가 없었고 또 할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얼굴을 찌프리며 묻지도 않는 대답을 하였다.
《붉은군대는 도시에 있대요. 거지 아부제이가 왔어요. 많은데 거의다 말을 탔대요.》이렇게 말하고나서 그는 눈을 들고 여전히 죄스러워하는듯한 목소리로 나직이 말하였다. 《내가 한번 가봤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갈수 있을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짐까는 놀랐다. 그 아저씨도 자기를 엄숙하게 눈여겨보는 소년의 커다란 검은 눈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어데서 별안간 그런 결단성이 생겼는지 쥐간자신은 더욱 놀랐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아저씨는 수첩을 얼른 한장 찢

었다. 그리하여 그가 글을 쓰는 동안에 짐까는 종이장의 왼쪽 끝에 바로 그 수수께끼같은 《P.B.C》란 세 글자와 다음에는 시계바늘같은 막대기를 그려넣는것을 보았다.

《자.》하고 아저씨는 글쪽지를 주면서 말하였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쥐간…십자표 두개로 암호를 써넣었다. 이 부호만 가지면 어느 병사든지, 밤이건 어느때건 대번에 상관한테 보내준다. 걸려들지 않게 조심해라.》

《너 또 망쳐먹지 말아라야.》하고 짐까가 한마디 보태였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만둬. 내가 갈게.》

그러나 쥐간의 눈은 또다시 반짝이기 시작하였고 여전히 우쭐하는 어조로 대꾸하였다.

《나도 알어. 내가 뭐 처음인줄 아니?》

그리하여 구멍으로 뛰여나간 쥐간은 좌우를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것이 하나도 눈에 띄우지 않자 큰 길을 가로건너 한옆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쥐간이 큰 길에 나섰을 때 해는 아직 니꼴스끼수풀우에 높이 걸려있었다. 이때 바로 그 길로 말을 탄 골로웬이 쥐간옆을 훌쩍 지나 어디론지 쏜살같이 달려가고있었다.

수풀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쥐간은 밀가루와 돼지비게를 실은 짐마차들을 따라잡았다. 마차에는 보총을 든 사람 다섯이 앉아있었다. 짐마차들은 슬금슬금 굴러갔다. 그러나 쥐간은 서둘러야만 하였다. 그래서 그는 덤불속으로 돌아서 큰길로 가지 않고 수풀변두리로 해서 질러갔다.

노란 꽃대들이 자란 풀밭이 나타났다. 나무그늘에서는 갈파리들이 앵앵거리기 시작하였다. 산딸기, 산열매들이 얼굴을 빠끔히 내밀고있었다. 그는 걸어가면서 한알 따고 두알 따고 했으나 한순간도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한 십리 단숨에 왔구나!)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체만 되지 않으면 좋은데.)

옹이박이 나무가지들이 걸음을 더디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큰길로 나섰다. 굽인돌이를 돌아서자 그는 실눈을 하였다. 지는 해의 발가우리한 질은 빛발이 곧장 마주 비치였다. 키높은 단풍

나무 꼭대기에서는 무슨 새새끼가 저녁때를 알리는듯 지저귀고 나무덤불속에서는 무엇인가 푸드득거렸다.
《어—이!》하는 그닥 높지 않은 웨침소리를 그는 들었다. 돌아다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이, 꼬맹이, 이리 와!》
그는 길숲의 그리 크지 않은 나무더미뒤에서 보총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있는듯한 두사람을 보았다. 그옆에 있는 나무곁에 그들의 말이 서있었다.
《너 어데서 오니?… 어데로 가니?》
《저기서…》그는 손짓을 하고 다음 말을 궁리하느라고 떠듬거렸다. 《마을에서 와요. 암소가 달아났어요.… 어데서 보지 못했어요? 털이 불그레한데 한쪽 뿔을 잘랐어요. 정말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그걸 못찾으면 돌아도 못가요.》
《못봤다. 송아지는 한놈 여기서 쏘다니댔는데 우리 친구들이 벌써 아침에 먹어치웠지. 그런데 너 무슨 짐마차들을 만나지 못했니?》
《웬 짐마차들이 오구있어요. 아마 이젠 거의다 왔을거예요.》
마지막 말이 질문하던자들의 흥미를 몹시 끌었던 모양으로 그들은 인차 말들한테로 갔다.
《올라타!》 한자가 말을 끌면서 웨쳤다. 《내뒤에 앉아.》
《난 집으로 가야 해요. 난 암소를…》하고 쥐간은 애처롭게 부르짖었다. 《날 어데로 가자구…》
《올라타라면 타기나 해, 조금만 가서 내려놔. 그렇지 않으면 네놈이 짐마차군들한테 함부로 지껄일거다.》
쥐간은 자기는 암소를 찾아야 한다고, 집으로 가야 하고 짐마차군에게는 한마디도 지껄이지 않으리라는것을 아무리 다짐을 했어도 헛수고였다. 그래서 그는 천만뜻밖에도 한 파랭이의 꽁무니뒤에 앉게 되였다. 전속력으로 달렸다. 다른 때 같으면 이것은 그에게 정말로 커다란 만족을 주었을터이지만 지금은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내뱉듯 던지는 몇마디 말에서 그들은 지금 수풀속에서 그 무엇을 기다리고있는 료브까네 부대로 가고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더구나 그러하였다.
(골로웬이란놈이 거기에 있으면) 하는 생각이 피뜩 머리에 떠올

랐다. (대번에 드러날텐데, 그때엔 어떻건다?) 그는 그만 마음을 사로잡는 공포로 하여 앞뒤를 생각할 사이도 없이 말잔등에서 팽이처럼 굴러내려 큰길에서 넙다뛰였다.

《어델 가? 요 마귀새끼같은놈이.》 하고 한자가 말을 급히 세우면서 총을 겨누었다.

만약 다른놈이 자기 친구의 팔을 탁 잡으며 《가만있어! 뭘 쏜다구 그래, 일을 모두 망쳐먹을라구?》 하고 성을 내면서 소리를 치지 않았던들 아마 쥐간은 미처 나무있는데까지 가닿지 못했을것이다.

쥐간은 빽빽한 숲속으로 뛰여들어갔다기보다 돌격을 해 들어갔다. 숲이고 나무덤불이고 마구 헤치고 깊은데로 자꾸만 들어갔다.

우거진 사시나무숲속에 이르러 말을 타고서는 절대로 여기까지 들어올수 없다는것을 깨달았을 때에야 그는 숨을 돌리려고 걸음을 멈추었다.

(료브까!)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골로웬이란놈은 틀림없이 그자들한테로 왔어.) 그러자 그는 대번에 심장이 오그라드는것만 같았다. (어둡기전에 오지만 말어. 밤에는 암만해도 찾아내질 못할게구. 아침에 아마 붉은군대들이…)

큰길에서 총소리가 땅 하더니 또 한방 그리고는 몰방으로 터졌다. (짐마차군들과 해대는구나.) 하고 그는 짐작하였다. (빨리 가야겠는데. 여긴 젠장 길이 있어야지.)

그러나 수풀은 얼마 안가서 성글어지고 그의 앞에는 또다시 큰길이 나졌다. 쥐간은 후 하고 한숨을 쉬고 앞으로 내달렸다. 20분도 못돼서 어디론지 서두르는 한 부대가 속보로 말을 몰아 그를 맞받아 나는듯이 달려왔다. 어느새에 말탄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는지 그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놀란 눈으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들가운데 골로웬을 보았을 때 그만 겁에 질려 기절을 할번하였다. 그런데 그자는 겨우 한두번밖에 쥐간을 못봐서 낯이 익지 않아 그랬던지, 혹은 이런 곳에서 그 소년을 만나리라고는 생각조차 안한때문이였던지 아니면 아마 서둘러 얹은 너절한 안장의 북두끈을 조이느라고 그랬던지는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쥐간에게는 아무런 주의도 돌리지 않았다.

《요 꼬마야.》 희슥희슥한 코수염이 난 살찐 자가 그에게 물었다.
《어데로 가는거야? 마귀새끼갈으니.》
《마을에서 와요.…》 하고 쥐간은 말을 시작하였다. 《우리 암소가… 까맣구 점이 박힌건데요.…》
《거짓말말어! 여긴 마을이라군 하나도 없어.》
쥐간은 더욱 놀라 떠듬거리며 대꾸하였다.
《여긴 아니야요.… 총을 쏘는게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얘, 말을 들었니?》 하고 처음 말하던 자가 말허리를 꺾었다.
《내가 뭐라든가, 어데서 총을 쏘던가고 묻지 않던가?》
《정말 쐈어요.》 하고 쥐간은 무엇인가 짐작이 가서 얼른 말을 꺼냈다. 《니꼴스끼 큰길에서 쐈어요. 농사군들이 꼬졸루쁘한테루 식량을 싣고 가댔어요. 그런걸 료브까네 사람들이 습격했어요.》
《뭐 습격을 했어?》 하고 파랭이는 성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그 죽일놈들이!》
《정말이예요. 습격했어요. 내가 들었는데 말들 하길 꼬졸루쁘란 놈 탁 뒈지기나 하지. 피둥피둥 살이 쪄서… 돼지새끼처럼 처먹기만 하구, 늙은 귀신이…》
《모두들 들었나?》 파랭이는 꿱꿱 소리지르기 시작하였다. 《내가 돼지새끼처럼 처먹기만 한다구?》
《처먹는다구 그랬어요.》 하고 쥐간은 확증을 하였는데 그의 혀는 사뭇 매돌이 돌아가듯 놀았다. 《그놈이 이제 대가리만 내밀면 단단히 맛을 뵈여주겠다구 벼르고있어요.…나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건 모두 그 사람들이 한 말이예요.》
쥐간은 꼬졸루쁘의 인격을 모욕하는 말을 아직 몇십개라도 꾸며댈만 하였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자는 그만 성이 꼭두까지 치밀어서 무섭게 으르대였다.
《말들을 타!》
《저 꼬마새끼는 어떻게 하라우?》 하고 한놈이 쥐간을 가리키며 물었다.
《앞으로 다시는 그따위 수작을 못듣게 채찍으로 한대 갈겨줘.》
부대는 한쪽으로 달려갔고 쥐간은 아무 리유도 없이 잔등을 한대 얻어맞고 이번에도 그렇게 쉽게 떨어져나온것을 기뻐하면서 다른쪽으로 내달렸다.

(이제 서로 물구 뜯을거야.) 하고 쥐간은 달려가면서 생각하였다. (그러나 놈들이 알아챘을 때는 벌써 밤이 될거다.)

황혼이 지나갔다. 별이 총총 나고 어둠이 깃들었다. 그러나 쥐간은 숨을 헐떡거리며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숨을 돌리느라고 멈춰서기도 하였다. 한번은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어둠속에서 시내를 찾아 찬물을 몇모금 마셔 타는 목을 추기였다.

한번은 길가에 외로이 서있는 끼우뚱한 십자가에 부딪치고 깜짝 놀라 뒤걸음질을 쳤다. 그는 점점 절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였다.

달려도 달려도 끝이 없었다. 벌써 오래전에 길을 헛갈렸는지도 모를 일이였다. 길을 물어볼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나 물어볼래야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늙어빠진 황소잔등에 올라탄 농사군들도 우등불결에 자리잡은 풀베는 사람들도 말을 보는 아이들도 도시에서 늦어 돌아오는 행인들도 만나지 못하였다. 어두운 길은 텅 빈채 괴괴하였다. 다만 찌꼴새가 목청을 돋구어 지저귈따름이였다. 다만 그놈 하나만이 잠잠해진 대지의 무시무시한 밤을 두려워함이 없이 소리높이 비웃고있었다.

쥐간이 하다못해 아무것이라도 나서겠거니 하던 모든 희망을 아주 잃었을 때 이번에는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또 일이 생겼군! 자, 이젠 어느 길로 간다? 》그는 우뚝 멈춰섰다.

괙괙…하는 그닥 크지 않은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였다.

《게사니구나!》그는 하마트면 소리를 지를번하였다. 그제야 나무덤불뒤 거의 코앞에 있는 조그마한 농가를 알아보았다.

소년이 아니라 곰이라도 집으로 다가가는듯 개가 기를 쓰며 짖어대였다. 놀라난 돼지들이 꿀꿀거리기 시작하는데 쥐간이 문을 두드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 좀 열어줘요!》

처음에는 잠잠하였다. 이윽고 집안에서 기침소리와 버스럭소리가 나더니 아낙네의 목소리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하느님맙소사. 누가 또 왔나?》

《문 좀 열어줘요!》하고 쥐간이 되뇌였다.

그러나 아닌 밤중에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줄 그런 시기가 아니였다. 그래서 누군지 석쉼한 굵은 목소리로 잠결에 물었다.

《거 누구요?》
《문을 좀 열어줘요! 나예요. 쥐간이예요.》
《빌어먹을, 쥐간은 또 뭐야? 내 이제 베르단총을 문에 대고 네놈을 한방 갈기겠다!》
쥐간은 얼른 옆으로 비켜서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부르짖었다.
《쥐간이 아니예요! 쥐간이 아니구…그건 별명이예요. 이름은 와시까예요. 난 아직 아이예요.…나는 어느 길이 도시로 가는건지 물으려고 그래요?》
《저쪽으로 난게 도시로 가는게구 다른건 뽀드두보브까로 가는거다.》
《두길이 다 저쪽으로 났는데요!…문밖에서야 알 재간 있어요?》
문안에서는 분명 어쩔가 궁리를 하는듯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럼 퇴창있는데로 오너라. 여기서 가리켜줄테니, 들여놓는건… 안돼! 아이라고 얕볼수야 없지. 네뒤에 황소같은게 버티고있는지 누가 안담.》
퇴창이 열리고 쥐간에게 길을 가리켜주었다.
《멀지 않아. 한 5리가량밖에 안돼.… 수풀기슭을 지나면 인차 있다.》
《그저 그밖에 안돼요!》그리고는 희망에 날개가 돋친 쥐간은 또다시 달음질쳐가기 시작하였다.

꼬부라진 길거리에서 순찰병이 느닷없이 그를 세우더니 참모부를 가리켜주었다.
잠에 취한 붉은군대병사는 뜨직해서 대답하였다.
《글쪽지는 또 무슨 글쪽지야! 아침에 와.》그러나 긴급암호인 십자표식을 보자 글쪽지를 받아들고 불렀다. 《여, 이봐! 당직은 어데 있어?》
당직은 쥐간을 흘끔 보고나서 글쪽지를 폈다.
그리고 왼쪽귀에 있는 그 수수께끼같은 《P.B.C》란 세 글자를 알아보고는 인차 등불을 바투 가져다댔다. 그리고 다 읽고나자 그는 곧 전화통으로 가서 《부대장을 찾소!… 정치위원을 찾소!》하고는 조급하게 방안을 왔다갔다 하였다.

두사람이 들어왔다.

《그럴수가 있나!》하고 한사람이 놀라며 부르짖었다.

《그분이요! 틀림없이 그분이요 !》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며 말을 가로챘다.

《그분의 수표구 그분의 용지요. 누가 가져왔소?》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시선은 한 구석에 잠자코 서있는 쥐간에게로 쏠리였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새까만 옷을 입고… 장화를 신었어요. 그리고 별을 달았는데 거기엔 붉은기가 붙어있어요.》

《옳지, 옳지, 훈장이요!》

《빨리 가야 해요.》하고 쥐간이 덧붙여 말하였다.《좀 있으면 날이 밝아요.… 그럼 악당들이… 찾아내기만 하면 죽여요.》

그리하여 대소동이 일어났다. 모두들 뛰여다니고, 전화가 찌르릉거리고, 말발굽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지칠대로 지친 쥐간은 이 모든 소란가운데서 여러번 되풀이된 《물론 우리 군대요. 그분이요! 혁명군사위원이요!》하는 말을 가려들었다.

자지러지게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말발굽소리에 유리창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어데 있소?》문을 벌컥 열고 모젤권총에 군도를 찬 군관이 들어왔다.

《너냐, 응? 와씰리첸꼬, 저 앨 동무말에 같이 태우오.》

쥐간이 미처 어쩔사이도 없이 누군지 억센 손으로 그를 훌쩍 들어서 말잔등에 올려앉혔다. 그리고 또다시 나팔소리가 울리였다.

《빨리 가오!》 하고 누군가 앞현관에서 명령조로 소리쳤다.

《꼭 성공하기를 바라오!》

《알았습니다!》 수십명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대답하였다.

《앞으로－갓!》

그러자 기마부대는 땅을 차고 달리여 어둠속을 뚫고 들어갔다.

한편 그 아저씨와 짐까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귀를 도사리고있었다.

《집으로 가려무나.》하고 아저씨는 여러번 짐까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짐까는 번번이 고집을 세우며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싫어요.》 하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안가겠어요.》
구멍으로 뛰여나가 짚을 뒤헤쳐서 드나드는 구멍을 가리워놓고 도로 기여들어왔다.
말없이 앉아있었다. 이야기를 할 경황이 못되였다. 다만 한번 짐까가 말을 꺼냈는데 주저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보고 아버지한테 인차 가게 될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더니 그만 사례가 들릴번하지 않아요. 그리구선 막 욕을 하겠지요. 〈너 쓸데없는 소리 좀 작작해라!〉 하고 말이예요.》
《가게 되고말고, 가게 되고말고. 짐까야, 다만…》
그러나 짐까는 더 말하지 않아도 《다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무서운것인가를 느끼고있었기때문에 짚무더기곁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겨있었다.
저녁이 되였다. 헛간에서는 주저앉은 이구석저구석의 시꺼먼 그림자들이 더욱 짙어갔다. 그리고 틈사이들로 새여들어오는 약해진 빛발이 희미하게 어리고있었다.
《저 소릴 좀 들어봐라!》
짐까는 몸서리까지 쳤다.
그 아저씨는 짐까의 어깨를 꼭 쥐였다.
《저게 누구들일가?》
마을 저쪽 벌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어지럽게 일어났다. 그리고 바람이 장난감대포의 사격소리와도 같은 퍽퍽 하는 소리들을 이곳으로 실어왔다.
《붉은군대가 아니예요?》
《아니, 아니야, 짐까! 붉은군대가 오기는 아직 일러.》
모두 잠잠해졌다. 한시간이 또 지났다. 그리하여 마을이 떠나갈듯한 말발굽소리와 고함소리는 벌써 그 무엇이 바로 여기 옆에 와있다는 불안한 소식을 헛간에까지 밀어왔다.
목소리들은 가까와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더니 지금은 바로 코앞에서 들리였다.
《움속도 봐요? 헛간도 보구요?》 누군가의 앙칼진 목소리가 물었다.
《모조리 다 뒤져.》 하고 다른자가 대꾸하였다. 《틀림없이

여기 어데 있는것 같은데.》

(골로웬이란놈이구나!) 짐까는 알아차렸다. 아저씨가 손을 내밀자 어둠속에서 싸늘하면서도 듬직한 나간권총이 어렴풋이 번쩍이였다.

《깜깜하군, 개자식들 같으니! 료브까란놈때문에 시간을 끌었단말이야!》

《깜깜한데!》하고 어느놈인가 되뇌였다. 《여기서 잘못하다간 제모가지를 꺾겠어. 한 헛간에 기여들어가려는데 꼭대기에서 널판자가 떨어지질 않아.… 하마트면 대가릴 깰번했다니까.》

《참, 그러기 꼭 좋은 때야. 그래 밝을 때까지 삥 둘러 보초나 댓명 세워놓으면 어때?》

《세우게.》

마음이 조금 놓였다. 희망의 실마리가 생기였던것이다. 한 틈사리로 그닥 멀지 않는데서 우등불 피여오르는것이 보였다. 말 한필이 파묻힌 그 문앞까지 다가와서 시들하게 짚부스레기를 주어먹었다.

새벽은 오래도록 오지 않았다. … 마침내 먼동이 트면서 별빛이 희미해졌다.

오래지 않아 수색이다. 쥐간이 제때에 가닿질 못했던가, 아니면 전혀 빠져나가질 못한 모양이다.

《짐까》하고 그 아저씨는 속삭였다. 《이제 곧 수색을 할게다. 저 대문이 넘어간 그쪽 땅바닥옆에 조그만 짬이 있다. 너는 작으니까 빠져나갈거다.… 그리로 가거라.》

《아저씨는?》

《난 여기 있으마.… 너도 아는 그 벽돌더미밑에 가방과 도장과 나에 대해 쓴 글쪽지를 감춰두었다. 아무때고 붉은군대가 오거들랑 전해라. 자, 어서 빨리 가거라!》하고 그 아저씨는 어른에게 하듯이 짐까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나서 가만히 떠밀었다.

짐까는 눈물에 목이 메였다. 그는 무섭기도 하고 아저씨를 혼자 남겨두기가 가엾기도 하였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키면서 흩어진 벽돌장에 걸채이며 기여갔다.

따따따—따따—따따따! 하고 별안간 공기를 째였다. 따따따—따따—따따따! 쩡쩡!… 휙 휙!… 헛간우에서 탄알들이 울부짖기 시작

하였다.

웨침소리도 말발굽소리도 《류이스》기관총들의 메아리도 이 모든 것이 어떻게도 갑자기 밀려들어 첫 새벽의 고요를 깨뜨리고 그와 더불어 기다림의 지루함을 깨뜨렸던지 짐까는 어느새에 또다시 자기가 그 아저씨곁에 와있는지도 몰랐다. 그리하여 더는 참아내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

《멍텅구리같으니 왜 그러냐?》 하고 아저씨는 기뻐하며 물었다.

《그 사람들이 왔으니말이지요.…》 하고 짐까는 웃음반 울음반 대답하였다.

말발굽소리가 헛간가까이에서 나기 시작했을 때에도 마을 저쪽에서는 아직 사격소리가 멎지 않았으며 어디선지 아직도 함성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귀에 익은 여무진 목소리가 떠들기 시작하였다.

《이리로 와요! 여기예요!》

짚단들이 한옆으로 날아났다. 틈사리로 밝은 빛이 새여들어왔다. 누군가가 걱정스러운듯 다급히 물었다.

《여기 계십니까. 쎄르게예브동지?》

그러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숱한 사람들이 삥 둘러섰다. 지휘관도 정치위원도 붉은군대 병사들도 가방을 멘 준의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껄껄 웃으면서 무엇인지 영문모를 소리들을 웨쳐댔다.

《짐까.》하고 쥐간은 너무 자랑스러워 어쩔줄을 몰라하면서 이야기를 서둘렀다. 《난 제때에 가닿았어.—올 땐 말을 타고 달렸구.… 그리고 지금 막 파랭이놈들하구 붙었댔어. 한복판으로 뛰여들었지.… 한놈의 대가리를 냅다 갈겼더니 그저 그 자리에서 나가떨어지겠지!》

《얘, 쥐간, 너 거짓말이다. 틀림없이 거짓말이야. 넌 군도도 없지 않니.》짐까는 이렇게 말하고 아직 눈물도 마르지 않은채 웃기 시작하였다.

종일토록 유쾌하였다.

짐까는 여기저기 사방으로 쏘다녔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그를 칭찬하고 피난자가 숨었던 곳을 구경하려 떼를 지어 다니는 통에 저녁무렵에 가서는 그 피난처근처의 짚더미가 소무리라도 지나간듯 짓밟혀서 곤죽이 되였다.

조금전만 하여도 갇히여있던 그 사람은 아마도 대단한 상관인 모양이다. 왜냐하면 군관들도 붉은군대 병사들도 모두 그의 말에 복종하니까.

그는 짐까에게 여러가지 증명서들을 써주었으며 짐까도 어머니도 또쁘도 바로 그 뻬뜨로그라드까지 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도록 증명서마다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한편 쥐간은 전사들사이로 분주히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노래인들 안불렀으랴! 붉은군대병사들은 그를 보고 껄껄 웃어댔지만 그래도 그의 목청에는 감탄들 했다.

《쥐간! 너 이젠 어데로 가려니?》

쥐간은 잠시 노래를 멈췄다. 순간 가벼운 그림자가 그의 애된 얼굴로 스쳐지나가는듯하였다. 이윽고 그는 섭섭하게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얘, 난 무서운게 없어! 정거장마다, 군용렬차마다 돌아다니며 노래나 부르면 돼. 난 이자 저 아저씨들한테서 새 노래를 배웠어.

야전병원에 밤은 지새고
빛나는 봄날이 밝았네
해빛 따사로운 이른 새벽에
젊은 지휘관 죽어갔네…

참 좋은 노래야! 내가 이 노래를 불렀더니 끄르삐나할머니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지 않어. 그래서 〈할머니, 뭘 그래요?〉 하고 물었지. 그러니까 〈죽어가구있으니 말이다!〉 하지 않어.

그 말에 〈원 할머니두 이건 노랜데도 그러네.〉 했더니 〈노래에서뿐이면야 오죽 좋으련만 그런 일인들 좀 많아서.〉 하거든. 그런데 군용렬차에서만은… 》그는 잠시 말을 더듬다가 덧붙여 말하였다. 《어떤 동지들은 믿어주질 않어. 〈냉큼 물러가, 네놈이 건달뱅이인지 망나닌지 알게 뭐야. 뭘 또 훔치려구 그래.〉 하지 않아. 나한테도 증명서를 써주었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 저 애한테도 써주세요.》 하고 누군가가 제의하였다.

《써주세요. 정말 써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증명서를 써주었다. 《바로 이 쥐간은 건

달팽이도 망나니도 아니며 실지행동으로 자기의 혁명성을 증명한 소년임. 그러므로. 이 쥐간에서 모든 정거장과 렬차와 군용렬차에서 쏘베트의 노래를 부르도록 방조해줄것.》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이 증명서에 수표를 하였는데 앞면에 채우고 뒤면에까지 하였다. 지어는 지난 주일에 겨우 글쓰기를 배운 곰보 빤쮸슈낀마저 꾹꾹 박아서 성을 한글자 빼놓지 않고 적어넣었다.
그런 다음에 도장을 찍으려 정치위원에게로 가지고갔다.
정치위원이 쭉 내려읽었다.
《안되오. 이런 증명서에 련대의 공인은 못찍소.》
《안될게 뭐 있습니까? 좀 찍는다고 닳아떨어지겠습니까? 제발 좀 찍어주십시오. 거저 찍어주는것도 아닌데, 꼬마가 애를 여간 많이 썼게요?》
정치위원은 빙긋이 웃었다.
《쎄르게예브동지를 구원한 그 애요?》
《그 녀석입니다.》
《좋소, 그렇다면 이것만은 특별히…》 그리고 종이에다 공인을 꽉 눌렀다.
그러자 대번에 종이우에 로씨야쏘베트사회주의련방공화국이란 글자와 낫과 마치가 나타났다. 증명서가 된것이다.
그리하여 이날 저녁은 농민들이 그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유쾌한 저녁이였다. 말을 해서 무엇하랴만 별들은 벽돌가루로 닦은듯 반짝이였다! 바람은 모밀꽃의 진한 향기를 담뿍 실어왔다. 거리들에서는 또 어떠했으랴! 사람이란 사람은 모두 대문밖으로 쏟아져나왔다. 붉은군대병사들은 우람차게 웃었고 처녀들은 자지러지게 새된 소리로 웃어댔다. 의사 조수 쁘리도로즈늬는 집회장소의 통나무우에 앉아서 빼곡이 둘러싼 젊은이들앞에서 손풍금을 탔다.
밤이 고요히 내리덮였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집집들에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였다. 늙은이들, 어린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달빛 환한 거리거리에서는 아직도 오래도록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오래도록 의사 조수의 손풍금소리가 멋지게 울리였고 근처의 서늘한

숲속에서 찌꼴새들이 간드러진 노래로 손풍금과 경쟁을 하였다.
이튿날 그 아저씨는 떠났다. 쥐간과 짐까는 목장앞까지 그를 바래였다. 기울어진 울타리곁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온 부대도 그를 따라 멈춰섰다. 그리하여 전체 부대앞에서 그 아저씨는 어린이들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나는 어느때든지 뻬뜨로그라드에서 너를 보게 될게다.》 그는 짐까를 보면서 말하였다. 《그리고 너는…》 하고 쥐간을 돌아보며 잠시 말을 더듬었다.
《어데서 만날지 모르지요뭐.》 쥐간은 자신없이 대답하였다.
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가볍게 날리였다. 파리한 손은 울타리 가름대를 꼭 붙잡고있었고 생각에 잠긴듯한 커다란 눈은 자기앞의 먼곳을 내다보고있었다.
부대는 아직도 길우에 아득히 바라보였다. 그러다가 니꼴스끼골짜기옆의 마지막언덕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사라졌다. 고개마루엔 말발굽에 일었던 먼지구름이 가라앉았다. 그사이로 모밀밭이 내다보이는데 고개우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1926년

찌무르와 그의 부대

장갑부대 부대장 알렉싼드로브대좌가 집을 떠난지도 벌써 석달이 되였다. 아마 그는 전선으로 나간 모양이였다.

한여름에 그는 전보를 보내왔는데 자기의 두 딸 올리가와 제냐더러 남은 방학기간을 모스크바교외의 별장에서 지내도록 하라는것이였다.

알락달락한 머리수건을 뒤통수에 제껴쓴 제냐가 이마살을 찌프리고 마루기둥에 기대여 올리가앞에 서있는데 올리가는 제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짐을 가지고 먼저 떠날테니 너는 집을 거두어라. 그 눈섭일랑 씰룩거리지 말고 입술을 그만 핥아. 문은 꼭 잠그고 책들은 도서관에 가져다주고는 동무들한테 들리지 말고 곧장 정거장으로 나가서 아버지한테 이 전보를 치고 그런 다음에 기차를 타고 별장으로 오너라. 제냐,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난 너의 언니가 아니냐. …》

《나도 같은 형제인데.》

《옳아. 그러나 나는 나이가 많거든. 아버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니.》

뜨락에서 길떠나는 자동차가 부르릉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제냐는 후 한숨을 쉬고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집안은 온통 헝클어져 너저분하였다. 그는 먼지가 뽀얗게 오른 거울앞으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이 비치여있었다.

좋아! 올리가는 나이가 우이니 아직은 그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그대신 제냐는 코며 입이며 눈이 꼭 아버지같았다. 그러니 아마 성질도 아버지를 닮게 될것이다.

제냐는 머리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싼다루를 벗어던진 다음 걸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책상우에서 보를 벗기고 바께쯔를 수도에 가져다 대놓고는 마루솔을 들고 문턱쪽으로 무드기 쌓인 쓰레기를 끌어내였다.

이윽고 석유곤로가 풀떡거리고 석유난로가 웅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마루바닥은 온통 물탕이 되였는데 함석빨래통에서는 와시시 소리를 내면서 비누거품이 꺼졌다. 그런데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3층창문턱에 맨발로 올라서서 열어제낀 창문유리를 열심히 닦고있는 빨간 옷을 입은 처녀를 신기한듯 올려다보는것이였다.

× ×

화물자동차는 해별이 쨍쨍 내려쪼이는 넓다란 길로 쏜살같이 달리였다. 올리가는 트렁크에 다리를 걸치고 등나무안락의자에 앉아서 푹신한 보꾸레미에 몸을 기대고있었다. 그의 무릎에는 털빛이 불그레한 고양이새끼가 엎디여서 수레국화꽃묶음을 앞발로 쥐여뜯고있었다.

화물자동차가 30키로쯤 갔을 때 붉은군대의 기동종대가 그들을 따라잡았다. 긴 나무걸상에 나란히 줄지어앉아 다같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이 노래소리에 농가들의 창문들과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고 울타리와 쪽대문안에서 기쁨에 겨운 아이들이 좋아라고 히히닥거리며 뛰쳐들나왔다. 그들은 손을 흔들며 붉은군대병사들에게

아직 채 익지도 않은 사과를 던져주고 뒤따라가면서 《만세!》를 웨치더니 금시에 맹렬한 기병식공격으로 쑥이며 엉겅퀴풀밭을 짓이기며 일대 격전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화물자동차는 큰길에서 별장마을로 꺾어들어 담쟁이풀에 뒤덮인 그리 크지 않은 별장앞에 멈춰섰다.

운전사와 조수는 적재함의 문짝을 열어제끼고 짐을 부리우고 올리가는 유리를 댄 현관의 문을 열었다.

거기에서는 황페해진 널다란 정원이 내다보였다. 정원 썩 안쪽에는 어수선하게 생긴 2층 헛간이 우뚝 서있는데 그 지붕우에는 조그마한 붉은기발이 나붓기고있었다.

올리가는 자동차가 있는데로 돌아왔다. 그때 약삭바른 어떤 할머니가 한분 그한테로 달려왔다. 그는 이웃에 사는 우유장사할머니였는데 별장을 거두고 창문과 마루와 바람벽을 닦아주겠노라고 자청하여 나서는것이였다.

이웃집할머니가 대야들과 걸레를 가져오는동안에 올리가는 고양이새끼를 안고 정원으로 나갔다.

참새들이 열매를 쪼아먹는 벗나무의 줄기들에서는 끓는듯한 진이 번쩍이였다. 흙딸기와 민들레꽃, 쑥냄새가 그윽하게 풍기였다. 그리고 헛간의 이끼낀 지붕은 구멍이 숭숭 났는데 그 구멍들에서 웬 노끈들이 뻗어 이 나무 저 나무 잎새들사이로 사라졌다.

올리가는 호두나무숲을 헤치고 나와서 얼굴에 붙은 거미줄을 털어버렸다.

어떻게 된 일일가? 지붕우에 있던 붉은기발은 어느새 없어지고 기대만 우뚝 서있었다.

이때 올리가는 불안스럽게 속삭이는 빠른 말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별안간 육중한 사닥다리가 (이 사닥다리는 헛간다락의 창문에 놓여있었다.) 마른나무가지들을 부러뜨리며 벽으로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우웡밭을 짓이기면서 쿵하고 땅바닥에 넘어졌다.

지붕우의 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고양이새끼가 발을 허비며 엉겅퀴풀숲으로 곤두박질쳐 달아났다. 영문을 알수 없는 올리가는 발길을 멈추고선채 귀를 기울이고 두루 살펴보았다. 그러나 풀밭에도 다른집 울타리뒤에도 으슥한 헛간 창문안에도 사

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건 아이녀석들이 동네집 정원으로 쏘다니며 장난을 치는거라우.》하고 우유장사할머니가 올리가에게 일러주었다.
《어제는 이웃집 사과나무 두그루를 죄 털어내고 배나무 한그루는 박살을 냈지. 아이놈들도 글쎄 어쩌면 그렇게 못되겠소. 이보우, 우리 아들은 붉은군대에 나갔는데 떠나면서도 술 한잔 입에 대지 않았지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하고는 휘파람을 불면서 갔지요. 그래 저녁때가 되니 뉜들 마음이야 다르겠소만 어찌도 허전한지 눈물이 저절로 났지. 밤에 잠을 깨니 뜨락에서 어떤놈이 막 쏘다니는것만 같겠지요. 그러니 이젠 외로운 몸이라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글쎄 나같은 늙은것을 죽일려면 어려울게 있겠소? 그저 벽돌장으로 골통을 한개만 치면 그만일걸. 그래도 하느님 덕분에 훔쳐간것은 없었소. 실컷 쏘다니다가 그냥 가버리지요. 우리 집 뜨락에는 대장부 두사람이서도 움직이지 못할 참나무통이 있었는데 그걸 글쎄 대문쪽으로 스무발자국이나 굴려다 놓았구려. 그저 그뿐이였소. 그런데 그게 어떤놈들의 장난인지 수상하단말이요.》

× ×

해질녘에 청소가 끝난 다음 올리가는 바깥현관으로 나왔다. 거기서 그는 진주조개처럼 반짝이는 새하얀 손풍금을 가죽함에서 조심스레 꺼내였다. 그것은 생일에 아버지가 선물로 보내준것이였다.
올리가는 손풍금을 무릎에 올려놓고 멜띠를 어깨에 멘 다음 얼마전에 들은 노래가사에 맞추어 곡조를 골라짚었다.

아! 다시 더 한번
그대를 만난다면
아! 다만 … 한번이라도…
두번 다시… 세번 다시…
그러나 그대는 모르리라
살같이 나는 비행기에서는

아침노을 타도록
내 그대 기다림을 아!
비행사 길잡이여! 폭탄과 기관총이여!
머나먼 길 날아갔으니
그대는 언제 돌아오려나?
어느날 돌아올지 나는 모르나
언제라도 좋으니 돌아만 오시라…

올리가는 이 노래를 부르다가 뜨락안쪽 울타리곁의 무성한 나무덤불쪽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여보세요! 왜 거기 숨어있어요? 여기 무슨 볼일이 있어요?》

나무덤불뒤에서 수수한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왔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점잖게 대답하였다.

《나는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나도 음악을 좀 하는데 방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 듣고있었지요.》

《알만해요. 하지만 길가에서도 들을수 있지 않아요? 당신은 무슨 딴 목적으로 울타리를 넘어온거예요.》

《내가 울타리를 넘어왔다구요?》 하고 그 사람은 성을 내였다. 《미안하지만 나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저기 울타리구석에 널판자 떨어진데가 있어서 나는 그 짬으로 들어왔지요.》

《알겠어요.》 하고 올리가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기 쪽대문이 있지 않아요. 저 쪽대문으로 해서 어서 도루 나가주세요!》

그 사람은 온순하였다. 한마디 말도 없이 쪽대문으로 나가서 빗장을 질렀다.

올리가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잠간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올리가는 층층대에서 내려오면서 그를 불러세웠다.

《당신은 누구세요? 배우예요?》

《아닙니다.》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나는 기계기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을 때에는 우리 공장 가극단에서 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지요.》

《이것 보세요.》 하고 올리가는 별안간 겸손한 어조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다.
《저를 정거장까지 좀 데려다주세요. 동생을 기다리고있는데 벌써 저물어 어두워졌는데도 그 애가 오지를 않아요. 저는 아무도 무서워하진 않지만 아직 이곳 길이 서툴러서 그래요. 잠간만 계세요. 쪽대문은 왜 열어요? 울타리곁에서 저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올리가는 손풍금을 가져다 두고 머리수건을 어깨에 걸치고서 이슬과 꽃향기가 그윽히 풍기는 어두운 길거리로 나갔다.
제냐때문에 화가 난 올리가는 길을 걷는동안 자기의 길동무와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게오르기고 성은 가라예브라고 하는데 자동차공장 기계기사로 일한다는것을 올리가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제냐를 기다리면서 벌써 기차를 두개나 지나보냈다. 마침내 세번째로 막차가 들어왔다.
《고 못된 계집애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하고 올리가는 애가 타서 부르짖었다. 《그저 제 나이가 마흔 아니면 서른쯤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애는 열셋인데 저는 열여덟밖에 안되니까 도무지 제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마흔살이나 나서 무얼 합니까?》하고 게오르기는 단연 반대하였다.《열여덟에서 더 좋은 나이가 어데 있다구요! 공연히 걱정마십시오. 동무의 동생은 래일 아침 일찍 올겁니다.》
역승강대는 휑하니 비여있었다. 게오르기는 담배갑을 꺼냈다. 바로 그때 당돌한 두 소년이 그에게로 다가와서 담배를 꺼내들고 불켜기를 기다리는것이였다.
《이 젊은 사람.》게오르기는 성냥불을 켜서 나이든 소년의 얼굴을 비치면서 말하였다.《담배를 내밀기전에 인사를 해야 하지 않나. 난 벌써 공원에서 임자하고 면목을 익힐 영광을 가졌는데 임자는 거기서 새로 세운 울타리널판자를 열심히 뜯고있더구먼. 자네 성함은 미하일 끄와낀이지, 안그런가?》
소년은 코를 킁킁거리면서 뒤걸음질을 쳤다.
게오르기는 성냥불을 꺼버리자 올리가의 팔굽을 잡아 이끌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떠나갔을 때 다른 소년이 침이 묻은 담배를 귀에 끼우면서 불손스럽게 물었다.《저건 또 웬 선전원이야? 이 고장사람

이야?》
《이 고장사람이야.》하고 끄와낀이 마뜩지 않게 대답하였다.
《저건 찌무르 가라예브의 아저씨다. 찌무르자식을 붙잡아서 혼을 내주구 말아야지. 그자식이 패거리들을 잔뜩 모았는데 아마 그것들이 우리 일을 훼방놓을 모양이야.》
이때 두 친구는 승강대 한끝에 있는 전등밑에서 머리가 하얀 점잖은 신사가 지팽이를 짚고 층층대를 내려가는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이 고장에 사는 에프. 게. 꼴로꼴치꼬브박사였다. 두 친구는 큰소리로 성냥이 없는가고 물으면서 그를 뒤따라 달려갔다. 그런데 그들의 주제와 목소리가 도무지 이 신사의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였다. 그는 돌아서서 매듭진 지팽이로 을러메보이고는 곧 가던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것이였다.

× ×

제냐는 모스크바역에서 아버지에게 전보를 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별장촌으로 다니는 기차에서 내리자 그는 곧 이곳 우편국을 찾기로 했다.
그런데 오래된 공원을 지나오면서 방울꽃을 꺾다보니 그는 어느사이에 정원에 둘러싸인 두갈래의 길이 마주치는 십자길에 나와버렸다. 사람 하나 없는것으로 보아 그는 길을 잘못 든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얼마 멀지 않은곳에 고집통이 염소를 욕질하면서 뿔을 잡아끄는 잽싼 소녀를 보았다.
《얘, 말 좀 물어보자.》하고 제냐는 소리쳤다. 《우편국으로 가려면 어데로 가야 되니?》
그런데 바로 그때 염소가 뿔을 내두르면서 소녀를 냅다밀어버리고 공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 소녀는 아우성을 치면서 염소를 뒤쫓아 달려갔다.
제냐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벌써 날은 저물었는데 부근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어떤 재빛별장의 쪽대문을 열고 들어가 사이길을 따라 앞현관으로 찾아갔다.

《저, 미안하지만.》하고 제냐는 문은 열지 않고 큰소리로 그러나 아주 점잖게 물었다. 《여기서 우편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좋아요!》

대답이 없었다. 잠간 서서 생각한 그는 마침내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황한 그는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책상밑에서 털빛이 불그스레한 큰 개가 슬며시 기여나왔다. 개는 겁에 질린 소녀를 지릅떠보더니 나직이 으르렁거리면서 길을 가로막고 문결에 넙적 엎디였다.

《넌 참 바보구나.》하고 어리둥절하여 두손을 쩍 벌리면서 제냐는 부르짖었다. 《난 도적놈이 아니야! 난 너희집에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여기 이건 우리 집 열쇠구 이건 아버지한테 보낼 전보야. 우리 아버진 군관이다. 알만하지?》

개는 엎딘채 까딱하지 않았다. 제냐는 열려있는 방문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됐어! 엎디여있겠니? 그래 엎디여있어. 응, 참 좋은 개야.… 똑똑하고 귀엽게 생겼거든.…》

그러나 제냐의 손이 금시 창문턱에 닿으려 할 때 귀여운 개가 무섭게 으르릉거리면서 벌떡 일어섰다. 질겁을 한 제냐는 닁큼 안락의자로 뛰여올라가 다리를 쪼그리였다.

《이게 뭐야!》하고 제냐는 울먹울먹하면서 말하였다. 《넌 강도나 간첩을 잡을게지 난… 여느 사람이야. 아이구! 이 바보야!》그는 개에게 혀를 삐죽 내밀어보였다.

제냐는 전보와 열쇠를 책상 한끝에 놓았다. 집주인들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한시간이 지나고 두시간이 지났다.… 벌써 어두워졌다. 열려진 창문으로 멀리서 울리는 기적소리,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선가 기타타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러나 여기 이 재빛별장부근만은 벙어리가 된듯 잠잠하였다.

제냐는 안락의자의 딴딴한 손받치개를 베고 쿨쩍쿨쩍 울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그는 쿨쿨 잠이 들었다.

×　　　　×

제냐는 아침에야 잠을 깼다.

창밖에서는 비에 씻기운 함함한 나무잎들이 살랑거리였다. 가까이에서 드레박줄바퀴가 삐걱거렸다. 어디선가 장작을 톱으로 켜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여기 별장에서는 여전히 잠잠하였다.

그런데 지금 제냐의 머리밑에는 폭신한 가죽베개가 베워지고 다리에는 가뿐한 이불이 덮여있었다. 마루바닥에 엎디였던 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보면 밤에 그 누가 왔다간것이 분명하였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제냐는 머리를 쓸어넘기고 구겨진 싸라판을 반듯이 편 다음 책상에서 열쇠와 전보를 들고 뻥소니를 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냐는 책상우에 놓인 종이쪽지를 보았다. 거기에는 푸른 연필로 굵직굵직하게 글이 씌여있었다.

《소녀야, 나갈 때 문을 꼭 닫아라.》 그리고 그 밑에는 《찌무르》란 이름이 씌여져있었다.

《찌무르? 이게 누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감사를 드려야겠다.》

제냐는 옆방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책상이 하나 놓여있었는데 그 우에 잉크단지, 재털이 그리고 자그마한 거울이 있었다. 그 오른쪽 오토바이용 가죽장갑곁에는 다 낡은 구식권총이 한자루 놓여있었다. 그리고 바로 책상곁에는 온통 할퀴여서 가죽이 벗겨진 칼집에 든 구부정한 뛰르끼예식군도가 한자루 세워있었다. 제냐는 열쇠와 전보를 놓고 군도를 만져보다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 머리우에 번쩍 쳐들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에 비친 모양이 아주 엄엄하고 제법 위풍이 있어 보였다.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다가 학교로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을가! 언젠가 아버지가 자기를 전선으로 데리고갔다고 거짓말을 해도 될것이다. 왼손에다 권총을 들고 찍을수도 있지. 이렇게, 그러면 더 멋들어질게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프리고 입을 꼭 다물고서 거울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였다.

총소리가 방안을 들었다놓고 연기가 창문을 자욱히 가리웠다. 책상우에 세워놓았던 거울이 재털이우에 엎어졌다. 제냐는 열쇠와 전보를 책상우에 놓아둔채 방에서 뛰쳐나와 괴상하고 무시무시한 그 집에서 멀리 달아났다.

× ×

어떻게 달려왔던지 제냐는 시내가에 나왔었다. 지금 그에게는 모스크바집의 열쇠도 전보접수증도 바로 그 전보도 없었다. 이제는 올리가에게 개에 대해서, 빈 별장에서 잔 일에 대해서, 뛰르끼예식군도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을 쏜 일에 대해서도 죄다 이야기될것이다. 그건 큰일이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알아주실테지만 올리가는 알아줄리가 없다. 올리가는 화를 내든가 혹은 울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그건 더욱 좋지 않다. 우는것쯤은 제냐도 남만 못지 않다. 그러나 올리가의 눈물만 보면 제냐는 그저 전선대나 높은 나무가 아니면 지붕꼭대기의 굴뚝으로 올라가고싶었다.

제냐는 용기를 내려고 미역을 감고나서 슬금슬금 자기네 별장을 찾아갔다.

제냐가 앞현관에 올라섰을 때 올리가는 부엌에서 석유곤로에 불을 피우고있었다. 발자국소리에 뒤를 돌아본 올리가는 아무말없이 제냐를 아니꼽게 쏘아보았다.

《올랴, 잘 있었니?》하고 제냐는 맨웃계단에 올라서자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말하였다 .《언니, 날 욕하지 않지?》

《욕하겠다!》 올리가는 그냥 동생을 쏘아보면서 대답하였다.

《욕하겠으면 하렴.》하고 제냐는 순순히 동의하였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어?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 올랴. 제발 부탁이야. 눈섭일랑 좀 씰룩거리지 말어. 별일이 아니야. 난 그저 열쇠를 잃어버리구 아버지께 전보를 치지 못했을뿐이야.…》

제냐는 실눈을 뜨고 단숨에 모든것을 말해버리려고 숨을 모아쉬였다.

그런데 바로 이때 별장앞 쪽대문이 삐걱하고 열리였다. 그러자 온몸에 엉겅퀴씨를 뒤집어쓴 털이 부르르한 염소가 한마리 뜰안으로 뛰여들어오더니 뿔을 잔뜩 수그리고 정원 한구석으로 냅다뛰였다. 그 뒤로 어

제 제냐가 만났던 맨발벗은 그 소녀가 아우성을 치면서 따라갔다.
제냐는 이런 기회를 타서 그 위태로운 이야기를 중둥무이하고 염소를 쫓으려 정원으로 뛰여갔다.
제냐가 따라갔을 때 그 소녀는 염소뿔을 붙잡고서 숨을 헐떡이고있었다.
《얘, 너 뭐 잃은것 없니?》 하고 소녀는 발길로 염소를 그냥 차주면서 이새로 내밸듯이 잰 말씨로 물었다.
《아니.》 제냐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였다.
《그럼, 이건 누구것이냐? 네것 아니냐?》 하고 소녀는 모스크바집의 열쇠를 제냐에게 내뵈였다.
《내것이야.》제냐는 두려운듯 베란다쪽을 흘끔 쳐다보면서 입속말로 대답하였다.
《옜다, 열쇠하구 글쪽지하구 접수증이다. 그리구 전보는 벌써 쳤어.》 하고 소녀는 여전히 이새로 내밸듯이 잰 말씨로 종알거렸다.
그 소녀는 제냐에게 종이봉지를 내주고나서 주먹으로 염소를 한대 쥐여박았다.
그러자 염소는 쪽대문을 향하여 뛰여가고 맨발벗은 소녀는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라 가시덤불과 엉겅퀴풀밭으로 마구 내달았다. 그리하여 염소와 소녀는 한꺼번에 쪽대문밖으로 사라졌다.
제냐는 염소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얻어맞은것처럼 어깨를 움츠리고서 종이봉지를 풀었다.
《이건 열쇠, 이건 전보접수증, 그럼 누가 아버지에게 전보를 쳤구나, 그게 누굴가? 아, 글쪽지가 있구나! 이게 웬일일가?》
글쪽지에는 푸른 연필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씌여있었다.
《소녀야, 집의 사람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것이 다 제대로 되였으니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련다.》 그리고 그밑에 《찌무르》 라는 이름이 씌여있었다.
제냐는 요술에 걸린 아이처럼 글쪽지를 슬며시 호주머니에 쓸어넣었다. 그리고는 어깨를 쭉 펴고 천연스럽게 올리가한테로 갔다.
올리가는 아직도 불이 붙지 않는 석유곤로곁에 그냥 서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였다.
《올랴!》 하고 제냐는 구슬프게 부르짖었다. 《내가 롱담을 좀 했어, 왜 날보고 성을 내, 응? 나는 집을 다 거두었어, 창문도 다 닦

고 걸레도 다 빨고 마루바닥도 죄 닦았어. 정말 나는 열심히 일했어. 자, 이 열쇠하고 전보접수증을 받어. 그리구 이젠 내 입맞춰줄게, 응. 내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줄 알아! 난 언니를 위해서라면 지붕에서 엉겅퀴풀밭으로 내려뛸수도 있어, 알았어?》

그리고는 올리가가 무어라 대답도 하기전에 제냐는 그의 목에 훌쩍 매여달렸다.

《됐다.… 그런걸 난 걱정했구나.》하고 한탄하면서 올리가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너는 언제나 그따위 망측스러운 롱담만 하누나.…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제냐, 그만둬! 내 손엔 석유가 묻었어! 남비에 우유나 부어서 난로에 올려놓아라!》

《나는… 롱담을 안하고는 못견디겠어!》올리가가 세면대앞에 가섰을 때 제냐는 중얼거렸다.

제냐는 우유남비를 석유난로우에 덜컹 올려놓고 주머니속에 들이있는 글쪽지를 만지작거리면서 물었다.

《올랴, 하느님이라는게 있을가!》

《없어.》하고 대답하면서 올리가는 세면대 샤와밑에 머리를 들여대였다.

《그럼, 어떤게 있니?》

《그따위 소리 그만둬!》하고 올리가는 화를 내였다.《있긴 무엇이 있어!》

제냐는 잠자코 있다가 또 물었다.

《올랴, 그럼 찌무르라는건 누군가?》

《그건 하느님이 아니고 황제야.》하고 올리가는 얼굴과 손에 비누칠을 하면서 마뜩지 않게 대답하였다.《중세기에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흉악한 절름발이였어.》

《그럼 황제도 아니고 흉악하지도 않고 중세기사람도 아닌건 누구냐?》

《그건 모른다. 이젠 그만둬! 그래 그 찌무르란게 어쨌단말이냐?》

《난 아마 그 사람을 무척 좋아하나봐.》

《누구를?》하고 올리가는 미심쩍은듯 비누거품이 잔뜩 묻은 얼굴을 번쩍 들었다.《넌 뭘 그렇게 거기서 종알거리면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줴여치고있니. 세수도 좀 할수가 없구나. 어디 두고보자. 이제 아버지가 오시면 네 좋아한다는걸 밝혀내실게다.》

《아버지가?》하고 제냐는 자못 애달프게 부르짖었다. 《아버지는 오신다해도 그렇게 오래 계시진 못하실게구. 그리구 또 믿을데 없는 외로운 사람을 책망하지는 않으실게야.》
《그래, 바로 네가 믿을데 없는 외로운 사람이란 말이냐?》하고 올리가는 의아한듯이 물었다. 《아유 참 제냐야, 너는 누굴 닮아먹어서 그따윈지 정말 모르겠구나!》
제냐는 고개를 숙이고 니켈도금을 한 차판의 표면에 비친 자기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서슴지 않고 버젓하게 대답하였다.
《아버지를 닮았지. 꼭 아버지를 닮았어. 아버지를 내놓고야 이 세상에서 누구를 닮을라구.》

× ×

점잖은 신사 에프. 게. 꼴로꼴치꼬브박사는 자기 집 정원에 앉아서 벽시계를 고치고있었다.
그 앞에 그의 손자 꼴랴가 울상을 하고 서있었다.
꼴랴는 할아버지의 일을 돕고있는 모양이였다. 아닌게아니라 그는 나사틀개를 손에 든 할아버지가 그 도구를 다 쓰게 될 때를 기다리고있은지가 벌써 한시간이나 되였었다.
그런데 제자리에 맞추어넣어야 할 강철태엽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어찌도 인내성이 강한지 아무리 기다려도 끝이 없을것 같았다. 더군다나 웃집 울타리너머로 씨마 씨마꼬브의 더벅머리가 벌써 몇번째나 불쑥 나타나는데는 정말 참을수가 없었다. 이 씨마 씨마꼬브는 못하는 재간이 없는 아이였는데 그가 혀바닥, 머리, 손으로 꼴랴에게 신호를 하는것이 어찌도 괴상망측하였는지 보리수나무밑에 앉아서 입에 우웡잎을 쓸어넣으려고 애쓰던 다섯살난 꼴랴의 누이동생 따찌얀까마저 별안간 악 소리를 지르면서 할아버지의 바지가랭이를 잡아당기였다. 그러자 씨마 씨마꼬브의 더벅머리는 감쪽같이 사라지고말았다.
마침내 태엽은 제자리에 들어맞았다.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되는거다.》하고 백발의 신사 에프. 게. 꼴로꼴치꼬브는 땀에 젖은 이마를 들고 꼴랴를 쳐다보면서 자못 교훈적인 어조로 말하였다. 《네 얼굴이 어째 그 모양이냐. 내가 피마주

기름이라도 먹인것 같구나. 나사틀개를 이리 주고 집게를 들어라. 로동이란건 사람을 고상하게 만드는 법이야. 그런데 바로 네게는 그 정신이 부족하단말이다. 례를 들어 말한다면 너는 어제 에스키모를 네개나 먹으면서도 누이동생에게는 나누어주질 않았거든.》

《그애는 거짓말을 하는거예요. 고 렴치없는것이!》무안을 당한 꼴랴는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따찌얀까를 쏘아보면서 부르짖었다.《난 세번이나 줘서 두입씩 떼먹게 했어요. 그런데두 날 일러바치러 갔어요. 갈 때에는 또 어머니책상에서 네꼬뻬이까를 훔치구요.》

《넌 밤에 줄을 타구 창문에서 내려갔지?》새침해진 따찌얀까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어설프게 말하였다. 《네 베개밑엔 전지가 있어. 그리구 또 어젠 어떤 망나니가 우리 침실에다 돌멩이를 던졌어. 하나 던지구는 휘파람을 불구 또 던지구는 휘파람을 불군 하면서.》렴치없는 따찌얀까의 이 뻔뻔스러운 말에 꼴랴는 그만 숨이 탁 막히였다. 머리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일에 바쁜 할아버지는 이런 유해로운 비방중상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따찌얀까의 말을 듣지 못한 모양이였다.

그런데 때마침 우유장사할머니가 함석우유통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와 고뿌로 우유를 되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봐요, 표도르 그리고리예위치, 그 좀도적놈들이 밤에 우리 집마당에서 참나무통을 훔쳐갈번 했구려. 그런데 오늘 소문을 듣자니 꼭 두새벽에 우리 집 지붕꼭대기에 사람이 둘이나 있었다는데 그 저주맞을놈들이 굴뚝에 올라앉아서 다리를 거들거리더라지 않겠어요.》

《아니 굴뚝엘 어떻게? 대관절 무슨 목적으로 그랬을가요?》 하고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묻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닭장쪽에서 잘그닥하고 쨰릉하는 소리가 울리였다. 순간 백발의 할아버지가 쥔 나사틀개가 흔들렸다. 그러자 말을 잘 듣지 않는 태엽이 제자리에서 튀여나와 쨍가당하고 함석지붕꼭대기에 올라가 떨어졌다. 그래 모두 따찌얀까도 심지어는 게으름뱅이 개까지도 웬 종소리가 어데서 나는가 해서 한꺼번에 돌아보았다. 그러나 꼴랴 꼴로꼴치꼬브는 어데 간다는 말도 없이 토끼처럼 홍당무우밭이랑을 깡충깡충 넘어뛰여 울타리 저쪽으로 사라졌다.

그는 외양간곁에 멈춰섰다. 그 안에서는 바로 닭장속에서 나던 그

런 야무진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마치 그 누가 쇠몽둥이로 강철레루 토막을 두드리는것 같았다. 여기에서 그는 씨마 씨마꼬브를 만나서 흥분하여 물었다.

《얘… 참 모르겠구나. 이건 뭐야?… 경보냐?》

《아니야! 이건 제1호 총소집신호인것같아.》

그들은 담장을 뛰여넘어서 공원 울타리짬으로 꿰고 들어갔다. 여기에서 어깨가 쩍 벌어진 장난꾸러기 게이까와 마주쳤다. 뒤미처 와씰리 라듸긴이 달려오고 그 다음에도 누군가가 또 오고 또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만 알고있는 통로로 해서 어디론가를 향하여 달려들 갔는데 가면서 짤막하게 말을 주고받았다.

《이건 경보냐?》

《아니야! 이건 제1호 총소집이야.》

《무슨 소집신호가 그래? 이건 〈세번하고 쉬고〉〈세번하고 쉬고〉가 아니야. 어떤 바보가 열번이나 련달아 치지 않니.》

《가보면 알어!》

《그래, 가보자!》

《앞으로 전속력으로!》

× ×

그런데 이때 제냐가 하루밤 자고난 별장방안에는 키가 크고 머리가 검은 열서너살 돼보이는 소년이 서있었다. 그는 간편한 검은색바지에 붉은별을 수놓은 검푸른 빛갈의 소매짧은 샤쯔를 입고있었다.

백발머리가 헝클어진 로인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로인의 아마포샤쯔는 헐고 후렁후렁한 바지는 더덕더덕 기웠는데 왼쪽무릎에는 투박한 나무다리가 가죽끈으로 매여있었다. 그는 한손에는 쪽지를 들고 다른 손에는 다 낡은 구식권총을 들고있었다.

《얘야, 나갈 때 문을 꼭 닫아라.》로인은 비웃는 어조로 쪽지를 내리읽다가 말하였다. 《그럼 어제밤에 누가 우리 집 안락의자에서 잤는지 나한테 이야길 해야 할게 아니냐?》

《제 아는 어떤 처녀애가 잤어요.》하고 그 소년은 내키지 않는 대답을 하였다. 《제가 없을 때 개가 그 애를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거짓말 말어!》로인은 성을 내였다.《만약 그 애가 네가 아는 애였다면 너는 이 글쪽지에다 그 애 이름을 썼을게 아니냐.》
《그걸 쓸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있어요.》
《몰랐다. 그리구두 너는 그 앨 아침에 혼자 집에 남겨두었니?… 너 참 큰 탈 났구나. 이젠 널 정신병원으로 보내야겠다. 그 못된 계집애가 거울을 깨구 재털이를 부셔놓았단말이다. 그래두 권총에 공탄을 재워두길 잘했지 실탄을 재웠더면 어쩔번했느냐?》
《그렇지만 아저씨… 아저씨한테 실탄이 있을리 없잖아요. 아저씨가 총으로 쏘고 검으로 찌를 적들에게는… 그저 나무로 만든 총칼밖에 없는데요.》
로인은 느물하고 웃는것 같았다. 그러나 텁수룩한 머리를 흔들더니 엄격하게 말하는것이였다.
《정신 좀 차려라! 난 다 알고있다. 가만보니 네가 무슨 수상한 노릇을 하고있는 모양인데 정 그러면 어머니한테 돌려보내겠다.》
로인은 나무다리를 뚜걱거리면서 층층대로 올라갔다. 이윽고 로인이 사라졌을 때 소년은 껑충껑충 뛰면서 방안으로 뛰여든 개의 앞발을 붙잡고 그 낯바닥에다 입을 맞추었다.
《얘, 리따야! 우리가 잘못 걸려들었구나. 하지만 괜찮아, 아저씨는 오늘 기분이 좋거든. 아저씨는 이제 노래를 부를거다.》
과연 그의 말이 옳았다. 2층에서 기침소리가 나더니 뜨랄랄－랄… 마침내 나직한 바리톤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나는 세밤째 잠을 못잔다
으슥한 정막속에서
수상한 그림자 얼른거리며…

《가만있어. 미친놈의 개같으니…》하고 찌무르가 소리를 질렀다.
《바지가랭이는 왜 물어뜯으면서 어디로 끌어당기는거야?》
그런데 별안간 그는 웃층 아저씨방으로 통하는 문을 탕 닫아버리고 개를 따라 복도를 지나서 베란다로 뛰쳐나갔다.
베란다 한구석에 있는 자그마한 전화통결에 노끈으로 달아맨 청동방울이 허궁 춤을 추면서 벽에 부딪치고있었다.
소년은 방울을 꼭 쥐고 노끈을 못에다 감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

번에는 팽팽하게 켕기였던 노끈이 축 늘어졌다. 아마 어디가 끊어진 모양이였다. 깜짝 놀란 소년은 화를 내면서 전화수화기를 들었다.

× ×

올리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전에 책상에 마주앉아있었다. 그의 앞에는 물리교과서가 놓여있었다.

이윽고 제냐가 들어오더니 요드팅크병을 꺼내였다.

《제냐, 너 어깨는 어디서 긁히웠니?》 올리가가 마뜩지 않게 물었다.

《난 걸어왔지.》 하고 제냐는 심상하게 대답하였다. 《그런데 길에 가시처럼 뾰족뾰족한게 있어서 이렇게 됐어.》

《내가 다니는 길엔 어째서 가시처럼 뾰족뾰족한게 없었을가?》 하고 올리가는 우습강스럽게 골려주었다.

《거짓말 말어! 언니 길에는 수학시험이 있잖어! 그게 가시처럼 뾰족뾰족한거야, 두고보지. 락제를 할걸! …언니는 기사공부는 그만두고 의사공부나 해.》 제냐는 탁상거울을 올리가앞에 내대면서 말을 이었다. 《자, 좀 들여다봐, 언니가 기사는 무슨 기사야? 기사란건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 되는거야. (제냐는 세가지의 정력적인 얼굴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런데 언니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 제냐는 눈을 잔뜩 찡그렸다가 눈섭을 살짝 쳐들면서 자못 간사스레 웃음을 지었다.

《요런 바보같으니!》 올리가는 제냐를 덥석 끌어안아 입을 맞춘 다음 슬쩍 밀쳐내면서 말하였다. 《제냐, 애를 먹이지 말고 저리 좀 가거라. 참 너 우물에 얼른 가서 물이나 좀 길어오면 좋겠구나.》

제냐는 접시에서 사과를 한알 집어들고 구석창문옆으로 물러가 서더니 손풍금곽을 열면서 수선을 떨기 시작하였다.

《저, 올랴! 오늘 어떤 아저씨가 내앞으로 다가오질 않겠어. 머리는 금발머리구 흰옷을 입은게 괜찮게 생긴 사람인데 이렇게 묻겠지, 〈얘, 네 이름이 뭐지?〉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제냐예요.…〉 했지.》

《제냐, 시끄럽게 굴지 말고 손풍금을 좀 가만 둬둬라.》 하고 올리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책을 들여다보면서 말하였다.

《〈그럼, 너의 언니이름이 아마 올리가지?〉 그러겠지.》하고 제냐는 손풍금을 꺼내면서 말하였다.

《제냐, 시끄럽게 굴지 말고 손풍금을 가만 둬두래두!》올리가는 저도모르게 귀를 솔깃하면서도 이렇게 되뇌이였다.

《〈너의 언니는〉 하고 그 사람이 말하겠지, 〈음악을 참 잘하더라. 그래 언니가 음악대학에 가고싶어하지 않더냐?〉 하고 말이야.》제냐는 손풍금을 꺼내서 멜띠를 어깨에 메였다. 《그래, 나는 〈아니예요, 아니예요. 언니는 철근콩크리트공학을 배우고있어요.〉 하고 대답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하지 않어, (이때 제냐는 손풍금의 건반을 하나 눌렀다.) 그래서 나는 〈베!〉하였지.》(제냐는 이번에는 다른 건반을 눌렀다.

《못된 계집애 같으니! 손풍금을 제자리에 가만 놔둬라!》하고 올리가는 발딱 일어서면서 소리를 빽 질렀다. 《누가 너더러 아무 아저씨하고나 이야길 함부로 하라고 했어?》

《그럼 그만두자꾸나.》 제냐는 발끈 성을 냈다. 《내가 시작했나,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지. 난 더 얘기해줄려고 했지만 이제는 안할테야, 두고 봐, 아버지가 오시면 혼나지 않나!》

《내가 혼이 나! 흥, 네가 혼나지. 넌 내가 공부하는데 방핼 했거든.》

《그만둬, 언니가 혼나!》빈 바께쯔를 닁큼 집어든 제냐는 벌써 앞현관에 나가서 대꾸하였다. 《이제 아버지한테 다 말할테야. 석유를 가져오라, 비누를 가져오라, 물을 길어오라, 하루에도 백번이나 날 부려먹었지! 그래 내가 언니 트럭인가, 말인가, 뜨락또른가.》

제냐는 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바께쯔를 걸상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올리가는 모르는체하고 그냥 앉아 책만 들여다보는데 그만 화가 난 제냐는 정원으로 나와버렸다.

다 낡은 2층 헛간앞의 풀밭으로 달려간 제냐는 호주머니에서 고무총을 꺼내가지고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조그만 마분지락하산수를 공중으로 쏘아올렸다.

락하산수는 거꾸로 날아올라가다가 발딱 뒤집히며 바로 섰다. 그 락하산수 머리우에 파란 종이락하산이 활짝 펼쳐졌다. 그런데 때마침 바람이 세게 불어서 락하산수는 그만 시꺼먼 헛간다락방의 창문안으로 들어가버리고말았다.

사고다! 마분지사람을 구원해내야만 하였다. 제냐는 헛간을 한바

퀴 돌아보았다. 그 헛간지붕의 숭숭한 구멍들로부터는 노끈으로 맨 줄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제냐는 다 썩은 사닥다리를 창문에 가져다대고 기여올라가서 마루바닥에 뛰여내렸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였다. 그 다락방에 사람이 살고있었던것이다. 벽에는 노끈뭉치들, 남포등, 십자형으로 어기여댄 두개의 신호기, 알수 없는 부호를 가득 그려놓은 마을지도가 걸려있었다. 그리고 구석에는 마대를 씌워놓은 짚이 한아름 되고 합판으로 짠 궤짝이 하나 엎어져있었다. 구멍이 숭숭한 이끼낀 지붕결에는 조타륜비슷한 큼직한 바퀴가 하나 우뚝 서있고 그 웃쪽에는 자작 만든 전화통이 걸려있었다.

제냐는 틈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앞에서 우거진 나무잎들이 바다의 물결처럼 흔들리고있었다. 하늘에서는 비둘기가 날고있었다. 그래서 제냐는 비둘기들을 갈매기라고 치고 노끈들과 남포등과 신호기가 있는 이 낡은 헛간을 커다란 배라 하고 자기는 바로 선장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는 유쾌해졌다. 그는 조타륜을 돌리였다. 팽팽하게 켕겨진 줄들이 떨리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바람이 설레면서 록색물결을 몰아쳤다.

그는 자기의 헛간배가 잔잔한 파도를 가르면서 천천히 움직여가는것만 같았다.

《키를 왼쪽으로!》하고 제냐는 소리높이 구령을 치고서 육중한 바퀴를 힘껏 돌리였다.

지붕틈으로 새여드는 가느다란 광선이 그의 얼굴과 옷에 비치였다. 그런데 제냐는 이것을 적함의 탐조등으로, 자기를 찾고있는것으로 알고 전투개시를 결심하였다.

그는 좌로, 우로 기동하여 삐걱거리는 바퀴를 힘껏 돌리면서 위엄있게 지휘명령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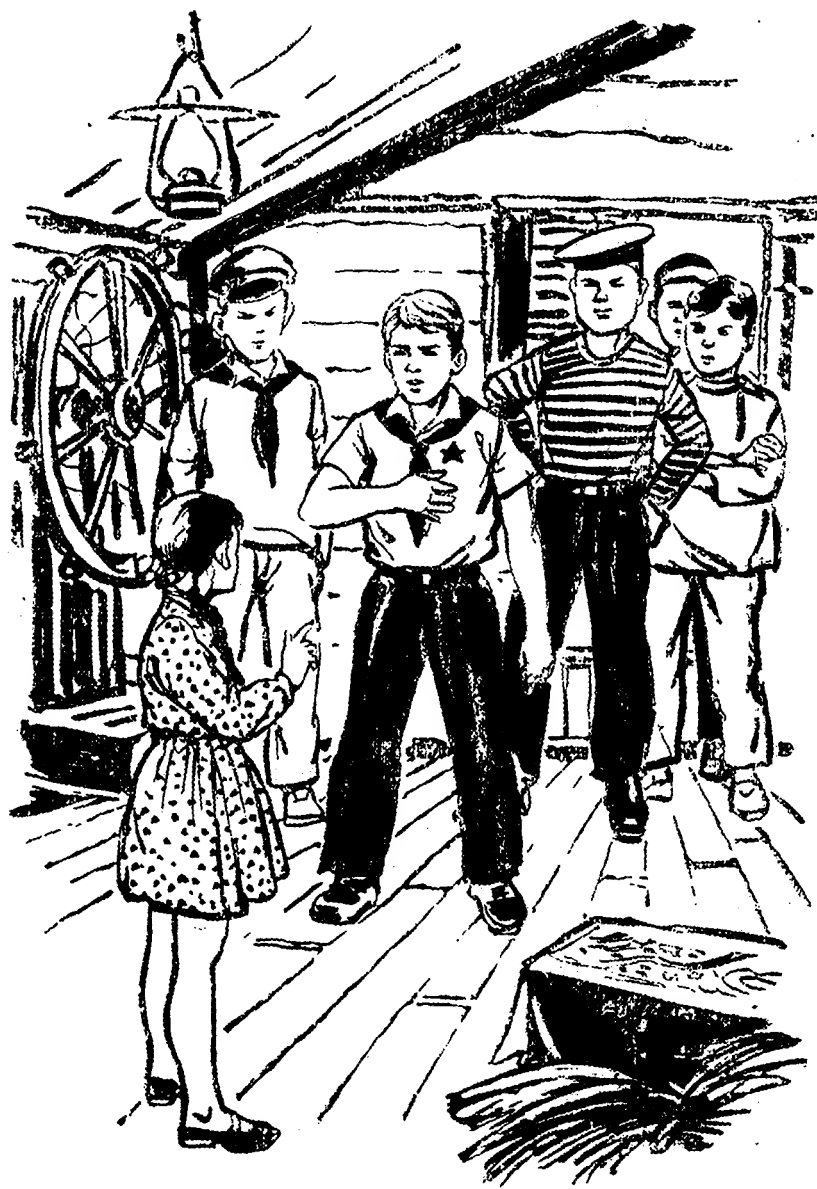
그러는 사이에 곧추 비치던 탐조등의 예리한 불빛이 약해지더니 마침내 꺼지고말았다. 이것은 물론 해가 검은 구름속으로 들어간것이 아니라 격파된 적함대가 바다밑으로 가라앉은것이였다.

전투는 끝났다. 제냐는 먼지투성이가 된 손바닥으로 마루를 닦았다. 그런데 별안간 벽에 걸린 전화종이 따르릉 울렸다. 그것은 뜻밖이였다. 제냐는 그 전화통이 그저 단순한 장난감인줄로만 생각했었다. 당황한 그

는 어찌할바를 몰라하면서 수화기를 들었다.
날카롭게 쨍쨍한 목소리가 묻는것이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답 좀 해봐요. 어떤 바보가 줄을 온통 끊어버리면서 알수도 없는 허튼 신호를 하는거요?》
《난 바보가 아닙니다.》 하고 어리둥절한 제냐는 중얼거렸다. 《나예요. 제냐예요!》
《저런, 정신나간 처녀애같으니!》 하고 같은 목소리가 놀란듯이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조타륜을 버리고 얼른 도망쳐라! 이제 애들이 달려간다.… 그 애들이 너를 되게 때릴것이다.》
제냐는 수화기를 내던졌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창문으로 누군가의 머리가 불쑥 올라왔다. 그것은 게이까였다. 그 뒤를 따라 씨마 씨마꼬브, 꼴랴 꼴로꼴치꼬브가 올라오고 또 그 뒤로 련달아 애들이 밀려올라왔다.
《너희들은 웬 아이들이냐?》 겁에 질린 제냐는 창문에서 물러서면서 물었다. 《어서들 가거라. 여긴 우리 정원이다. 나는 너희들을 오라고 한 일이 없어.》
그러나 아이들은 어깨를 꼭 맞대여 성을 쌓고서 말없이 제냐에게로 다가들었다.
그리하여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구석으로 밀려난 제냐는 악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때 창문에 또하나의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다. 애들은 모두 그쪽을 돌아보고 량옆으로 물러서서 길을 내여주었다. 그리하여 소매짧은 검푸른빛샤쯔의 가슴팍에 붉은별을 수놓아 입은 키큰 검은머리소년이 제냐앞으로 다가와 섰다.
《떠들지 말어. 제냐!》 하고 소년은 큰소리로 말하였다. 《소리 지를 필요는 없어. 아무도 너를 다치지 않는다. 너와 나는 서로 아는 사이다. 내가 바로 찌무르야!》
《네가 찌무르야?!》 제냐는 눈물이 글썽한 눈을 휘둥그렇게 뜨면서 못미덥다는듯이 부르짖었다. 《그럼 밤에 내게다 이불을 덮어준게 너란 말이냐? 책상우에다 나한테 글쪽지를 써놓은것도 너구? 전선에 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전보를 치고 열쇠와 접수증을 보내준것도 너란말이냐? 그런데 왜 그랬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어? 너는 날 어떻게 알았니?》

찌무르는 제냐에게 다가서면서 그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그럼, 우리하구 여기 있자! 앉아서 들으면 죄다 알게 될게다.》

× ×

아이들은 찌무르의 곁에 가마니를 깔고 앉았다. 찌무르의 앞에는 마을지도가 펼쳐져있었다.
들창 썩 웃쪽구멍에 바줄을 걸어만든 그네에는 감시병이 올라앉았는데 그의 목에는 못쓰게 된 치레거리의 쌍안경줄이 걸려있었다.
제냐는 찌무르의 가까이에 앉아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참모부회의에서 일어나는 모든것을 주의깊게 들으면서 살펴보았다.
찌무르가 말하였다.
《래일 새벽 사람들이 아직 잘 때에 나하고 꼴로꼴치꼬브는 이 애가 (그는 제냐를 가리켰다.) 끊어놓은 줄을 고치자.》
《그 앤 늦잠꾸러기야.》하고 머리가 크고 줄이 간 해병샤쯔를 입은 게이까가 퉁명스럽게 끼였다. 《그 앤 아침이나 점심을 먹을 때에야 일어나는데》
《허튼소리 그만둬!》하고 꼴랴 꼴로꼴치꼬브가 벌떡 일어나 더듬거리면서 부르짖었다. 《난 첫 해발이 비칠 때 일어난다야.》
《난 어느게 첫 해발이구 어느게 둘째 해발인지는 몰라두 너는 어쨌든 늦잠꾸러기야.》하고 게이까는 고집을 세웠다.
그런데 이때 그네에 타고 흔들거리던 감시병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아이들이 벌떡벌떡 일어섰다.
행길로 기마포병대대가 먼지를 뽀얗게 일구면서 달려가고있었다. 가죽띠와 쇠사슬을 몸뚱이에 건 다부진 말들이 록색탄약상자와 회색카바를 씌운 대포들을 빨리 끌고들 갔다.
바람에 트고 볕에 탄 기사들이 끄떡도 하지 않고 안장에 앉아서 날쌔게 길모퉁이를 돌아 한중대 한중대 뒤를 이어 숲속으로 사라졌다. 마침내 대대는 지나가버렸다.
《저건 정거장으로 기차를 타러 가는거야.》하고 꼴로꼴치꼬브가 우쭐해서 설명하였다. 《난 그들의 군복만 보면 알아. 훈련을 하러 가는건지, 열병식에 가는건지, 그렇잖으면 또 어디로 가는건지.》
《얘, 좀 떠들지 말아!》하고 게이까가 그의 말을 막아버렸다. 《우리

도 눈이 있다야. 애들아, 이 말공부쟁이가 붉은군대로 달아나겠대!》
《건 안돼.》하고 찌무르가 말참견을 하였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거야.》
《왜 안돼?》 꼴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물었다. 《그럼 이전에는 어째서 아이들이 늘 전선으로 달아나군 했더랬니?》
《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우리같은 조무래기들은 목덜미를 쥐서 쫓아내라고 모든 사령관들과 부대장들한테 엄격히 명령했대.》
《목덜미를 쥔다구?》꼴랴는 발끈 성이 나 얼굴이 한층 더 빨개지면서 부르짖었다. 《그게 자기 편인데두?》
《글쎄말이다!…》하고 찌무르가 한숨을 쉬였다. 《자기 편이래두 그런대! 자, 그럼 이젠 하던 일을 계속하자.》
모두 자리에 앉았다.
《끄리워이골목 34호집 정원에서 어떤 아이자식들이 사과를 훔쳐갔어.》하고 꼴랴 꼴로꼴치꼬브가 괘씸하다는듯이 보고하였다. 《자식들은 나무가지를 두대나 꺾고 꽃밭을 죄다 밟아서 못쓰게 만들었어.》
《누구네 집인데?》하고 찌무르는 기름천뚜껑의 공책을 들여다보았다. 《붉은군대전사 끄류꼬브네 집이구나. 우리들가운데 이전에 남의 정원으로 다니며 사과를 따던 전문가는 누구더라?》
《나야.》당황해하는 목소리였다.
《그건 누가 한짓일가?》
《그건 미슈까 끄와낀하구 〈피구라〉란 별명을 가진 그 자식의 조수놈이 한짓이야. 사과나무는 미츄린종이고 이름은 〈황금〉이구, 물론 자식들이 골라잡은거야.》
《또 끄와낀이로구나!》찌무르는 잠간 생각하였다.《게이까! 너 그 애하고 이야기해봤니?》
《해봤어.》
《그래 어떻게 됐니?》
《목덜미를 두대 갈겨줬지.》
《그 애는 어쩌던?》
《그자식두 날 두대나 박아주었어.》
《제길, 너는 그저 〈갈겨주었다〉, 〈박아주었다〉뿐이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좋다! 끄와낀은 특별히 취급하기로 하고 또 다음.》

《제 25 호집 우유장사할머니네 아들이 기병대에 입대했어.》하고 구석에서 누군가가 보고하였다.
《됐어!》 찌무르는 못마땅하다는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 집엔 우리 표식이 그려진지 벌써 나흘째나 된다. 그런데 누가 그걸 그렸어? 꼴랴 꼴로꼴치꼬브, 네가 그렸니?》
《내가 그렸어.》
《그런데 네가 그린 별은 어째서 웃쪽 바른편뿔이 거마리처럼 꼬부라졌니? 한번 맡은 일을 잘 해야지 남들이 보면 웃을게다. 그 다음 또.》
씨마 씨마꼬브가 벌떡 일어서더니 확신있게 줄줄 내리엮었다.
《뿌쓔까료와거리 54호집에서 염소가 없어졌어. 지나가면서 보니까 할머니가 처녀애를 막 두들겨패고있겠지. 그래서 내가 〈할머니, 사람 때리는건 법에 위반돼요!〉하고 소리를 쳤더니 그 할머니가 〈염소가 달아났다. 아이구, 요 망할놈의 계집애같으니!〉하잖겠어. 그래 〈대관절 어데로 달아났어요.〉하니까 〈저 애나무숲너머 골짜기에서 바줄을 끊아먹고 승냥이라도 와서 잡아먹었는지 가뭇없이 종적을 감추었구나!〉하잖겠어.》
《가만있어! 누구네 집이라구?》
《붉은군대전사 빠웰 구리예브네 집이야. 처녀애는 그의 딸인데 이름은 뉴르까구. 때린 할머니는 그 애 할머니야. 이름은 몰라. 염소는 회색인데 등에 검은 줄이 있고 이름은 만까야.》
《염소를 찾아올것!》하고 찌무르는 엄격하게 명령하였다. 《네사람으로 한조를 지어서 갈것. 너하구… 너, 너 그리고 너, 얘들아, 인젠 됐지?》
《22호집에서 조그만 처녀애가 울어.》 게이까가 내키지 않는듯이 보고하였다.
《그 애가 왜 울어?》
《물어봤는데 말을 하지 않어.》
《그럼 좀더 잘 물어볼게지. 누가 그 애를 때렸거나… 책망을 했는지도 모르지 않어?》
《물어봤는데두 통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 큰 애더냐?》
《네살이야.》

《건 야단이구나! 큰 애라면 몰라도… 그 앤 네살밖에 안되니! 가만 있자, 그게 누구네 집이라구?》
《빠블로브중위네 집이야. 얼마전에 국경에서 전사한…》
《물어봐도 말을 하지 않는다.》 하고 찌무르는 애가 타는듯 게이까의 말을 되뇌이였다. 그는 얼굴을 찌프리고 잠시 생각하였다. 《좋아… 이건 내가 맡으마. 너희들은 상관말어라.》
《수평선에 미슈까 끄와낀이 나타났다.》 하고 감시병이 큰소리로 보고하였다. 《길 건너편으로 넘어간다. 사과를 먹는다. 찌무르! 한조 보내서 저 자식을 한바탕 두들겨주자!》
《그럴것 없어. 모두 제자리에 가만 있어. 내 얼른 갔다올게.》
그는 창문에서 층층대로 훌쩍 내려뛰여 나무덤불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감시병이 또 보고를 하였다.
《저 앞에 있는 쪽대문결에서 어떤 멋쟁이아가씨가 그릇을 들고 서서 우유를 산다. 저건 아마 별장주인인것 같구나.》
《그게 너의 언니 아니냐?》 하고 꼴랴 꼴로꼴치꼬브가 제냐의 팔소매를 잡아당기면서 물었다. 그리고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무안한듯 시뚝해서 주의를 주는것이였다. 《너 여기서 언니한테 소리만 쳐 단봐라.》
《가만 좀 앉아있어!》 하고 제냐가 소매를 나꿔채면서 비웃는조로 대꾸하였다.
《너도 내 상관이라구…》
《그 애를 건드리지 말어.》 하고 게이까가 꼴랴를 놀려주었다. 《괜히 그러다 얻어맞겠다.》
《날 때려?》 꼴랴는 후끈 달았다. 《뭘 가지구? 손톱으로? 내한텐 근육이 있거든. 자, 이건 팔근육이구 이건 다리근육이야!》
《그 애는 팔근육과 다리근육을 한꺼번에 써서 때린다. 얘들아, 조심해라! 찌무르는 끄와낀한테 다가간다.》

× ×

찌무르는 꺾어든 나무가지를 가볍게 휘저으면서 끄와낀에게로 앞질러갔다. 이것을 알아차린 끄와낀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넙적한 그의 얼굴에는 의아해하는 기색도 놀라는 기색도 보이지 않

았다.
《정치위원, 잘 있었니?》 하고 그는 고개를 한옆으로 끄덕하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근데 어데로 그렇게 서두르는거냐?》
《두목아, 잘 있었니!》 하고 찌무르는 점잖게 대답하였다. 《나는 너를 만나러 오는 길이다.》
《찾아와서 반갑긴한데 대접할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나 좀 대접할가?》 그는 품속에 손을 넣더니 찌무르에게 사과 한알을 내밀었다.
《훔친거냐?》 찌무르는 사과를 한입 베여먹으면서 물었다.
《이건 바로 〈황금〉종이다.》 하고 끄와낀이 말하였다. 《그런데 아직 잘 익질 않아서 흠이야.》
《에 시다!》 하고 찌무르는 사과를 내던지면서 말하였다. 《이봐, 너 34호집 울타리에 이런 표가 붙어있는걸 봤니?》 찌무르는 자기의 검푸른 샤쯔에 단 별표를 가리켜보였다.
《응, 봤다.》 끄와낀은 정색을 하였다. 《얘, 나는 밤이나 낮이나 못보는게 없어.》
《그렇다면 넌 이제부터는 밤이건 낮이건 이런 표식을 어데서 또 보기만 하면 끓는물이라도 뒤집어쓴듯 그 자리에서 들구 뛰여라.》
《야, 이 정치위원 봐. 성미두 참 급하구나!》 끄와낀은 말끝을 길게 뽑으면서 말하였다. 《됐다, 이젠 그만두자!》
《이런 두목 봤나! 너는 고집이 참 세구나.》 찌무르는 어성을 높이지 않고 대꾸하였다. 《너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너도 명심해두고 너희 패거리들한테도 모두 일러둬라.》
먼곳에 떨어져서 봐서는 그 누구도 바로 적수끼리 마주 서서 담판을 하는줄은 생각지도 못했을것이다. 그러기에 두손에 우유그릇을 든 올리가는 망나니 끄와낀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있는 그 총각애가 누군가고 우유장사할머니에게 물어보았다.
《모르겠군.》 하고 우유장사할머니는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아마 그따위 몹쓸 망나니놈이겠지. 저 애는 웬일인지 그냥 아가씨네집 근처에서 빈둥거리고있거든. 이보우, 저녀석들이 아가씨 동생을 때리지 못하게 잘 살펴보우.》
올리가는 근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두 소년을 아니꼽게 쏘아보고 베란다에 올라가서 우유그릇을 내려놓고는 문을 잠그고

벌써 두시간째나 집에 돌아오지 않는 제냐를 찾으러 길거리로 나갔다.

× ×

다락방으로 돌아온 찌무르는 끄와낀을 만나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였다. 그리하여 래일 이 패거리에게 최후통첩을 보내기로 결정이 되였다.

아이들은 슬며시 뛰여내려 울타리구멍으로 빠지기도 하고 직발 울타리를 넘기도 하며 제가끔 흩어져서 집으로 달려들갔다.

찌무르는 제냐한테로 다가갔다.

《그래 어때?》하고 그는 물었다. 《이젠 다 알았지?》

《다 알았어.》 제냐는 대답하였다. 《근데 아직 똑똑히는 모르겠구나. 좀 간단히 설명해주렴.》

《그럼 내려가서 날 따라와. 너의 언니는 지금 집에 없으니까.》

둘이 다락에서 내려온 다음 찌무르는 사닥다리를 치워놓았다.

날은 벌써 어둑어둑해졌다. 그러나 제냐는 마음놓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우유장사할머니네 집곁에서 멈추어섰다. 찌무르는 주위를 휘 살펴보았다. 근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연으로 만든 화구쥬브를 꺼내들고 별이 그려져있는 그 집 대문으로 다가갔다. 과연 그 별의 웃쪽 바른편뿔이 거마리처럼 구부러져있었다.

그는 자신있게 뿔을 펴서 뾰족하게 고쳐놓았다.

《이건 왜 그렇게 하니?》하고 제냐가 물었다. 《그 까닭을 간단히 설명해주려무나.》

찌무르는 쥬브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우웡잎을 뜯어서 손가락에 묻은 화구를 닦고나서 제냐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말하였다.

《이건 그 집에 붉은군대에 나간 사람이 있다는 표식이다. 그리구 그때부터 그 집은 우리들의 보위와 보호를 받게 되는거다. 너의 아버지도 군대에 나가셨니?》

《응, 나가셨어.…》 제냐는 격동하여 자랑스럽게 대답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군관이야.》

《그럼, 너도 우리들의 보위와 보호를 받아야겠구나.》

그들은 다른 별장 대문앞에 멈추어섰다. 그 집 울타리에도 별이 그려져있었다. 그런데 그 별에는 넙적한 검은 테두리가 있었다.

《여기도 있다.》 찌무르가 말하였다. 《이 집에서도 붉은군대에 한 사람이 나갔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젠 없어. 이 별장은 얼마전에 국경에서 전사한 빠블로브중위네 별장이야. 지금 여기엔 그 사람의 부인하고 조그만 처녀애가 살고있는데 그 애가 어째서 그리 자주 우는지 착한 게이까도 묻다못해 그만 대답을 못들었구나. 제냐, 너 기회만 있으면 그 애한테 잘 이야기해줘라.》

그는 극히 단순하게 이 모든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제냐는 저녁 날씨가 푸근하고 지어 무덥기까지 하였는데도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치였다.

제냐는 고개를 떨어뜨린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저 가만있기가 무엇해서 문득 입을 떼였다.

《아니, 그래 게이까가 착하다구?》

《그럼.》하고 찌무르가 대답하였다. 《그 앤 해병의 아들이야. 그 앤 쩍하면 그 꼬맹이 호통쟁이 꼴랴 꼴로꼴치꼬브를 욕하군하면서도 다른데 가서는 언제나 그 애편을 들어준다.》

노기를 띤듯한 날카로운 부름소리에 그들은 뒤를 돌아다보았다. 멀지 않은곳에 올리가가 우뚝 서있었다.

제냐는 찌무르의 손을 쥐려고 하였다. 그는 찌무르를 데리고 가서 올리가와 인사를 시키려고 했던것이다.

그러나 거듭되는 엄격하고 쌀쌀한 웨침소리에 제냐는 그만 그것을 단념하고말았다.

제냐는 미안한듯 찌무르에게 고개를 끄덕해보이고는 알수 없다는듯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올리가에게로 달려갔다.

《제냐!》올리가는 숨이 턱에 닿아서 눈물머금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너 다시는 그 애하고 말을 해서는 안된다. 알겠니?》

《근데 올랴.》하고 제냐는 입속말로 중얼거리였다. 《어째서 그래?》

《그 애하고 가까이해서는 안된다.》하고 올리가는 거듭 되뇌이였다. 《너는 열세살이고 나는 열여덟살이다. 나는 너의 언니구… 나

이도 더 많아. 그리고 아버지가 떠나가실 때 내게 말씀하셨어…》

《그렇지만 언니, 언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몰라!》하고 제냐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그는 몸을 발발 떨었다. 자기에게 잘못이 없음을 해명하고싶었고 증명하고싶었다. 그러나 말할수가 없었다. 그는 말할 권리가 없었던것이다. 그는 손을 훌 내젓고는 언니에게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곧 잠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오래도록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잠이 든 그는 한밤중에 창문을 두드리고 아버지한테서 오는 전보를 준것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 ×

날이 밝았다. 목동의 피리소리가 들리였다. 우유장사할머니는 쪽대문을 열고 암소를 소무리가 있는데로 몰고나갔다. 할머니가 길모퉁이를 채 돌아서기도전에 아이들 다섯이 빈 바께쯔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아카시아덤불속에서 뛰쳐나와 우물가로 달려갔다.

《어서 떠라!》

《자 어서!》

《에따 받아라!》

《됐다!》

아이들은 맨발에 찬물을 철철 흘리며 뜨락으로 달려가서 참나무통에다 바께쯔의 물을 붓고는 곧 우물가로 되돌아가군하였다.

온몸이 후줄근히 젖어가지고 연신 뽐프질을 하고있는 씨마 씨마꼬브한테로 찌무르가 달려와서 물었다.

《너희들 여기서 꼴로꼴치꼬브를 못봤니? 못봤어? 그럼 그 애가 늦잠을 자누나. 어서들 빨리! 이제 할머니가 돌아온다.》

꼴로꼴치꼬브네 별장 정원에 나타난 찌무르는 나무아래에 서서 휘파람을 불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는 나무에 기여올라가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무에서는 창문쪽으로 놓인 침대의 절반과 모포에 뒤감긴 다리가 보일뿐이였다.

찌무르는 나무껍질을 하나 침대에 던지고 나직이 불렀다.

《꼴랴, 일어나! 얘 꼴랴!》

잠자는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았다. 찌무르는 칼을 꺼내서 길다란

나무가지를 잘라 끝을 갈구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문턱안으로 쑥 들여밀어 모포를 걸어서 끌어당기였다.

가뿐한 모포는 문턱을 넘어 끌려나왔다. 이때 별안간 방안에서 질겁을 한 목갈린 고함소리가 났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잠에 취한 눈을 부릅뜨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속내의바람으로 달아나는 모포를 붙잡으면서 창가로 뛰여나왔다.

점잖은 로인과 얼굴이 피뜩 마주치자 찌무르는 나무에서 훌쩍 뛰여내렸다.

백발의 할아버지는 빼앗은 모포를 침대우에 내던지고 벽에서 쌍대배기 사냥총을 벗겨들고 얼른 안경을 쓴 다음 총구멍이 하늘로 가게 창문으로 쑥 내대고 한눈을 지그시 감더니 한방 쏘았다.

× ×

놀란 찌무르는 우물가에 와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자고있는 그의 할아버지를 꼴랴인줄로만 알았던것이다.

이때 찌무르는 우유장사할머니가 멜대와 바께쯔를 가지고 물을 길러 쪽대문으로 나오는것을 보았다. 그는 얼른 아카시아숲뒤에 몸을 숨기고 엿보기 시작하였다.

우물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바께쯔를 들어서 통에다 거꾸로 대려다가 그만 넝큼 물러섰다. 이미 가득찬 통에서 물이 쏟아져내렸던것이다.

할머니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한숨을 쉬면서 통을 휘돌아보고는 손을 물에 적시여서 코에다 대보았다. 그러더니 앞현관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할머니는 끝내 어찌된 영문인지를 알아내지 못한채 이웃집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찌무르는 씽긋 웃으면서 숨었던 자리에서 나왔다. 급히 서둘러야했다. 해는 벌써 뜨기 시작했는데 꼴랴 꼴로꼴치꼬브는 나타나지 않았고 따라서 신호줄도 고쳐지지 않았다.

× ×

찌무르는 헛간을 향하여 슬금슬금 숨어들어가면서 정원쪽으로 난 열려진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침대옆 책상에 수영빤쯔와 런닝샤쯔를 입은 제냐가 앉아서 이마에 흘러내리는 머리칼을 성급히 치켜올리면서 무엇을 쓰고있었다.

제냐는 찌무르를 보고서도 놀라는 기색 하나 없었다. 그는 다만 찌무르가 올리가를 깨우지 않도록 손가락을 내저어보였을뿐 채 쓰지 못한 편지를 서랍에다 집어넣고는 발뒤꿈치로 살금살금 방에서 나왔다.

이때 찌무르에게서 그가 오늘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것을 알게 된 제냐는 올리가의 다짐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찌무르를 도와 자기가 끊어놓은 줄을 고치겠노라고 자청하여 나섰다.

일이 다 끝나고 찌무르가 벌써 생나무울타리 저쪽에 서있을 때 제냐가 그에게 말하였다.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언니는 너를 몹시 미워한다.》

《글쎄말이야.》 하고 찌무르는 락심해서 대답하였다. 《우리 아저씨는 또 너를 미워한다.》

찌무르는 가려고 하였으나 제냐는 그를 멈춰세웠다.

《가만있어. 머리를 좀 빗어. 너 오늘 머리가 몹시 헝클어졌구나.》

제냐는 빗을 꺼내서 찌무르에게 내밀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뒤 창문에서 성난 올리가의 웨침소리가 쨍 울리였다.

《제냐! 뭘 그러고있어?…》

두 형제는 베란다에 서있었다.

《난 언니더러 이런 사람을 친해라, 저런 사람을 친해라 시비를 안해.》 하고 제냐는 한사코 대드는것이였다. 《언니동무는 별난 사람인가? 그저 그런 사람이더군. 흰 양복을 입구, 〈아, 동무 언니는 음악을 얼마나 잘할가!〉 참 훌륭하지! 그 사람이 우리 언니가 어떻게 성을 잘 내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네. 두고봐 ! 난 벌써 아버지한테 모든걸 죄다 쓰고있어!》

《제냐! 그 사내아이는 나쁜 애야. 그런데두 넌 바보같은게.》 올리

가는 애써 태연한체 하면서 쌀쌀하게 말하였다.《아버지한테 쓰겠으면 어서 쓰렴,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애하고 같이 있는걸 보는 땐 나는 그날로 당장 별장을 내여줄테니 모스크바로 떠나간줄로 알아라. 내가 한번 말하면 그대로 하고야마는걸 너도 알지?》

《그래… 깍쟁이같으니!》제냐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대답하였다. 《그건 나도 알고있어.》

《이젠 이거나 읽어라.》하면서 올리가는 어제밤에 받은 전보를 책상우에 내놓고 밖으로 나갔다.

전보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며칠뒤 지나는 길에 몇시간 모스크바에 들리겠다. 날자는 다시 전보로 알리겠다. 아버지.》

제냐는 눈물을 훔치고 전보에 입술을 꼭 대고서 나직이 중얼거렸다. 《아버지, 빨리 오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제냐는 정말 못견디겠어요.》

× ×

염소가 없어진것으로 하여 잽싼 소녀 뉴르까를 때려준 그 로파가 사는 집 뜨락으로 장작을 두 달구지나 실어왔다.

로파는 장작을 마구 부려놓은 불친절한 달구지군을 욕도 하고 한편 한탄도 하고 끙끙거리면서 장작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로파에게는 힘겨운 일이였다.

로파는 기침을 콩콩 깇으면서 층층대에 앉아서 숨을 돌리고는 물뿌리개를 들고 남새밭으로 나갔다. 뜨락에는 세살난 뉴르까의 동생만이 남았는데 그 애는 분명 기운이 세고 부지런한 애임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로파가 없어지자 그 애는 막대기를 들고 걸상과 엎어놓은 함지등을 두드리기 시작했던것이다.

이때 인디아호랑이 못지 않게 풀숲으로, 골짜기로 날쌔게 뛰여다니는 염소를 붙잡으러 다니던 씨마 씨마꼬브가 자기 조에서 한사람만 수풀가에 남겨두고 다른 애들 네명을 모두 데리고 회오리바람처럼 이 집 뜨락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조무래기의 입에다 딸기를 한줌 넣어주고 손에다는 반짝이는 갈가마귀의 깃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다른애들 넷은 모두

장작을 가리러 달려갔다.

씨마 씨마꼬브 자신은 장작을 가리는동안 로파를 남새밭에 붙들어두려고 울타리모퉁이를 돌아 나는듯이 뛰여갔다. 그리하여 앵두나무와 사과나무가 서있는 울타리밑에서 걸음을 멈춘 씨마는 틈사이로 남새밭을 들여다보았다.

로파는 치마폭에 오이를 따가지고 뜨락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씨마 씨마꼬브는 울타리널판자를 똑똑 두드렸다.

로파는 귀를 기울였다. 그때 씨마 씨마꼬브가 막대기를 들고 사과나무가지를 건드리기 시작하였다.

로파는 어떤 놈이 사과를 훔치려고 몰래 울타리를 넘어오는줄로만 알았다. 그는 발뚝에 오이를 쏟아던지고 쐐기풀을 한줌 뽑아들고서 울타리밑으로 살금살금 다가와서 숨을 죽이고있었다.

씨마 씨마꼬브가 다시 틈사이로 들여다보았을 때 로파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훌쩍 뛰여 울타리를 붙잡고 조심조심 기여올라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때 로파가 꽥 소리를 지르고 숨었던 자리에서 뛰쳐나오면서 쐐기풀로 씨마꼬브의 손을 되게 갈겨주었다.

씨마가 맞은 두팔을 연방 내저으면서 대문쪽으로 부리나케 달려갔을 때 거기에서는 벌써 일을 다 끝낸 네 아이가 달려나오고 있었다.

뜨락에는 또다시 조무래기만 혼자 남았다. 그녀석은 땅바닥에 널린 장작부스레기를 주어다가 장작가리 한끝에 올려놓은 다음 봇나무껍질 한가치를 장작가리로 끌어가고있었다.

남새밭에서 돌아온 로파는 한참 일을 하고있는 조무래기를 보았다. 그는 눈이 둥그래서 알뜰하게 가려놓은 장작가리앞에 서서 조무래기에게 물었다.

《내 없는새 이건 누가 가렸느냐?》

조무래기는 봇나무껍질을 장작가리에 가져다 얹으면서 당돌하게 대답하는것이였다.

《할머니, 보지 못해? 이건 내가 했어.》

뜨락으로 우유장사할머니가 들어왔다. 그리하여 두 로파는 그 이상한 아이와 장작사건을 신이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두 로파는 조무래기한테서 해답을 얻어보려고 했으나 신통한것을 알

아내지 못하였다. 조무래기는 애들이 대문으로 뛰여들어오더니 입에다 달콤한 딸기를 한줌 넣어주고 깃을 주고 또 귀가 두개, 다리가 네개 달린 토끼를 잡아다주마고 약속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장작을 가려놓고는 다시 뛰여가버렸다고 할머니에게 설명하였다.

쪽대문으로 뉴르까가 들어왔다.

《뉴르까!》하고 로파가 물었다. 《방금 우리 집 뜨락에 누가 뛰여들어왔댔는지 못봤느냐?》

《저는 염소를 찾아다녔어요!》하고 뉴르까는 맥없이 대답하였다. 《전 온 아침 숲속으로, 골짜기로 뛰여다녔어요.》

《도적을 맞혔구려!》하고 로파는 우유장사할머니에게 억이 막혀 하소연하였다. 《글쎄 그놈의 염소가 얼마나 좋았다구요! 염소가 아니라 여북없는 비둘기였지요!》

《비둘기는 무슨 놈의 비둘기예요.》하고 로파에게서 물러서면서 뉴르까가 대꾸하였다. 《뿔을 잔뜩 겨누고 날뛰기 시작하면 꼼짝못하면서도 비둘기래요. 비둘기한테는 뿔이 없는데요.》

《이년, 듣기 싫다! 입을 다물지 못해, 이 얼뜨기 바보같은 년!》하고 로파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하긴 염소치구야 고놈 성질이 고약했지. 그러게 난 고놈을 팔아버리려고 했드랬지. 그런데 글쎄 고놈의 비둘기새끼가 이젠 없어지구 말았구려.》

이때 울타리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염소 한마리가 뿔을 잔뜩 수그리고 뜨락으로 뛰여들어오면서 우유장사할머니한테 달려들었다. 우유장사할머니는 무거운 양철통을 덮쳐들고 아우성을 치면서 현관으로 뛰여올라섰다. 그러나 염소는 바람벽을 뿔로 들이받고서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그런데 염소뿔에는 합판으로 만든 표쪽이 단단히 비끄러매여있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씌여있었다.

나는 염소-염소
누구나 다 나를 무서워해
뉴르까를 때리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게 되리라

울타리 건너편 모퉁이에서는 아이들이 만족해서 깔깔 웃어대고있었다.

씨마 씨마꼬브는 땅바닥에 막대기를 꽂아놓고 그 두리로 발장단을 치고 돌아가면서 자랑스럽게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악당도 강도도 아니며
폭한들의 패거리도 아니라네
우리는 쾌활한 삐오네르
용사들의 부대라네
헤이 헤이!

이윽고 아이들은 날쌘 제비떼와도 같이 소리없이 멀리 달아나버렸다.

× ×

오늘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선 중요하게는 미슈까 끄와낀에게 최후통첩을 곧 써보내야만 하였다.

최후통첩을 어떻게 쓰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기때문에 찌무르는 그것을 아저씨에게 물어보았다.

아저씨의 설명에 의하면 최후통첩은 나라마다 제식대로 쓰는것인데 정중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끝에다 다음과 같이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대신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면서.》 그 다음 최후통첩은 전권대사를 통해서 적국정부에 보내는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런것은 찌무르의 마음에도 그의 전체 부대원들의 마음에도 들지 않았다. 그것은 첫째로, 부랑자 끄와낀에게 그 어떤 경의도 표시하고싶지 않았고 둘째로, 그들에게는 그 패거리한테 파견할 전권대사는 고사하고 공사조차 없었기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회의를 열고 최후통첩을 보다 더 평범하게 옛날 자뽀로지예의 까자크들이 뛰르끼예황제에게 보내던식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용감한 까자크들이 뛰르끼예사람들, 따따르사람들, 뽈스까사람들과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해서 씌여있는 책을 읽

을 때 그림에서 그런 광경을 보았던것이다.

× ×

올리가와 제냐가 살고있는 별장 맞은편에는 재빛대문에 검은 테두리의 별을 그린 집이 있었는데 그 집 그늘진 정원에서 조그마한 은발머리 처녀애가 모래깔린 좁은 길로 걸어가고있었다. 아직 젊고 예쁘기는 하지만 얼굴에 슬픔과 피로의 빛이 완연한 처녀애의 어머니는 아담한 들꽃묶음이 놓인 창가의 흔들의자에 앉아있었다.

그 어머니앞에는 겉봉을 뗀 전보며 편지가 한무데기 놓여있었는데 그것은 친척들과 벗들,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온것이였다.

그 편지와 전보들은 어느것이나 따뜻하고 친절한 념려들이 가득찬것이였다. 외로운 나그네를 어느쪽으로 부르는것도 아니며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는것도 아니건만 어쨌든 가까이에 사람이 있으니 캄캄한 밀림속에서도 외로와말라고 나그네를 격려하고 귀띔해주는 메아리와도 같이 멀리에서 울려오는 속삭임인듯 싶었다.

인형의 나무손과 머리가 모래바닥에 끌리게 인형을 거꾸로 든 그 은발머리처녀애가 울타리앞에서 우뚝 멈추어섰다. 울타리로 합판을 오려서 만든 색칠한 토끼 한마리가 내려왔던것이다. 그 토끼는 배에 안은 발라라이카줄을 튕기면서 앞발을 까두룩거렸는데 낯바닥은 어쩐지 어설픈것이 우습강스럽게 생겼었다.

이런 난생처음 보는 알수 없는 괴물에 그만 매혹되여버린 처녀애는 인형을 떨어뜨리고 울타리로 다가갔다. 그러자 마음씨고운 토끼는 온순하게 곧바로 소녀의 손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 만족해하는 제냐의 깜찍한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처녀애는 제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이건 나하고 노는거니?》

《응, 너하고 노는거야, 내 너한테 내려뛸가?》

《여긴 쐐기풀이 있어.》하고 처녀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리 경고를 주는것이였다. 《나는 어제 여기서 손을 찔렸어.》

《괜찮아.》하고 제냐는 울타리에서 훌쩍 내리뛰면서 말하였다. 《그까짓건 무섭잖아. 어디 보자, 어느 놈의 쐐기풀이 어제 네 손을

찔렀니? 요놈이야? 에 요놈, 이제 봐라. 내 요놈을 요렇게 뽑아서 내 동댕이치고 발로 짓밟아버린 다음 이렇게 침을 탁 뱉아주자. 자, 이젠 나하고 놀자 응, 넌 토끼를 가지고 나는 인형을 가지고.》

올리가는 베란다층계에서 제냐가 남의 집 울타리곁에서 어물거리고 돌아다니는것을 보았지만 오늘 아침 몹시도 울었기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그러나 제냐가 울타리로 기여올라가서 남의 집 뜨락으로 뛰여내리자 불안해진 올리가는 집을 나와서 그 집 대문으로 다가가 쪽대문을 열었다.

제냐와 은발머리처녀애는 이미 창문가의 부인곁에 서있었는데 처녀애가 우습강스럽게 생긴 토끼가 발라라이카를 튕기는것을 보여주니 그 부인은 빙긋이 웃었다.

제냐의 수심에 잠긴 얼굴을 본 부인은 뜨락으로 들어온 올리가가 그를 못마땅해한다는것을 짐작하였다.

《그 애를 책망하지 말아요.》하고 부인은 올리가에게 나직이 말했다. 《그 애는 그저 우리 애하고 놀고있어요. 우리 집엔 불행이 있어서…》부인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계속하였다. 《나는 울고만 있는데 우리 애는.》 부인은 조그만 딸을 가리키면서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우리 애는 얼마전에 아버지가 국경에서 전사한줄도 모르고있어요.》

이번에는 올리가가 무안해하고 제냐는 먼발치에서 비난하는 눈치로 언니를 바라보고있었다.

《저는 참 외로와요.》하고 부인은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아주 먼 산골밀림지대에 계시고 오빠들은 모두 군대에 나가고 동생은 없어요.》

부인은 곁에 다가선 제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창문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얘야, 어제밤 우리 현관에 이 꽃다발을 가져다놓은게 네가 아니냐?》

《아니예요.》하고 제냐는 빨리 대답하였다. 《저는 갖다놓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 우리 동무들가운데서 누가 그랬을거예요.》

《누가?》 하고 올리가는 모를 소리라는듯 제냐를 힐끔 쳐다보았다.

《난 몰라.》하고 제냐는 놀란 기색으로 말하였다. 《그건 내가 안 그랬어. 난 아무것도 몰라, 저것봐요. 사람들이 와요.》

대문밖에서 자동차소리가 나더니 대문으로 항공군관 두사람이 들어왔다.

《저한테 오시는분들이예요.》하고 부인이 말하였다. 《저 사람들은 또 날더러 크림으로 가오, 깝까즈로 가오, 휴양소로 가오, 정양소로 가오 하고 권하러 들렸을거예요.…》

두 군관은 부인한테로 다가와서 거수경례를 하였는데 부인의 마지막말을 알아들은 모양으로 상관인 대위가 이렇게 말하였다.

《크림으로도 깝까즈로도 휴양소로도 정양소로도 권하지 않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머님을 보고싶다고 하였지요? 어머님이 오늘 기차로 이루꾸쯔크를 떠나 댁으로 오십니다. 이루꾸쯔크까지 특별비행기로 모셔다드렸습니다.》

《누가 모셔다드렸어요?》하고 부인은 너무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면서 부르짖었다. 《당신들이 모셔다드리셨어요?》

《아니지요.》하고 항공대위가 대답하였다. 《우리와 아주머니의 동지들이 모셔다드렸습니다.》

조그만 처녀애가 달려와서 손님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 처녀애에게는 푸른빛 군복이 무척 낯익은 모양이였다.

《엄마.》하고 처녀애가 떼를 썼다. 《나 그네 만들어줘. 그럼 왔다갔다 왔다갔다 날아다닐래. 아빠처럼 멀리멀리루.》

《얘, 그런 소리 하면 못쓴다.》하고 어머니는 딸애를 훌쩍 들어 꼭 껴안으면서 말하였다. 《아빠처럼 그렇게 먼데루 날아가면 안돼요.…》

× ×

말라야 오브라즈나야거리에는 험상궂은 수도승이며 중대머리 천사들을 그린 벽화가 군데군데 떨어진 자그마한 례배당이 있었는데 그 례배당뒤, 끓는 기름가마와 교활한 악마들을 그린 최후심판의 그림 오른쪽에 보이는 민들레꽃이 핀 공지에서는 미슈까 끄와낀네 패거리들이 트럼프를 놀고있었다.

놀음군들은 돈이 없기때문에 《팔목때리기》, 《이마튕기기》, 《송장살리기》에 열중하였다. 진 사람의 눈을 싸매서 풀밭에 자빠뜨린 다음 그에게 길다란 막대기를 쥐여준다. 그러면 그는 막대기를 휘두

르면서 죽은 사람을 가엾이 여겨 되살아나게 하려고 쐐기풀을 뜯어 드러내놓은 종아리, 볼기, 발꿈치를 막 후려치는 아이들을 막고 재빨리 일어나 도망쳐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한창 놀음에 열중하고있을 때 별안간 담장너머에서 신호나팔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였다.

바깥담벽곁에 찌무르부대에서 온 사절이 서있었다.

나팔수 꼴랴 꼴로꼴치꼬브는 번쩍거리는 구리나팔을 잔뜩 틀어쥐고있었고 맨발에 엄숙한 표정을 한 게이까는 포장지로 만든 봉투를 들고있었다.

《이건 또 뭐야, 여기서 곡예를 하니? 희극을 노니?》피구라라고 하는 사내아이가 담장우에 몸을 걸치면서 물었다. 그리고는 《미슈까!》하고 뒤를 돌아다보면서 소리를 질렀다. 《트럼프는 집어치워! 너한테 무슨 례식을 하러 왔나부다.》

《어디 보자!》 끄와낀이 담장으로 기여오르면서 대꾸하였다. 《오, 게이까 잘 있었니! 그런데 뭐 저따위 무골충을 다 데리고왔어?》《옜다, 편지 받아라.》하고 최후통첩을 내밀면서 게이까가 말하였다. 《너희들한테 스물네시간동안 생각할 여유를 준다. 래일 이맘때 회답을 받으러 올테다.》

자기를 무골충이라고 한데 그만 비위가 상한 나팔수 꼴랴 꼴로꼴치꼬브는 나팔을 번쩍 내대고 볼을 불룩거리면서 철군신호를 본때있게 불어댔다. 그리고 두 군사는 두말 하지 않고 담장에 여기저기 기대선 망나니아이들의 호기심가득찬 눈길의 배웅을 받으면서 위엄있게 물러갔다.

《이건 대관절 뭐라는거야?》하고 끄와낀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있는 아이들을 돌아보고 편지를 이리기웃 저리기웃 뒤집어보면서 물었다. 《원 마지막엔 별걸 다 보겠네. … 생뚱같이 나팔을 불면서 협박이야! 얘들아, 난 정말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겠구나!…》

끄와낀은 담장에 몸을 걸친채 편지를 뜯어서 읽기 시작하였다.

《〈남의 정원을 터는 도적놈패거리의 두목 끄와낀과…〉이건 날 두고 하는 말이군.》끄와낀은 큰소리로 말하였다. 《칭호도 그럴듯하게 붙이고 격식도 제법인걸…〈그의〉》끄와낀은 계속하여 읽었다.

《〈…악명높은 조수 보통 피구라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뾰또르 빠따끄브와…〉이건 너야.》끄와낀은 만족해서 피구라에게 설명해

주었다. 《자식들이 별소리를 다 썼구나. 악명높다구! 이건 너무 고상한 말을 썼어. 이 멍텅구리는 좀 더 쉬운말로 불렀으면 좋았을걸〈…그리고 이 수치스러운 패거리의 모든 성원들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건 무슨 소린지 난 모르겠다.》하고 끄와낀은 익살맞게 말하였다. 《아마 욕설이 아니면 무슨 그따위 뜻일게다.》

《그건 나라와 나라사이에 쓰는 말인데 치겠다는거야.》하고 피구라의 옆에 서있던 중대머리 알료슈까가 설명을 하였다.

《아, 그럼 그렇다고 쓸거지!》하고 끄와낀은 말하였다. 《어디 더 읽어보자. 제1조라, 〈너희들은 우리의 붉은별표식이 붙은 집뿐만 아니라 지어는 검은테상징의 별이 붙은 집까지 습격을 감행하기때문에 우리는 너희들 비겁한 악당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원 이걸 좀 보지, 개자식들이 어떻게 욕설을 퍼붓나.》당황한 끄와낀은 헛웃음을 치려고 애쓰면서 말을 이었다. 《어디 또 뭐라고 떠벌였나 보자, 젠장! 〈…미하일 끄와낀과 추악하기가 그와 류사한 피구라는 래일 아침까지 수치스러운 자기 패당들의 명단을 가지고 특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올것. 만약 이를 거절할 때에는 우리는 행동을 개시할 완전한 자유를 가짐.〉자유를 가진다는건 무슨 소리야.》하고 끄와낀이 또다시 물었다. 《우리는 아직도 자식들을 어디에 가둔 일도 없는데.》

《그건 나라와 나라사이에 쓰는 말인데 치겠다는 소리야.》하고 중대머리 알료슈까가 또 설명하였다.

《아, 그럼 그렇다고 할게지!》끄와낀은 그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게이까란 자식이 가버린게 유감이다. 자식 울어본지도 오랬을텐데.》

《그 애는 울지 않을거야.》 하고 중대머리가 말하였다. 《그 애 형님은 해군인데.》

《뭐?》

《그 애 아버지도 해군이였어. 울지 않을거야.》

《그런데 넌 어쨌단말이가?》

《우리 아저씨도 해군이니까!》

《이런 바보같은 자식》하고 끄와낀은 성을 냈다. 《아버지다, 아저씨다, 형님이다. 그래 그게 어쨌단말이야. 얘, 너 머리나 좀 길러라. 해별에 꼭대기가 덴 모양이구나. 얘, 피구라, 넌 뭘 거기서 중얼대고있니!》

《래일 자식들의 특사를 잡아가두구 찌무르와 그의 패거리들을 두들겨패줘야 해.》최후통첩에 비위가 상한 피구라가 우울한 표정으로 간단히 제의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구라와 둘이서 례배당의 그늘진 곳으로 물러가던 끄와낀은 뼈대가 울툭불툭하고 날쌔게 생긴 악마들이 아우성을 치며 기를 쓰는 죄인들을 지옥에다 솜씨있게 집어넣는 그림결에 멈추어서면서 피구라에게 물었다.

《얘, 아버지가 돌아간 그 처녀아이네 집으로 넘어간게 너냐?》

《그래, 나야.》

《그래서 그러누나.…》하고 끄와낀은 화가 나서 바람벽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중얼거렸다. 《난 물론 찌무르네가 한 표식따위엔 침을 뱉아주고 찌무르같은건 언제라도 두들겨줄테야.…》

《좋아.》하고 피구라가 동의하였다.

《그런데 너는 어쨌다구 악마를 나한테 짚어보이니?》

《그건말이야.》하고 끄와낀은 입을 비죽거리면서 대답하였다.《피구라, 너는 내 동무는 동무지만 조금두 사람같지 않구 이 더러운 뚱뚱보 악마새끼갈단말이다.》

× ×

…그날 아침 우유장사할머니네 집에는 정해놓은 우유를 사러 오던 사람이 세사람이나 찾아오지 않았다. 장마당으로 나가기는 이미 늦었고 해서 할머니는 우유를 넣은 양철통을 어깨에 메고서 집집으로 찾아다니려고 떠났다.

할머니는 오래동안 공걸음을 하다가 마침내 찌무르가 살고있는 별장결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할머니는 울타리너머에서 나는 자못 유쾌한 굵은 바스소리를 들었다. 그 누가 나직이 노래를 부르는것이였다. 그리고보면 주인이 집에 있으니 좀 기대를 가질만 하였다.

할머니는 쪽대문으로 들어가면서 노래부르듯 늘어지게 소리를 질렀다. 《우유 사소, 우유요!》

《두 고뿌만 주시오.》대답으로 바스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어깨에서 양철통을 벗어놓고 선 할머니는 누데기를 걸친 텁수룩한 절름발이 령감이 나무덤불속에서 나오는것을 보았는데 그 령감은 날이 시퍼런 휘우듬한 군도를 들고있었다.
《할아버지, 우유 안사시겠나요.》하고 우유장사할머니는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서면서 권하였다. 《에끼, 할아버지두 원, 보기만 해두 무시무시하구려! 아니 뭐 군도를 가지고 풀을 베는군요.》
《두고뿌만 주오. 그릇은 탁상우에 있소.》로인은 짤막하게 대꾸하고 군도를 땅바닥에 쿡 꽂았다.
《할아버지, 낫이나 한가락 사시구 그 군도는 내버리구려.》하고 우유장사할머니는 황급히 우유를 그릇에 부으면서 령감을 슬금슬금 쳐다보며 말하였다. 《그런 군도는 공연한 사람을 질겁만 하게 해요.》
《얼마요?》령감이 통넓은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물었다.
《남들한테 받는대로 받지요.》하고 할머니는 대답하였다. 《한루블리 40꼬뻬이까씩 쳐서 모두 두루블리 80꼬뻬이까요. 더는 필요없어요.》
령감은 바지주머니를 뒤지더니 큼직한 낡은 권총을 꺼내였다.
《난, 할아버지, 있다가…》하고 우유장사할머니는 양철통을 덥석 쥐고 바삐 달아나면서 말하였다. 《할아버지, 념려말아요!》할머니는 걸음을 더욱 재촉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난 돈이 바쁘지 않아요.》
우유장사할머니는 쪽대문밖으로 뛰쳐나오는 걸음에 문짝을 탕 닫아버리고는 길거리에 나와 표독스럽게 소리질러대는것이였다.
《저따위 늙은 도깨비같은건 병원에다 집어넣구 움쩍 못하게 붙잡아둬야 해! 정말이지 병원에다 가두어넣어야 해.》
령감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주머니에서 꺼냈던 3루블리짜리 지페를 도로 집어넣고는 권총을 얼른 등뒤에 감추었다.
점잖은 신사 에프.게.꼴로꼴치꼬브박사가 정원으로 들어왔던것이다.
그는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듯 심각한 얼굴을 하고 지팽이를 짚으면서 좀 뻿뻿한 걸음으로 모래를 깐 좁은 길로 꺼떡꺼떡 걸어왔다.
괴상한 령감을 본 신사는 흠 기침을 한번 하고나서 안경을 바로 잡고 물었다.
《말 좀 물읍시다. 이 별장주인은 어디 계십니까?》
《이 별장엔 제가 사는데요.》하고 령감이 대답하였다.

《그러면》하고 신사는 맥고모자에 손을 가져다대면서 말을 이었다. 《찌무르 가라예브란 아이는 령감님네 집안아이가 아닌지요?》

《예, 그렇습니다.》하고 령감이 대답하였다. 《그 애는 제 조카올시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하고 또 기침을 하고 의심스러운듯 땅에 꽂힌 군도를 곁눈질해보면서 신사는 말을 시작하였다.

《령감님 조카가 어제아침에 우리 집을 털려고 했소이다.》

《뭐요?》령감은 깜짝 놀랐다. 《우리 찌무르가 당신네 집을 털려고 했다구요?》

《예, 그랬소이다!》하고 령감의 등뒤를 힐끔 쳐다본 신사는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서 말을 이었다. 《내가 자고있을 때 그 애가 내가 덮은 모포를 벗겨가려 했소이다.》

《누가? 찌무르가 당신네 집에 가서 도적질을 했다구요? 모포를 훔쳤다구요?》령감은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그때 등뒤에 감추었던 권총쥔 손이 그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불쑥 나왔다.

존경할만한 신사는 그만 불안에 사로잡히고말았다. 그는 점잖게 출입문쪽으로 뒤걸음치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내야 물론 확실치 않다면야 그런 말을 안했을테지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로인장,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기를 바라오. 나는 물론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소만… 당신의 그 모양과 무서운 행동은…》

《이보우.》하고 신사에게로 다가가면서 령감이 말하였다. 《아마 그건 다 오해일게요.》

《로인장!》하고 신사는 권총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냥 뒤걸음을 치면서 부르짖었다. 《우리 이야기가 어쩐지 좋지 않은데로, 말하자면 피차 나이값도 안되는 점잖지 못한 방향으로 나갑니다그려.》

그는 얼른 쪽대문밖으로 뛰쳐나가 부리나케 달아나면서 이렇게 되뇌이는것이였다. 《원, 원 뜻밖에도 점잖지 못한 방향으로…》

령감이 쪽대문에 다가섰을 때 마침 목욕을 하러 가던 올리가가 흥분된 신사와 나란히 걷게 되였다. 그때 령감은 급작스레 손을 흔들면서 올리가더러 서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신사가 염소처럼 도랑을 넁큼 뛰여건너가 올리가의 손을 덥석 잡더니 삽시간에 두사람은 골

목으로 사라지고말았다.

그것을 본 령감은 껄껄거리며 웃어대였다. 그리고는 흥에 겨워서 다리를 걸싸게 구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대는 모르리라
살같이 나는 비행기에선
아침노을 꺼지도록
내 그대 기다림을
아!

그는 무릎에 매였던 가죽끈을 풀고 나무다리를 풀발에 내던진 다음 가발을 벗고 턱수염을 떼면서 집으로 달려들어갔다.

십분이 지난후 젊고 유쾌한 기사 게오르기 가라예브가 바깥현관으로 뛰쳐나와 헛간에서 오토바이를 끌어내였다. 그리고 개 리따더러 집을 잘 지키라고 하고는 시동기를 발로 눌러 발동을 건 다음 안장에 올라타고서 자기한테 놀랜 올리가를 찾으러 강가로 내달렸다.

× ×

게이까와 꼴랴 꼴로꼴치꼬브는 11시에 최후통첩의 답장을 받으러 떠났다.

《얘, 너 좀 똑똑히 걸어.》하고 게이까가 꼴랴를 보고 핀잔을 주었다. 《좀 천천히 위신있게 걸으란 말이야. 너는 그저 구데기 쫓아가는 병아리새끼처럼 걷는단말이다. 너는 바지랑 샤쯔랑 다 격식을 차려서 입은건 좋은데 암만해도 모양은 없어. 얘, 너 성은 내지 말어. 난 너한테 알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 얘기 좀 해봐. 혀바닥으로 입술은 왜 핥니? 혀바닥은 입안에 집어넣고 제자리에 가만두어… 넌 또 왜 나타났어?》게이까는 옆에서 불쑥 뛰여나온 씨마 씨마꼬브를 보고 물었다.

《찌무르가 련락하라구 보내.》하고 씨마 씨마꼬브는 지껄이기 시작하였다. 《그럴 일이 있어. 그렇지만 너는 아무것두 몰라. 너희들에겐 너희 볼일이 있구 난 나 볼일이 있거든. 얘, 꼴랴, 나팔 한번 불어보자꾸나. 너 오늘은 우쭐했구나! 얘 게이까, 바보같으니! 큰일

하러 가는데 장화나 구두를 신을게지 대사가 어데 맨발로 다닌다던? 아무러나 좋아. 너희들은 그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빨랑빨랑 달려가자. 안녕히!》

《저런 사설쟁이 봤나!》게이까는 머리를 저었다. 《네마디면 될 말을 백마디씩이나 하누나. 꼴랴, 나팔을 불어. 담장에 다 왔다.》

《미하일 끄와낀을 좀 나오라구 해라!》하고 게이까가 담장우에 머리를 불쑥 내민 아이에게 명령했다.

《바른쪽문으로 들어오렴!》하고 담장너머에서 끄와낀이 소리를 쳤다.

《너희들 들어오라구 일부러 문을 열어놓았다.》

《가지 말어.》게이까의 팔을 붙잡으며 꼴랴가 속삭였다. 《저자식들이 우릴 잡아서 때릴려구 그래.》

《우리가 두사람인데두?》하고 게이까가 얕보듯이 물었다.

《꼴랴, 나팔을 더 크게 불어. 우리 부대를 당할놈은 아무데도 없어.》

그들은 녹쓴 쇠살문으로 들어가서 아이들패거리앞으로 다가갔다. 그들앞에는 피구라와 끄와낀이 뻗디디고 서있었다.

《답장을 다우.》하고 게이까가 억세게 말하였다.

《얘기나 좀 하자.》하고 끄와낀이 찌였다. 《자 좀 앉어. 뭘 그리 서두르는거야? 어서 앉아.》

《답장을 어서 다우.》하고 게이까는 쌀쌀하게 되뇌이였다. 《너희들하고 얘기하는건 후에 하자.》

참 그것은 기묘한 장면이였다. 벌써 얼굴이 파랗게 질린 조그만 나팔수의 곁에 선, 해군샤쯔를 입고 어깨가 넙적한 그 게이까가 롱조로 장난삼아 하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정으로 정당하고 힘도 세다고 느끼면서 정말로 대답을 강요하는것인지?

《옜다. 받아라.》하면서 끄와낀이 종이장을 내밀었다.

게이까는 종이장을 받아서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멸시하는 뜻으로 손가락짬에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불끈 쥔 주먹이 그려져있고 그밑에는 욕지거리가 씌여져있었다.

게이까는 태연하게 얼굴빛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종이장을 쭉 찢어버렸다.

바로 그 순간 그와 꼴랴는 어깨와 팔을 옴짝 못하게 붙잡혔다.

그들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따위 최후통첩을 가져온 값으로 네놈의 자식들 모가지를 비틀어놔야겠다.》하고 게이까한테로 다가서면서 끄와낀이 말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 좋아. 밤까지 너희들을 바로 여기에다 가두어둘테다.》 끄와낀은 례배당을 가리켰다. 《그리구 밤에 우리들은 24호집 정원을 말끔히 쓸어버릴테다.》

《그건 안된다.》 하고 게이까는 조용히 대꾸하였다.

《어째 안돼!》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구라가 게이까의 뺨을 때렸다.

《어서 백번이라두 때려라.》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면서 게이까는 《꼴랴, 겁내지 말어. 이제 우리 편에서 아마 제1호 총소집신호가 날게다.》하고 격려하듯 중얼거리는것이였다.

그들은 포로들을 쇠덧창이 꽉 닫긴 조그만 례배당안에다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두개의 문을 다 닫고 빗장을 지르고는 거기에다 쐐기까지 쳐박았다.

《그래 어때?》하고 피구라가 문에 다가와서 입에다 손을 오그려대면서 소리를 쳤다. 《이젠 일이 어떻게 될것 같으냐? 우리 마음대로 될것같으냐, 너희 마음대로 될것 같으냐?》

문안에서 웅글은 목소리가 겨우 들려왔다.

《안된다. 이 건달같은 자식들, 이제 아무것도 너희 뜻대로는 절대로 안된다.》

피구라는 침을 퉤 뱉았다.

《그 애 형은 해군이다.》하고 중대머리 알료슈까가 무뚝뚝하게 말하였다. 《우리 아저씨하구 한배를 타구 다닌다.》

《그래서.》 피구라가 위협하듯이 물었다. 《넌 뭐냐, 함장이냐?》

《그 애는 팔을 붙잡혔는데두 너는 그 애를 때렸지. 그래두 잘했어?》

《네자식도 한대 멕여주마!》피구라는 약이 올라서 팔을 둘러멨다가 알료슈까를 잘싹 때렸다.

그러자 두 아이는 풀밭에서 떼굴떼굴 굴기 시작하고 다른 아이들은 그들의 팔이며 다리를 끌어당기면서 싸움을 말리느라고 야단이였다.…

그런데 아무도 담장곁에 서있는 무성한 보리수나무의 가지사이로

씨마 씨마끄브의 얼굴이 언뜻거리는것을 쳐다보지는 못했다.
씨마 씨마끄브는 뱅뱅 돌아서 땅으로 기여내려왔다. 그리고는 남의 남새밭을 곧장 꿰여 찌무르한테로, 자기네 편이 있는 강가로 내달렸다.

× ×

올리가는 줄무늬가 간 수건을 머리에 쓰고 강변의 뜨거운 모래밭에 누워서 책을 읽고있었다.
제냐는 미역을 감고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뒤에서 누가 그를 덥석 그러안았다.
제냐가 돌아다보았다.
《잘 있었니?》하고 키가 크고 눈이 까만 처녀애가 제냐에게 말하였다. 《난 찌무르가 있는데서 헤염쳐왔어. 내 이름은 따냐데 나도 그 애 부대에 있어. 그 애는 저때문에 네가 언니한테 혼났다구 미안해하더라. 너의 언니는 아마 퍽 못된 모양이지?》
《찌무르가 미안해할게야 있니.》 하고 제냐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중얼거렸다. 《올리가는 조금도 못되지 않았어. 그저 성미가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는 손을 딱 마주치면서 절망적으로 말을 덧붙였다. 《그저 밤낮 언니! 언니! 언니! 하니 야단이야. 어디 두고 보자. 이제 아버지가 오시면…》
그들은 물에서 나와서 모래밭 왼쪽의 가파로운 언덕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그들은 뉴르까를 만났다.
《얘, 너 날 누군지 알아봤니?》하고 뉴르까는 언제나와 같이 이새로 내밸듯이 재잘거리면서 제냐에게 물었다. 《그래! 난 첫눈에 널 알아봤어. 저기 찌무르가 있구나!》뉴르까는 옷을 벗어던지고서 아이들이 가득 모여선 건너편 강변을 가리켰다.
《난 누가 나한테 염소를 잡아주고 누가 우리 집 장작을 가려주고, 누가 우리 동생한테 딸기를 주었는지 다 알아. 그리구 난 너도 안다.》 뉴르까는 따냐쪽으로 돌아섰다. 《넌 어제 보니까 남새밭에 앉아서 울더구나. 울진 말어. 울어서 소용이 있니? …에끼! 망할놈 악마새끼같으니, 엎디여있지 못해. 강물에다 처넣구 말겠다.》 그는 나무덤불에 매놓은 염소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얘들아,

우리 물에 뛰여내려가자꾸나!》
제냐와 따냐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조그맣고 별에 탄 집씨처럼 생긴 뉴르까가 정말 우습강스러웠다.
그들은 서로 손을 붙잡고서 낭떠러지끝으로 다가갔다. 그 밑에서는 맑고 푸른 강물이 출렁거리고있었다.
《자, 내려뛸가?》
《내려뛰자!》
그리하여 그들은 일시에 물속으로 내리꽂혔다.
그런데 처녀들이 물속에서 떠오를사이도 없이 그들을 뒤따라 누군지 네번째 아이가 첨벙하였다.
그것은 다름아닌 씨마 씨마꼬브가 싼다루를 신고 빤쯔와 런닝샤쯔를 입은채 힘껏 달려와 강으로 뛰여든것이였다. 그는 한편 머리를 흔들어 얼굴에 들어붙은 머리칼을 추어올리며 침을 튀튀 뱉고 물을 푸푸 내뿜으면서 쭉쭉 팔뺌을 쳐서 건너편 기슭으로 건너갔다.
《큰일났다! 제냐! 큰일 났어!》 그는 뒤를 돌아다보면서 웨쳤다. 《게이까하구 꼴랴가 걸려들었다!》

× ×

올리가는 책을 읽으면서 산으로 올라갔다. 가파론 오솔길이 큰길과 마주치는 길목에서 게오르기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올리가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하였다.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보니까 동무가 오더구만요.》하고 게오르기는 변명을 하였다. 《그래 기다렸다가 큰길로 가신다면 태워다드리자 하고 생각했지요.》
《거짓말 말어요!》 올리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당신은 일부러 내려서 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 옳습니다.》하고 게오르기는 동의하였다. 《거짓말을 하려구 했는데 드러났군요. 난 아침에 동무를 놀래운데 대해서 사죄를 해야겠습니다. 쪽대문에 절름발이령감이 서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바로 나였습니다. 련습을 하느라고 분장을 했었지요. 어서 올라앉으십시오. 태워다드릴테니.》

올리가는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게오르기는 올리가의 책우에 꽃다발을 놓아주었다.
훌륭한 꽃다발이였다. 올리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줄을 몰라 쩔쩔매였다. 그러다가… 그것을 길바닥에 집어던졌다.
게오르기는 그럴줄은 몰랐었다.
《이봐요!》 하고 그는 안타까이 말하였다. 《동무는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를뿐더러 동무의 눈은 슬기롭고도 아름답습니다. 나는 동무를 조금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지어 콩크리트공학전문가라 해도 동무처럼 행동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꽃은 필요없어요!》 자기의 행동에 스스로도 놀란 올리가는 부끄러운듯이 대답하였다. 《나는 …꽃을 안가지고도 당신과 같이 갈테예요.》
올리가가 가죽안장에 올라앉자 오토바이는 큰길을 나는듯이 달리였다.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마을쪽으로 꺾어든 길을 쑥 지나서 벌판으로 곧추 빠져나갔다.
《당신은 길을 잘못 들었어요.》 하고 올리가가 부르짖었다. 《우린 오른쪽 길로 가야 해요!》
《이쪽 길이 더 좋습니다.》 하고 게오르기가 대답하였다. 《이 길은 유쾌한 길이거든요.》
그들은 또다시 굽이를 돌아 술렁거리는 그늘진 숲을 지나서 내달렸다. 그때 가축무리에서 개가 한마리 불쑥 뛰쳐나오더니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기를 쓰면서 짖어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컷 기를 써보라지! 되지도 않을걸, 얼마나 멀기에.
육중한 포탄이 날아오는듯 마주오던 화물자동차가 윙 하고 어기여갔다. 게오르기와 올리가는 맴돌아오르는 먼지속을 빠져나왔을 때 바로 산밑에는 연기오르는 굴뚝이며 탑들이 우뚝우뚝 솟고 함석지붕과 유리들이 번쩍거리는 알지 못할 어떤 도시가 뵈였다.
《저게 우리 공장입니다.》 하고 게오르기가 올리가에게 웨쳤다. 《삼년전에 나는 버섯과 딸기를 따러 여기 왔었지요.》
오토바이는 거의 달리던 속도대로 한굽이를 돌았다.
《곧바로 가요!》 하고 경고라도 주는듯이 올리가가 부르짖었다. 《이젠 곧장 집으로 가요.》

그런데 갑자기 발동이 꺼져서 그들은 멈춰서고 말았다.
《잠간만 기다리십시오.》하고 훌쩍 뛰여내리면서 게오르기가 말하였다. 《조그만 고장입니다.》
그는 봇나무밑의 풀밭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서 도구주머니에서 스파나를 꺼내가지고 무엇인지 돌리고 죄이고 하기 시작하였다.
《당신은 당신네 오페라에서 무슨 역을 맡았어요?》하고 풀밭에 와 앉으면서 올리가가 물었다. 《그런데 당신의 분장은 어째서 그렇게 험상궂고 무서워요?》
《나는 전쟁불구자가 된 로인역을 합니다.》하고 게오르기는 그냥 오토바이곁에서 꾸물거리면서 대답하였다.
《그는 이전에 빨찌산이고 약간… 정신이상이 생겼지요. 그는 국경가까이에 살고있는데 그에게는 늘쌍 적들이 간책을 꾸미는것만 같이 생각됩니다. 그는 비록 늙기는 했지만 경각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젊은 붉은군대 병사들은 그를 비웃습니다. 그래 위병근무를 서고나서는 배구를 칩니다. 거기에는 또 까츄샤니… 뭐니 하는 별의별 처녀들도 나옵니다.》
게오르기는 상을 찌프리고나서 나직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달빛은 또다시 검은 구름에 흐리였는데
나는 쓸쓸한 순찰에 사흘째 새운다
잠들지 말라, 조국이여, 원쑤가 기여든다!
애달퍼 이 몸은 늙고 지쳤으니… 아, 애달퍼!

여기에서 게오르기는 목소리를 바꾸어 합창을 흉내내였다.
령감님, 편안히… 편안히!
《〈편안히〉라는건 무슨 뜻이예요?》올리가는 수건으로 먼지오른 입술을 닦으면서 물었다.
《그건말이지요.》하고 게오르기는 스파나로 바퀴통을 계속 두드리면서 설명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편안히 주무시오. 늙은 바보! 전사들과 지휘관들이 모두 자기 초소에 선지가 언제라고… 그런데 올랴, 동무 동생이 나를 만났다는 이야길 안합디까?》
《그런 얘길 하더군요. 그래서 단단히 책망을 해주었지요.》
《공연히 책망을 했군요. 참 재미있는 아이던데요. 내가 그 애 보

고 〈아〉했더니 그 앤 날보고 〈베〉하지 않겠어요!》
《그 재미있는 계집애때문에 애를 어떻게 태우게요.》하고 올리가는 같은 말을 되뇌이였다. 《찌무르라는 어떤 사내아이가 그 앨 따라다녀요. 그 사내아이는 끄와낀이라는 부랑자패거리래요. 그런데 그 애놈을 우리 집에 못오게 할 재간이 없어요.》
《찌무르!… 흠…》하고 게오르기는 무안한듯이 기침을 깇었다. 《그 애가 정말 그 패거리랍디까? 그 애는 그다지… 그런 애가 아닐텐데… 어쨌든 좋습니다! 걱정마십시오. …내가 그 앨 동무네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지요. 그런데 올랴동무는 어째서 음악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보십시오. 기사가 뭐이 좋게요! 나자신도 기사는 기사지만 어디 보람이 있어요.》
《혹시 당신은 서툴은 기사가 아니예요?》
《서툴긴 왜 서툴어요?》하고 올리가쪽으로 바투 다가와서 이번에는 앞바퀴의 살통을 툭툭 두드리면서 게오르기가 대답하였다. 《조금도 서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무는 정말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썩 잘 부르니까 하는 말이지요.》
《이봐요, 게오르기.》하고 올리가는 민망스러운듯이 옆으로 물러앉으면서 말하였다. 《당신이 어떤 기산지는 모르지만… 오토바이를 고치는걸 보니 어쩐지 퍽 수상하군요.》
그리고 올리가는 바퀴통이며 바퀴테를 툭툭 두드리는 그의 시늉을 하느라고 손을 내저었다.
《조금도 수상할건 없습니다. 그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이니까요.》하고 그는 벌떡 일어서면서 스파나로 차틀을 한번 툭 두드렸다. 《자, 이젠 다 됐습니다! 올랴, 동무 아버지는 군관이라지요?》
《그래요.》
《그건 좋습니다. 저도 역시 군관이지요.》
《당신은 정말 알수가 없군요!》하고 올리가는 어깨를 으쓱하였다. 《언젠 기사고, 언젠 배우고, 또 언젠 군관이라니. 거기에 또 이번엔 비행사는 안예요?》
《그건 아닙니다.》하고 게오르기는 빙긋이 웃었다. 《비행사는 머리우에서 폭탄을 가지고 얼떨떨하게 하지만 우리는 땅우에서 철근콩크리트를 뚫고나가서 직통으로 심장을 칩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그들앞에는 보리밭, 들판, 숲, 시내가 얼른얼른

지나가고 마침내 별장이 나타났다.

오토바이의 발동소리를 듣고 현관에서 제냐가 뛰쳐나왔다. 게오르기를 본 제냐는 어리둥절했지만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자 그 뒤를 바라보면서 올리가에게로 다가가 그를 꽉 그러안고 자못 부러운듯이 말하였다. 《언닌 참 오늘 얼마나 행복스러워!》

× ×

장난꾸러기아이들은 24호집 정원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담장밖으로 뿔뿔이 흩어져갔다.

피구라는 혼자서 남아있었다. 그런데 례배당안의 쥐죽은듯한 침묵은 그의 부아를 돋구어주었고 그를 놀라게 하였다. 포로들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문짝을 두드리지도 않을뿐더러 피구라가 말을 물어도 고함을 쳐도 도무지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피구라는 꾀를 썼다. 그는 바깥문을 열고 안문과의 사이간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듯이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하여 바깥쇠문이 몽둥이에 얻어맞기라도 한듯이 쾅 소리를 내면서 닫길 때까지 그는 자물쇠구멍에 귀를 댄채 그냥 서있었다.

《어이, 거 누구야?》 하고 피구라는 문으로 달려가면서 성을 내였다. 《야, 못되게 놀겠니. 목덜미 한대 쥐박기전에!》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밖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들린다. 덧창문돌쩌귀가 삐걱하고 누군가 살창밖에서 포로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러자 례배당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이 웃음소리를 듣자 피구라는 그만 기분이 나빠졌다.

이윽고 바깥문이 활짝 열렸다. 피구라앞에는 찌무르와 씨마꼬브, 라듸긴이 서있었다.

《둘째 빗장을 벗겨라!》 찌무르가 선자리에서 명령하였다. 《네손으로 벗겨라. 그러찮으면 좋지 않다!》

피구라는 별수없이 빗장을 벗겼다. 그러자 례배당안에서 꼴랴와 게이까가 뛰여나왔다.

《이젠 우리 애들 있던데 네가 들어가있어라!》 하고 찌무르가 명령하였다. 《어서 들어가라, 더러운 자식같으니!》 하고 찌무르는 주먹을 불끈 부르쥐면서 웨쳤다. 《너하고 말할 시간이 없어.》

피구라를 례배당안에 집어넣고 안팎문을 쾅쾅 닫고 육중한 빗장을 지른 다음 쇠를 잠가놓았다.

그리고나서 찌무르는 종이장과 푸른 연필을 꺼내여 거친 글씨로 이렇게 썼다.

《끄와낀, 지키고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자식들을 가두고 쇠를 채웠다. 열쇠는 내가 가지고있다. 저녁에 그 자리로, 정원으로 곧장 가겠다.》

그리고는 모두 사라지고말았다. 그런데 한 5분 지나서 끄와낀이 담장을 넘어왔다.

그는 글쪽지를 읽고는 자물쇠를 만져보고 만족스러운듯 히죽이 웃으면서 쪽대문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갇힌 피구라가 쇠문이 깨여지게 주먹으로 두들겨대고 발길로 차며 야단을 했다.

끄와낀은 쪽대문으로 가다가 돌아서면서 심드렁하게 중얼거렸다.

《얘, 게이까, 실컷 두들겨! 어림도 없어. 얘, 아직 저녁까지는 두들겨야 한다.》

사건은 그다음 이렇게 전개되였다.

해질무렵 찌무르와 씨마꼬브가 장마당으로 달려갔다. 청량음료, 남새, 담배, 식료품, 에스키모 매점들이 무질서하게 늘어서있는 그 시장 맨끝에는 장날이면 구두공들이 일하는 변변치 않은 빈 막집이 하나 서있었다.

찌무르와 씨마꼬브는 그 막집에서 오래 있지 않았다.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졌을 때 헛간다락에서는 조타륜이 운전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든든한 노끈들이 련달아 당겨지면서 사방 필요한데로 신호를 하였다.

증강부대들이 달려왔다. 모여든 아이들은 벌써 스무명, 서른명이나 되였다.

그런데 울타리구멍으로는 새 아이들이 꼬리를 맞물고 살짝살짝 빠져들어왔다.

따냐와 뉴르까는 되돌려보내였다. 제냐는 그냥 집에 앉아있었다. 그는 올리가를 정원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둬야만 하였다.

다락의 조타륜앞에는 찌무르가 서있었다.

《6번선에 신호를 다시 해줘.》하고 씨마 씨마꼬브가 창문으로 머리를 쑥 들이밀고 걱정스러운듯이 부탁하였다.

《웬일인지 그 선은 대답이 없어.》

두 아이가 남포등밑에서 무슨 프랑카드를 그리고있었다. 그때 라듸긴의 조가 왔다. 마침 정찰병들이 도착하였던것이다. 끄와낀네 패거리는 24호집 정원곁에 있는 공지로 모여들고있다는것이였다.

《이젠 됐다.》하고 찌무르가 말하였다. 《전원 출발준비!》

그는 조타륜을 놓고 노끈을 붙잡았다. 그리하여 구름장사이를 달리는 달빛이 변덕스럽게 비치는 낡은 헛간우에 부대기발이 천천히 올라 나붓기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전투를 알리는 신호였다.

× ×

끄와낀네 패거리들은 여라문명 종대로 늘어서서 24호집 울타리를 끼고가고있었다. 으슥한 곳에 섰을 때 끄와낀이 말하였다.

《다 왔는데 피구라가 없구나.》

《그 애는 어물쩍하거든.》 하고 누군가 대꾸를 하였다. 《아마 벌써 정원에 들어가있을거야. 그 앤 언제나 먼저 들어가잖어.》

끄와낀이 미리 못을 빼놓은 널판자 두장을 젖히고 그 구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 뒤를 따라 다른 아이들도 들어갔다. 그리고 큰길쪽 구멍곁에는 보초병 알료슈까가 혼자 남아있었다.

큰길 건너편 도랑에서 무성한 쐐기풀이며 부리얀초 덤불짬으로 다섯의 머리가 불쑥 내다보았다. 그중 넷은 곧 숨어버렸다. 다섯번째－꼴랴 꼴로꼴치꼬브의 머리는 그냥 내다보았다. 그런데 누군가의 손바닥이 그 꼭대기를 한대 치자 그 머리는 쑥 들어가고말았다.

보초병 알료슈까는 뒤를 살펴보았다. 여전히 조용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원안에서 어떻게 되였는지 알아보려고 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도랑에서 세사람이 갈라져나왔다. 그러자 다음순간 보초병은 억센 힘이 자기의 팔다리를 훅 잡아당기는것을 감촉하였다. 그는 소리를 칠사이도 없이 울타리에서 떨어져나오고말았다.

《게이까.》하고 그는 얼굴을 들면서 웅얼거렸다. 《너 어디서 왔니?》

《거기서 왔다.》하고 게이까는 속살거렸다. 《얘, 입을 다물고 가만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편을 들어준것도 봐주지 않을테야.》
《좋아, 내 가만 있으마.》하고 그는 동의하였다. 그런데 별안간 그는 새되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나 게이까의 넙적한 두손이 대번에 그의 입을 꽉 눌러버렸다. 그리고 누구의 손들인지 그의 량어깨와 두다리를 붙들어서 멀리 끌고 갔다.
휘파람소리를 정원안에서 들었다. 끄와낀이 돌아다보았다. 그러나 휘파람소리는 더는 나지 않았다. 끄와낀은 사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에게는 정원구석쪽에서 나무덤불이 흔들리는것 같았다.
《피구라!》하고 끄와낀이 나직이 불렀다. 《바보같으니, 네가 거기 숨어있니?》
《끄와낀, 저 불!》하고 누군가 급작스레 소리를 쳤다. 《주인들이 온다!》
그런데 그것은 주인들이 아니였다.
뒤쪽 잎이 무성한 나무들사이에서 열개나 잘되는 전지불이 번쩍 켜졌다. 그리고 그것들은 눈을 부시게 하면서 략탈자들을 향하여 부쩍부쩍 다가들었다.
《물러서지 말고 때려라!》하고 끄와낀이 호주머니에서 사과를 꺼내여 전지불을 겨누고 힘껏 던지면서 부르짖었다. 《전지들을 빼앗아라! 저건 그 자식이… 찌무르자식이 오는거다!》
《저기엔 찌무르가 있구 여긴 씨마꼬브가 있다!》나무덤불속에서 씨마꼬브가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도 또 여라문명의 아이들이 뒤에서와 옆에서 달려나왔다.
《저것 봐라!》하고 끄와낀이 고함을 쳤다. 《저자식들 굉장히 많다! 애들아, 울타리를 넘어 뛰라!》
매복에 걸린 패거리들은 혼쌀이 나서 울타리쪽으로 들구뛰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밀치고 이마를 맞쪼으며 큰길로 뛰쳐나가서는 모두 꼼짝 못하고 라듸긴과 게이까의 손에 걸리였다.
달은 검은 구름장에 아주 숨어버리였다. 이런 목소리들만이 들릴뿐이였다.
《놔줘!》
《뭐두래두!》

《덤비지 말어! 가만 둬둬!》
《모두 조용들 해라!》하고 어둠속에서 찌무르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포로들을 때리면 안된다! 게이까는 어디 있어?》
《게이까 어디 있니!》
《모두 거기 데리고가라.》
《안가는 자식이 있으면?》
《팔다리를 붙들고 성모의 성상을 모시고가듯 모시고가렴.》
《놔라, 빌어먹을 자식들!》하고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리였다.
《어느 자식이 떠들어?》하고 찌무르가 격분해서 소리를 쳤다. 《망나니노릇엔 명순데 무서운게구나! 게이까, 부대를 전진시켜라!》
그들은 포로들을 장마당끝에 있는 빈 막집으로 끌고갔다. 그리하여 한사람한사람 문안으로 밀어넣었다.
《미하일 끄와낀을 나한테 데려다다고.》하고 찌무르가 부탁하였다.
끄와낀을 끌어왔다.
《다 됐니?》하고 찌무르가 물었다.
《모두 다 됐어.》
마지막포로를 막집에다 밀어넣고는 빗장을 지르고 쇠고리에 큼직한 자물쇠를 채웠다.
《넌 가라!》하고 그제사 찌무르는 끄와낀에게 말하였다.
《너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널 무서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 보잘 사람두 없다.》
자기를 때릴줄만 알았던 끄와낀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고개를 떨어뜨린채 그냥 서있었다.
《어서 가라.》하고 찌무르가 되뇌였다. 《옜다. 이 쇠를 가지고 례배당문을 열어라. 거기엔 네 친구 피구라가 갇혀있다.》
그러나 끄와낀은 가지 않았다.
《아이들을 내놔다우.》하고 그는 울상을 하고 빌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애들과 같이 날 가둬라.》
《안돼.》하고 찌무르는 거절하였다. 《이젠 모두 끝장이 났다. 그애들도 너하고는 할 일이 없구, 너도 그 애들과는 더는 할 일이 없다.》
끄와낀은 등뒤에 휘파람소리, 놀려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목을 잔

뚝 움츠러뜨리고 어정어정 걸어갔다. 그러다간 한 여라문발자국 가서 그는 우뚝 서더니 몸을 쭉 폈다.

《때려줄테다!》하고 그는 찌무르쪽을 돌아보면서 악의에 차서 웨쳤다. 《네 자식만은 때려줄테야. 일 대 일로 해보자. 절반 죽여놓고말테야!》 그리고는 후닥닥 뛰여서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라듸긴하구 너희 5인조는 가도 좋다.》하고 찌무르가 말하였다. 《너 맡은 일은 뭐지?》

《볼샤야 와씰리쬡쓰까야거리 22호집 통나무 운반.》

《좋다, 어서 가봐!》

가까이 있는 정거장에서 기적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였다. 별장행기차가 도착한것이였다. 기차에서 려객들이 내리기 시작했기때문에 찌무르는 서둘렀다.

《씨마꼬브하구 너희 5인조는 무슨 일이지?》

《말라야 뻬뜨롭스까야거리 38호집》하고 그는 웃고나서 덧붙였다. 《우리 일은 언제나 한가지, 그저 바께쯔, 뽐프 그리고 물… 빨랑빨랑… 안녕히!》

《좋다, 어서 가봐라! 그럼 이제는… 사람들이 온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제깍!》

× ×

우뢰라도 터지는듯 요란스레 두드려대는 소리가 온 시장에 울리였다. 기차에서 내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흠칠 놀라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두드리며 아우성치는 소리가 또 났다. 이웃에 있는 별장들의 창문에 등불이 환하게 비치였다. 누군지 매점 외등스위치를 넣어서 모여든 사람들은 막집에 걸린 프랑카드를 보았다.

행인들이여 불쌍히 여기지 말라!

여기에는 비겁하게도 밤마다 평화로운 주민들의 정원을 략탈하는 자들이 갇히여있다.

이 프랑카드뒤에 열쇠가 있으니 이 죄수들을 놓아주는 사람은 우선 이들가운데 자기의 가족이나 아는자가 없는가를 보라.

이슥한 밤이였다. 대문에 검은 테를 두른 붉은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있었다.
　조그만 은발머리 처녀애가 사는 바로 그 집 정원이였다. 가지가 쭉 퍼진 나무에서 두 갈래의 바줄이 늘어져 내려왔다. 그리고 그 뒤로 터실터실한 나무줄기를 타고 한 소년이 미끄러져내려왔다. 그는 판대기를 놓고 올라앉아서 새로 맨 그네가 든든한가 시험을 해보았다. 실한 나무가지가 삐걱거리고 잎들이 우수수 떨리였다. 놀라난 새들이 푸드득 날아나면서 짹짹 울었다. 밤은 벌써 깊었다. 올리가는 잠든지 오랬고 제냐도 자고있었다. 그의 동무들—유쾌한 씨마끄브도 말없는 라듸긴도 웃기는 꼴랴도 자고있었다. 물론 용감한 게이까도 이리뒤척 저리뒤척 돌아누우며 잠꼬대를 하고있을것이다.
　망루의 시계가 4분음부로 종을 쳤다.《날도 가고 일도 끝나고! 땡땡 하나, 둘!…》
　그렇다, 밤은 벌써 깊었다.
　소년은 일어나서 풀밭을 손으로 더듬거리더니 묵직한 들꽃묶음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것은 제냐가 꺾어둔 꽃이였다.
　그는 자는 사람들을 깨우거나 놀래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달빛에 비친 앞현관으로 올라가 맨 웃층대에 꽃묶음을 가만히 놓았다. 그는 찌무르였다.

× ×

　일요일 아침이였다. 하싼호반에서 붉은군대의 전승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을 공청원들이 공원에서 성대한 음악회와 오락회를 조직하였다.
　처녀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벌써 숲으로 달려갔다. 올리가는 브라우스의 다림질을 서둘고있었다. 그가 옷을 갈라놓느라고 제냐의 싸라판을 털었을 때 그 주머니에서 종이장이 떨어졌다.
　올리가는 그것을 집어서 읽어보았다.
《소녀야, 집의 사람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것이 다 제대로 되였으며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련다. 찌무르.》
《무엇을 말하지 않는단말인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가? 고 앙큼한 못된 계집애한테 무슨 비밀이 있을가? 안됐어!

인젠 끝장을 내야겠어. 아버지도 떠나실 때 말씀했는데… 과단성있게 제꺽 손을 써야겠어.》
그때 게오르기가 창문을 두드렸다.
《올랴.》하고 그는 말하였다. 《좀 살려주십시오! 나한테 대표들이 찾아왔는데 무대에서 무엇이건 노래를 부르라는 청입니다. 오늘같은날 어떻게 거절을 할수야 있습니까? 손풍금으로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하지만 반주야 피아노수가 해드려야지요!》하고 올리가는 정색을 하였다. 《왜 하필 손풍금으로 해요?》
《올랴, 난 피아노수는 싫습니다. 동무하구 하고싶어요! 우리 둘이 하면 잘 될겁니다. 창문으로 뛰여넘어가도 좋아요? 다리미는 놓고 악기나 꺼내십시오. 자, 받으십시오. 내가 꺼냈습니다. 동무는 화음만 짚으십시오. 그러면 내 노랠 부를테니.》
《이봐요, 게오르기.》하고 올리가는 새침해서 말하였다. 《아무러믄 문이 있는데야 창문으로 기여들건 없잖아요.…》

× ×

공원은 떠들썩하였다. 휴식하는 사람들의 자동차가 꼬리를 맞물고 다가오고 쌘드위치며 계란빵이며 무슨 칼파스, 드로프스, 꿀빵 등을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천천히 그뒤를 따라왔다.
손에 들기도 하고 밀차에 싣기도 한 에스키모판매원들의 푸른 옷부대들이 줄을 지어서 다가왔다.
숲속의 공지들에서는 축음기들이 갖가지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둘레에는 타고장에서 온 사람들과 별장에 온 사람들이 마실것, 먹을것들을 가지고 널려앉아있었다.
음악소리가 울렸다. 야외극장 울타리출입문에서는 문지기로인이 서서 발받치개, 가죽띠, 스파나따위의 작업도구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전공을 멈춰세우고 꾸짖고있었다.
《여보게! 여긴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들어가는데가 아니야. 오늘은 명절이니 자넨 우선 집에 가서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게.》
《아바이, 여기야 표없이 아무나 꽁짜루 들어가는데가 아니요.》
《그래두 안되네. 여기는 노래를 부르는 곳이야. 자네 거기다 전보

대라두 하나 더 메고오지. 그리구 여보게, 임자두 좀 물러나라구.》 하며 로인은 또 다른 사람을 멈춰세웠다. 《여기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음악을 한단말이야. 그런데 자네 호주머니엔 술병이 삐죽 나오지 않았나.》

《그렇지만 아바이.》 하고 그 사람은 말을 떠듬거리면서 항의를 해보려고 하였다. 《난 들어가야 해요.… 난 테너란 말이예요.》

《그럼 어서 들어가게. 테너.》 하고 로인은 전공을 가리키면서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봐, 저 바스는 가만있지 않나. 그러니 이보게. 테너도 말을 말아야지.》

올리가가 손풍금을 가지고 무대뒤로 가더라는 말을 아이들한테서 들은 제냐는 제자리에서 안절부절하고있었다.

이윽고 게오르기와 올리가가 나왔다. 제냐는 금시 사람들이 올리가를 보고 웃을것만 같아서 겁이 났다.

그러나 아무도 웃는 사람은 없었다.

게오르기와 올리가가 무대에 나섰을 때 그들이 얼마나 소박하고 젊고 유쾌해뵈였던지 제냐는 그들 두사람을 꼭 그러안고싶었다.

올리가는 가죽멜띠를 어깨에 걸었다. 게오르기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잡혔는데 그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로인이 되여 나직한 티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 나는 세밤째 잠을 못잔다.
> 으슥한 정막속에서 언제나
> 수상한 그림자 얼른거리여
> 스무해전 전장의 밤과도 같이
> 총은 손을 자극하고
> 불안은 마음을 괴롭힌다
> 그러나 내 만약 이 자리에
> 고용군 병졸 너를 만난다면
> 내 비록 백발이건만 태연하고 엄숙히
> 스무해전 그날처럼 싸움에 일떠서리라.

《아이 참, 잘 부르누나! 그리구 저 용감한 절름발이령감은 정말 불쌍하구나! 잘해, 참 잘해.…》 하고 제냐는 중얼거렸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만 켜, 올랴! 아버지가 언니 켜는걸 못듣는게 참 유감이구나.》
음악회가 끝난 후 게오르기와 올리가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로수길로 걸어갔다.
《모두 잘됐어요.》 하고 올리가가 말하였다. 《그런데 제냐는 어딜 갔을가요?》
《그 앤 벤취에 올라서서 〈잘해, 잘해!〉하고 떠들어댑디다.》 하고 게오르기가 대답하였다. 《그 다음엔 그 애한테…》 여기까지 말한 게오르기는 그만 말문이 막히였다. 《어떤 사내애가 오더니 둘이서 어디로 가더군요.》
《어떤 사내애예요?》 올리가는 그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게오르기 당신은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 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걸 좀 봐요! 아침에 난 그 애한테서 이런 글쪽지를 발견했어요!》
게오르기는 글쪽지를 읽었다. 이번에는 그도 생각에 잠기여 이마살을 찌프렸다.
《〈두려워말라.〉 이건 말을 듣지 말라는거예요. 아이 참, 고놈의 사내애가 내 손에만 잡히면 혼을 내줄텐데!》 올리가는 글쪽지를 집어넣었다. 그들은 얼마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음악소리가 자못 흥겹고 사방에 웃음소리가 흥성하여 그들은 또다시 손을 잡고 가로수길로 걸어갔다.
그들은 문득 십자길에서 역시 정답게 손을 잡고 마주오는 다른 짝패와 마주쳤다. 그것은 찌무르와 제냐였다.
당황한 두 짝패는 그냥 지나가면서 서로 공손히 인사를 하였다.
《저기 저 애예요!》 하고 올리가는 게오르기의 손을 잡아채며 애원하듯이 말하였다. 《저 애가 바로 그 사내애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게오르기는 난처해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저 찌무르라는 애가 내 말썽꾸러기 조카라는데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은 알고있었군요.》 하고 올리가는 발끈 성을 내였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군요?》
올리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가로수길로 달려갔다.
그러나 찌무르도 제냐도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는 꼬불꼬불한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그러자 바로 거기에서 피구라, 끄와낀과 마

주서있는 찌무르를 발견하였다.
《얘, 말좀 하자.》하고 올리가는 찌무르한테로 바싹 다가서면서 말하였다. 《그래 넌 늙은 할머니네 집, 아버지없는 조그만 처녀네집 할것없이 정원이란 정원은 죄다 찾아다니면서 족쳐놓고도 아직 부족하니. 널 보면 개새끼들도 달아나는데 그래 아직두 부족해서 우리 동생을 못되게 추겨서 내 말을 듣지 말라구 하누나. 너는 목에 삐오네르넥타이는 맸어두 그저… 너는 못된 아이야!》
찌무르는 낯색이 파래졌다.
《건 괜한 말이야요.》하고 찌무르가 말하였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있어요.》
올리가는 손을 훌 내젓고 제냐를 찾으러 떠나갔다.
찌무르는 우두커니 선채 잠자코 있었다.
영문을 몰라 얼떨떨해진 피구라와 끄와낀도 잠자코 있었다.
《어떻게 된 판이야, 정치위원?》하고 끄와낀이 물었다.
《보니까 너한테도 불쾌한 때가 있는 모양이구나.》
《두목, 네 말이 옳다.》천천히 눈을 들면서 찌무르는 대답하였다. 《난 지금 괴로와, 불쾌해죽겠어. 너희들때문에 이자 그런 말을 듣는것보다는… 차라리 너희들이 날 붙잡아서 죽도록 패주는게 낫겠어.》
《아, 그런데 넌 어째서 가만 있었니?》하고 끄와낀은 싱긋 웃었다. 《〈그건 내가 아니구 이 애들이요.〉하고 말만 하면 되잖아. 우리들은 바로 여기에 함께 서있는데.》
《그렇지! 그렇게 말만 했더면 그 값으루 널 좀 두들겨팼을걸.》
하고 피구라가 성수가 나서 말참견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역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끄와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동무를 쌀쌀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찌무르는 나무줄기들을 손으로 건드리면서 수걱수걱 걸어갔다.
《용하거든.》하고 끄와낀이 나직이 말하였다. 《울고싶은걸 가만 있단말이야.》
《저 자식을 한대씩 박아주자꾸나. 대번 울음보를 터뜨리게시리.》
하고 피구라가 말하면서 찌무르의 뒤에 대고 전나무송이를 던졌다.
《저 애는 …용해.》하고 끄와낀이 목갈린 소리로 되뇌였다.

《그런데 너는… 너는 비렬한 자식같으니!》그는 돌따서면서 주먹으로 피구라의 이마를 한대 갈겼다.

피구라는 그만 얼이 빠져서 멍하니 섰다가 엉엉 울어대면서 냅다 뛰였다. 끄와낀은 그를 따라가면서 두번이나 잔등을 박아주었다.

마침내 끄와낀은 멈춰서더니 땅에 떨어진 모자를 집어들고 무릎에다 툭툭 털면서 에스키모장사한테로 다가가 에스키모를 한개 사들고는 나무에 기대여 서서 숨을 헐떡거리며 그것을 큼직큼직하게 베여 게걸스레 꿀꺽꿀꺽 삼키였다.

× ×

찌무르는 사격장부근 풀밭에서 게이까와 씨마를 만났다.

《찌무르!》하고 씨마가 말하였다. 《너의 아저씨가 아마 성이 난것 같아. 널 찾더라.》

《응 알어, 가겠어.》

《너 또 여기 오겠니?》

《가봐야 알겠어.》

《찌무르!》하고 문득 게이까가 부드럽게 부르면서 동무의 손을 잡았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린 아무한테도 나쁜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넌 알지 않어, 만약 옳은 사람은…》

《그래 알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게 없지. 하지만 어쨌든 그자신은 괴로와.》

찌무르는 가버렸다.

손풍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올리가한테로 제냐가 다가갔다.

《올랴!》

《저리 비켜!》하고 올리가는 동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꾸하였다. 《난 너하고 더는 말하지 않을테다. 난 이제 모스크바로 떠나겠어. 그럼 넌 나없는데서 아무하고나 새벽까지라도 쏘다니렴.》

《그럼, 올랴!》

《난 너하고 말하지 않는대두. 모레 모스크바로 옮겨가자.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를 기다리자.》

《좋아! 아버진 언니같진 않어. 다 알아줘!》제냐는 분김에 그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부르짖고는 찌무르를 찾으러 뛰여갔다.
제냐는 게이까와 씨마꼬브를 만나 찌무르가 어디 있는가 물어보았다.
《그 앤 집에서 찾아서 갔어.》하고 게이까가 말하였다. 《왜 그러는지 너때문에 아저씨가 그 앨 보구 막 성을 내고있더라.》
제냐는 성이 나서 발로 땅을 구르고 두주먹을 불끈 부르쥐면서 부르짖었다.
《저걸 봐… 아무 죄도 없이… 사람들이 매정하구나!》
제냐는 봇나무줄기를 그러안았다. 그런데 그때 따냐와 뉴르까가 그한테로 달려왔다.
《제냐!》하고 따냐가 소리를 쳤다. 《너 왜 그러니? 얘, 어서 뛰여가자! 저기 손풍금수가 왔어. 춤들을 추기 시작했는데 처녀애들이 춤을 추고있어.》
그들은 제냐를 붙잡아서 사람들이 원을 그리고 그안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원피스, 브라우스, 싸라판들이 얼른거리며 돌아가는 무도장으로 끌고갔다.
《제냐, 울게 뭐 있어!》하고 뉴르까가 언제나와 같이 이새로 내밸듯이 재잘거리였다. 《난 할머니가 때려도 울지 않는다야! 얘들아, 저안으로 들어가자꾸나!… 뛰뛰여들자!》
《뛰—뛰여들자!》하고 제냐가 우습강스럽게 뉴르까의 흉내를 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줄을 끊고 들어가서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 ×

찌무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저씨가 그를 불렀다.
《너의 야간모험때문에 골치가 아프구나!》하고 게오르기가 말하였다. 《신호니, 전화니, 노끈이니 하는게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구나. 그 망측한 모포이야기는 어떻게 된 일이냐?》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했기 잘했다! 그 처녀애를 다시는 따라다니지 말아라. 그 애 언니가 널 좋아안한다.》

《무엇때메요?》
《모른다. 미움을 살만한 노릇을 했게 그러지. 너 그 종이쪽지에 쓴건 뭐냐. 새벽에 정원에서 만나서 무슨 도깨비놀음들을 하는거냐? 올리가는 네가 그 애한테 못된 노릇을 배워준다고 하더라.》
《그 애 언니는 거짓말을 하는거야요.》찌무르는 분개해서 말하였다. 《흥, 그래두 공청원이라구! 모를 일이 있으면 날 불러서 물어볼게지, 그러면 내가 모든걸 다 대답해줄게 아니야요.》
《좋아, 그러나 네가 그 애 언니한테 아직 아무 대답도 못해줬으니 그네들의 별장으로 가는걸 금한다. 그리구 앞으로 하여튼 제멋대로 노는 날엔 당장 너를 너의 어머니한테 보낼줄 알아라.》
아저씨는 나가려고 하였다.
《아저씨.》하고 찌무르는 아저씨를 멈춰세웠다. 《아저씨들은 어릴 때 뭘 했어요? 어떻게 놀았어요?》
《우리 말이냐?… 우리야 뜀박질도 하구 지붕에 기여오르기도 하구 또 때로는 싸움도 했지. 그러나 우리들의 장난은 단순했구 누가 봐도 정당했어.》

× ×

올리가는 제냐를 혼내우려고 그한테는 아무말도 않고 저녁때 모스크바로 떠나갔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아무것도 볼 일이 없었다. 그래서 집에는 들리지 않고 동무네 집에 가서 어두울 때까지 있다가 열시가 돼서야 집으로 왔다.
문을 열고 불을 켠 올리가는 깜짝 놀랐다. 문에는 전보가 꽂혀있었다.
올리가는 전보를 떼여 읽어보았다. 아버지한테서 온것이였다.

× ×

저녁무렵, 이미 화물자동차들도 다 공원에서 흩어져갔을 때 제냐와 따냐는 별장으로 달려갔다. 배구가 시작되여 제냐는 구두를 운동화로 바꾸어신어야 했던것이다.

제냐가 신발끈을 다 맸을 때 한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은발머리처녀애의 어머니였다. 처녀애는 어머니의 팔에 안겨서 자고 있었다.

올리가가 집에 없음을 알게 된 어머니는 서운해하였다.

《난 이 애를 너의 집에다 좀 두고 가려구 했는데.》하고 부인은 말하였다. 《너의 언니가 없는줄은 몰랐구나.… 오늘 밤차가 오면 모스크바로 어머님을 마중가야겠는데.》

《그 앨 두고 가세요.》하고 제냐가 말하였다. 《올리가는 무슨 올리가예요.… 그럼 전 사람값에 못가나요? 그 앨 저 침대에다 눕혀요. 전 다른 침대에서 잘래요.》

《이 앤 잠을 고이 자니까 이제 아침이 돼야 깰거다.》하면서 부인은 기뻐하였다. 《이따금 와보구 베개만 바로 베워주면 돼.》

그리하여 처녀애를 옷을 벗겨 침대에다 눕혔다. 그리고 어머니는 갔다. 제냐는 창문으로 침대가 들여다보이도록 카텐을 젖혀놓고 베란다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 제냐와 따냐는 시합이 끝날적마다 번갈아와서 처녀애가 잘 자는가를 보기로 약속하고 배구를 치러 달려들갔다.

그들이 금시 달려간 뒤로 우편통신원이 현관으로 들어왔다. 그는 한참이나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니까 쪽대문쪽으로 돌아와서 이웃집사람에게 주인들이 시내로 떠나가지 않았는가 물어보았다.

《아니요.》 하고 이웃집사람은 대답하였다. 《방금 처녀애가 예 있는걸 봤는데 내가 전보를 받아두지요.》

이웃집사람은 수표를 해주고 전보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고나서 뻰취에 걸터앉아 대통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제냐를 오래도록 기다렸다.

한시간반이나 지났을 때였다. 또다시 이웃집사람한테로 우편통신원이 찾아왔다.

《원 참, 이 집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왜 이리 볶아치우?》 하고 그는 말하였다. 《옜수. 전볼 하나 또 받우.》

이웃집사람은 수표를 하였다. 벌써 캄캄하게 어두웠다. 그는 쪽대문으로 들어가 베란다층층대에 올라서서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조그만 처녀애가 자고있었다. 그 머리맡에는 불그레한 고양이가 엎디여있었다. 그러니 집주인들은 어디 가까이에 있을것이였다.

이웃집사람은 공기창을 열고 두장의 전보를 그리로 들여뜨렸다. 그것은 창문턱에 면바로 떨어졌다. 이제 제냐가 돌아오면 대번에 그것을 알아보게 될것이였다.

그러나 제냐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는 집에 들어오는 길로 달빛에 처녀애의 베개를 바로 베워주고 고양이를 쫓아버리고는 옷을 벗고 잠자리에 누웠다.

그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 누워있었다. (세상이란 참 별난것이구나!) 자기에게도 죄가 없고 올리가 역시 그런것 같았다. 그런데 그와 올리가는 이번 처음으로 대판싸움을 했었다.

정말로 노여웠다. 잘래야 잘수가 없었다. 제냐는 짬을 넣은 계란빵을 먹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찬장이 있는데로 다가가 불을 켰는데 그때 창문턱에 놓인 전보를 피뜩 보았다.

그는 속이 뜨끔하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겉봉을 뜯고 내리읽었다.

첫 전보는 이러하였다.

《오늘 지나는 길에 밤 열두시부터 새벽 세시사이에 들리겠다. 시안의 집에서 기다려라. 아버지.》

둘째것은 이러하였다.

《오늘 밤 곧 오라. 아버지가 시안으로 오신다. 올리가.》

공포를 느끼면서 시계를 쳐다보았다. 열두시 십오분이였다. 제냐는 옷을 걸치고서 잠자는 아이를 덥석 안고 얼빠진 아이처럼 현관으로 달려나갔다가 고쳐 생각하고 아이를 도로 침대에 가져다눕혔다. 그리고는 길거리로 뛰쳐나가 우유장사할머니네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이웃집아낙네가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 때까지 그냥 문짝을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차댔다.

《문짝은 왜 두드리냐?》 하고 이웃집아낙네가 졸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장난이냐?》

《장난을 하는게 아니야요.》 하고 제냐는 애원하듯이 말하였다. 《우유장사할머니를 만나려구 그래요. 그 할머니한테 아이를 좀 맡기려구요.》

《거 무슨 정신나간 소릴 하느냐?》 하고 창문을 탕 닫으면서 이웃집아낙네는 대답하였다. 《그 할머니는 벌써 아침에 시골 오빠한테 갔어.》

정거장쪽에서 들어오는 기차가 기적을 울리였다. 제냐는 길가로 뛰쳐가다가 백발의 할아버지인 박사와 마주쳤다.
《미안합니다!》하고 제냐는 중얼거렸다. 《저게 어느 차소린지 모르시겠어요?》
할아버지는 시계를 꺼내보았다. 《23시 55분》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건 모스크바행 막차다.》
《막차라구요?》하고 제냐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그럼 다음차는 언제 있어요?》
《다음차는 새벽 3시 40분에 떠난다. 그런데 너 어째서 그러냐?》 신사는 비척거리는 제냐의 어깨를 잡으며 가엾은듯이 물었다.
《너 울고있냐? 내가 널 좀 도와줄수 없을가?》
《아 없어요!》하고 나오는 울음을 참고 뛰여가면서 제냐는 대답하였다. 《이젠 이 세상에서 아무도 절 도와줄수는 없어요!》

× ×

제냐는 집에서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있었다. 그러나 곧 벌떡 일어나서 잠자는 처녀애를 노여운듯이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문뜩 정신을 차리고 이불을 바로 덮어준 다음 그 머리맡에서 고양이를 밀어치웠다.
그는 현관과 부엌과 방안에 모두 불을 켜놓고 안락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이렇게 하고 그는 오래 앉아있었는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것 같았다. 그는 무심결에 곁에 놓인 손풍금을 만져보았다. 그러다가 기계적으로 그것을 들어다가 건반을 더듬어 짚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장엄하고도 처량한 소리가 울리였다. 제냐는 손풍금을 홀 밀어놓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의 두어깨가 떨리였다.
그렇다! 그는 외롭게 혼자 남아서 그런 고통을 견디여낼 힘이 더는 없었다. 그는 초불을 켜가지고 헛간으로 갔다.
바로 다락이였다. 노끈, 지도, 포대, 신호기들이 있었다.
그는 남포등에 불을 켜고 조타륜으로 다가가 자기에게 필요한 신호줄을 찾아 고리에다 걸고 바퀴를 휙 돌렸다.

× ×

찌무르가 자고있는데 리따가 앞발로 그의 어깨를 건드리였다. 그러나 찌무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자 리따는 이불을 물어서 마루바닥으로 끌어당겼다.

찌무르가 벌떡 일어났다.

《너 왜 그러니?》하고 그는 영문을 몰라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니?》

개는 그의 눈을 쳐다보고 꼬리를 흔들면서 대가리를 주억거렸다. 그때 찌무르는 청동방울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 깊은 밤에 누가 자기를 찾을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현관으로 나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찌무르가 전화를 받습니다. 누구십니까? 너 … 제냐야?》

처음 찌무르는 태연히 듣고있었다. 그러나 금시 그는 입술이 떨리고 얼굴에 빨간 홍조가 떠올랐다. 그는 숨결이 가빠졌다.

《그래, 세시간동안이라구?》하고 불안해하면서 물었다. 《제냐, 너 울고있니? 들린다.… 너 울고있구나. 그쳐라! 괜찮어! 내 곧 갈게…》

그는 수화기를 놓고 선반에서 기차시간표를 집어들었다.

《옳지, 요건 23시 55분에 떠나는 막차구, 그담엔 3시 40분차밖에 없구나!》그는 우두커니 서서 입술을 깨물었다.《늦었어! 정말 어떻게 할 길이 없을가? 글렀어! 이젠 늦었어!》

그러나 붉은별은 낮이나 밤이나 제냐네 대문에서 불타고있었다.

그는 직접 자기의 손으로 그 불꽃을 달아놓았으며 그 곧고 예리한 빛발은 그의 눈앞에서 반짝이고있었다.

군관의 딸이 불행하게 되였다! 군관의 딸이 뜻밖에도 곤경에 빠진것이다.

그는 얼른 옷을 입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리하여 얼마후에는 벌써 백발의 할아버지네 별장현관에 서있었다.

박사의 서재에는 불빛이 환하였다. 찌무르는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문이 열렸다.

《너 누굴 찾아왔느냐?》하고 백발의 할아버지가 놀란듯 무뚝뚝

하게 물었다. 《할아버지를 뵈오려고 왔어요.》 하고 찌무르가 대답하였다.
《나를?》 하고 할아버지는 잠간 생각하더니 시원스럽게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말하였다. 《그럼, 어서 들어오너라.…》
그들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찌무르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끝맺었다.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놀며 그리고 어째서 할아버지네 꼴랴가 지금 저에게 필요한가 하는것은 죄다 말씀드렸습니다.》
로인은 아무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찌무르의 턱을 덥썩 쥐여 그 얼굴을 쳐들고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방에서 나갔다.
그는 꼴랴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일어나거라.》 하고 그는 말하였다. 《너를 찾고있다.》
《그래두 전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꼴랴는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뜨면서 말하였다. 《난… 할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일어나거라.》 하고 할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되뇌였다. 《네 동무가 찾아왔다.》

× ×

제냐는 다락에서 무릎을 그러안고 짚무데기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그는 찌무르를 기다리는것이였다. 그런데 찌무르는 오지 않고 꼴랴 꼴로꼴치꼬브의 꺼시시해진 머리가 창문안에 불쑥 나타났다.
《이건 누구야?》 하고 제냐는 정색을 하였다. 《너 왜 왔니?》
《나두 몰라.》 하고 꼴랴는 놀라는듯이 나직이 말하였다. 《난 자고있었어. 그런데 찌무르가 와서 깨나니까 그 애가 날 보내면서 너하구 함께 쪽대문 있는데루 내려오라구 하더라.》
《뭐때메?》
《난 모르겠어. 내 머리속에선 뭔지 툭툭하면서 윙윙거려. 제냐. 난 정말이지 영문을 모르겠어.》

× ×

승인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 아저씨는 모스크바에 가고 집에 없었다. 찌무르는 남포등에 불을 켠 다음 도끼를 들고 리따를 불러가지고 뜰로 나갔다. 그는 쇠를 잠가놓은 헛간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눈길을 도끼에서 자물쇠로 옮기였다. 그렇다!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다른 길은 없었다. 그는 자물쇠를 힘껏 내리쳐서 마스고 헛간에서 오토바이를 끌어내였다.

《리따!》하고 그는 한쪽무릎을 짚고 개의 낯바닥에 입을 맞추면서 쓸쓸하게 말하였다. 《너 성을 내지 말어. 달리는 할수가 없구나!》

× ×

제냐와 꼴랴는 쪽대문곁에 서있었다. 멀리서 빨리 다가오는 불빛이 뵈였다. 그 불빛이 그들에게로 곧장 날아오면서 발동소리가 탕탕거렸다. 그들은 눈이 부시여 실눈을 하면서 울타리쪽으로 물러섰다. 그러자 불이 껌뻑 꺼지고 발동소리가 뚝 멎더니 그들앞에 찌무르가 나타났다.

《꼴랴.》하고 그는 인사도 묻는 말도 없이 대뜸 말하는것이였다. 《넌 여기 남아서 자고있는 처녀애를 보호해라. 넌 전체 우리 부대앞에 그 애를 책임진다. 제냐, 올라타라. 모스크바로 어서 가자!》

제냐는 환성을 올리면서 찌무르를 힘껏 그러안았다.

《올라타. 제냐, 어서 올라타래두!》하고 찌무르는 애써 엄격하게 보이려고 하면서 부르짖었다. 《꽉 잡아라! 자, 앞으로! 앞으로! 전진!》

발동소리가 탕탕거리기 시작하고 고동이 울리더니 어느새 새빨간 불빛은 얼떨떨해진 꼴랴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잠시 그자리에 서있다가 몽둥이를 들어 총인듯 잔뜩 받들어쥐고 불빛이 환한 별장주위를 빙빙 돌아다녔다.

《병사노릇은 정말 힘든데!》하고 그는 뚜벅뚜벅 걸으면서 중얼거렸다. 《낮이나 밤이나 편안할 때가 없거든!》

× ×

시간은 새벽 세시가 가까와왔다. 알렉싼드로브대좌는 식탁곁에 앉아있었는데 거기에는 식은 차잔과 한쪽을 베여낸 칼파스, 치즈, 흰빵 토막들이 놓여있었다.

《난 삼십분후엔 떠나야겠다.》하고 그는 올리가에게 말하였다.

《제냐를 종시 못보게 돼서 섭섭하다. 올랴, 너 우느냐?》

《그 애가 왜 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냐가 가엾어요. 그 앤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싶어했는데, 이제 그 애는 아주 미쳐버릴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 앤 정신이 나간 앤데요.》

《올랴.》하고 아버지는 일어서면서 말하였다. 《제냐가 나쁜 아이들패거리에 휩쓸려들어가서 누가 그 앨 가르친다든가 추겨댄다는건 모를 소리야. 도무지 믿어지질 않어. 그럴리가 없다. 제냔 성격이 그렇질 않아.》

《이것 보세요!》올리가는 안타까와하였다. 《아버진 그저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그 앤 그렇잖아도 자기 성격은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이는데요. 그렇지만 같을게 뭐예요. 그 애가 지붕엘 기여올라가서 굴뚝으로 노끈을 내려보냈는데요. 제가 다리미를 쥐려니까 그것이 달려올라가질 않겠어요. 아버지가 떠나실 때 그 애한테 옷이 네벌 있었어요. 그런데 두벌은 벌써 걸레가 됐어요. 한벌은 작아지고 한벌 남은것은 아직 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전 그 애한테 옷을 세벌이나 지어줬지요. 그래도 그 앤 옷을 어떻게 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앤 언제나 그저 손에 멍이 들고 할퀴워다니지요. 그 앤 사람들앞에서야 입술을 꼭 다물고 파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니지요. 그래서 남들은 모두 그 앨 보고 꽃이지 처녀애가 아니라고 생각들하지요. 그렇지만 한번 대해만 보라지요. 아이구! 꽃은 무슨놈의 꽃이야요! 건드리기만 했다가야 손을 떼지요. 아버지, 그 애 성격이 아버지를 닮았다고는 아예 생각지도 마세요. 그 애한테 한번만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사흘동안이나 굴뚝우에서 춤을 출거예요.》

《좋다.》아버지는 올랴를 안으면서 동의하였다. 《내 그 애에게 일러주마. 내 편지를 쓰마. 그런데 올랴, 너 그 애를 너무 구

속하진 말아라. 그리구 이렇게 말해줘라. 내가 그 앨 사랑하구 늘 생각한다구.

그리구 우린 인차 돌아올테니 군관의 딸인만큼 아버지때문에 울어선 안된다구.》

《그래도 울거예요.》하고 올리가는 아버지에게 바싹 다가붙으면서 말하였다. 《저도 군관의 딸이예요. 하지만 저도 울거예요.》

아버지는 시계를 보고 거울앞으로 다가가서 혁띠를 띠고 군복저고리를 아래로 잡아당겨서 반듯이 하였다.

바로 그때 갑자기 바깥문이 쾅 하고 닫기였다. 휘장이 헤쳐지면서 금시 뛰여오를듯 어깨를 쑥 내민 제냐가 나타났다. 그러나 제냐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서 뛰여오르려고 하지 않고 말없이 조용히 얼른 다가와서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의 이마에는 진탕이 튀고 구겨진 옷은 얼룩투성이였다. 이것을 본 올리가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제냐, 너 어디서 오니? 너 어떻게 여길 왔니?》

제냐는 돌아다보지도 않고 손을 홱 내저었다. 그것은 《좀 가만있어. …시끄러워 …묻지 말어…》하는 뜻이였다.

아버지는 제냐를 두손에 안아 안락의자에 와앉아서 그를 자기 무릎에다 올려앉혔다. 그리고 제냐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더러워진 그 이마를 손바닥으로 닦아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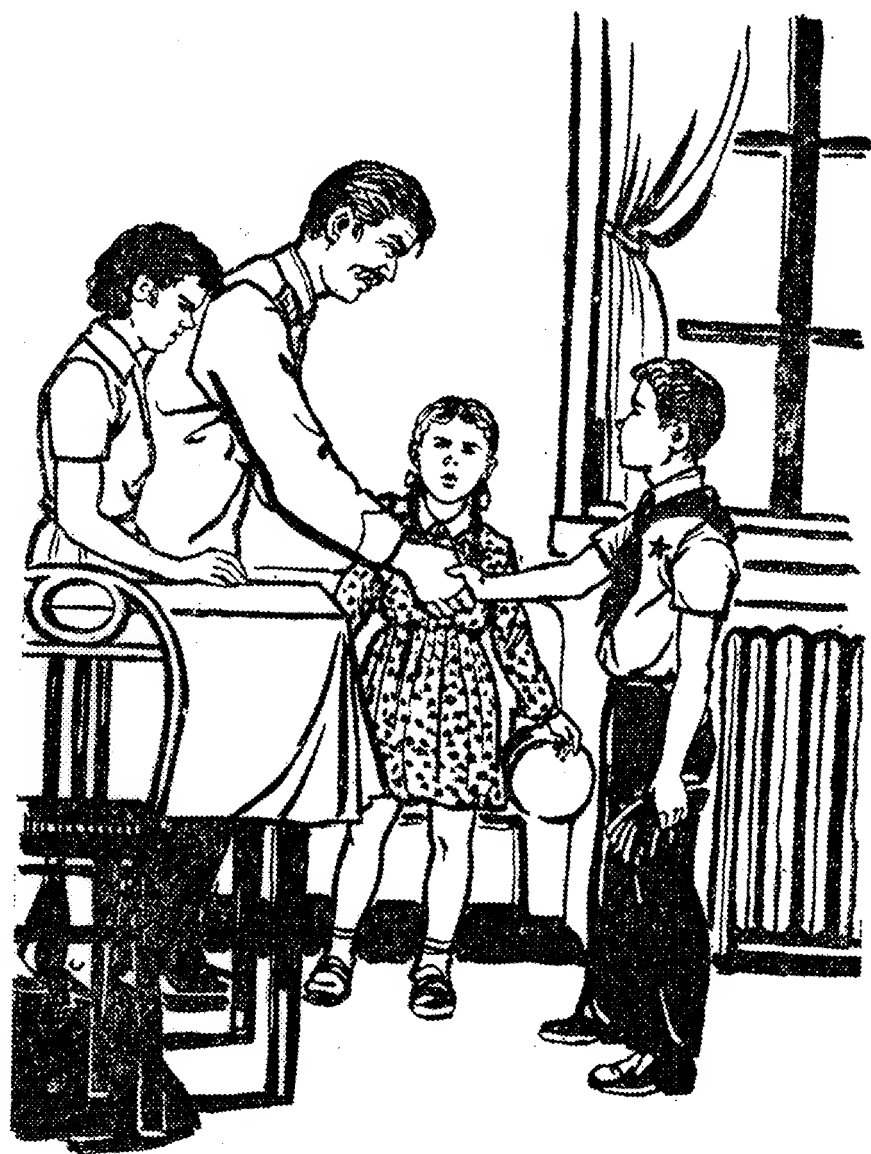
《그래, 됐어! 넌 참 용한 아이다. 제냐!》

《그런데 온통 진탕투성이가 되고 얼굴이 새까맣구나! 너 어떻게 여길 왔니?》하고 올리가가 또 물었다.

제냐가 올리가에게 휘장쪽을 가리켰다. 올리가는 찌무르를 보았다.

찌무르는 오토바이용 가죽장갑을 벗고있었다. 그의 관자노리에는 누런 기름이 묻었었다. 땀에 젖은 그의 지친 얼굴은 자기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한 로동하는 사람의 얼굴이였다. 그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머리를 숙였다.

《아버지!》하고 제냐는 무릎에서 뛰여내려 찌무르에게로 달려가면서 말하였다.《아버진 아무도 믿지 말아요! 다들 아무것도 몰라요. 이 앤 찌무른데 정말 좋은 제 동무예요.》

아버지는 일어서서 서슴없이 찌무르의 손을 쥐였다. 제냐의 얼굴에는 승리를 자랑하는 미소가 피뜩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그는

예민한 눈초리로 올리가를 힐끗 쳐다보았다. 당황한 올리가는 아직 영문을 모르면서 찌무르에게로 다가갔다.
《자 … 그럼 인사를 하자.…》

× ×

시계는 인차 세시를 쳤다.
《아버지.》하고 제냐는 어리둥절하였다. 《벌써 일어나요? 우리 시계는 빨라요.》
《아니다. 제냐, 그 시계는 정확하다.》
《아버지, 아버지 시계도 빨라요.》하고 그는 전화기로 달려가서 《시간》의 번호를 돌리였다. 그러자 수화기에서 쨍쨍한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세시 사분입니다!》
제냐는 벽을 쳐다보고 한숨을 지으면서 말하였다. 《우리 시계는 빠르기는 빠르지만 일분밖엔 안빨라요. 아버지, 우리를 정거장으로 데리고가요. 아버지를 기차까지 모셔다드릴께요!》
《아니다. 제냐, 그건 안돼. 나는 거기 가서는 시간이 없어.》
《왜요? 아버지, 아버지는 벌써 차표를 가지고있잖아요?》
《가지고있다.》
《연석찬가요?》
《연석차다.》
《아, 난 아버지와 함께 연석차를 타고 멀리멀리 갔으면 얼마나 좋을가!…》

× ×

여기는 큰 정거장이 아니고 쏘르찌로위츠나야따위의 모스크바교외의 화물역 비슷한 어떤 자그마한 정거장이다. 선로, 전철기, 차량들이 보인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선로우에 장갑렬차가 서있다. 철문이 방싯 열리고 불길이 벌겋게 비친 기관사의 얼굴이 얼씬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승강구에 가죽외투를 입은 제냐의 아버지 알렉싼드로브대좌가 서

있었다. 한 중위가 다가와 경례를 붙이고 묻는다.
《부대장동지,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좋소!》하고 대좌는 시계를 들여다본다. 세시 오십분이다. 세시 오십삼분에 출발하기로 명령이 되여있었던것이다.
알렉싼드로브대좌는 차간으로 다가가면서 살펴본다. 날은 밝아오는데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덮이였다. 그는 축축해진 문고리를 잡는다. 그의 앞에 육중한 문이 열린다. 그는 승강대에 한발을 올려놓고 빙긋이 웃으면서 혼자 묻고 대답한다.
《연석차?》
《그래! 연석차지…》
그가 들어간 뒤로 육중한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닫긴다.
그리하여 철갑을 쓴 이 거물은 흔들리지도 않고 덜컥소리도 없이 슬며시 움직이더니 경쾌하게 속력을 낸다. 기관차가 지나가고 포탑들이 둥둥 떠간다. 모스크바는 뒤에 남는다. 안개가 자욱한데 별빛이 꺼지면서 날이 샌다.

× ×

이튿날 아침 게오르기는 일터에서 돌아와보니 찌무르도 오토바이도 없음을 알게 되자 당장 찌무르를 자기 어머니한테 돌려보내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편지를 쓰고 앉았는데 마당길로 붉은군대가 들어오는것이 창문으로 내다뵈였다.
붉은군대는 편지를 꺼내들고 묻는것이였다.
《까라예브동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게오르기 알렉쎄예위치시지요?》
《그렇습니다.》
《편지를 받고 수표를 하십시오.》
붉은군대는 돌아갔다. 게오르기는 겉봉을 보고 알만하다는듯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렇다! 그것은 그가 벌써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바로 그것이였다.
그는 겉봉을 뜯고 내용을 읽고는 쓰기 시작했던 편지를 꾸겨버렸다. 이젠 찌무르를 보낼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여기 별장으

로 불러와야 했던것이다.

찌무르가 방에 들어서자 성이 꼭두까지 치밀었던 게오르기는 주먹으로 책상을 두들겼다. 그런데 찌무르의 뒤를 따라 올리가와 제냐가 들어왔다.

《조용하세요!》 하고 올리가가 말하였다. 《큰소리를 칠 필요도 책상을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찌무르는 죄가 없어요. 죄는 당신에게 있어요. 그리고 제게도 있고요.》

《그래요.》하고 제냐가 거들어나섰다. 《아저씨는 찌무르한테 소릴 치지 말아요. 올랴, 책상일랑 건드리지 말어, 이 집에 있는 권총은 소리가 굉장히 요란스러워.》

게오르기는 제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다음에는 권총과 진흙으로 만든 재털이의 부러진 손잡이를 번갈아보았다. 그는 무엇인가 짐작이 가는듯하더니 마침내 사연을 알아차리고 묻는것이였다.

《그러구보니 밤에 여기 왔던게 너였구나, 제냐?》

《옳아요, 그건 저였어요. 올랴, 아저씨한테 모든걸 다 얘기해줘. 그럼 우린 석유하구 걸레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닦으러 가자.》

× ×

그 이튿날 올리가가 현관에 앉아있는데 어떤 군관이 쪽대문으로 들어왔다. 그는 마치 자기 집으로라도 들어오는듯이 서슴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왔다. 깜짝 놀란 올리가는 그를 맞이하여 일어섰다. 그의 앞에는 땅크병대위의 정복을 입은 게오르기가 서있었다.

《이게 웬일이세요?》 하고 올리가가 조용히 물었다. 《이건 또 … 새 가극의 역이신가요?》

《아닙니다.》하고 게오르기는 대답하였다. 《난 작별인사를 하려고 잠간 들렸습니다. 이건 새로운 역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정복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예요?》하고 올리가는 약간 홍조를 띠고 그의 령장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우리는 땅우에서 철근콩크리트를 뚫고나가서 직통으로 심장을 친다.〉는것말이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손풍금에 맞춰서 무슨 노래를 한곡 불러주십시오. 저의 먼길을 축하해서말입니다.》

그는 앉았다. 올리가는 손풍금을 들었다.

비행사 길잡이여! 폭탄과 기관총이여!
머나먼 길 날아갔으니
그대는 언제 돌아오려나?
어느날 돌아올지 나는 모르나…
언제라도 좋으니 돌아만 오시라
땅우에, 하늘에
그대 있는 곳 어데일지라도.
두 날개 붉은별 달린 날개
사랑스럽고도 무서운 날개
이국땅 하늘을 날고있어도
나는 그대를 기다리노라
지난날 그대를 기다린듯이.

《자, 불렀어요.》 하고 올리가가 말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비행사를 두고 부르는 노래예요. 땅크병에 대한 노래는 이렇게 좋은걸 몰라요.》

《괜찮습니다.》 하고 게오르기는 청을 대였다. 《그러면 노래가 아닌 좋은 말을 골라주십시오.》

올리가는 생각에 잠기였다. 그리하여 필요한 좋은 말을 찾으면서 이미 웃지 않는 그의 재빛눈을 주의깊이 들여다보면서 잠자코 있었다.

× ×

제냐와 찌무르, 따냐는 정원에 있었다.

《얘들아.》 하고 제냐가 먼저 말을 꺼내였다. 《게오르기아저씨가 지금 떠나는데 그 아저씨 환송을 하게 우리 부대를 다 모으자꾸나. 아예 제1호 총소집신호를 콱 하자. 그럼 이제 막 야단일게야!》

《그만둬.》 하고 찌무르는 거절하였다.

《어째서?》

《그만둬! 우린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환송한 일이 없잖니?》

《그만둘라면 그만두자꾸나.》 하고 제냐는 동의하였다. 《너희들 여기 좀 앉아있어. 내 물먹으러 갔다올게.》
제냐는 물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따냐가 웃음보를 터뜨렸다.
《너 왜 그러니?》하고 찌무르는 영문을 몰라하였다.
따냐는 더 크게 웃어대였다.
《참 잘해. 우리 제냐는 아주 어물쩍하거든! 〈내 물먹으러 갔다 올게.〉 하겠지!》
《주의!》하고 다락에서 제냐의 쨍쨍하고 위엄있는 목소리가 울리였다. 《제1호 총소집신호를 합니다.》
《저 애가 정신나갔구나!》하고 찌무르는 펄쩍 뛰였다.《이제 백명이나 여기로 달려온다! 너 어쩌자구 그러니?》
그러나 육중한 바퀴는 벌써 삐걱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기 시작했고 신호줄들은 몸부림을 치면서 훌쩍거리기 시작하였다. 《세번 하고 쉬고》《세번 하고 쉬고》 그만!
그리하여 헛간의 지붕밑에서도 고방과 닭장안에서도 신호를 하는 종이며 쩔렁통이며 병, 깡통같은것들이 요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하였다.
백명은 안되여도 쉰명은 잘되는 아이들이 귀에 익은 신호소리를 듣고 부리나케 달려왔다.
《올랴.》 하고 부르면서 제냐가 방으로 뛰여들었다.《우리도 환송나간다. 우린 많아! 창문으로 좀 내다봐.》
《저런.》하고 게오르기가 카텐을 헤치면서 정색을 하였다.
《정말 너의 부대는 크구나! 군용렬차에 실어서 전선으로 보낼만한데.》
《그건 안돼요!》하고 제냐는 찌무르가 하던 말을 외우면서 한숨을 쉬였다.《모든 사령관들과 부대장들더러 쪼무래기들은 목덜미를 줘서 쫓아버리라고 아주 엄격히 명령을 내렸어요! 참 유감이야! 나두 거기 어데 갔으면… 전투에도 공격에도 참가할만한데. 기관총화선으로… 제일 기관총! 》
《너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허풍선의 두목이구나! 》하고 올리가는 그를 놀려주었다. 그리고는 손풍금의 멜띠를 어깨에 메면서 말하였다.
《자, 그럼 환송을 하려거든 이렇게 음악을 울리면서 해야지.》

× ×

그들은 길거리로 나왔다. 올리가는 손풍금을 켰다. 이윽고 병이니 깡통이니 막대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였다. 그것은 예술소조원들의 관현악대가 앞으로 밀려나온것이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래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새로새로 모여드는 환송자들로 대렬을 불구면서 록음이 우거진 길거리를 걸어갔다. 처음에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그렇게 법석떠들고 야단인지 까닭을 몰랐다. 노래는 또 무슨 노랜데 어째서 부르는것일가? 그러나 사연을 알게 되였을 때 그들은 미소를 띠우면서 어떤 사람은 속으로, 어떤 사람은 입밖에 내여 게오르기의 앞길을 축복하였다.

그들이 정거장승강대로 다가갔을 때 군용렬차가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앞에 달린 차간들에는 붉은군대 병사들이 탔었다. 아이들은 그들을 보고 손을 흔들며 환성을 올렸다. 그 다음에는 마차를 실은 무개화차들이 지나갔는데 삐죽삐죽 내민 무슨 멍에들이 수풀같았다. 또 그 다음은 말을 실은 화차들이 지나갔다. 말들은 대가리를 저으면서 풀을 먹고있었다. 그것들한테도 《만세》를 웨쳤다. 마지막으로 뭔지 회색방수포로 꼭 덮은 모가 난 큼직한 물건을 실은 무개화차가 얼씬하고 지나갔다. 거기에는 기차가 가는바람에 흔들리면서 보초병이 서있었다.

군용렬차는 사라지고 일반 기차가 들어왔다. 그래서 찌무르는 아저씨와 작별인사를 하였다.

게오르기에게로 올리가가 다가왔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하고 올리가는 말하였다. 《아마, 오래있게 될테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올리가의 손을 잡았다. 《모르지요. 운명에 달렸지요!》

기적소리, 떠드는 소리, 귀가 멜듯한 관현악소리, 기차는 떠나

갔다.

올리가는 생각에 잠겨있었다. 제냐의 두눈은 그자신으로서도 알수 없는 크나큰 행복에 빛났다.

찌무르는 마음이 설레였다. 그러나 그는 꾹 참았다.

《그러니 인젠》 그는 좀 잠긴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혼자 남았구나.》 그리고는 이어 몸을 쭉 펴면서 말을 보태였다. 《그렇긴 해도 래일 어머님이 오셔.》

《그럼, 난 뭐야?》 하고 제냐가 부르짖었다. 《그리구 저 애들은 뭐구?》 그는 동무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건 또 뭐구?》 하면서 손가락으로 붉은별을 짚었다.

《걱정말아라!》 올리가는 뒤숭숭한 생각을 떨어버리면서 찌무르에게 말하였다. 《너는 언제나 사람들을 생각해주었으니 그들도 또 너한테 그처럼 갚음을 할게다.》

찌무르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아, 과연 그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소년, 그는 여기에서 달리 대답할수는 없었다.

그는 동무들을 흘끔 바라보고 씽끗 웃으면서 말하는것이였다.

《나는 서있다.…나는 보고있다. 모두들 행복스럽구나! 모두 근심걱정이 없어. 그러니 그것은 곧 나도 또한 근심걱정이 없다는 거야!》

1940년

먼 나라들

1

겨울철엔 갑갑하기 그지없다. 우리 고장은 자그마한 간이역이다. 산림에 둘러싸이고 날씨는 맵고 온통 눈에 뒤덮여서 아무데도 나갈 곳이 없다. 한가지 놀음이 있다면 그것은 산에서 썰매지치는것뿐이다. 하지만 썰매도 하루종일이야 지칠수 있는가? 한번 지치고 두번 지치고 기껏해야 스무번 지치면 그만 싫증이 나고 맥이 빠진다. 썰매란놈이 저혼자 산으로 기여올라가주었으면 좋겠건만 그놈이 산우에서 미끄러져내려는 와도 산우로는 기여올라가지 못하니까.

간이역마을엔 아이들이 몇 안된다. 교차점감시원네 집에 와시까가 있고, 기관사네 집에 뻬찌까가 있고, 전신수네 집에 쎄료즈까가 있다. 나머지 아이들은 보잘것 없는 꼬마들이다. 한 아이는 세살이고 또 한 아이는 네살났으니 그것들이 무슨 동무가 되겠는가?

뻬찌까와 와시까는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쎄료즈까는 심술쟁이고

싸움하기를 좋아했다.
《뻬찌까야, 이리 와. 내 미국요술을 보여줄게.》
하고 그는 뻬찌까를 부른다.
그러나 뻬찌까는 조심스러워 《넌 요전에두 요술한다 하고는 내 목덜미를 두번이나 쥐박지 않았니.》 하며 다가가지 않는다.
《그건 간단한 요술이구 이번엔 쥐박지 않는 미국요술이야. 어서 가까이 와서 좀 봐, 내 손에서 무엇이 깡충깡충 뛰노는가말이야.》
정말 쎄료즈까의 손바닥에서 무언지 깡충거리고있었다. 그걸 보고서야 어찌 다가가지 않겠는가!
쎄료즈까는 손재간이 있었다. 나무꼬챙이에 고무줄을 감고 어찌어찌 하니까 그의 손바닥우에서 돼지랄지 물고기랄지 웬 장난감이 깡충깡충 뛰는것이였다.
《멋있는 요술이지?》
《멋있는데.》
《이제 더 재미있는걸 보여줄게. 뒤로 돌아섯.》
뻬찌까가 뒤돌아서자 쎄료즈까란 녀석이 무르팍으로 꽁무니를 탁 차는바람에 그는 대번에 눈구뎅이에 나자빠졌다.
《이것이 미국요술이란거야.…》
와시까도 이런 봉변을 당하였었다.
그러나 와시까와 뻬찌까가 둘이서 놀 때엔 쎄료즈까가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흥, 건드렸다만 보지! 둘이만 있으면, 그들도 여간 용감하지 않았다.

어느날, 와시까는 목을 앓았다. 그래 어머니는 그를 밖에 내보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웃아주머니네 집에 가고 아버지는 급행렬차를 맞으러 대피초소에 나가서 집안은 조용했다. 무슨 재미나는 장난이 없을가? 어떤 요술을 한번 피워볼가? 무슨 장난감이라도 만들어볼가? 와시까는 우두커니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구석, 저구석 돌아다녀보았으나 재미있을만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
찬장앞에 의자를 가져다놓고 찬장문을 열었다.
봉해놓은 꿀단지가 있는 찬장웃간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단지아구리를 풀고 꿀을 한숟가락 퍼냈으면 좀 좋

으랴.…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이런 요술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었기때문에 한숨을 쉬고 그냥 내려오고말았다. 그는 창문가에 앉아서 급행렬차가 달려오기를 기다리기 시작하였다. 급행렬차안에서 무엇들을 하는지 한번도 똑똑히 볼수 없는것이 유감이였다. 급행렬차는 불꽃들을 뿌리며 기적을 울린다. 그의 집 바람벽이 흔들거리고 선반우의 접시들이 달그렁거릴만큼 요란하게 우르릉거린다. 밝은 불빛들이 번쩍인다. 사람들의 얼굴과 식당차의 흰 식탁우에 놓은 꽃들이 그림자처럼 창문안에서 얼핏얼핏 지나간다. 큼직한 누런 손잡이들과 갖가지색 유리들이 금빛으로 번쩍인다. 료리사의 흰 모자가 휙 지나간다. 기차는 눈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버렸다. 마지막차량뒤에 달린 신호등만이 보일랑말랑 아득히 사라질뿐이다.

이렇듯 급행렬차는 그들의 조그마한 간이역에 한번도 멎은적이 없었다. 씨비리라고 하는 어느 머나먼 나라로 언제나 바삐 달려가군 하는것이였다. 씨비리로 달려갔다가는 또 씨비리에서 달려왔다. 이 급행렬차는 하루도 편히 쉬는 날없이 언제나 바삐 뛰여다니였다.

창문가에 앉아있던 와시까는 문득 겨드랑이에 무슨 보자기를 끼고 여느때보다 점잖게 걸어가는 뻬찌까를 보았다. 그 걸음걸이는 제법 가방을 든 철도기술자나 기수같았다.

와시까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뻬찌까야, 너 어딜 가니? 종이에 싸든건 뭐야?》하고 환기창으로 웨치고싶었다.

그런데 환기창을 열자 마침 어머니가 돌아오시였다. 어머니는 목을 앓으면서 왜 찬바람을 쐬느냐고 꾸짖으시였다.

밖에서 또 급행렬차가 기적소리를 지르고 우르릉거리며 지나갔다. 다음에 그는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이리하여 와시까는 이상하게 지나가던 뻬찌까에 대하여는 잊어버리고말았다.

그런데 다음날 그는 또 어제처럼 무엇인지 신문지에 싸들고 지나가는 뻬찌까를 보았다. 그 얼굴은 큰 역의 당직조역처럼 의젓하였다.

와시까는 주먹으로 문틀을 두드렸다. 그러자 어머니의 꾸지람소리가 날아왔다.

삐찌까는 이번에도 그의 앞을 지나 저 갈길을 가버렸다.

삐찌까가 웬일일가? 와시까는 궁금했다. 이전에는 하루종일 강아지뒤를 좇아다니고, 꼬마대장노릇을 하고, 혹은 쎄료즈까한테 쫓겨다니기나 하던 삐찌까였다. 그런데 지금은 의젓하게 고개를 쳐들고 걸어가지 않는가. 그 얼굴은 남을 깔보는듯한 표정이였다.

와시까는 나직이 《에헴.》기침을 하고나서 짐짓 태연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어머니, 난 이젠 목이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으면 됐구나.》

《다 낫어요. 조금도 아프지 않아요. 좀 있으면 밖에 나가 놀아도 일없겠어요.》

《아무렴, 좀 있으면 밖에 나가도 일없어. 그렇지만 오늘은 나가지 말고 집안에 있거라. 넌 아침까지도 목이 쉬여있지 않았니.》하는것이 어머니의 대답이였다.

《그건 아침이구 지금은 벌써 저녁인데요.》

어떻게 하면 밖으로 빠져나갈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면서 와시까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말없이 방안에서 왔다갔다하다가 물을 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비발치듯 퍼붓는 총탄속에서 꼼무나부대가 영웅적으로 잘 싸웠다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 노래는 지난 여름에 이 지방을 지나가던 공청원들에게서 들은 노래였다. 사실 그는 노래를 부르고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자기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목이 안아프단 말을 곧이 듣고 혹시 밖에 내보내줄지도 모른다는 속심에서 부르는것이였다.

그러나 부엌일이 바쁜 어머니는 그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와시까는 꼼무나성원들이 간악한 장군놈에게 포로되여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대목을 더 큰소리로 노래불렀다.

그래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그는 꼼무나성원들이 죽음의 선언을 겁내지 않고 자기들이 묻힐 깊은 무덤을 파기 시작하였다는 노래의 구절을 목청껏 불렀다.

그는 노래를 그닥 잘 부르지는 못하였으나 그대신 목소리는 여간만 크지 않았다. 어머니가 잠자코있는것을 보니 자기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에 드는가보다고 생각한 와시까는 이제 곧 밖에 내보내주겠

거니 믿었다.

그러나 그 노래가 꼼무나성원들이 제 무덤을 다 파고나서 한결같이 저주로운 장군놈의 죄악을 낱낱이 까밝히는 가장 장엄한 대목에 이르렀을 때 부엌에서 그릇을 닦는 달그락소리가 뚝 그치더니 어머니가 성나고 놀란 얼굴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얘, 이 어리석은 녀석아, 왜 이리 떠들어대냐? 가만 듣고만 있으니까… 네가 정신나간게 아니냐? 길잃고 맹맹 울어대는 양새끼처럼 소리지르구.》 하고 어머니는 꿱 소리를 질렀다.

와시까는 분해서 잠자코있었다. 어머니가 저를 양새끼와 비유했다고 해서 분한것이 아니라 오늘도 밖에 내보내주지 않는데 공연히 애쓴것이 분했던것이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따뜻한 뻬치까우로 올라갔다. 양털외투를 베고 누워서 누런 고양이 이완 이와노위츠가 갈그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엾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였다.

갑갑도 하다! 학교도 없지, 삐오네르들도 없지, 급행렬차는 멎지도 않고 지나가버리지, 겨울은 길지, 갑갑하구나! 여름이라도 어서 와주었으면! 여름이면 물고기, 산딸기, 버섯, 호두가 있지 않은가.

와시까는 작년 여름 어느날 낚시로 큼직한 농어를 잡아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을 회상하였다.

그때 날은 이미 저물었기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선사하리라 마음먹고 그는 농어를 집앞채에 놓아두었었다. 그런데 밤중에 그 몹쓸 고양이 이완 이와노위츠란 놈이 앞채에 몰래 기여들어가서 농어를 대가리와 꽁지만 남겨놓고는 다 뜯어먹어버렸다.

와시까는 그때 분하던 일이 생각나서 주먹으로 고양이를 쥐여박으며 말했다.

《또다시 그랬다만 봐라. 목을 비틀어놓을테다!》

누런 고양이는 깜짝 놀라 깡충 뛰며 야웅 하고 성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뻬치까에서 뛰여내려갔다.

와시까는 한참 누워있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날 와시까는 목이 다 나았다. 그래 와시까는 밖으로 나갈수 있었다.

하루밤사이에 날씨가 푸근해졌다. 처마끝마다에는 굵고 끝이 뾰족

한 고드름이 매달리고 눅눅하고 훈훈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봄은 다가오고있었다.

와시까가 뻬찌까를 찾아 달려가려고 하는데 마침 뻬찌까가 이리로 오고있었다.

《뻬찌까야, 넌 요새 어딜 다니니?》 하고 와시까가 물었다. 《뻬찌까야, 넌 왜 한번두 우리 집에 들리지 않았니? 네가 배앓이할 땐 내가 너의 집에 찾아갔었는데 내가 목을 앓을 땐 넌 날 찾아오지 않았지.》

《난 가긴 갔댔어. 난 너의 집앞에까지 갔다가 요전에 우리가 너의 집 드레박을 우물에 빠뜨린 일이 생각났어. 그래서 너의 어머니한테 욕을 먹을가봐서 한참 서있다가 그냥 돌아오구말았지뭐.》

《원 별소릴 다하는구나! 우리 어머닌 한번 욕하면 그만이야. 이젠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을걸. 드레박은 그저께 벌써 아버지가 꺼냈어. 앞으론 꼭 들려야 해.… 신문에 싼건 무슨 놀음감이야?》

《이건 놀음감이 아니구 책이야. 하나는 국어책이구 하나는 산수책이야. 난 벌써 사흘째 이 책을 가지고 이완 미하일로위츠선생한테 다니고있단다. 난 읽을줄은 알지만 쓸줄 모르고 산수풀이할줄 모르잖니. 그래 그 선생한테 배우는중이야. 지금 산수문제 하나 낼테니 풀어보겠니? 자, 너하구 나하구 낚시질하러 갔는데 난 열마리 잡구 넌 세마리 잡았다구 하자, 그럼 우리 둘이서 모두 몇마리 잡았겠니?》

《내가 왜 그렇게 적게 잡았단말이야?》 와시까는 골을 냈다. 《흥, 넌 열마리 잡구 난 세마리 잡았다구. 지난 여름에 내가 얼마나 큰 농어를 잡았는지 생각안나니? 넌 그런걸 잡지 못해.》

《와시까, 이거야 산수하는게 안야.》

《산수면 산수지, 그래두 난 세마리 잡구 넌 열마리 잡다니… 내 낚시찌는 진짜지만 너는 코르크로 만든 낚시찌 아니야. 낚시대두 휘였구…》

《휘였다구?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내 낚시대가 휘였어? 그저 조금 구붓한걸 곧게 펴놓은지가 언제게. 그럼 좋아. 내가 열마리 잡고 네가 일곱마리 잡았다구 하자.》

《왜 내가 일곱마리밖에 못잡았단말이야?》

《왜라니? 더 잡히지 않으니까 그렇지.》

《어째 나한텐 안잡히고 너한테만 잡힌단말이야? 그건 정말 엉터리

산수로구나.》
《야, 너두 참 딱하구나 !》 하고 뻬찌까는 한숨을 쉬였다. 《정 그렇다면 나두 열마리 잡고 너두 열마리 잡았다고 하자. 그럼 다해서 몇마리 잡았니?》
《그러면 퍼그나 많겠구나 .》하고 와시까는 좀 생각하다가 대답하였다.
《〈많겠구나.〉 라니, 그렇게 계산하는 법도 있니? 몇마리인가 하면 스무마리란말이야. 난 이젠 매일 이완 미하일로위츠선생네 집에 다니면서 산수도 배우고 쓰는 법도 배울테야. 학교가 없으니까 할수 없지! 아무렴 까막눈이가 되겠니…》
이 말을 듣고 와시까는 볼부은 소리로 말했다.
《뻬찌까야, 네가 배나무에 배따러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손목을 접질렀을 때 난 산에서 호두를 따가지고 너의 집에 찾아갔댔고 나사못 두개와 고슴도치까지 주지 않았니. 그런데 넌 내가 목을 앓는동안 날 쏙 빼놓고 저 혼자만 이완 미하일로위츠선생한테 붙었구나. 그래 넌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구 나는 그저 이렇게 까막눈으로 지내라는거야? 그래두 동무야?》
뻬찌까는 와시까의 말에 그만 질리고말았다. 그가 호두를 따다준 것도, 고슴도치를 잡아다준것도 사실이였다. 뻬찌까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리고 한마디 대꾸도 못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한참동안 말없이 서있었다. 그들은 한바탕 싸우다 헤여질가 하고도 생각하였으나 이날 저녁은 유난히도 날씨가 좋고 따스하였다.…
봄은 다가오고 행길에서는 조무래기들이 부서진 눈사람두리에서 깡충깡충 뛰놀고있었다.
《얘, 우리 저 애들한테 썰매기차를 만들어주지 않으련?》하고 뻬찌까가 불쑥 말했다. 《난 기관차가 되고 넌 기관사가 되고 저 애들은 손님들이 되라지. 응 ? 그리고 래일은 이완 미하일로위츠선생한테 우리 둘이 같이 가서 부탁해보자꾸나. 그 선생은 마음이 좋은분이니까 너에게도 배워주실거야? 좋지, 와시까?》
《나쁠리가 있니!》
이렇게 두 동무는 다투지 않았을뿐더러 그들의 우정은 더 두터워졌다. 그들은 날이 저물도록 조무래기들을 데리고 썰매를 탔다. 그

리고 이튿날 아침에는 둘이서 마음좋은 이완 미하일로위츠선생네 집에 찾아갔다.

2

와시까와 뻬찌까가 공부하러 갈 때였다. 심술궂은 쎄료즈까가 사립문뒤에서 뛰여나오더니 큰소리로 웨쳤다.
《얘, 와시까! 자, 한번 세여봐. 내가 네 목덜미를 처음에는 세번, 다음에는 다섯번 때리면 모두 몇번 때리는셈이야?》
《뻬찌까, 우리 둘이 저 녀석을 때려주자.》하고 와시까는 골이 나서 말하였다. 《너도 한대 때려. 나도 한대 때릴테니. 우리 둘이면 문제없어. 어서 가서 한대씩 때려주자.》
《그럼 요다음엔 저 녀석이 우릴 하나씩 만나서 때릴거야.》조심성이 더 많은 뻬찌까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그렇다면 우린 따로따로 놀지 말고 언제나 함께 놀자꾸나. 너하고 나하고는 늘 떨어지지 말잔말이야, 응, 어서 가서 한대씩 때려주고 가자.》
《그럴 필요는 없어.》하며 뻬찌까는 응하지 않았다. 《쌈할 때 책이 찢어지면 어떻거니. 여름에 한번 단단히 혼내주자. 우리를 골탕먹이지 못하게. 또 우리 살통에서 물고기를 훔쳐가지 못하게 말야.》
《그래두 꺼내갈거야!》와시까가 한숨을 쉬였다.
《아니야, 그 애가 알아내지 못할데다가 감쪽같이 살통을 쳐놓으면 찾아낼게 뭐야.》
《아무래두 알아낸대두.》 와시까는 맥없이 대꾸하였다. 《그 애는 꾀가 많구 고양이발톱같은 좋은 갈구리까지 가지고있잖니.》
《흥, 그 애가 꾀가 많다구! 지금은 우리 꾀가 더 많아. 너는 벌써 여덟살이구 나두 여덟살이니까 우리 둘의 나이는 모두 몇살이니?》
《열여섯살이지.》와시까는 계산하였다.
《그것 봐, 우린 열여섯살인데 그 앤 아홉살이지. 그러니깐 우리가 더 꾀가 많거든.》
《열여섯살이면 아홉살보다 꾀가 더 많다니?》 와시까는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꾀가 많을수밖에 없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꾀는 더 많아진단말이야. 빠블리크를 보렴. 그 앤 네살인데 무슨 꾀가 있니? 그 애한테선 아무거나 달래서 가질수 있고 또 빼앗을수도 있잖니. 그러나 마을의 다닐라령감을 보란말이야. 그 령감은 쉰살인데 그 령감보다 더 꾀많은 사람은 없어. 그 령감은 현물세로 곡식 200뿌드를 나라에 바쳐야 할것인데 농민들에게 술을 먹여 잔뜩 취하게 하고나서 무슨 종이장에 도장을 찍게 했단다. 령감은 그 종이장을 가지고 구역에 가더니 150뿌드나 세를 줄여가지고 왔거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와시까는 뻬찌까의 말이 다 끝나기도전에 이렇게 말했다.《그 령감이 늙었기때문에 꾀가 많은것이 아니라 부농이기때문에 남을 속이는 꾀를 부린다고들 말하더라. 뻬찌까야, 그런데 부농이란게 뭐야? 다른 사람들은 그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보고는 왜 부농이라고 할가?》

《부자이기때문에 부농이라고 그러지 뭐. 너의 집은 가난뱅이기때문에 부농이 아니고 다닐라령감은 부농이란말이야.》

《왜 우리 집이 가난뱅이란말이야?》와시까는 이상하게 생각하였다.《우리 아버진 월급을 137루블리나 받고있어. 그리고 우리 집엔 돼지새끼 한마리, 양 한마리, 닭이 네마리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난뱅이야? 우리 아버진 로동하는 사람이야. 에삐환처럼 동냥하러 다니는 거지가 아니거든.》

《그래 너의 집은 가난뱅이가 아니라고 해두자. 아무튼 너의 아버지도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도 일하는 사람이고,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들도 모두 일하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다닐라령감은 지난 여름에 품파는 녀자 네명을 데려다가 밭일을 시켰고 또 웬 조카인지 뭔지 된다는 사람과 또 무슨 사둔이라든지 하는 사람을 일시켰고 또 술주정뱅이 예르모라이를 과수원 지키는 머슴으로 두고있지 않니. 우리가 거게 사과따러 갔다가 네가 예르모라이한테 붙잡혀서 엉겅퀴가지로 얻어맞은 일이 생각나니? 그때 넌 굉장히 소리쳤지! 네가 그렇게 죽는소릴 지르는걸 보니 예르모라이한테 엉겅퀴가지로 단단히 얻어맞는게라고 난 숲속에 숨어서 생각했댔어.》

《넌 그래 잘했단말이야?》와시까는 상을 찡그렸다.《넌 나를 내버려두고 혼자 달아났댔지?》

《그럼 기다려야 한단말이야?》 뻬찌까는 랭정하게 대답하였다.
《나는 호랑이같이 울타리를 훌쩍 뛰여넘었길래 예르모라이의 채찍한테 두대밖에 얻어맞지 않았지만 넌 칠면조처럼 우물쭈물하다가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니.》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오래전에 한때는 기관사였다. 혁명전까지는 보통기관차의 기관사였다. 그러나 혁명이 일어나고 공민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보통기관차에서 장갑기관차로 자리를 옮겼다.
뻬찌까와 와시까는 여러가지 기관차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객차들을 길게 달고 먼 나라 씨비리로 달리는 키가 크면서도 날씬하고 빠른 《에스》형 기관차도 알고있었다.
짐을 가득실은 길고 무거운 차량을 끌고 가파로운 올리막길을 칙칙푹푹 달려 올라가는 육중한 《엠》형 3기통기관차도 보았고, 신호주와 신호주사이만을 왔다갔다하면서 차량들을 바꾸어달아주는 볼품없는 《오》형 전철용기관차도 보았다. 그들은 가지가지 기관차들을 다 보았다.
그러나 이완 미하일로위츠의 사진에서 볼수 있는 그런 기관차는 아직 본적이 없었다. 그런 기관차도 처음 보았으며, 그런 차량들도 처음 보는것이였다. 굴뚝도 없고 바퀴도 보이지 않았다. 기관차에는 무거운 철문이 꽉 닫혀있었다. 창문대신에 좁은 틈이 세로 나있었으며 그 구멍밖으로 기관총들이 삐죽삐죽 내밀어있었다. 지붕은 없었다. 지붕대신 낮고 둥근 탑이 있는데 거기에 으리으리한 포신들이 뻗쳐있었다.
그리고 장갑렬차에는 반짝이는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은 손잡이도 없고, 고운 색칠도 안하였으며 환한 유리창도 없었다. 철길에 납작 엎드린것처럼 넙적하고 육중한 장갑렬차는 회록색 한빛이였다.
기관사도 신호등을 든 차장도 호각을 부는 려객전무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저 방탄벽과 철갑판 안쪽에는 기관총과 대포와 운전대를 틀어쥔 붉은군대병사들이 긴장하여 숨어있을것이였다. 그런데 그 모든것은 가리워져있고 모든 사람들은 숨어있었으며 모든것이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장갑렬차는 줄곧 침묵을 지키고있다가 밤이 되면 기적소리도 호각

소리도 내지 않고 적들가까이 슬금슬금 기여들어가기도 하며, 붉은 군대가 백파놈들을 족치는 전투마당으로 달려가기도 하는것이였다. 야, 그때야 비로소 저 캄캄한 구멍안의 기관총들이 불꽃들을 튕기며 원쑤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을것이다! 그리고 그땐 저 포탑들이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고, 방금까지 잠자는것 같던 으리으리한 대포들이 요란한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토하였을것이다!

그런 전투가 벌어지던 어느날 아주 큰 적의 포탄이 장갑렬차에 면바로 맞았다. 포탄은 철벽을 뚫고 들어왔다. 전투기관사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그 포탄파편에 맞아 팔 하나를 잃었다.

그때부터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기관사일을 못하게 되였다. 지금 그는 나라에서 주는 은급을 타면서 도시의 기관차수리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는 큰아들네 집에서 살고있었다. 그가 자주 간이역마을에 오는것은 이곳에 누이동생집이 있기때문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완 미하일로위츠가 포탄에 맞아 팔을 잘리웠을뿐만아니라 머리까지 다치여 좀 어떻다 할가… 말하자면 앓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들 말하였다.

그러나 뻬찌까나 와시까는 그런 나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퍽 좋은 사람이기때문이였다. 이완 미하일로위츠가 여느 사람보다 색다른데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담배를 몹시 피운다는것이였으며 지난 시절에 대한 어떤 재미나는 이야기라든가, 어렵던 전투에 대한 이야기며, 백위군이 어떻게 전쟁을 시작했고 붉은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끝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그의 숱진 눈섭이 파들파들 떨리는 점이였다.

어느덧 봄은 돌아와 밤에는 소리없이 가랑비가 내리고 낮에는 밝은 해별이 쪼였다. 눈은 남비의 빠다덩어리처럼 스르르 녹았다.

개울물은 불어 찌히강의 얼음장은 깨여져나갔다. 버드나무가지에는 새싹이 움트고 부리 흰 까마귀와 찌르레기들이 날아왔다. 세상이 어쩐지 대번에 달라진것 같았다. 열흘동안의 따뜻한 봄날씨로 눈은 다 녹아 없어지고 구질구질하던 길바닥도 바싹 말라버렸다.

어느날 두 소년은 공부시간이 끝난 뒤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싶어 개울가로 뛰여나가려 하였다. 그때 이완 미하일로위츠가 아이들한테 이런 부탁을 하였다.

《얘들아, 알레쉬노마을까지 뛰여갔다 오지 않겠니? 예고르 미하일

로브한테 쪽지편지를 전해야겠는데, 이 쪽지와 위임장을 가져다주면 그 아저씨가 나대신 도시에 가서 내 은급을 타가지고 올거야.》
《뛰여갔다 오겠어요.》 하고 와시까는 얼른 대답하였다. 《우린 기마병처럼 빨리 달려갔다 오겠어요.》
《우린 예고르아저씨를 알아요.》 하고 뻬찌까도 맞장구를 쳤다. 《위원장으로 일하는분말이지요. 작년에 우린 그 집 아이들과 같이 산에 딸기따려 다녔댔어요. 우린 한바구니 가득 땄는데 그 아이들은 바구니 밑바닥에 한번 깔릴만큼밖에 따지 못했어요. 아직 나이들이 어리기때문에 아무렴 우릴 당하나요.》
《그래, 그 아저씨한테로 뛰여갔다오너라.》 하며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말을 이었다. 《나와 그 사람은 오랜 친구다. 내가 장갑렬차의 기관사로 일할 때 그 사람은 내 기관사의 화부로 일했단다. 그때 그 사람은 아직 젊었었지. 포탄에 철벽이 뚫어지고 그 파편에 맞아 내 팔이 잘라졌을 때 그 사람은 나와 같이 있었단다. 포탄이 터진 후에 나는 한순간 정신을 잃지 않고있었는데 야, 이거 큰 야단났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 그 젊은이는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기관차를 잘 다룰줄 모르는데 기관차엔 예고르밖에 운전할 사람이 없었거든. 이 사람이 아무래두 장갑차를 박산내여 다 죽게 만들리라 생각하고 나는 장갑차를 뒤걸음치게 해서 전투장밖으로 빼낼 작정으로 몸을 앞으로 움직였지. 그때 지휘관으로부터 〈전속력으로 전진!〉하는 신호가 내렸어. 예고르는 한쪽구석 기름걸레더미우에 나를 끌어다 눕히더니 자기가 조종간을 틀어쥐지 않겠니. 그리고 〈전속력으로 전진하겠음!〉하더란말이다. 그때 나는 눈을 감으면서 이젠 이 장갑렬차도 끝장이구나 하고 생각했단다.
얼마후 내가 정신을 차리고보니 주위는 조용하더라. 전투는 다 끝나고 내 팔엔 샤쯔가 처매져있더라. 예고르는 웃동을 벗었는데… 온몸이 땀투성이고, 입술은 바싹 마르고, 몸에는 덴 자리가 여러군데 있더라. 그리고 서있긴 했지만 금시 쓰러질것처럼 비칠거리더구나.
예고르는 꼬박 두시간동안이나 싸움판에서 기관차를 혼자 운전했단다. 혼자 화부노릇도 하고 기관사노릇도 했지. 그리고 날 업고 의사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이완 미하일로위츠의 눈섭이 파들파들 떨리였다. 그는 무슨 생각에

깊이 잠기였는지 혹은 무엇을 회상하는것인지 말없이 고개만을 끄덕거리였다. 두 아이는 이완 미하일로위츠의 입에서 또 무슨 이야기가 흘러나오려나 하고 잠자코 서있었다. 그들은 빠쉬까와 마쉬까의 아버지가 그런 영웅이였다는 말을 듣고 무척 놀랐다. 왜냐하면 예고르아저씨는 그들이 간이역 붉은선전실에 붙어있는 사진들에서 본 그런 영웅들과는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림에서 본 영웅들은 키가 크고 얼굴에는 긍지가 가득차고 손엔 붉은기를 쥐였거나 번쩍거리는 칼을 차고있었다. 그러나 빠쉬까와 마쉬까의 아버지는 키가 작고 얼굴은 주근깨투성이였으며 두 눈을 늘 가늘게 쪼프리고있었다. 그는 쑬쑬한 검정샤쯔를 입고 격자무늬가 간 회색모자를 쓰고다니였다. 한가지 남다른 점은 그가 고집이 드세여 한번 마음먹고 무슨 일에 달라붙기만 하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이런 소문을 두 소년은 알레쉬노마을의 농민들에게서 들은 일이 있었고 또 간이역마을에서도 들은 일이 있었다.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아이들에게 쪽지편지를 써주고나서 길가면서 먹으라고 기름과자를 한개씩 주었다. 와시까와 뻬찌까는 물기많은 버들가지를 꺾어들고 말을 몰듯 제 다리를 툭툭 치면서 언덕밑으로 달려내려갔다.

3

알레쉬노까지 신작로로 가면 10키로메터이고 오솔길로 곧추 질러가면 5키로메터밖에 안된다.

찌히강어귀에서 우거진 숲이 시작된다. 이 숲은 끝없이 멀리 뻗어있다. 이 숲속에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잘 닦은 구리처럼 반짝이는 큰 붕어들이 많다. 그러나 그곳까지 가자면 멀기도 하고 또 진펄에서 쉬 길을 잃기때문에 아이들은 그리로 가지 않는다. 이 숲속에는 산딸기며 버섯이며 호두가 많다. 진펄의 물이 찌히강으로 흘러내리는 험한 골짜기에는 들제비들이 새빨간 진흙절벽에 둥지를 틀고 무리지어 산다. 숲속에는 고슴도치와 토끼와 같은 순한 짐승들이 숨어있다. 그러나 더 멀리 호수건너 씨냐브까강 상류에서는 나무군들이 승냥이들을 만나군하며 언젠가는 털빠진 늙은 곰과

마주친 일도 있었다. 겨울이면 농민들이 이곳에 와서 집재목을 베여 떼목을 뭇는다.
　뻬찌까와 와시까가 사는 고장에는 이처럼 훌륭한 숲이 넓게 펼쳐져있는것이다.
　알레쉬노마을로 심부름가는 두 소년은 즐겁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기도 한 이 숲속에서 언덕을 넘고 또 넘어 골짜기를 지났으며 외나무다리를 놓은 개울을 건너 가까운 오솔길로 씩씩하게 뛰여갔다.
　오솔길이 큰길과 잇닿은 곳, 알레쉬노에서 1키로메터쯤 떨어진 곳에 부자농민인 다닐라 예고로위츠령감네 큰집이 있었다.
　그곳에서 두 소년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물을 마시려고 우물가로 갔다.
　때마침 거기서 다닐라 예고로위츠가 배부른 두마리의 말에게 물을 주고있었다. 그는 두 소년에게 어디서 오며 무슨 일로 알레쉬노에 뛰여가느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어디 살며 알레쉬노의 예고르 미하일로브위원장한테 무슨 일때문에 가는가를 서슴지 않고 말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부농이라고 뒤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제눈으로 똑똑히 보고싶은 호기심에서 다닐라령감과 한참동안 더 이야기했으면 하는데 안마당에서 다닐라령감을 찾아나오는 알레쉬노마을의 세 농민과 얼굴을 사납게 찡그리고 뒤따라오는 예르모라이를 발견했다. 그는 어제밤에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은 모양이였다. 두 소년은 엉겅퀴가지로 때리던 예르모라이를 보자 우물가에서 얼른 물러나 뺑소니치듯 달리였다.
　이윽고 그들은 무슨 회의가 있는지 사람들이 모여들고있는 알레쉬노마을 한복판의 광장에 닿았다.
　무슨 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며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게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예고르아저씨한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알아보기로 작정하고 아이들은 광장에서 꾸물거리지 않고 교외로 뛰여갔다.
　그러나 그들은 예고르아저씨네 집에서 그의 아들 빠쉬까와 딸 마쉬까밖에 만나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섯살나는 쌍둥이였는데 서로 어슷비슷하게 생기고 사이도 퍽 좋았다.

언제나 그런것처럼 그들은 함께 놀고있었다. 빠쉬까는 웬 나무토막과 널쪼각을 놓고 대패질하고있었으며 마쉬까는 그것을 가지고 모래우에다 집같기도 하고 우물같기도 한 그 무엇을 짓고있었다.

그런데 마쉬까는 그것이 집도 아니고 우물도 아니며 처음에는 뜨락또르였는데 인젠 비행기를 만드는중이라고 두 소년에게 설명하는것이였다.

《참 너희들두!》 하고 와시까는 버드나무회초리로 《비행기》를 함부로 건드리면서 말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무부스러기로 어떻게 비행기를 만드니? 비행기는 그런것으로 만들지 않아. 너의 아버진 어디 가셨니?》

《아버진 회의하러 가셨어.》 하고 빠쉬까는 조금도 성내지 않고 빙긋 웃으면서 대꾸했다.

《아버진 회의하러 가셨어.》 하고 마쉬까는 약간 놀랜 새파란 눈으로 두 소년을 쳐다보면서 덩달아 말하였다.

《아버진 나가구 집엔 할머니 혼자 뻬치까우에 누워서 욕만 한단다.》 빠쉬까는 덧붙였다.

《할머니는 누워서 욕만 한단다.》 하며 마쉬까는 설명을 보태였다. 《아까 아버지가 나갈 때도 할머니는 아버지보고 꼴호즈에만 미쳤으니 꼴호즈를 안고 땅속에 들어가라고 욕했단다.》

마쉬까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더러 땅속에 들어가라고 욕한 몹쓸 할머니가 누워있는 집쪽을 근심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걱정말아! 너의 아버진 땅속에 들어가지 않아!》 하고 와시까가 마쉬까를 안심시키였다. 《땅속엔 왜 들어가겠니? 그럼 네 발로 땅을 다져라! 빠쉬까야, 너도 땅을 다져라! 더 쿵쿵 다져라! 그것 봐, 어디 땅속에 들어가니? 더 힘껏 다져봐!》

두 소년은 철없는 빠쉬까와 마쉬까가 숨이 차할 때까지 열심히 땅바닥을 다지게 한 저희들의 묘한 꾀에 만족하면서 광장으로 갔다. 거기서는 심상찮은 회의가 시작된지 벌써 오래였다.

《무슨 큰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빽빽이 모인 사람들속으로 뚫고들어가면서 뻬찌까가 말하였다.

《재미있겠는데.》 와시까는 송진냄새가 나는 굵은 통나무우에 앉아 주머니에서 기름과자를 꺼내들며 말하였다.

《와시까, 넌 어딜 갔댔니?》
《물을 마시러 갔댔어. 농민들이 왜 이렇게 떠들가? 들리는 소리는 그저 꼴호즈, 꼴호즈하는 말뿐이야. 어떤 사람은 꼴호즈를 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꼴호즈가 없으면 안된다구 말하는구나. 얘, 저기서 아이들이 쌈하더라. 넌 훼지까 깔낀이란 애를 알지. 아니, 그 곰보 있지 않니?》
《알구말구.》
《그런데말이야. 내가 물마시러 뛰여가는데 마침 그 훼지까가 웬 불머리아이하고 쌈이 붙더구나. 불머리아이가 먼저 뛰여나와서 〈훼지까네 꼴호즈 돼지주둥이〉하고 노래가락에 맞춰 놀려주니까 훼지까가 골이 나서 그애한테 달려들었지. 쌈구경하라고 널 소리쳐부르려는데 때마침 웬 꼬부랑할머니가 게사니를 몰고 지나가다가 막대기를 내두르니까 그애들은 뿔뿔이 도망치고말았어.》
와시까는 해를 쳐다보더니 더럭 근심스러워졌다.
《뻬찌까야, 어서 가서 편지를 전해주자. 집에 돌아가느라면 해가 떨어지겠구나. 이러다간 집에 가서 꾸지람을 듣겠다.》
약빠른 애들은 사람들사이로 솔솔 빠지며 통나무더미까지 뚫고 나아갔다. 예고르 미하일로브는 그 통나무더미곁에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있었다.
다른 고장에서 온 어떤 사람이 통나무우에 올라서서 꼴호즈에 들면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동안 예고르아저씨는 자기쪽으로 허리를 굽히고 앉은 두 농촌쏘베트위원들에게 무엇을 납득시키느라고 낮은 목소리로 끈끈하게 설명하고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흔들었다. 예고르아저씨는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들을 보고 화가 났는지 낮은 목소리로 그들을 나무라면서 더욱더 끈끈히 설복하는것이였다.
농촌쏘베트위원들이 수심어린 얼굴로 예고르아저씨곁에서 물러가자 뻬찌까는 말없이 위임장과 쪽지편지를 그에게 내밀었다. 예고르아저씨는 쪽지를 펼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통나무더미우에 올라서는바람에 그것을 읽지 못하였다. 두 아이는 그 사람이 다닐라령감네 집 우물가에서 만났던 세 농민중의 한사람인것을 인차 알았다.
그 농민은 말하기를 꼴호즈를 뭇는것은 물론 새로운 일이지만 모

두가 한결같이 꼴호즈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지금 열사람이 꼴호즈에 들겠다고 신청했으니까 우선 그 사람들끼리 꼴호즈에서 일하겠으면 하라고 하자. 그래서 그들의 일이 잘되면 그때 다른 사람들도 들어간다고 해서 늦지 않을것이며 일이 잘 안되면 꼴호즈에 들 필요없이 이전대로 일하면 그만이라는것이였다.

그 농민의 말은 길었다. 그가 말하는동안 예고르아저씨는 편지를 펼쳐든채 읽지 않고있었다.

그는 성이 나서 가는 눈을 더 가늘게 쪼프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있는 농민들의 얼굴들을 유심히 살피고있었다.

《이 부농의 앞잡이같으니!》하고 예고르아저씨는 받아쥐였던 편지를 거머쥐면서 증오에 찬 목소리로 웨쳤다.

와시까는 예고르아저씨가 이완 미하일로위츠의 위임장을 얼결에 꾸겨놓지나 않을가 걱정되여 위원장의 소매를 슬그머니 잡아당겼다.

《예고르아저씨, 편지를 어서 읽으세요. 우린 집에 빨리 뛰여가야 돼요.》

예고르아저씨는 편지를 재빨리 훑어보고나서 편지에 씌여있는대로 다하겠으며 한주일후에 도시에 갔다오겠는데 그동안 한번 꼭 이완 미하일로위츠한테 들리겠다고 아이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으나 그 농민이 연설을 끝마쳤기때문에 격자무늬모자를 움켜쥐고 통나무더미우에 뛰여올라가더니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은 빠르고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두 아이는 사람들속에서 빠져나와 간이역으로 가는 길로 줄달음쳤다.

그들이 다닐라령감네 집옆을 지나가면서 보니 예르모라이도 조카란 사람도 안주인도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회의장에 간 모양이였다. 그런데 다닐라령감만은 집에 남아있었다. 그는 현관에 나와앉아서 사람의 웃는 얼굴이 새겨져있는 구부러진 손때오른 담배대를 뻐금뻐금 빨고있었다. 알레쉬노마을에서 《꼴호즈》라는 새로운 말을 듣고 당황하지도 기뻐하지도 걱정하지도 않는 사람은 이 다닐라령감 혼자뿐인것같았다.

숲을 지나 찌히강가로 뛰여가던 두 아이는 강에 누가 무거운 돌을 던진것 같은 첨벙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소리난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거기서 그들은 쎄료즈까를 발견하였다. 그는 강가에 서

서 퍼져나가는 파문을 바라보고있었다.

《살통을 던졌구나.》하고 두 아이는 대뜸 알아차렸다. 그들은 능청스레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살금살금 뒤걸음질치면서 그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

뜻하지 않은 성공을 기뻐하면서 오솔길에 나선 그들은 발걸음을 더 재게 놀리여 집으로 달려갔다.

때마침 급행렬차의 차바퀴소리가 산울림이 되여 숲속에서 요란스레 울려퍼졌던것이다. 이것은 벌써 5시가 다되였다는것을 의미했다. 지금쯤 와시까의 아버지는 푸른 기발을 감아들고 벌써 집에 들어갔을것이며 어머니는 벌써 화로에서 끓는 남비를 꺼내놓았을것이다.

집에서도 역시 이야기거리는 《꼴호즈》였다.

어머니는 젖소를 사려고 벌써 한해동안 푼푼이 모아 저금하고있었으며 지난 겨울부터 다닐라령감네 한살먹은 송아지에 마음을 두고 여름에 가서 그것을 사서 기를 작정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요즘 꼴호즈에 들기전에 집짐승을 잡거나 남에게 팔아먹는 사람은 꼴호즈에 들수 없다는 소문을 들은 어머니는 다닐라령감이 꼴호즈에 들어가게 되면 송아지도 꼴호즈에 넘어가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디서 그런 좋은 송아지를 구할것이냐고 걱정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세상물정에 밝은 사람이였다. 아버지는 매일 철도신문《기적》을 읽기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웃으면서 다닐라령감은 부농이기때문에 송아지를 가졌건, 못가졌건 꼴호즈결 백발자국앞에도 얼씬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원래 꼴호즈란 부농들이 없이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하여 뭇는것이다. 온 마을사람들이 꼴호즈에 들어가는 날엔 다닐라령감이나 방아간주인 삐뚜닌이나 쎄묜 자그레빈따위는 모두 끝장이 난다. 다시말해서 부농들의 살림살이는 망해버린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작년에 구역에서 다닐라령감의 현물세를 150뿌드나 줄여주었고, 농민들이 그 사람을 무서워하며 웬일인지 모두들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닐라령감의 부농살림살이가 망해버린다는 말이 어머니에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알레쉬노마을은 수림과 진펄에 둘러싸인 벽촌이고, 누구하나 꼴호즈를 꾸려나가는 법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만한 이웃사람들도 없기때문에 도리여 꼴호즈가 잘못될지 모른다고 어머니는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현물세문제에는 반드시 깨끗치 못한 구석이 있을것이며 그것은 다닐라령감이 무슨 작간을 피운게 틀림없고, 그런짓이 매번 무사치는 않을것이며 오래지 않아 단단히 걸려들 때가 있을것이라고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였다. 아버지는 다닐라령감한테 쩔쩔매는 농촌쏘베트사람들을 못난이들이라고 욕하고, 예고르 미하일로브가 위원장이 된 지금에 와서는 그런 못된짓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으리라고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다툼하는동안에 와시까는 고기 두점과 배추국 한그릇을 다 먹고나서 사탕단지에서 커다란 덩어리사탕 두개를 슬쩍 집어서 입에 넣었다. 이 사탕단지는 식사후에 차를 마시기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밥상우에 내놓은것이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와시까가 모르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를 밥상에서 쫓아냈다. 그는 여느때 분해서 울던것보다 더 흐느껴울며 붉은 고양이 이완 이와노위츠가 있는 따뜻한 뻬치까우에 기여올라가서 언제나 그런것처럼 곧 잠들어버렸다.

그것이 꿈이였는지 잠결에 진짜 들었는지 똑똑치는 않았으나 아버지는 무슨 새로운 공장에 대해서, 무슨 건설에 대해서 그리고 골짜기와 숲속에서 무엇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대해서 이야기하였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줄곧 《저런, 저런》하며 감탄하는것이였다.

어머니가 뻬치까에서 잠든 와시까를 안아내려다놓고 옷을 벗겨 침대에 눕힌 다음부터 그는 진짜꿈을 꾸었다.

숲속엔 무수한 불빛이 반짝이고, 찌히강에는 푸른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큰 기선이 지나가고, 자기는 뻬찌까와 함께 그 기선을 타고 머나먼 아름다운 나라로 떠나가는것이였다.…

4

알레쉬노에 뛰여갔다 온지 닷새가 지난 날 두 아이는 살통에 고기가 걸렸나 보려고 점심을 먹은 뒤에 남몰래 찌히강으로 갔다.

살통을 던져놓은 비밀장소에 이른 그들은 못을 구부려서 만든 조그마한 갈구리로 개울밑바닥을 한참 더듬었다. 갈구리끝에 무거운 나무등걸이 걸려서 하마트면 줄이 끊어질번 하였다. 개흙냄새가 풍기는 미끈미끈한 물풀만 한무지 쌓였을뿐 살통은 나오지 않았다.

《쎄료즈까가 훔쳐갔구나!》와시까는 쿨쩍쿨쩍 울면서 말했다.《내가 뭐라던, 그애가 우리 뒤를 밟는다고 하지 않던. 정말 그애가 우리 뒤를 따라왔댔구나. 내가 다른데 살통을 놓자고 했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여기가 그 다른데지 뭐야.》 뻬찌까는 골이 났다.《네가 이 자릴 고르고서두 이제 와선 나한테 뒤집어씌우는구나. 울지 말어.》

와시까는 잠간 그쳤다가 또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뻬찌까는 말하였다.

《우리가 알레쉬노에 갔다오던 길에 강가의 불탄 떡깔나무곁에 서있던 쎄료즈까를 본 생각이 나지? 거게 가서 찾아보자. 이렇게 된바엔 그애의 살통이라도 꺼내자꾸나. 그애가 우리것을 꺼내갔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그애것을 꺼내오면 되지 않니. 어서 가자. 와시까야, 제발 울지 말어. 이렇게 크고 뚱뚱한 아이가 울다니, 내가 언제 한번이나 울던? 벌 세놈이 단꺼번에 내 맨발을 쐈을 때도 울지 않은걸 너도 알지?》

《흥, 울지 않더라!》 와시까는 상을 찡그리며 대답하였다.《그때 네가 얼마나 큰소릴 지르며 울었던지 난 깜짝 놀라서 딸기바구니를 땅에 떨궜댔는데두.》

《그건 운게 아니야. 운다는건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지르는거야. 그런데 난 그때 너무도 아프고 놀란김에 그저 소리만 질렀지. 그것도 삼초동안 그러다가 뚝 그쳤거든. 눈물은 조금도 흘리지 않았고 엉엉 느껴울지도 않았어. 자, 와시까, 어서 뛰여가자!》

그들은 강가에 가서 불탄 떡갈나무곁에서 물밑바닥을 한참동안 더듬었다. 찾고 또 찾았다. 그러나 맥만 빠지고 옷만 물에 적시였을뿐 저희들의 살통도 쎄료즈까의 살통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속이 상한

두 아이는 버드나무가지가 실실이 늘어진 언덕에 펄썩 주저앉아 의논하였다. 그들은 래일부터 쎄료즈까의 뒤를 밟아서 그가 두개의 살통을 어디다 놓는지 엿보기로 작정하였다.
문득 멀리 웬 사람의 발걸음소리가 울려왔다. 아이들은 정신을 바싹 차렸다. 그들은 우거진 덤불속으로 자맥질하듯 재빨리 숨었다.
그러나 그것은 쎄료즈까가 아니였다. 알레쉬노쪽에서 두 농민이 오솔길로 천천히 걸어오고있었다. 다른 고장 손님인지 낯설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농민인 쎄라핌아저씨였다. 그의 집에서는 여러가지 불행한 일이 자주 일군하였다. 언젠가는 말이 죽는가 하면 남의 말들이 그의 보리밭을 못쓰게 만들었고, 또 한번은 헛간지붕이 무너져서 돼지새끼와 게사니새끼가 죽었다. 이렇게 쎄라핌아저씨네 집에서는 해마다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군하였다. 그는 착실한 일군이였지만 랑패를 너무 많이 보아 기를 펴지 못하는 농민이였다.
쎄라핌아저씨는 간이역마을로 주홍빛 사냥장화를 가지고 가는 길이였다. 그것은 은전 두루블리를 받고 와시까아버지한테 팔기로 약속한것이였다.
두 농민은 걸어가면서 다닐라령감을 욕하였다. 다닐라령감을 욕하는것은 알레쉬노사람이 아닌 낯선 손님이고 쎄라핌아저씨는 그저 잠자코 들으면서 심드렁하게 맞장구를 쳤다. 낯선 사람이 다닐라령감을 욕하는 까닭을 아이들은 딱히 알수는 없었으나 대강 이렇게 된 내막같았다. 다닐라령감은 이 농민한테서 무슨 물건을 싼 값으로 사가지면서 그대신 그에게 귀밀 세가마니를 꾸어주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 농민이 정작 찾아가니까 다닐라령감은 귀밀을 어느 도시의 장에서도 볼수 없는 엄청난 값으로 쳐놓으면서 씨붙임때가 되여서 귀밀값이 배로 뛰여오르게 될것이니 이만하면 후하게 친것이라고 말하더라는것이였다.
침울한 두 농민이 지나가버리자 아이들은 덤불속에서 기여나와 록음이 짙어가는 따뜻한 언덕에 다시 앉았다. 해는 서쪽에 기울었다. 강가의 버들냄새와 함께 습한 기운이 강쪽에서 흘러왔다. 소쩍새가 울었다. 붉은 저녁노을빛을 받으며 하루살이들이 먼지처럼 떼지어

소리없이 빙빙 날아돌았다.
그 고요속에서 처음에는 벌이 윙윙거리는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장미빛구름 저편 아득히 먼곳에서 가늘게 들려왔다. 그러다가 은빛같이 하얀 점 하나가 둥글한 두꺼운 구름을 뚫고나오더니 하늘에서 반짝 빛을 뿌렸다. 그 점은 점점 커졌다. 벌써 쌍쌍이 달린 날개를 알아볼수 있었다. … 날개에 달린 두개의 붉은 오각별도 똑똑히 보였다.…
그리하여 힘세고 아름다운 비행기는 가장 빠른 기관차보다도 더 빠르게, 가장 빨리 나는 벌판의 독수리보다도 더 가볍게 억센 발동기소리를 즐겁게 울리면서 울창한 수림과 텅빈 간이역과 두 소년이 앉아있는 찌히강우를 거침없이 지나가버렸다.
《멀리 날아갔구나!》 삐찌까는 멀리 사라져가는 비행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나직이 말하였다.
《먼 나라로 날아갔구나!》 하고 와시까는 말하며 며칠전에 꾸었던 좋은 꿈을 돌이켜 생각하였다. 《비행기는 늘 먼데로만 날아다녀. 그럼 가까운덴? 가까운데야 말을 타고도 갈수 있으니까. 비행기는 먼 나라에 갈 때 타는 물건이야. 삐찌까야, 우리도 크면 먼 나라에 가보자. 거기엔 으리으리한 도시도 있고 굉장한 공장도 있고 정거장도 있겠지. 우리 마을엔 그런것이 없어.》
《응 없어.》 하고 삐찌까는 맞장구를 쳤다. 《우리 고장은 간이역 하나와 알레쉬노마을뿐이다. 다른건 아무것도 없어.…》
두 아이는 놀라고 어리둥절하여 하던 말을 뚝 그치고 머리를 쳐들었다. 윙윙소리가 또다시 점점 크게 울려왔던것이다. 강철로 만든 힘센 새는 점점 낮추 되돌아오고있었다. 이제는 벌써 작은 바퀴들과 해볕에 반짝이면서 뱅뱅도는 프로펠라의 하얀 동그라미까지 보였다.
비행기는 재주를 피우듯이 왼쪽날개를 드리워 개우뚱하며 미끄러져가더니 수림과 알레쉬노의 초원과 눈이 휘둥그래서 기뻐하는 두 소년이 선 찌히강우에서 빙빙 여러바퀴 에돌았다.
《너는 … 너는 비행기가 먼 나라에만 간다고 말했지.》 삐찌까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더듬더듬 말하였다. 《그럼 우리 고장이 먼 나라란 말이야?》
비행기는 다시금 우로 솟구쳐 날아오르더니 곧 사라지고말았다.

비행기는 다만 두꺼운 장미빛구름사이의 푸른 하늘에서 이따금 반짝거릴뿐이였다.

(그렇다면 무엇하려 비행기가 우리들 머리우에서 빙빙 에돌았을가?) 아이들은 자기들이 본것을 빨리 알리려고 간이역마을로 급히 뛰여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행기가 무엇하러 날아왔으며, 무엇을 보고 갔을가 하는 수수께끼풀이에 골똘하였던 그들은 어딘지 먼 뒤에서 웅글게 울린 한방의 총소리엔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와시까는 쎄라핌아저씨를 또다시 만났다. 그는 차를 대접받고있었다.

쎄라핌아저씨는 알레쉬노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꼴호즈에는 부락의 절반이 들어갔다. 쎄라핌아저씨도 꼴호즈에 들었다. 들지 않은 나머지 절반사람들은 꼴호즈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엿보고있었다. 꼴호즈에 든 사람들은 가입금을 내였으며 뜨락또르임경소에 낼 3천루블리의 출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꼴호즈의 땅을 아직 한쪽으로 떼받지 못하였기때문에 올봄에는 제각기 자기 땅에서 씨붙임을 하게 될것이다.

찌히강 왼쪽언덕의 풀밭만은 꼴호즈의 땅으로 떼여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 방아간주인 뻬뚜닌의 뚝이 터져서 물이 왼쪽언덕의 물길을 따라 흐르지 못하고 죄다 헛되이 빠지고말았다. 이때문에 풀은 잘 자라지 못할것이였다. 그곳은 가물을 타는 초원이여서 큰물이 진 뒤에야 곡식이 잘 자라 많은 수확을 낼수 있었기때문이다.

《뻬뚜닌의 뚝이 터졌다고?》 아버지가 의심스럽다는듯이 물었다. 《그게 웬일이요, 전엔 그런 일이 없지 않았소?》

《누가 그 사람의 속을 알겠소.》 쎄라핌아저씨는 애매하게 대답하였다. 《물이 터뜨렸는지, 사람이 터뜨렸는지.》

《뻬뚜닌이란자는 사기군이요. 그놈이나 다닐라 예고로위츠나 쎄묜자그레빈이나 다 한패거리요. 그래 그 사람들이 화를 냅디까?》 하고 아버지는 물었다.

《글쎄요.》 하고 쎄라핌아저씨는 침울하게 대답하였다. 《다닐라는 세상일에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척 하며 다니지요. 당신들이 꼴

호즈에 들겠으면 들고 쏩호즈에 들겠으면 들고 마음대로들 하오. 내겐 아무 상관도 없소 하고 말하지요. 방아간주인 삐뚜닌은 정말 분통이 터진 모양이요. 그걸 감추려 하지만 그런 눈치는 뻔히 들여다보이니깐요. 그의 땅떼기도 꼴호즈포전에 들어갔지요. 그의 땅이 어떠한 땅인줄 아시오? 참으로 좋은 땅이요! 그럼 자그레빈은 또 어쩐지 아시오? 형님도 자그레빈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소. 그 사람은 늘 그저 롱담과 익살로 세월을 보내지요. 얼마전에 여러가지 포스터들과 표어들이 우편으로 부쳐왔지요. 그래서 꼴호즈의 경비원 보챠로브가 그것을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집저집의 울타리와 바람벽에 붙이고있었지요. 그 사람이 자그레빈의 집앞을 지나가면서 이 집주인이 욕하지나 않을가 생각하면서 붙일가말가 망설이고있는데 자그레빈이 밖으로 나오더니 〈왜 붙이지 않나? 이 꼴호즈량반! 남들은 명절을 쇠구 난 심심하게 지내란말인가?〉하면서 웃더랍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제일 큰 포스터 두장을 골라서 붙였다나요.》

《예고르 미하일로브는 어떻소?》 하고 아버지는 물었다.

《예고르 미하일로브 말씀이요?》 쎄라핌아저씨는 다 마신 차잔을 밀어놓으면서 대답하였다. 《예고르는 듬직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떤 놈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많이 돌리고있지요.》

《어떤 말을 돌리고있소?》

《이를테면 그 사람이 이태동안 다른 고장에 나가있었는데 거기서 나쁜짓을 한탓으로 쫓겨났다느니, 하마트면 재판을 받을번했다느니, 돈을 훔쳤다느니 뭐니 여러가지 말들이 많지요.》

《개수작들을 하는군.》 와시까의 아버지는 자신있게 반박하였다.

《뜬소문이기는 하지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요.》하고나서 쎄라핌아저씨는 와시까의 어머니와 와시까를 결눈질해보며 머뭇머뭇 덧붙였다. 《도시에 웬 녀자가… 말하자면 약혼한 녀자가 있다나요.》

《약혼한 녀자가 있는게 무엇이 나쁩니까? 홀아비가 장가도 들어야지요. 빠쉬까와 마쉬까에게 어머니가 생기니 좋고요.》

《도회지 녀자라니까 웬걸 뭐…》하고 쎄라핌아저씨는 비웃는듯한 어조로 말하였다. 《멋쟁이아가씨겠지요. 그런 녀자는 돈많은 사람을 좋아할텐데. 예고르의 봉급이야 뭐 보잘게 없지 않소? … 그럼 난 그만 가겠소. 잘 먹고 갑니다.》 쎄라핌아저씨는 일어서면서 말하

였다.
《하루밤 쉬고 가지 않겠소?》 하고 아버지는 권하였다. 《보시오, 저렇게 캄캄한데. 새로 낸 마을길로 가시오. 숲속의 오솔길로 가다간 길을 잃기 쉬울거요.》
《길을 잃을리가 있나요. 1920년대에 빨찌산들이 그 오솔길로 얼마나 많이 다녔게요!》 하고 쎄라핌아저씨는 대꾸하였다.
그는 커다란 채양이 아래로 늘어진 헌 밀짚모자를 꾹 눌러쓰고 창문밖을 내다보면서 말하였다.
《에크, 뭇별이 총총하군. 오래잖아 달까지 뜨면 꽤 밝겠는데요!》

5

밤에는 아직 선선하였다. 그러나 와시까는 헌 솜이불과 양털외투쪼각을 들고 짚낟가리우에 자러 올라갔다.
그들은 새벽에 지렁이로 잉어잡이를 하기로 하고 뻬찌까가 와시까를 일찌기 깨워주기로 엊저녁에 약속했었다. 그런데 와시까가 잠을 깨여보니 때는 벌써 아홉시가 되였는데 뻬찌까는 오지 않았다. 뻬찌까가 늦잠을 잔 모양이였다.
와시까는 삶은 감자와 파로 아침요기를 하고나서 빵쪼각에 사탕가루를 좀 뿌려 호주머니에 넣고 잠꾸러기고 게으름뱅이라고 놀려주리라 마음먹고 뻬찌까를 찾아 뛰여갔다. 그러나 뻬찌까는 집에 없었다. 와시까는 나무헛간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낚시대들이 있었다. 그러나 낚시대들이 한구석 제 자리에 있지 않고 되는대로 내던진듯 헛간 복판에 흩어져있었다. 와시까는 놀랐다. 그는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려고 곧 밖으로 나갔다. 그가 만난것은 빠블리끄 쁘리쁘릐긴이라는 네살난 아이뿐이였다. 그애는 큰 누런 강아지등에 올라타려고 애쓰고있었다. 그가 쌕쌕거리면서 강아지에 올라타려고 다리를 들면 강아지는 훌떡 나자빠져 꼬리를 흔들면서 맵시없는 넙죽한 발로 빠블리끄를 밀치는것이였다.
빠블리끄 쁘리쁘릐긴은 뻬찌까를 보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강아지등에 태워달라고 와시까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지금 와시까는 그럴 겨를이 없었다. 어딜 가야 뻬찌까를 만날수 있을가 하고 두루 생

각하면서 걸어가던 그는 흙담우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있는 이완 미하일로위츠를 만났다. 이완 미하일로위츠도 뻬찌까를 보지 못하였다. 와시까는 속이 상하여 그의 곁에 주저앉고말았다.

《이완 미하일로위츠, 무얼 읽으시나요?》 하고 그는 어깨너머로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읽으시면서 혼자 웃으시네. 무슨 일이 생겼나요?》

《우리 지방에 대한 글을 읽고있다. 와시까야, 우리 간이역근처에 공장을 세울 준비를 한다고 씌여있구나. 커다란 공장이란다. 알루미니움이란 금속을 우리 고장 진흙속에서 파내게 된대. 그 알루미니움이란것이 얼마든지 묻혀있다는구나. 진흙에서 그런것이 나올줄이야 누가 알았겠니. 진흙도 소중한것이 되였군!》

와시까는 뻬찌까한테 뛰여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려고 흙담우에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뻬찌까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라 다시 주저앉고말았다. 그는 공장을 어데다 어떻게 세우게 되며 공장굴뚝이 얼마나 높은가고 자세히 물었다. 어데다 세우게 되는지는 이완 미하일로위츠도 아직 자세히 몰랐지만 공장이 전기의 힘으로 돌게 될것이므로 굴뚝은 없을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전기가 필요하기때문에 뚝을 쌓아 찌히강을 가로막고 그 물의 힘으로 전기를 일구게 될것이라는것이였다.

찌히강을 막는다는 말을 들은 와시까는 깜짝 놀라 또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뻬찌까가 없는것이 다시 생각나서 그만 화를 냈다.

《에이 바보! 이런 큰일이 생겼는데 어딜 싸다닐가?》

이때 문득 와시까는 거리 저편우물가에서 한발로 깡충깡충 뛰놀고있는 왈리까 샤라뽀바라는 조그마한 약빠른 계집애를 발견했다. 와시까는 그 계집애에게 뻬찌까를 보지 못했냐고 물으려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완 미하일로위츠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희들이 알레쉬노에 갔다온 날이 어느날이지? 토요일이든가 금요일이든가?》

《토요일이야요. 우리 집에서 그날 저녁에 목욕들을 했으니까요.》

《토요일이라구… 그럼 벌써 일주일이 지난셈이로군. 그런데 예고르 미하일로브가 왜 아직도 들리지 않을가?》

《예고르요? 그 아저씨는 어제 도시로 가셨다나봐요. 엊저녁에 알레쉬노의 쎄라핌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예고르아저

씨가 도시로 갔다고 하던데요.》
《그럼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들리지 않았을가? 들리겠다고 약속하고 들리지 않다니. 도시에 가면 물주리를 하나 사다달라고 부탁하려했는데.》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노여운듯 말하더니 신문을 집어들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와시까는 뻬찌까에 대해 물어보려고 왈리까에게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는 방금 엊저녁에 무슨 트집을 걸어서 왈리까를 때려준 일을 깜빡 잊어버렸었다. 그래서 약빠른 왈리까가 자기를 보자 혀를 내밀어보이고 부리나케 제 집으로 뺑소니치는것을 보고도 왜 저럴가하고 매우 이상스럽게 여기였다.

한편 뻬찌까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와시까가 그를 열심히 찾아다니고있을 때 뻬찌까는 남새밭뒤의 숲속에 숨어서 와시까가 자기 집 마당안에 들어서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지금 와시까를 만나보고싶지 않았다. 새벽에 그는 이상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한 일을 당하였기때문이였다. 그는 약속한대로 아침 일찌기 일어나서 낚시대를 들고 와시까를 깨우려 떠났었다. 그런데 그는 사립문을 나서자마자 쎄료즈까를 발견하였다.
쎄료즈까는 살통을 건지려 강으로 가는것이 틀림없었다. 쎄료즈까는 자기를 살피고있는줄 모르고 쇠갈구리에 맨 노끈을 감으면서 남새밭옆의 오솔길을 지나가고있었다.
뻬찌까는 도로 마당안에 들어가서 헛간에 낚시대를 던져넣고 나무에 가리워 벌써 보이지 않는 쎄료즈까의 뒤를 밟아 뛰여갔다.
쎄료즈까는 버들피리를 즐겁게 불면서 걸어갔다. 그 피리소리때문에 뻬찌까에게는 아주 유리하였다. 그는 피리소리를 들으며 얼마간 사이를 두고 따라갈수 있었으며 들키거나 경칠 념려가 없었다.
새들이 우짖는 맑게 개인 아침이였다. 어디서나 새싹들이 움트고 땅에서는 풀잎이 파랗게 돋아나고있었다. 이슬과 봇나무즙냄새가 풍기고 실실이 늘어진 버들가지우에서는 꿀을 찾는 꿀벌들이 웅웅거렸다.
날씨도 좋거니와 쎄료즈까의 뒤를 밟고있다는데서 뻬찌까의 마음

은 여간만 즐겁지 않았다.

그는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살금살금 걸어갔다. 이렇게 반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찌히강의 물줄기가 급작스레 골짜기로 굽이쳐 흘러드는곳에 이르렀다.

(요 깜찍한 녀석이 꽤 멀리까지 가는군.…) 하고 뻬찌까는 생각하였다. 그는 갈구리를 가지고 와시까와 함께 강으로 뛰여와서 자기들의 살통과 쎄료즈까의 살통을 건져내고 쎄료즈까가 알아내지 못할곳에 살통들을 쳐놓으리라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버들피리소리가 갑자기 그쳤다.

뻬찌까는 걸음을 다그쳤다. 몇분이 지났다. 그런데도 주위는 조용하였다.

불안한 생각이 든 그는 발걸음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뛰여갔다. 그는 물굽이에 이르러 덤불속에서 머리를 내밀어 살펴보았다. 쎄료즈까는 없었다.

멍청한 자신을 꾸짖으며 한편 쎄료즈까가 어데 숨었을가 하고 두루 생각하던 뻬찌까는 필리낀개울의 상류로 좀 거슬러올라가면 거기에 조그마한 못이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못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말은 아직 들은적 없었지만 거기로 뛰여가보기로 하였다.

쎄료즈까가 어떤 애인가! 그 깜찍한 녀석이 그런데서 무엇을 얻어냈는지 누가 알겠는가!

못은 뻬찌까가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멀었다. 그 못은 작고 썩은 감탕물이여서 개구리밖에는 살수 없었다.

쎄료즈까는 거기에도 없었다.

뻬찌까는 락심하여 도로 필리낀개울로 가서 물을 들이켰다. 한모금 마시고는 숨을 쉬지 않으면 못견딜만큼 물이 찼다. 그는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마음먹었다.

와시까는 물론 잠을 깼을것이다. 만일 그가 와시까를 깨우지 않은 까닭을 말하지 않는다면 와시까는 성낼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 한다면《에이 그걸 놓치다니! 내가 갔더라면… 내가 했더라면…》하면서 비웃을것이 뻔했다.

이때 문득 뻬찌까는 이상한것을 발견했다. 그바람에 그는 쎄료즈

까도 살통도 와시까도 단번에 다 잊어버리고말았다.

백메터도 안되는 오른편 숲속에 뾰족한 하얀 천막꼭대기가 머리를 내밀고있었다. 그우로 모닥불을 피우는지 한줄기의 가늘고 희미한 연기가 가물가물 떠오르고있었다.

6

처음에 뻬찌까는 더럭 겁이 났다. 그는 재빨리 몸을 숙이고 한쪽 무릎을 꿇고앉아 조심스레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필리낀개울의 찬물이 즐겁게 콸콸 흐르는 소리와 이끼덮인 늙은 봇나무에 뚫린 구새통에 꿀벌들이 엉켜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똑똑히 들릴만큼 조용하였다.

사방이 이처럼 조용하고 수풀은 다정스레 자기를 감싸주는듯하고 따뜻한 해빛이 내려쪼여서 그런지 뻬찌까는 어지간히 마음이 놓였다. 그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깜찍한 장난꾸러기의 습성대로 숲속에 몸을 감추고 살금살금 천막있는데로 다가갔다.

(사냥군들일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아니야, 사냥군들은 아닐거야.… 사냥군이라면 천막을 치고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 낚시군들일가? 아니 낚시군도 아니야. 강변까지는 먼걸. 사냥군도 아니고 낚시군도 아니라면 도대체 웬 사람들일가? 혹시 도적놈들이나 아닐가?)

이렇게 생각하니 그의 머리에는 언젠가 어느 낡은 책에서 본 그림이 떠올랐다. 그 그림에는 역시 숲속에 천막이 있었는데 그 천막곁에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고있고, 그들옆에 몹시 여윈 예쁜 녀자가 슬픔에 잠긴 얼굴표정을 하고 앉아서 이상하게 생긴 악기의 긴줄을 타며 그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고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뻬찌까는 무시무시해졌다. 그는 입술을 떨고 눈을 슴벅거리면서 뒤걸음질치려 했다. 이때 그는 두 나무사이에 늘인 바줄에 갓 빨래한듯한 젖은 내의들과 두컬레의 푸른 양말이 걸려있는것을 발견했다.

그 젖은 내의들과 바람에 너펄거리는 양말들을 본 그는 어쩐지 곧 마음이 놓이였다. 도적놈이 아닐가 하고 생각한 자신이 가소롭고 어리석게 생각되였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갔다. 천막근처에도 천막

안에도 사람이 없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마른 나무잎을 채워넣은 두개의 포단과 큰 회색이불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천막복판에 깔아놓은 방수포우에는 웬 푸른 종이와 흰 종이들이 널려있었고 찌히강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몇개의 진흙덩어리와 돌쪼각들이 흩어져있었다. 또한 거기에는 무엇인지 알수 없는 번들거리는 물건들이 놓여있었다.

거의 꺼져가는 모닥불에서 가는 연기가 오르고있었다. 모닥불옆에는 까맣게 그을은 큰 주전자가 하나 있었다. 발에 짓밟힌 풀우에는 개가 뜯어먹다 버린듯한 커다란 흰 뼈다귀가 딩굴고있었다.

용감해진 뻬찌까는 천막곁으로 곧장 다가갔다. 처음 보는 쇠로 만든 물건들이 무엇보다 그의 흥미를 끌었다. 하나는 지난해 마을에 들렸던 사진사한테서 본 세발달린 사진기받침대와 비슷한것이였다. 다른 하나는 무슨 수자가 적혀있고 복판에 실을 가로건넨 둥글고 큰 물건이였다. 또 다른 하나는 역시 둥글지만 그보다 좀 작으며 뾰족한 바늘이 있는 팔목시계 비슷한 물건이였다.

그는 이 물건을 들어보았다. 바늘은 흔들흔들 움직이다가 다시 제자리에 섰다.

《라침판이군.》뻬찌까는 이런 물건을 책에서 본 생각이 나서 단번에 알아맞혔다.

그 물건을 시험해보려고 그는 몸을 한바퀴 빙그르르 돌렸다.

가늘고 뾰족한 바늘끝은 몇번 바들바들 떨다가 공지에 우뚝 솟은 가지가 우거진 늙은 소나무쪽을 가리켰다. 이 물건은 뻬찌까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천막주위를 돌면서 라침판을 수풀쪽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다른쪽으로 돌려보기도 하다가 선자리에서 열번쯤 빙빙 돌아보기도 하였다. 그는 이만하면 바늘이 방향을 잊어버릴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서자마자 바늘은 움찔움찔하더니 검은 한끝으로 먼저 가리킨 방향을 그대로 고집세게 가리키는 것이였다. 뻬찌까는 아무리 뱅뱅 돌아도 바늘을 속여넘길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흥, 살아있는 물건같군.) 뻬찌까는 감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이런 훌륭한 물건이 없는것이 유감스러웠다. 그는 한숨을 쉬고 그것을 도로 제 자리에 놓으려 하였다. 바로 그때 맞은

편 공지쪽에서 털이 북실북실한 커다란 개 한마리가 나타나더니 요란스레 짖어대면서 그에게로 달려오고있었다.
빼찌까는 깜짝 놀라《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덤불속으로 줄달음쳐 달아났다.
개는 미친듯이 짖어대며 그의 뒤를 쫓아왔다. 빼찌까가 무릎을 치는 물속에 뛰여들어 필리낀개울을 건너서지만 않았더면 개는 뒤쫓아와 그에게 덤벼들었을것이다.
개는 개울까지 뛰여왔으나 그 폭이 넓었기때문에 건늘수 있을만한 곳을 찾느라고 개울가를 이리저리 뛰여다녔다.
그러나 빼찌까는 그동안에 우물쭈물하지 않고 나무등걸과 쓰러진 진대나무와 흙더미들을 넘어 사냥개에 쫓기는 토끼처럼 허둥지둥 뛰여갔다.
그는 찌히강변까지 와서야 달음질을 멈추고 숨을 돌리였다.
그는 마른 입술을 감빨면서 강가에 가서 물을 마셨다. 그는 가쁜 숨을 쉬며 집을 향하여 스적스적 걸었으나 마음속은 께름직하였다.
물론 그는 개만 아니였더라면 라침판을 가져오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개가 있었건 없었건 어쨌든 그는 라침판을 훔친셈이 되고 말았다. 이런짓을 했다는걸 아버지가 알면 화를 낼것이고 이완 미하일로위츠가 안다면 칭찬하지 않을것이며 와시까도 잘했다고는 안할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저질러놓은 일이고 라침판을 가지고 도로 되돌아가자니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첫째로는 자기에게 죄가 없다는것, 둘째로는 개밖에 아무도 자기를 본 사람이 없다는것, 셋째로는 라침판을 외딴곳에 감춰두고 한동안 있다가 가을이나 겨울쯤에 천막이 없어진 때 어디서 주었다고 말하고 내것으로 만들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위안하였다.
빼찌까는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새벽부터 화를 내며 자기를 찾아다니는 와시까를 보고도 남새밭뒤 덤불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던것이다.

7

그러나 뻬찌까는 헛간다락에 라침판을 감춰두고나서 와시까를 찾으려 뛰여가지 않고 뜨락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댈것인가고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여느때 그는 거짓말을 잘 꾸미는 선수였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그럴듯하게 꾸며지지 않았다. 물론 그는 천막이나 라침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저 쎄료즈까를 쫓아가다가 놓쳤다는것만을 이야기할수 있을것이였다.

그러나 천막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못견딜것만 같았다. 천막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혹시 와시까가 어찌어찌하여 천막이 있는줄 알게 되면 《넌 아무것도 몰라! 언제나 내가 먼저 알아내거든…》하고 뽐낼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뻬찌까는 라침판과 그 얄미운 개만 없었더라면 모든 일이 더 재미있고 더 좋게 되였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침내 그는 와시까를 찾아가서 천막과 라침판에 대해서 털어놓고 다 이야기해버리리라 생각했다. 그것은 극히 단순하고 좋은 생각이였다. 사실 그는 라침판을 훔칠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것인데 그저 개때문에 일이 그렇게 된것이 아닌가.

와시까와 둘이 라침판을 가지고 천막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제 자리에 가져다두면 될것이였다. 그러나 개를 어떻게 할가? 개에 대해서야 무슨 걱정인가? 첫째로 빵이나 소뼈다귀를 가지고가서 던져주면 덤벼들지 않을것이고, 둘째로 몽둥이를 들고가면 그만일것이고, 셋째로 둘이서 간다면 그닥 무서울것도 없을것이였다.

그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다지고 곧 와시까한테 뛰여가려 하였으나 그때 마침 집에서 어머니가 점심을 먹으라고 불렀다. 그는 한바탕 뛰여다니느라고 배도 고팠기때문에 좋아라고 집에 들어갔다.

점심을 먹고나서도 그는 와시까를 만나러 갈수 없었다. 어머니가 빨래하러 나가면서 어린 누이동생 엘레나를 돌보라고 일렀기때문이였다.

여느때 어머니가 그에게 엘레나를 맡기고 나가면 그는 엘레나의

손에 헝겊쪼각이나 막대기를 쥐여주고 슬그머니 밖에 나가 놀다가 어머니가 돌아오는게 먼발치에서 보이면 곧 집에 돌아와서 엘레나곁을 떠나지 않은척하군하였었다.

그러나 오늘은 엘레나가 몸이 좀 아픈지 몹시 짜증을 부렸다. 그가 게사니깃과 공처럼 둥근 감자를 억지로 쥐여주고 문쪽으로 가자 엘레나는 엉엉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하였다. 집앞을 지나가던 이웃집아주머니가 애우는 소리를 듣고 창문으로 들여다보더니 뻬찌까가 누이동생에게 성화를 먹이는줄 알고 손가락질을 하며 나무랬다.

뻬찌까는 한숨을 쉬고 방바닥에 깔아놓은 두터운 이불우에 엘레나와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에게 우울한 목소리로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하였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는 벌써 저녁때가 다되였다. 이때야 비로소 자유롭게 된 뻬찌까는 밖에 뛰여나와 휘파람으로 와시까를 불렀다.

《참 너두?》하고 와시까는 멀리서부터 벌써 큰소리로 나무래기 시작하였다. 《얘, 뻬찌까! 넌 하루종일 어데 갔다왔니? 뻬찌까야, 어델 갔댔길래 종일 찾아다녀두 만날수 없었니?》

뻬찌까가 미처 대답하기도전에 와시까는 하루동안에 모은 새 소식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와시까에게는 새 소식이 많았다. 첫째로 간이역부근에 공장이 세워진다는것이였다. 둘째로 숲속에 천막이 있는데 거기엔 참 좋은 사람들이 살고있고 벌써 그들과 사귀였다는 소식이였다. 셋째로 오늘 쎄료즈까의 아버지가 쎄료즈까를 때렸는데 그가 얼마나 크게 죽는 소리를 질렀던지 온 동네가 떠들썩하였다는 소식이였다.

그러나 공장에 대한 소식도 쎄료즈까가 아버지한테서 얻어맞았다는 소식도 뻬찌까를 그닥 감동시키지 못하였다. 와시까가 천막이 있다는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가 먼저 천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뻬찌까는 몹시 놀라며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넌 천막이 있다는걸 어떻게 알았니?》 뻬찌까는 속으로 분해하면서 물었다. 《그건 내가 먼저 다 알아냈어. 오늘 나한테 사건이 하나 있었어…》

《네게 사건은 무슨 사건이야.》와시까는 그의 말을 가로막

았다. 《너한테 무슨 사건이 있었겠니? 있었대야 뭐 재미없는 사건이겠지. 허지만 나한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거든. 찾아다니다가 그만 맥이 나서 밥을 먹고 채찍감을 꺾으려 떨기나무숲에 들어갔지. 그런데 웬 사람이 하나 다가오지 않겠니. 그 사람은 키가 크고 붉은군대 군관들이 메는 그런 가죽가방을 메였드라. 장화는 사냥군들이 신는 그런 장화를 신었는데 군인두 아니구 사냥군두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얘야, 이리 와.〉하고 말을 걸드라. 너는 내가 놀랬을줄 아니? 조금도 놀래지 않았어. 내가 그 사람한테 가니까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너 오늘 고기잡이하던 아이 아니야?〉하고 묻더구나. 〈아니요. 난 오늘 고기잡이 안갔댔어요. 뻬찌까란 동무가 오지 않아서 가지 못했어요. 오겠다구 약속하구 어디로 가버리고말았어요.〉하고 말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옳아, 옳아, 응 그래. 너는 고기잡이하던 아이가 아니지. 너의 마을에 너보다 좀 키가 크고 머리털이 불그스름한 아이가 없니?〉하고 묻겠지. 〈있어요. 쎄료즈까란 아이야요. 우리 살통을 훔치군하는 나쁜 아이야요.〉하고 대답했지. 〈옳다, 바로 그 아이말이다. 그 아이가 우리 천막에서 멀지 않은 못에 살통을 친 아이지. 그 아이네 집은 어디냐?〉 하고 묻지 않겠니. 〈갑시다. 아저씨, 내가 그 아이네 집을 가리켜드릴게요.〉하고 대답했어. 나는 그 사람하구 같이 가면서 (왜 이 사람은 나와 뻬찌까를 찾지 않고 쎄료즈까를 찾을가?) 하고 생각했지. 그런데 걸어가면서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이야길 해주더라.

천막엔 두 사람이 살고있는데 그 천막은 필리낀개울 저편에 있대. 그들은 다 지질학자래. 그들은 이 고장을 돌아다니면서 돌과 진흙을 조사하고 어디에 돌이 있고, 어디에 모래가 있고, 어디에 진흙이 있는가를 다 적는 사람들이래.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지. 〈나하고 뻬찌까하고 아저씨들이 계시는 곳에 놀러가도 괜찮아요? 우리도 그런것들을 찾아드리겠어요. 우린 이 고장을 잘 알아요. 우린 작년에 참 놀랄만큼 새빨간 돌을 보았어요. 아저씨, 쎄료즈까한테는 가지 않는게 좋겠어요. 쎄료즈까란 아이는 나쁜 아이예요. 싸움만 하려 하고 남의 살통을 훔쳐가요.〉 그러는동안 우리는 쎄료즈까네 집앞까지 다 갔지. 그 사람은 쎄료즈까네 집에 들어가고 나는 밖에 있었단다. 보니까 쎄료즈까의 어머니

가 뛰여나오더니 〈쎄료즈까야! 쎄료즈까야! 〉하고 찾다가 나를 보고 〈와시까야, 너 우리 쎄료즈까를 못봤니?〉하고 소리치지 않겠니. 그래서 나는 〈아니요, 못봤어요. 아까는 봤지만 지금은 못봤어요.〉하고 대답했지. 조금 있다가 그 지질학자가 쎄료즈까의 집에서 나오길래 나는 그 사람을 숲까지 바래다주었어. 그 사람은 나하구 너하구 놀러와도 좋다고 말했어. 그때 쎄료즈까가 집에 돌아오니까 그의 아버지는 〈너 천막에 가서 무슨 물건을 집어왔니?〉하고 묻더구나. 쎄료즈까는 아무것도 집어오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자식을 마구 때리더라. 쎄료즈까가 우는 꼴은 참 볼만하던데! 그따위 녀석은 그렇게 해줘야 해. 그렇지, 뻬찌까야?》

그러나 뻬찌까는 이런 말을 듣고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 뻬찌까는 낯을 찡그리며 심드렁해있었다. 자기가 집어온 라침판때문에 쎄료즈까가 경을 쳤다는 말을 듣고 그는 뒤가 켕기였던것이다. 와시까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고 말할래도 때는 이미 늦었다. 갑자기 이런 말을 들은 그는 그저 어리둥절할뿐이였다. 그는 자기가 없어졌던것을 어떻게 둘러대야 좋을는지 몰랐다.

그러나 와시까자신이 그를 딱한 립장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큰 발견을 하여 우쭐해진 와시까는 뻬찌까에게 너그럽게 대하고싶은 생각이 났던것이다.

《왜 너는 얼굴을 찡그리고있니? 네가 없었던것이 분하니? 뻬찌까야, 네가 어데 달아났으니까 그렇게 되지? 그것봐라. 한번 약속하면 지켜야 한단말이야. 그까짓것 일없어. 래일 우리 둘이서 같이 가자꾸나. 내가 뻬찌까란 동무와 같이 가겠다고 그 사람한테 말했어. 넌 노끈을 얻으려고 고모네 집에 갔댔지? 내가 너의 집에 가보니까 너는 없고 낚시대만 헛간에 있지 않겠니. 그래서 난 네가 고모네 집에 갔을거라고 생각했어. 너 거게 갔댔지?》

그러나 뻬찌까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말없이 한숨을 짓더니 고개를 돌려 와시까를 보지 않고 물었다.

《쎄료즈까의 아버지가 쎄료즈까를 몹시 때리던?》

《동네방네가 다 들리게 쎄료즈까가 울음소리를 질렀으니까 몹시 때렸을게야.》

《그렇게 때리면 되나?》 삐찌까는 씨무룩해서 말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지만 오늘에 와서야 사람을 때리면 되니? 너의 아버지가 너를 때리면 좋겠니?》

《나를 때린다면 나쁘지만 쎄료즈까를 때리는거야 뭐…》하고 와시까는 좀 어색해하면서 대답하였다. 《공연히 때린다면 몰라도 나쁜 짓을 했으니 맞아 싸지. 남의 천막엔 왜 몰래 들어가? 사람들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그애는 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냈거든.

그런데 삐찌까야, 넌 오늘 좀 이상하구나? 낮에는 종일 싸다니다가 저녁에는 줄곧 성만 내구.》

《아니, 난 성나지 않았어.》 삐찌까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아까는 이가 아파서 그랬지만 이젠 좀 낫어.…》

《좀 낫니?》 와시까는 친절하게 물었다.

《곧 낫겠지. 와시까야, 난 그만 집에 가겠다. 집에서 한참 누워있으면 다 나을거야.》

8

얼마뒤에 두 소년은 천막에 사는 사람들과 친해졌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살고있었다. 웨르느이라고 하는 털이 북실북실한 사나운 수개도 있었다. 웨르느이는 와시까와는 곧 친해졌으나 삐찌까를 보고는 으르렁거리였다. 삐찌까는 개가 왜 자기를 보고 으르렁거리는지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웨르느이가 짖을줄은 알아도 말할줄은 모르는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키가 큰 지질학자의 등뒤에 숨었다.

요즘 날마다 두 소년은 하루종일 수풀속에서 지내였다. 그들은 지질학자들과 함께 찌히강변을 들추면서 돌아다녔다.

그들은 진펄로도 다녔고 자기들이 감히 가볼 마음도 먹지 못했던 먼 씨네예호수까지 다녀왔다.

어디로 무엇을 찾아다니느냐고 집에서 누가 물을 때면 《우리는 진흙을 찾아다녀요.》하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대답하는것이였다.

그들은 이젠 진흙에도 여러가지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메마른 진흙도 있고 빠다처럼 칼로 썰수 있는 녹진녹진한 기름진 진흙도 있었다. 찌히강하류에는 모래가 섞인 부드러운 진흙이 많

았다. 상류의 호수가로 가면 석회가 섞인 진흙을 볼수 있었으며 간이역쪽으로 좀더 가까이 오면 적갈색진흙의 굳은 층들이 깔려 있었다.

어떤 진흙이나 다 같은줄 알았던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였다. 가물에는 딴딴한 흙덩어리고 비가 오면 질벅질벅한 진창으로 되여버리는 진흙, 그 진흙이 보통 진흙이 아니라 알루미니움의 원료라는것이였다. 그래 그들은 지질학자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진흙들을 찾는 일을 열심히 도와주었으며 뒤엉킨 오솔길들과 찌히강의 물갈래들을 가리켜주었다.

얼마후 간이역에서는 세개의 화차가 짐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낯선 로동자들이 궤짝들과 통나무들과 널판자들을 철길뚝에 부리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은 간이역이 이전과는 다른 새 생활이 벌어지는것을 보고 만족하였다. 그들은 이날밤 흥분에 겨워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새 생활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다. 로동자들은 널판자로 창고를 짓고 거기에 도구들을 날라다 쌓았다. 그리고 창고지기 한사람만 남고는 모두들 도로 가버리고말았다. 이것을 본 두 소년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였다.

어느날 점심후 쉬는 시간에 뻬찌까는 천막옆에 앉아있었다. 책임자인 이와노위츠는 찢어진 샤쯔팔꿈치를 깁고있었으며 붉은군대 군관과 비슷한 다른 한 사람은 도면을 펼쳐놓고 콤파스로 무엇을 재고 있었다.

와시까는 오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터밭에 오이를 심으라고 일렀기때문에 좀 후에 오겠다고 약속했었다.

《야단났군.…》키가 큰 사람이 도면을 밀어놓으면서 말했다. 《라침판이 없으니 손이 없는거나 같군. 도면도 그릴수 없고 지도를 가지고도 방향을 잡을수가 없거든. 도시에서 다른것을 보내오기까지 가만 앉아기다릴수도 없고, 참 야단났군.》

그는 담배불을 붙여물고 뻬찌까에게 물었다.

《쎄료즈까란 아이는 언제나 그런 나쁜짓만 하느냐?》

《언제나 그래요.》 뻬찌까가 대답하였다.

그는 낯이 빨개졌다. 그것을 감추려고 그는 다 꺼진 모닥불우에 고개를 수그리고 재가 덮인 숯에 후후 입김을 불었다.

《이크, 뻬찌까야!》 와씰리 이와노위츠가 그에게 소리쳤다. 《재가 다 나한테 날아오누나. 그건 왜 부느라고 그러니?》

《주전자에 물을 끓일가 해서요.…》 뻬찌까는 우물쭈물 대답하였다.

《이렇게 더운 날에 물은 끓여서 뭘하니.》

키가 큰 사람은 놀랍다는듯이 말하고 아까 하던 말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라침판이 무슨 소용일가? 그저 안가져갔다고만 우겨대니 문제거든. 뻬찌까야, 네가 그 아이한테 가서 〈쎄료즈까야, 네가 갖다주기 겁나면 내가 갖다줄테니 내놓으라.〉고 타일러보렴. 뻬찌까야, 우린 성도 안내고 꾸짖지도 않을테니까 네가 그 아이한테 한번 잘 말해봐라.》

《말해보겠어요.》 그는 키가 큰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였다. 그러자 웨르느이와 눈길이 마주쳤다.

웨르느이는 네 발을 펴고 혀를 내뽑고 헐떡거리면서 엎드려있었다. 개는 뻬찌까를 바라보면서 《거짓말말아! 네가 쎄료즈까한테 무슨 말을 하겠다는거야.》 하고 말하는것 같았다.

《쎄료즈까가 정말 라침판을 훔쳐가긴 갔을가?》 와씰리 이와노위츠는 바느질을 다하고 바늘을 모자안천에 꽂으면서 말하였다. 《혹시 우리가 그것을 어디다 넣어두고 공연히 그 소년만 의심하는게 아닐가?》

《아저씨들이 한번 찾아보시는게 좋겠어요.》 하고 뻬찌까는 빨리 말했다. 《아저씨들도 찾고 나와 와시까도 찾아볼테야요. 풀속을 살살이 훑어봅시다.》

《찾긴 무얼 찾는담?》 키가 큰 사람이 놀래여 말하였다. 《와씰리 이와노위츠, 내가 당신한테 라침판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말하기를 잊어먹고 천막에 둬두고 왔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찾는단말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떠났던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잘 안난단말이야. 아무래도 가지고 떠났던것 같애.》

와씰리 이와노위츠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하였다.

《우리가 씨네예호수가에 넘어진 진대나무우에 앉았던 일이 생각나나? 그 커다란 나무말이요. 거기서 내가 떨어뜨리지나 않았

는지?》
《이상한데요. 와씰리 이와노위츠.》 키가 큰 사람이 말했다. 《그때는 천막에서 안가져왔다고 말씀하더니 지금은 그런 말씀을…》
《아무것도 이상할게 없어요. 아저씨.》 뻬찌까는 말참견을 하였다. 《그런 일은 흔히 있어요. 가져오지 않은줄로만 생각했는데 알고보면 가져갔던 일이 우리 와시까한테도 있었어요. 어느날 우린 낚시질하려 떠났는데 도중에 내가 물었어요. 〈와시까야, 넌 낚시를 잊어먹지 않았니.〉, 〈아, 정말 잊어먹었구나.〉우리는 도로 뛰여갔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낚시는 없었어요. 그때 내가 그의 팔소매를 보니까 낚시가 거게 걸려있지 않겠어요. 아저씨는 이상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조금도 이상할것 없어요.》
그리고 뻬찌까는 겐나지라고 하는 사팔뜨기가 나무등걸뒤에 있는 도끼를 하루종일 찾아다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키 큰 사람은 와씰리 이와노위츠와 서로 뜻있게 눈을 맞추었다.
《흠… 찾아보는것도 좋을상싶다.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찾아봐라.》
《예, 찾아보겠어요.》 뻬찌까는 기뻐하며 동의하였다. 《라침판이 거기 있기만 하면 우린 찾아낼수 있어요. 그놈은 우리 눈을 피하지 못해요. 우린 몇번이라도 샅샅이 들춰서 그걸 꼭 찾아낼테야요.》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 뻬찌까는 와시까가 올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일어섰다. 그는 급한 일이 생각나서 집에 갔다오겠다고 말하고는 이끼가 덮인 푸른 흙더미와 개울과 개미둥지들을 훌쩍훌쩍 뛰여넘으면서 신이 나서 오솔길로 달음질쳐갔다.
그가 오솔길에 나서자 마침 간이역마을에서 돌아오는 알레쉬노부락의 농민들을 만났다.
그들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골들이 나서 팔을 휘두르며 앞을 다투어 누구를 욕하고있었다. 그들뒤에 쎄라핌아저씨도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헛간지붕이 허물어져서 돼지새끼들과 게사니들이 깔려죽었을 때보다도 더 우울하였다.
뻬찌까는 쎄라핌아저씨의 얼굴을 보고 그한테 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긴가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9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은 쎄라핌아저씨한테만 생긴것이 아니였다.

좋지 않은 일은 전체 알레쉬노촌에, 꼴호즈에 생겼던것이다.

꼴호즈의 주요조직자이고 농촌쏘베트위원장인 예고르 미하일로브가 뜨락또르임경소 건설출자금으로 모은 농민들의 3천여루블리의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것이였다. 그는 도시에서 이틀이나 사흘 묵고 돌아와야 하였다. 1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에게 전보를 쳤으나 소식이 없어 사람을 띄워보내고 뒤이어 또 한 사람을 특사로 보냈다. 그리하여 오늘 특사가 돌아왔는데 그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예고르는 구역 꼴호즈련맹에 가지 않았으며 은행에도 돈을 넣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알레쉬노부락에서는 야단법석이 일어났다. 낮부터 회의가 열렸다. 도시에서 조사원이 왔다. 이런 사건이 생기기 벌써 오래전부터 알레쉬노사람들속에서는 예고르의 애인이 도시에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그 녀자가 어떤 녀자고 어떻게 생겼으며 성질이 어떻다는 등 구구한 이야기가 이 사람의 입에서 저 사람의 입으로 옮겨졌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알아보니 누구 하나 그것을 똑똑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예고르의 애인을 보았다는 사람이 누구며 그런 녀자가 정말 있는지, 그런 사실을 어디서 알았는지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문제가 시끄럽게 되니 농촌쏘베트위원들은 어느 누구도 위원장사업을 대리하려 하지 않았다.

구역에서 새로운 사람이 파견되여왔다. 그러나 알레쉬노부락의 농민들은 그를 쌀쌀하게 맞이했다. 예고르도 구역에서 파견되여온 사람인데 3천여루블리의 돈을 가지고 달아나지 않았는가 하는것이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지도자가 없어지고 더우기 갓 조직되여 아직 튼튼치 못한 꼴호즈는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 한 사람이 꼴호즈에서 나가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는 큰물에 뚝이 터져나가듯이 아무런 말도 없이 단번에 수십명이 나갔다. 더우기 씨붙임때가 가까와오니 제각기 제 땅을 찾아 달려가는것

이였다. 열다섯집의 농민만이 닥쳐온 불행을 무릅쓰고 견디면서 꼴호즈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가운데는 쎄라핌아저씨도 들어있었다. 엎치고겹친 재난에 시달릴대로 시달려온 이 농민은 이웃사람이 전혀 리해할수 없는 그런 완강성을 가지고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꼴호즈에서 나가지 말고 견디여보자고 거듭 설복했다. 그는 어느 집에 가서나 지금 꼴호즈에서 나가면 망하는 날이며 이 고장 땅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식구가 많은 쉬마꼬브형제가 그의 말에 찬성하였다. 그들은 마르씨노브쓰끼대좌의 대대와의 전투에서 쎄라핌아저씨와 한날에 부상당한 빨찌산부대의 옛 전우들이였다. 농촌쏘베트위원인 이고쉬낀이 그의 말을 지지하였다. 그는 얼마전에 아버지한테서 세간난 젊은이였다. 그리고 뜻밖에도 빠웰마뜨웨예위츠가 꼴호즈의 편을 들고나섰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꼴호즈에서 나가기 시작하는 때에 세상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꼴호즈가입신청서를 냈다.

이렇듯 열다섯집이 꼴호즈에 뭉쳤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 즐겁지 못하였지만 한번 나선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고 밭에 나가 씨를 뿌리였다.

이런 모든 사건들때문에 뻬찌까와 와시까는 며칠동안은 천막에 대하여 잊어버리고말았다. 그들은 알레쉬노로 달려갔다. 그들도 예고르를 나쁘게 생각했으며 온순한 쎄라핌아저씨가 그처럼 억센것을 보고 감탄하였으며 이완 미하일로위츠를 가엾이 생각하였다.

《얘들아, 그럴수도 있단다. 사람들이란 열두번 변하는 법이니까.》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신문지에 만 담배를 뻑뻑 빨면서 말하였다. 《그럴수 있지. 변하구말구. 그렇지만 설마 예고르의 마음이 변하리라고야 누가 알았겠니? 마음이 굳센 사람이였지. 이런 일도 있었단다. 어느날 저녁엔가 나와 그 사람이 기관차를 몰고 어느 작은 역에 들어갔지. 전철기는 부서지고 철장은 뽑아지고 뒤쪽 철길은 끊어지고 다리는 불타버렸단다. 역에는 사람 하나 없고 사방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지. 어딘지 잘 모르긴 하나 앞에도 전선이고 좌우도 전선이였지. 놈들의 전선은 끝이 없는것만 같더라. 놈들에게 포위된셈이지…》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하던 말을 중동무이하고 창문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침침한 비구름이 천천히 흘러가

고있었다.

막담배는 연신 탔다. 담배연기는 구식군용장갑렬차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따라 천천히 흩어지면서 우로 올라갔다.

《이완아저씨!》 하고 뻬찌까가 불렀다.

《왜 그러니?》

《사방에 적들이 있고 놈들의 전선은 끝이 없고… 그래 어떻게 됐어요.》 뻬찌까는 아저씨의 말을 되뇌이면서 재촉했다.

《…간이역은 숲속에 있었다. 고요한 봄날이였지. 참새들만 짹짹거리더라. 나와 예고르는 흙과 기름과 땀투성이가 되여 기관차에서 내려 풀밭에 앉었지. 어떻게 하면 좋을가! 하고 궁리하고있는데 예고르는 이렇게 말하더라. 〈이완아저씨! 우리의 앞길에는 철장이 뽑아지고 전철기가 부서졌고 뒤에는 다리가 불타 끊어졌어요. 우린 원쑤놈들이 욱실거리는 이 숲속을 사흘동안이나 공연히 왔다갔다하는군요. 앞에도 전선이고 뒤에도 전선이지만 우린 꼭 이겨내요.〉하길래 나는 〈아무렴, 이겨내구말구. 그렇지만 우리가 장갑렬차를 몰고 이 포위망에서 벗어날수 있겠는지 그게 걱정이다.〉하고 말했지.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하더라.

〈못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16호기관차가 마사지면 그 8호와 39호가 있으니까 끝까지 싸워줄걸요 뭐.〉

그는 자그마한 장미꽃가지를 하나 꺾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그것을 작업복단추구멍에 꽂았지. 그는 빙긋 웃고 스파나와 기름통을 들고 기관차밑으로 기여들어갔단다. 이때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란 이 세상에 없는것만 같더구나.…》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또 말을 중둥무이하였다. 그가 무슨 볼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다말고 옆방으로 나갔기때문에 뻬찌까와 와시까는 장갑기관차가 어떻게 포위망을 빠져나왔는지 미처 다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고르네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들 있다던?》잠시후 로인은 벽 저편에서 물었다. 《그 사람한테 아이가 둘이 있었을텐데.》

《빠쉬까란 아이하고 마쉬까란 아이하구 둘이 있어요. 그애들은 할머니와 같이 있는데 할머닌 아주 늙었어요. 뻬치까에 올라앉아있을 때도 욕하구 뻬치까에서 내려와있을 때도 욕하구 하루종일 기도를 드리고 욕지거리만 해요.》

《한번 가봐야겠구나. 무슨 좋은 수가 없겠는지 생각해봐야겠다. 이러니저러니해도 아이들이 불쌍하지.》 하고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말했다.
벽 저편 방에서 막담배를 뻑뻑 빠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에 와시까는 이완 미하일로위츠와 함께 알레쉬노로 떠났다. 뻬찌까도 같이 가자고 불렀으나 그는 짬이 없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뻬찌까가 어떻게 갑자기 짬이 없게 되였을가? 하고 와시까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물어볼 사이도 없이 뻬찌까는 집안으로 뛰여들어가고말았다.
그들은 알레쉬노에 가서 새 위원장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그는 강건너 풀밭으로 갔던것이다.
이 풀밭때문에 지금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고있었다. 이전에 이 풀밭은 몇몇 농가들에서 나눠가지고있었는데 그중 큰 땅뙈기가 방아간주인 뻬뚜닌의것이였다. 후에 꼴호즈가 조직되면서부터 예고르 미하일로브는 이 풀밭을 죄다 꼴호즈의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꼴호즈가 허물어지게 된 지금에 와서 이전의 풀밭주인들은 꼴호즈가 돈을 도적맞혔기때문에 구역에서 보내오기로 된 풀베는기계를 살수 없게 되였으며 따라서 그것을 꼴호즈에서 사용할수 없게 되였다는 구실을 들고 자기들의 이전 땅을 도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나섰다.
그러나 꼴호즈에 남은 열다섯집 농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풀밭을 갈라주려고 하지 않았으며 특히 뻬뚜닌에게 이전에 그의 소유였던 땅뙈기를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 위원장은 꼴호즈편을 들었으나 이번 사건때문에 노한 농민들은 뻬뚜닌을 두둔하여나섰다. 뻬뚜닌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모스크바에 가서라도 자기 땅을 꼭 찾고야말겠다고 말하며 태연히 나다녔다.
쎄라핌아저씨와 젊은 이고쉬낀은 꼴호즈사무실에 앉아서 종이에 글을 쓰고있었다.
《우린 편지를 쓰고있소!》 쎄라핌아저씨는 이완 미하일로위츠를 보고 인사하고나서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그들이 구역에 편지를 보냈다니깐 우리도 편지를 보내야지. 여보게. 이고쉬낀, 편지가 잘됐는지 한번 읽어보게나. 이 사람은 이 일에 관계없는 사람이니 들어보면 알수 있을걸세.》

이고쉬낀이 편지를 읽으며 의논하고있는동안에 와시까는 거리에 나와 페지까 갈낀을 만났다. 그는 《페지까네 꼴호즈는 개똥이야.》 하고 놀린 《붉은머리》아이와 며칠전에 다툰 바로 그 곰보소년이였다.

페지까는 와시까에게 재미나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얼마전에 쎄묜 자그레빈네 집 목욕간에서 불이 났는데 쎄묜은 이것이 누가 꼭 지른 불이라고 말한다는것이였다. 그리고 페지까는 그 목욕간의 불이 하마트면 종자고르는기계와 낟알이 들어있는 꼴호즈창고에 번질번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꼴호즈에서 요즘 밤마다 번갈아 경비를 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페지까는 자기집 당번날에 아버지가 간이역에 갔다 늦어돌아왔을 때면 자기가 경비를 서며 어머니도 방망이를 쥐고 자기와 교대하여 경비하러 나온다고 말하였다.

《다 예고르아저씨의 탓이야. 그가 잘못한걸 우리보고 욕질을 하거든. 우리가 모두 도적놈들이라나.》

《그 아저씨는 이전엔 영웅이였어.》 하고 와시까가 말하였다.

《그는 이전에도 영웅이였지만 언제나 영웅이였지. 우리 마을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까지도 알수 없다고들 한단다. 그 아저씨는 얼른보기에 어수룩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시작만 하면 눈이 가늘게 떠지고 번쩍거린단다. 말이 좀 투박하지. 참 그 아저씨는 풀밭문제를 얼마나 속시원히 풀었는지 아니. 〈다같이 풀을 베고 다같이 밀을 심읍시다.〉하고 말했었지.》

《그런 이가 어떻게 그런 나쁜짓을 했을가?》하고 와시까는 물었다.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그랬을가?》

《사랑하는 사람때문이라면 장가들면 그만이지 돈이야 왜 훔치겠니.》 하며 페지까는 화를 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때문에 돈을 훔친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니? 아니야, 사랑때문이 아닐거야. 그렇지만 무엇때문인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우리 마을엔 씨도르라는 절름발이가 있단다. 이젠 늙은이야. 예고르에 대한 말이 나기만 하면 그 늙

은이는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야.〉하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는단다. 듣지도 않고 딴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절름거리면서 얼른 다른데로 가버린단다. 무엇을 중얼중얼하면서 자꾸 눈물만 흘리고 있어. 좀 어리숭한 늙은이야. 그이는 이전에 다닐라 예고로위츠의 양봉장에서 일하다가 무슨 일로 말썽이 났댔는지 그때 예고르가 그 늙은이를 돌봐주었단다.》
《페지까야, 왜 요즘 예르모라이이가 보이지 않을가? 올해엔 그 사람이 다닐라 예고로위츠네 과수원에서 수위노릇을 하지 않는다던?》하고 와시까가 물었다.
《하게 될거야. 어제 난 그 사람이 숲속에서 나오는걸 봤어. 술에 취했더라. 그 사람은 늘 그 꼴이야. 사과가 익을 때까지 술이나 마실 작정인가보지. 사과가 다 익게 되면 다닐라 예고로위츠는 술 살 돈을 안준단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은 취하지 않고 과수원을 잘 지키겠거든. 와시까야, 너 그사람한테 혼난 일이 있었지?》
《그래, 있었다, 있었어.》
와시까는 그 불쾌한 추억에서 화제를 딴데로 돌리려고 얼른 대답을 하였다. 《페지까야, 예르모라이이는 왜 직장에도 안나가고 농사일도 하지 않을가? 앓지도 않고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글쎄, 나도 모르겠어.》 하고 페지까는 대답하였다. 《예르모라이는 이전에 붉은군대에서 도망친 사람이래. 무슨 죄를 짓고 몇해동안 징역살이도 했다나.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저 늘 그 꼴이래. 알레쉬노에 있다가 어디론가 가버리는가 하면 여름엔 다시 돌아오군한단다. 와시까야, 난 예르모라이이가 싫어. 그 사람은 강아지한테만 마음이 좋지. 하긴 그것도 술취했을 때만 그렇지만…》
소년들은 한참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와시까도 간이역근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페지까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는 천막과 공장과 쎄료즈까와 라침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너희들도 우리한테 좀 놀러 오려무나.》 하고 와시까가 말하였다.
《우리들도 너희들한테 놀러 오마. 꼭 놀러 와. 너도 꼴리까 지뿌노브도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도 같이 오려무나. 넌 글읽을줄 아니?》
《조금 알아.》
《나랑 뻬찌까랑두 조금밖에 몰라.》

《학교가 없으니까 그렇지. 예고르가 있었을 땐 학교를 세우려고 무척 애를 썼댔는데 이젠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다. 농민들이 모두 성이 났으니 학교가 다 뭐야.》

《지금 공장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학교도 짓게 되겠지.》하고 와시까는 그를 위로하듯 말하며 덧붙였다. 《널판자와 통나무와 못이 남을런지도 몰라.…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물건이 많이 들겠지? 우리가 로동자아저씨들에게 부탁하면 지어줄거야. 그리고 우리들도 도와드리자꾸나. 폐지까야, 너 우리한테 놀러 와. 너랑 꼴리까랑 알레쉬까랑 우리한테 놀러 와. 많이 모여서 한바탕 재미있는 놀음을 꾸며보자꾸나.》

《그래 놀러 가지.》 페지까는 동의하였다. 《감자때나 지나서 놀러 가마.》

와시까가 꼴호즈사무실로 돌아오니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벌써 나가고 없었다. 와시까는 예고르네 집앞에서 이완 미하일로위츠를 만났다. 그의 옆에는 빠쉬까와 마쉬까가 서있었다. 마쉬까와 빠쉬까는 이완 미하일로위츠가 가져다준 꿀과자를 먹고있었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서로 말을 보태면서 저희들의 생활과 언제나 욕만하는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있었다.

10

《이랴 이랴! 훌쩍 뛰여넘어라! 에라 좋구나! 해가 비친다. 훌쩍 뛰여넘어라! 뚜벅뚜벅 뚜벅뚜벅! 개울물은 졸졸, 새들은 지종지종! 기병이여 앞으로!》

용감하고 유쾌한 기마병 뻬찌까는 먼 씨네예호수가로 가는 길을 따라 이렇게 소리치며 자기의 두다리를 말삼아 타고 수풀속을 달려갔다. 그는 오른손에 회초리를 들었다. 회초리는 그에게 있어서 휘청휘청한 채찍이기도 하고 잘 드는 군도이기도 하였다. 왼손엔 라침판을 모자에 싸쥐고있었다. 그는 오늘 이 라침판을 건망증이 심한 와씰리 이와노위츠가 언젠가 쉬였다고 하는 쓰러진 진대나무옆에 감춰두었다가 래일 다시 와시까와 함께 가서 그 라침판을 찾아낸것처럼 꾸며야 하였다.

《이랴 이랴! 훌쩍훌쩍 뛰여라! 참 멋있다! 와씰리 이와노위츠는 좋

은 사람! 천막도 좋다! 공장도 좋다! 모두 좋은것뿐이다!》
《섯!》
혼자서 말도 되고 기마병도 되는 삐찌까는 나무등걸에 발이 걸려서 비틀거리다가 풀우에 거꾸러졌다.
《망할놈의 말, 왜 비칠거리는거야.》기마병인 삐찌까는 말인 삐찌까를 욕하였다.
《다시 넘어졌다만 봐라, 채찍으로 막 때려줄테다.》
그는 일어나서 물탕에 빠진 손을 씻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숲은 울창하고 높았다. 고요한 큰 늙은 봇나무들의 새파란 잎들이 해볕에 반짝거렸다. 그 아래는 서늘하고 컴컴하였다. 산벌들이 울퉁불퉁하게 혹이 많이 난 구새먹은 가시나무두리에서 단조롭게 윙윙거리며 돌아치고있었다. 버섯냄새, 썩은 나무잎냄새, 멀지 않은 조그마한 진펄에서 흘러오는 눅눅한 감탕내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이랴, 이랴!》기마병인 삐찌까는 말인 삐찌까에게 성을 내여 소리쳤다. 《그리로 가면 안돼!》
그리고 그는 왼쪽말고삐를 잡아당기는 흉내를 내고 한옆 언덕배기로 뛰여올라갔다.《참 좋구나.》용감한 기마병 삐찌까는 뛰면서 생각하였다. 《지금도 좋지만 이다음에 내가 크면 더 좋아지겠지, 크면 진짜말을 타고 한바탕 달려볼테야. 크면 비행기를 타고 날아볼테야. 크면 기관차를 타고 먼 나라에 가볼테야. 전쟁이 일어나면 으뜸가는 지휘관이 되고, 하늘에선 으뜸가는 비행사가 되고, 기관차를 타게 되면 으뜸가는 기관사가 될테야. 이랴 이랴! 훌쩍 뛰여라! 섯!》
앞에는 질벅한 빈터가 펼쳐있고 거기에 새노란 꽃들이 눈부시게 피여있었다. 도중에 이런 빈터가 없을텐데 하고 얼떨떨해진 삐찌까는 이 경칠놈의 말이 길을 잘못 든가보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조그마한 진펄을 에돌아 내가 어데 들어왔을가 하고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살피면서 걸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가면갈수록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그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 세상이 점점 쓸쓸해지고 캄캄해지는것만 같았다.
그는 한참 주춤거리다가 어느쪽으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서고말았다.

이때 그는 항해가들과 려행가들이 라침판을 보고 옳은 길을 찾는다던 말이 생각났다. 그는 모자에서 라침판을 꺼내들고 그옆에 달린 단추를 눌렀다. 자유롭게 풀린 바늘의 까만 끝은 뻬찌까가 가려고 마음도 먹지 않은쪽을 가리켰다.

그는 라침판을 흔들어보았다. 그러나 바늘은 고집스럽게 같은쪽을 가리켰다.

뻬찌까는 라침판이 가리키는대로 갈 작정으로 발걸음을 뗐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샤쯔를 찢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나갈수 없는 무성한 가시덤불속에 들어섰다.

그는 가시덤불을 에돌아서 다시 라침판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바늘은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리면서 진펄이나 덤불이 많이 있는, 걸어가기가 제일 불편하고 힘든곳을 가리키는것이였다.

뻬찌까는 놀랍게도 생각되고 막 화가 나서 라침판을 모자속에 집어넣고 그냥 발길이 향하는대로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모든 항해가와 려행가들이 까만 바늘끝이 가리키는 길로만 갔더라면 그들은 모두 죽은지 오랬을텐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한참 걸어가다가 이젠 별수 없으니 최후수단을 써볼가도 생각하였다. 그 최후수단이란 큰소리로 울음소리를 지르는것이였다.

바로 이때 해는 숲뒤에 넘어갔다. 그러자 별안간 온숲이 빙 돌아서서 아까와는 다른 낯익은쪽을 그앞에 나타내보이는듯 하였다. 알레쉬노교회당의 십자가와 둥근 지붕이 저녁해를 등지고 똑똑히 나타났기때문이였다.

알레쉬노는 그가 생각했던것처럼 왼편에 있는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으며, 씨네예호수는 앞쪽에 있는것이 아니라 뒤쪽에 있다는것을 그제야 알았다.

그러자 헛갈린것처럼 보였던 빈터들이며 진펄들이며 골짜기들이 변함없이 늘 있던 그 자리에 온순히 자리잡고있었으며 수풀은 대뜸 낯익어보였다.

그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있는가를 알아차렸다. 여기서 간이역까지는 꽤 멀지만 알레쉬노에서 간이역으로 가는 오솔길까지는 그닥 멀지 않았다. 그는 다시 기운을 내고 말에 올라타는 흉내를 냈다. 그러다가 문득 엉거주춤하고 귀를 기울였다.

아주 가까운곳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그것은 아무 뜻도 없는 쓸쓸한 노래였다.

이런 노래는 뻬찌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뻬찌까는 얼른 몸을 숨기고 엿보았다. 이상한 노래가 울리는 무시무시한 숲을 어서 벗어나 말에게 박차를 질러 낯익은 오솔길로 해서 간이역에 있는 집으로 빨리 달아날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11

알레쉬노에서 돌아오던 이완 미하일로위츠와 와시까는 간이역에 이르기전에 사람들의 떠들썩한 목소리와 쿵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언덕에 올라선 그들은 지붕이 있는 화물차들과 지붕이 없는 화물차들이 막다른 철길에 빽빽이 들어서있는것을 보았다.

철길에서 조금 떨어진곳에 재빛천막들이 늘어서 하나의 부락을 이루었고 모닥불이 타고 야외취사장에서는 연기가 피여오르고 가마가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말들이 울었다.

로동자들은 화차에서 통나무며 널판자상자들을 부리우고 마차, 마구, 가마니들을 끌어내리느라고 분주히 돌아갔다.

와시까는 로동자들속으로 뚫고들어가서 말들을 자세히 보고 화차들과 천막들과 야외취사장 아궁이까지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로동자들이 언제 왔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으며 쎄료즈까가 모닥불 피울 장작을 끼고 천막근처를 돌아치는데도 아무도 욕하거나 쫓아내지 않는것이 무슨 일인지 알고싶어 뻬찌까를 찾아뛰여갔다.

그러나 길가에서 만난 뻬찌까의 어머니는 《그 못난 녀석》이 한낮에 어디로 나가서는 점심 먹으려도 오지 않았다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는것이였다.

이 말을 들은 와시까는 놀라기도 하고 노엽기도 하였다.

(뻬찌까가 웬일인가?) 그는 생각하였다. (전번에두 어딜 가서 없어지구, 오늘도 없어지구, 요 깜찍한 녀석이 겉으로는 얌전한체하고 혼자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있나보다.)

뻬찌까의 행동에 대해서 한참 이리저리 생각해보던 와시까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살통을 훔쳐간놈이 쎄료즈까가 아니라 뻬

찌까인지도 몰라. 그 자식이 잡은 물고기는 나누기 싫어서 혼자 살통을 건져다가 다른곳에 쳐놓고 남몰래 고기를 건지고있지나 않을가?) 전번에 뻬찌까가 고모네 집에 노끈을 얻으러 갔댔다고 거짓말을 한것이 생각나자 와시까는 이러한 의심이 점점 더 커갔다.

자기의 의심이 열에 아홉은 틀림없다고 생각한 와시까는 뻬찌까를 단단히 따져보고 앞으로 그런짓을 다시 안하도록 주먹찜을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는 집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집앞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다툼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왔다.

한창 성들을 내고있는판에 들어섰다가는 공연히 곁불을 맞을가봐 겁이 나서 그는 마당에 그냥 서서 귀를 기울였다.

《어째서 그렇단말이요?》이것은 어머니의 성이 나서 하는 말소리가 분명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요. 두말이나 되게 심은 감자와 오이 세이랑을 다 못쓰게 해야 한단말이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오?》 아버지의 노한 목소리였다. 《그럼, 기다려야 하겠소? 그래 당신이 말하듯이 당신이 심은 오이가 다 익을 때를 기다려야 한단말이요? 화차가 짐을 부리울곳이 없어 그러는데 당신은 자기의 오이생각만 하다니? 당신은 참 변덕도 많소. 한때는 철도감시막집이 뻬치까의 불이 잘 안든다, 좁고 낮아서 틀렸다고 불평이더니 이젠 감시막집이 허물리는데 아까와서 야단이거든. 그게 뭣이 아깝다구!》

(오이가 왜 못쓰게 된다는걸가? 웬 화차말일가? 누가 감시막집을 허물려 한다는걸가?) 와시까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긴가보다고 생각하면서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알게 된 사실은 공장을 건설한다는 첫 소식보다 더 크게 그를 놀라게 하였다. 그것은 와시까네 철도감시막집이 허물린다는 소식이였다. 감시막자리에 건설자재를 싣고오는 화물차들이 들어갈 대피선이 깔리게 된다는것이였다.

건늠길은 다른데로 옮기게 될것이며 거기에 와시까네 식구들이 살 새로운 집이 세워질것이라는것이였다.

《여보, 좀 생각해보우.》 하고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 이따위 감시소를 지어줄줄 아오? 지금은 철도감시원들에게 이런 돼지우리같은 집을 지어주던 옛날과는 다르오. 밝고 넓은 집을 우리들

에게 지어줄게요. 당신은 기뻐서 춤을 춰도 시원치 않을텐데 그저 오이타령만 하거든!》
어머니는 잠자코 돌아앉고말았다.
그 모든 일들이 단번에 갑자기 생기지 않고 조용히 차츰차츰 생겼더라면 이 좁고 다 썩어빠진 오막살이집을 버리는것을 어머니도 좋아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을 하게 되겠다는 말이 떠돌기가 무섭게 곧 그것이 정말로 시작되고 시작되자마자 척척 다되여가는것을 보고 어머니는 겁이 났던것이다.
어머니는 세상일이 이처럼 련이어 빨리 벌어지는것을 처음 보았기때문이였다.
간이역근처사람들은 조용히 지내왔다. 알레쉬노사람들도 조용히 살아왔다. 그런데 마치 멀리서 웬 파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곳으로도 밀려와 간이역도 알레쉬노도 다 휩쓰는것만 같았다. 꼴호즈, 공장, 뚝, 새집, …이것은 모두다 새롭고 처음보는 사건들이며 그것이 급격히 벌어지기때문에 어머니는 어리둥절하고 놀랐던것이다.
《여보, 정말 더 좋아지긴 하겠지요?》 어안이 벙벙해진 어머니는 이렇게 묻고나서 말을 이었다. 《나쁘건 좋건 여태까지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더 나빠지기나 하면 어떻게 하우?》
《듣기 싫소.》 하며 아버지는 나무랬다. 《여보, 얼빠진 소린 그만두오. …남이 들을가봐 창피스럽소.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한 소릴 하거든. 우리가 더 나빠지라고 일한단말이요? 저 와시까의 얼굴을 좀 보구려. 저 녀석은 너무 기뻐서 입을 헤 벌리고 서있소.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저 녀석은 좋아진다는걸 안단말이요. 그렇지, 와시까?》
그러나 와시까는 무어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였다.
많은 새로운 생각들과 새로운 의문들이 그의 불안한 머리를 차지하고있었다. 그도 어머니처럼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놀랐다. 그러나 그는 겁을 먹지는 않았다. 그는 먼 나라들로 힘차게 내달리는 급행렬차처럼 그 빠른 사건들에 황홀해졌다.
그는 건초더미우에 올라가서 따뜻한 양털외투를 덮고 누웠지만 잠

은 오지 않았다.

퉁탕퉁탕하는 널판자를 내던지는 소리가 멀리서 쉴새없이 들려왔다. 칙칙거리며 기관차에서 증기를 내뿜는 소리가 들려왔다. 완충기들이 마주치면서 덜커덩거리더니 전철수의 호각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다.

와시까는 널판자가 떨어져나간 지붕의 틈으로 맑게 개인 검푸른 하늘과 밝게 반짝이는 세개의 별을 보았다. 그는 사이좋게 반짝거리는 별들을 보면서 생활이 나아질것이라고 한 아버지의 자신있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생활이 좋아지면 어떻게 좋아질가?)

그러자 문득 선전실에서 본 포스터가 머리에 떠올랐다. 강대하고 름름한 붉은군대병사 한사람이 기둥옆에 서서 총을 쥐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앞을 내다보고있다. 그의 뒤에는 키높이 자라 누렇게 익어가는 밀보리밭과 꽃피는 과수원과 구차한 알레쉬노와는 비슷도 하지 않은 아담한 마을들이 펼쳐져있다.

그 벌뒤에는 큰 공장 굴뚝들이 밝은 해빛을 담뿍 받으며 우뚝 솟아있다. 번쩍이는 창문들안에 바퀴들과 불빛들과 기계들이 보인다. 그리고 어디서나 씩씩하고 유쾌한 사람들이 보인다. 밭에서도 마을에서도 기계옆에서도 누구나 다 일을 하고있고 어떤 사람들은 벌써 일을 다 끝내고 쉬고있다.

빠블리크 쁘리쁘리긴과 비슷하게 생긴 그러나 그애처럼 흙투성이가 아닌 한 소년이 하늘에 뜬 비행선을 흥미있게 바라보고있었다.

와시까는 싱글싱글 웃고있는 그 소년이 자기와 비슷하지 않고 빠블리크 쁘리쁘리긴과 비슷한데가 있어 늘 섭섭히 생각하는터였다. 그러나 포스터의 다른 한쪽구석 넓은 나라를 지키는 붉은군대병사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있는쪽에는 와시까에게 그 어떤 어렴풋한 불안을 자아내는것이 그려져있었다. 거기에는 희미한 검은 그림자들이 그려져있었다. 거기에는 앙심을 품은 흉측한 상통들이 그려져있었다. 거기의 한놈은 붉은군대병사가 딴데로 가버리거나 한눈을 팔 기회를 노리는것처럼 표독한 눈초리로 쏘아보고있었다.

와시까는 똑똑하고 의젓한 이 붉은군대병사가 아무데도 가지 않고 한눈도 팔지 않으며 보아야 할 곳만 똑바로 지켜보고있는것이 무척

기뻤다. 그는 그림들을 보고 그 뜻을 다 알수 있었다.

그가 잠들려 할 때 덜컹하고 문여닫는 소리가 났다.

잠시후에 어머니가 그를 큰소리로 불렀다.

《와시까… 와시까! 너 잠들었니?》

《아니요. 자지 않아요.》

《너 오늘 삐찌까를 보지 못했니?》

《보긴 봤는데 아침에 봤어요. 그다음엔 못봤어요. 그건 왜 물어봐요?》

《삐찌까네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아이는 점심전부터 나가서 여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구나.》

어머니가 가버리자 와시까는 걱정스러워졌다. 그는 삐찌까가 밤중에 나다닐만큼 용감한 아이가 아니란것을 알고있었다. 그런 삐찌까가 어딜 갔는지 알수 없는 일이였다.

삐찌까는 늦게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모자가 없었다. 그의 두눈은 너무 울어 퉁퉁 부었고 빨갛게 되였지만 눈물은 이미 다 마르고 없었다. 그는 몹시 피곤한 모양으로 어머니의 꾸지람도 아무 말대꾸없이 다 들었으며 저녁도 먹기 싫다면서 그냥 이불속에 들어갔다. 그는 곧 잠이 들었지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앓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무어라고 잠꼬대도 했다.

그는 길을 잃었댔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으며 어머니는 그의 말을 곧이 들었다. 그러나 와시까는 조금도 곧이 듣지 않았다. 무슨 목적이 있어 어디로 가거나 무엇을 찾으려 돌아다니지 않았다면야 길을 잃어버릴리가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삐찌까는 어데 무엇하러 갔는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으며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러므로 와시까는 삐찌까의 말이 거짓말이라는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와시까가 그의 거짓말을 까밝히려 하자 여느때 그처럼 솜씨있게 둘러대던 삐찌까도 이번에는 웬일인지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끔벅거리다가 뒤로 돌아서고말았다.

삐찌까에게서 더이상 아무 말도 들을수 없다는것을 안 와시까는 묻기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그는 삐찌까가 깜찍스레 무엇을 숨기고 있는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즈음에 지질학자들은 더 멀리 씨냐브까강류로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천막을 걷었다. 와시까와 뻬찌까는 말에 짐싣는 일을 도왔다.

길 떠날차비가 다되였을 때 와씰리 이와노위츠와 키 큰 사람은 자기들과 함께 지금까지 숲속으로 많이 다닌 아이들과 다정스럽게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여름철이 다 지나서야 돌아오게 된다고 하였다.

《야 참, 너희들은 라침판을 찾으러 가보지 못했지?》 하고 와씰리 이와노위츠는 물었다.

《그건 다 뻬찌까때문이야요.》 하고 와시까가 대답하였다. 《뻬찌까가 처음엔 나보구 같이 가자구 자꾸 조르더니… 정작 내가 가자고 하니까 이번에는 안가겠다고 고집을 써요. 두번이나 내가 가자구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가고말았죠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뻬찌까가 라침판을 찾으러 가겠다고 열심히 말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와씰리 이와노위츠는 이상스럽게 생각하였다. 어리둥절하여 잠자코있던 뻬찌까는 어떻게 대답해야 묘하게 빠져나갈수 있을는지 알지 못했다. 바로 이때 짐을 실은 말 한마리가 나무에 맨 고삐를 풀고 오솔길로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말이 알레쉬노로 달아나버릴가봐 겁이 나서 모두 말을 잡으려 뛰여갔다.

뻬찌까는 채찍에 얻어맞은것처럼 곧 말을 쫓아 덤불을 뚫고 젖은 풀밭으로 부리나케 내달렸다. 그의 몸은 물에 흠뻑 젖고 샤쯔자락이 찢어졌다.

그는 오솔길로 질러가서 말고삐를 거머쥐였다. 그리고 헐떡거리면서 뒤쫓아오는 와씰리 이와노위츠에게 고집센 말을 잠자코 넘겨주었다.

가쁘게 숨쉬는 뻬찌까의 두눈은 반짝거렸다. 먼길을 떠나는 이 좋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친절하게 도와줄수 있었다는것이 퍽 자랑스러웠고 행복스러웠던 모양이였다.

12

새집은 아직 채 다되지 못하였다. 방금 마루를 다 깔고 문들을 달기 시작하였는데 예비철도선은 벌써 발이랑을 허물어뜨리고 깔렸으며 낡은 감시막집의 벽과 맞닿았다.

《여보!》 하고 아버지는 말하였다.《오늘 이사갑시다. 우리가 들고서도 문이나 창문쯤은 달수 있으니까. 보는바와 같이 이 집엔 더 있을수 없소.》

그리하여 보따리를 묶고 궤짝과 이불과 화로와 부저가락을 밖에 내다가 마차에 실었다. 염소의 고삐끝을 마차뒤에 잡아매고 새집으로 떠났다. 아버지는 말고삐를 잡았다. 와시까는 석유등잔과 깨지기 쉬운 등잔갓을 들었다. 어머니는 꽃이 핀 화분 두개를 조심스럽게 껴안았다.

떠나기전에 모두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보았다.

벌써 로동자들이 거무틱틱한 낡은 철도감시막건물을 둘러섰다. 한 로동자는 도끼로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며 녹쓴 못을 뽑는 소리가 삑빽삑빽 났다.

처음에 뜯기운 널판자가 덜커덩 하고 땅에 떨어졌다.

《불이나 난것 같군요.》 어머니는 머리를 돌려 돌아다보더니 곧 고개를 수그리며 말했다. 《불은 없는데 꼭 불난 집같군요.》

얼마후 알레쉬노에서 페지까와 꼴리까, 알레쉬까와 또 야시까와 슈르까라는 낯선 두 아이가 몰려왔다.

그들은 넓은 빈터에 가서 엑스까와또르를 구경하고 땅에 통나무말뚝을 박고있는 뚝으로 뛰여갔다.

그다음 미역감으러 떠났다.

강물은 뜨뜻하였다. 그들은 헤염을 치기도 하고 서로 물을 끼얹기도 하면서 철벅거렸다. 페지까가 물밑으로 자맥질하여 들어가서 슈르까의 발을 붙잡았다.

질겁한 슈르까가 죽는 소리를 지르며 버둥거리는 꼴을 보고 모두들 깔깔대며 웃었다. 이렇게 한참 놀다가 아이들은 강가에 딩굴면서 지나간 일과 새로 알게 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

였다.
《와시까.》하고 페지까는 주근깨가 점점이 있는 둥근 얼굴에 내리쪼이는 해빛을 손으로 가리우면서 누운채로 물었다. 《삐오네르란게 뭐야? 그들은 무엇하려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언제나 함께 다니니? 우리 아버지가 한번은 책을 읽어주던데 삐오네르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남을 욕하지도 때리지도 않고 또 아무 나쁜짓도 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삐오네르들은 하느님같은 애들인가?》
《웬걸… 하느님같을게 뭐야?》하고 와시까는 부정하고나서 말하였다. 《내가 지난해에 우리 삼촌네 집엘 갔댔어. 그 집엔 보리까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삐오네르야. 그런데 그 아이는 두번이나 내 목덜미를 쥐박더라. 난 아픈걸 겨우 참았다. 너는 삐오네르들이 남을 때리지 않는다지만 꼭 그렇지도 않더라. 우리와 별다름없는 소년소녀들이야. 그들이 크면 공청원이 되고 다음엔 붉은군대에 들어간대. 나도 크면 붉은군대에 들어갈테야. 총을 메고 지키겠어.》
《누굴 지킨단말이야?》페지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듯이 말하였다.
《누구를 지키느냐구? 모든 사람들을 지키지! 지키지 않으면 백파놈들이 몰려와 우리 나라를 죽탕을 만들거란말야. 백파놈들이 어떤것인지 이완 미하일로위츠한테서 난 이야길 들었어. 백파군이란 짜리들과 장사군들과 부농들이야.》
《그러면 다닐라 예고로위츠도 그런 사람일가?》 잠자코 듣고만 있던 알레쉬까가 물었다. 《그 사람은 부농이니까 백파놈이란말이지?》
《그 사람한텐 총이 없어.》
와시까는 좀 생각하다가 대답하였다.
《그 사람한텐 총이 없고 헌 지팽이를 짚고 다니니까 어떨가?》
《그 사람에게 총만 있으면 백파야?》
알레쉬까는 지지 않았다.
《누가 그 사람한테 총을 팔아줄것 같애? 총이나 기관총을 아무에게나 다 팔아주는줄 아니?》
《우리에게도 팔아주지 않을거야.》 알레쉬까가 동의하였다.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들에겐 팔지 않지만 다닐라 예고로위츠는 나이가 많으니까 다르거든. 두고보자. 학교가 생기면 우리도 배워서 다 알게 되겠지.》

《학교가 정말 생길가? 》하고 페지까는 의심하였다.

《생기구말구.》 와시까는 자신있게 말했다.《너희들, 이번 주일안으로 또 놀러와. 우리들이 여럿이 함께 기사장을 찾아가서 학교를 지어달라고 부탁해보자꾸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부탁하겠니?》하며 알레쉬까가 목을 옴츠렸다.

《부끄럽긴 뭐가 부끄럽단말이야. 혼자 가면 부끄럽지. 〈이게 웬 아이야!〉할게거든. 그러나 여럿이 가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난 혼자서라도 찾아가서 부탁하겠어! 무서워할게 있니? 누가 때리길 하겠니, 욕을 하겠니?》

알레쉬노의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와시까는 그들을 바래다주기로 작정하였다.

오솔길에 나선 그들은 거기 서있는 뻬찌까를 보았다. 그는 아마 거기서 아이들한테로 갈가말가 하고 아까부터 망설이고있던 모양이였다.

《뻬찌까야, 우리하고 같이 가자.》

와시까는 돌아올 때 혼자 오기 싫어서 이렇게 말하였다.《뻬찌까야, 가자. 넌 왜 쓸쓸해하는것 같구나.》

뻬찌까는 해를 쳐다보았다. 아직 해는 높이 떠있었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동의하였다.

그들이 둘이서 돌아오던 길에 다닐라 예고로위츠네 집가까이 서있는 큰 떡갈나무밑에서 빠쉬까와 마쉬까를 보았다.

《저 애들한테 가자.》와시까가 말했다.《앉아서 쉬다 가자. 저 애들을 좀 놀려주자꾸나. 가자, 뻬찌까야! 너는 왜 그렇게 잠자코만 있니? 천천히 가도 집엔 저물기전에 넉넉히 갈수 있어.》

그들은 아이들뒤로 가만가만 다가가서 땅에 손을 짚고 네발걸음을 치며 으르릉—으르릉— 성난 개짖는 소리를 내였다.

빠쉬까와 마쉬까는 펄쩍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맞잡고 뺑소니치려 했다.

그러나 와시까와 뻬찌까는 쫓아가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하다니!》빠쉬까는 짧고 가느스름한 눈섭을 찡그리면서 나무랬다.

《난 혼났네!》마쉬까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을 씻으면서 말했다.

《무엇이 그러는줄 알았니?》와시까는 자기의 롱이 성공한것을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난 승냥인줄 알았어.》빠쉬까가 대답하였다.

《난 또 곰인줄 알았어.》마쉬까가 보태여 말했다. 그리고 방긋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도토리 한줌을 내밀었다.

《우리에게 그런것이 무슨 소용있겠니?》하고 와시까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너희들이나 가지고 놀아라. 다 큰 우리가 아무렴 그런 놀이감을 가지고 놀겠니?》

《가지고 놀기 재미있어.》마쉬까가 대답하였다.

마쉬까는 도토리가 왜 와시까의 놀이감이 못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방긋방긋 웃었다.

《너의 할머니는 요즘도 욕만 하시니?》와시까가 물었다. 그리고 갑자기 사정없이 불쑥 내쏘았다. 《너희들은 그래도 싸. 너의 아버지는 협잡군이니까.》

《와시까, 그런 말은 말어!》뻬찌까가 옆에서 귀띔했다. 《어린 아이를 보고 뭘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면 어쨌단말이야?》와시까는 또 심술궂게 말했다. 《협잡군이니까 협잡군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빠쉬까야, 너의 아버진 협잡군이지?》

《와시까, 그만둬!》뻬찌까가 빌다싶이 말렸다.

와시까의 쏘아붙이는듯한 말투에 빠쉬까와 마쉬까는 잠자코 눈들을 마주쳤다.

《협잡군이야.》빠쉬까는 나직한 목소리로 순순히 대답하였다.

《협잡군이야.》마쉬까는 되풀이하고 부드럽게 빙긋 웃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마음좋은 협잡군이였어. 할머니는 욕만 하니 좋지 않지만 아버지는 참 좋았어.… 그런데 우리 아버진 어디론가 멀리멀리 가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마쉬까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그 애는 한숨을 푹 쉬였다. 그의 커다란 푸른 두눈엔 슬픔이 어리고 눈물이 글썽하였

다. 조그마한 주먹이 맥없이 풀리더니 큰 도토리알 두개가 부드러운 풀우에 소리없이 떨어졌다.

이때 쿨쩍쿨쩍 소리를 죽여가며 우는 소리가 와시까의 등뒤에서 들렸다.

와시까는 홱 뒤돌아보았다. 빼찌까가 물기많은 향기로운 풀속에 머리를 박고 여윈 어깨를 들먹거리며 북받쳐오르는 울음을 참으며 조용히 울고있었다.

13

아이들이 그처럼 자주 꿈꾸며 그리워하던 먼 나라들은 더욱더 거리를 좁히면서 이름없는 제216호 간이역으로 다가왔다.

큰 역과 큰 공장들과 큰 건물들이 있는 먼 나라들이 지금은 어딘지 모르나 퍽 가까운 곳까지 와있는것 같았다.

급행렬차는 여전히 이곳을 지나가버렸지만 42호려객차와 24호우편렬차는 이 간이역에서도 멎었다가 떠나군하였다.

공장을 짓는 터에는 여기저기 구뎅이들만 파있고 아직은 아무것도 올려짓고있는것을 볼수 없었지만 수백명의 로동자들이 분주히 일손을 다그치고있었으며 엑스까와또르라는 흙파는기계가 길들인 괴물처럼 쇠아가리로 흙을 물고 와랑와랑 소리를 내면서 기여다녔다.

비행기가 사진을 찍으려고 또다시 날아왔다. 새로운 림시건물들과 창고들과 수리소들이 매일같이 늘어났다. 이동영화차와 목욕차와 도서실차가 왔다.

라지오확성기들에서 방송이 울려나오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총을 멘 붉은군대병사들이 와서 아무말없이 초소들을 차지하고 섰다.

이완 미하일로위츠를 찾아가던 길에 와시까는 얼마전에 자기네 낡은 감시막집이 서있던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아직 남아있는 철도건늠길기둥을 보고서야 집터를 짐작하고 그리로 다가갔다.

그는 철길을 바라보면서 이 번쩍이는 철길이 깔려있는 자리가 바로 가족들과 고양이가 함께 올라가 눕군하던 따뜻한 뻬치까자리이

구나, 내 침대를 도로 이전 그 자리에 가져다놓는다면 철길우에 열십자가 그려지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주위를 휘 돌아보았다. 구식전철기관차가 칙칙거리면서 와시까네 밭으로 화차들을 끌고 기여왔다.

오이를 심었던 밭이랑은 자취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고지식한 감자는 철길로반의 모래를 뚫고, 지어 날카롭게 모난 자갈틈으로 먼지투성이가 된 새파란 잎을 고집세게 여기저기 내밀고있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면서 아침마다 텅 비고 조용하던 지난해 여름철을 회상하였다. 그때는 게사니들이 우짖는 소리며 말뚝에 매인 염소가 방울을 달랑거리는 소리며 우물가에서 물긷는 할머니가 물통을 덜거덩거리는 소리나 들렸을뿐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찌히강변에 통나무말뚝을 박는 무거운 쇠메소리가 쿵쿵 울렸다. 레루를 부리우는 소리, 철공소의 마치소리, 돌을 다루는 기계들의 기관총을 쏘아대듯 끊임없이 퉁탕거리는 소리가 대기를 뒤흔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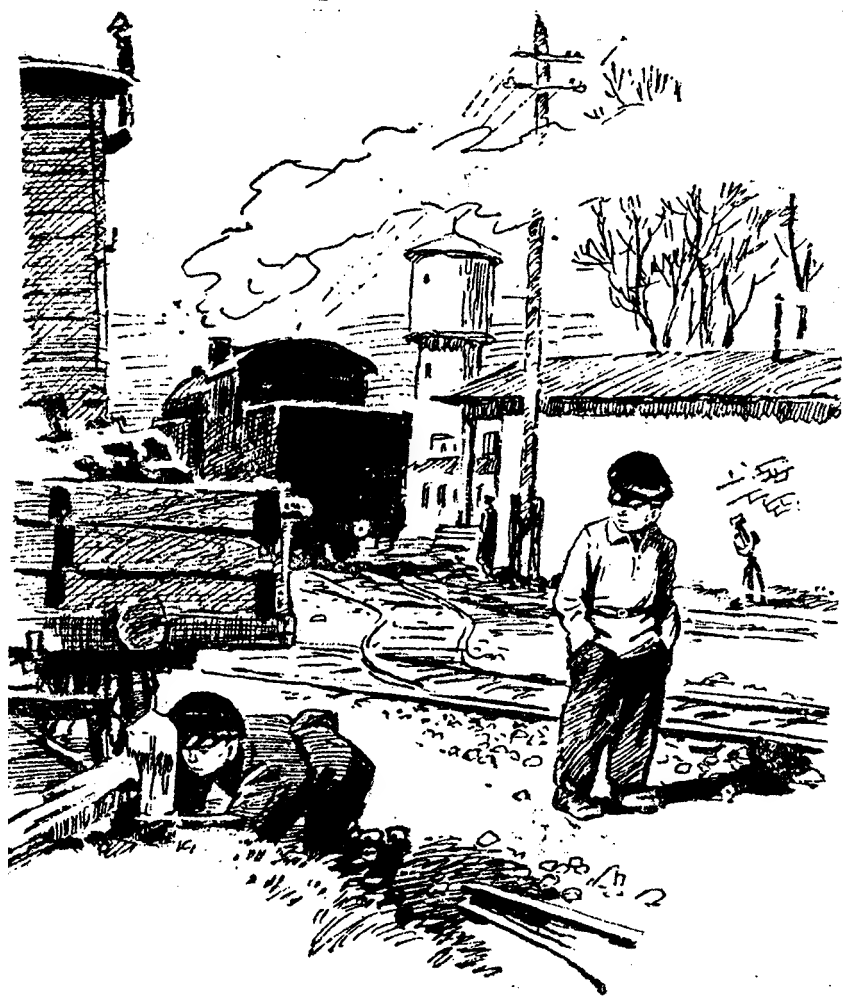
와시까는 화차밑으로 기여나가다가 쎄료즈까와 얼굴을 마주쳤다.

쎄료즈까는 풀묻은 손에 타래송곳을 쥐고있었다. 그는 꾸부정하고 기름이 밴 밤빛 모래가 깔린 풀속에서 무엇을 찾고있었다.

안타까움과 근심이 어린 그의 얼굴표정으로 보아 그는 아까부터 무엇을 찾고있었던 모양이였다.

풀우를 훑어보고있던 와시까는 쎄료즈까가 잃어버린 물건이 언뜻 눈에 띄였다. 그가 찾고있은것은 타래송곳에 끼우는 송곳날이였다. 그 송곳날은 와시까가 서있는쪽의 침목뒤에 있었기때문에 쎄료즈까의 눈에는 띄지 않았던것이다.

쎄료즈까는 와시까를 힐끗 쳐다보고는 또다시 허리를 굽히고 찾기 시작했다.

이때 만일 쎄료즈까의 눈길에 싸움이라도 걸려하거나 얄미워하거나 비웃는듯한 빛이 조금이라도 어려있었다면 와시까는 쎄료즈까가 밤새껏 찾으라고 내버려두고 그냥 지나가고말았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쎄료즈까의 얼굴에서 그런 빛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일하는데 꼭 필요한 공구가 없어져서 안타까와하는 사람의 얼굴과 별다름없었다.

《거겐 아무리 찾아도 쓸데없어.》와시까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새여나왔다. 《침목뒤에 있는걸 모래속에서 찾다니.》

그는 쎄료즈까에게 송곳날을 집어주었다.

《그놈이 어떻게 거기까지 튀여갔을가?》하고 쎄료즈까는 놀랬다. 《내가 뛰여가는데 그놈이 쏙 빠져서 그리로 날아났댔구나.》

그들은 저도 모르게 싱글싱글 웃으며 서로 즐겁게 말을 주고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두 아이는 이전부터 끊임없는 싸움만 하여오던 사이였다는것이 얼른 생각나서 상을 찡그리고 서로 주의깊이 마주보았다.

쎄료즈까는 와시까보다 나이가 한살 우이고 키도 좀 크고 몸집이 가늘었다. 홍당무우빛 머리칼이며 장난이 심해보이는 회색눈이며 후리후리한 키며 그 생김새가 날쌔고 조련치 않게 보였다.

와시까는 쎄료즈까보다 어깨가 좀 넓고 앙바틈하게 생겼다. 아마 힘도 더 셀는지 모른다. 와시까는 싸우지 않고 그냥 헤여지려면 헤여지고 매를 더 맞을지언정 해볼테면 해보리라 마음먹고 머리를 조금 숙이고 서있었다.

《얘들아!》지붕없는 화물차우에서 기계수리소 직공장이 그들에게 웨쳤다. 《이리 와서 좀 도와주렴.》

맞붙어 싸운다는것은 직공장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였기때문에 그들은 더 다른 생각을 해볼 겨를도 없이 부르쥐였던 주먹을 펴고 화차우에 닁큼 기여올랐다.

거기에는 쇠돌보가 잘못 떨어지는바람에 마사진 상자가 두개 있었다. 화차우에는 그 상자에서 쏟아진 작은 나사, 큰 나사, 짧은 나사, 긴 나사, 가는 나사, 굵은 나사들이 콩알처럼 흩어져있었다.

아이들은 가마니 여섯개를(한 아이가 세개씩) 받았다. 그 가마니에 나사들을 같은것끼리 골라담으라는것이였다.

첫째 가마니에는 기계에 쓰는 나사들을 넣어야 하고 둘째 가마니에는 가스관을 잇는데 쓰는 나사들을 넣어야 하고 셋째 가마니에는 통나무를 잇는데 쓰는 긴 나사들을 넣어야 했다.

싸움은 미처 붙지 못했지만 일솜씨에서 상대편보다 앞서겠다는 욕심과 경쟁심으로 하여 부리나케 손을 놀렸다.

그들이 일하고있는동안 사람들은 그 화차를 밀어서 다른 철길에 옮기여 다른 렬차에 맞붙여놓았다.
모든것이 퍽 즐거웠다. 렬차련결원인 쎄묜이 다른 철길에 옮겨야 할 화차우에 웬 아이들이 장난하러 올라가있는줄 알고 몽둥이를 휘둘러 그들을 쫓아버리려 하다가 아이들이 거기서 일하고있는것을 보고는 혼자 입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화차발판아래로 뛰여내렸을 때 아이들은 더욱 즐거웠다.
일을 다한 그들은 직공장을 찾아가서 일을 끝마쳤다고 말하였다. 직공장은 아이들이 일을 너무나 빨리 끝냈기에 아이들은 나사를 골라넣지 않고 필경 되는대로 가마니에 걷어넣었을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아이들이 맡겨진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여 서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힘껏 일한줄은 몰랐던것이다.
직공장은 짐군이 가져온 가마니들을 열어보고 나사들이 자기가 일러준대로 정성껏 잘 골라져있는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그는 아이들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할만한 일을 하여 도와주거나 일을 배우려 기계수리소에 와도 좋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매우 만족하여 사이좋은 옛친구들처럼 그러나 제각기 당당한 자존심을 가지고 어깨나란히 집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조금만 비위를 거슬리면 싸움의 불꽃이 대뜸 큰 불길로 타번질수 있었다. 와시까가 쎄료즈까에게 라침판을 훔쳤는가고 물었을 때 그러하였다.
쎄료즈까는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움켜쥐였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는 웃음이 어려있었다.
《라침판말이야?》 그는 억울하게 매를 맞은 후부터 품고있던 분한 마음을 숨길래야 숨길수 없어 이렇게 물었다.
《그야 너희들이 더 잘 알겠지. 너희들 주머니나 잘 들춰보렴.…》
그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꾹 참고 말없이 얼굴을 찡그렸다.
이렇게 그들은 몇발자국 옮겨놓았다.
《그럼, 넌 우리 살통도 안가졌다고 말할테야?》 와시까는 쎄료즈까를 곁눈질해보며 물었다.
《안가져갔다.》 쎄료즈까는 딱 잘라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얼굴에 여느때와 마찬가지의 능청스런 표정이 어렸다.

《안가져갔다구?》 와시까는 성을 냈다.《우리가 물밑을 다 뒤져봤지만 나오지 않던데. 그럼, 그게 어디로 갔단말이야?》

《찾을줄 모르니까 그렇지. 좀더 잘 찾아보렴.》쎄료즈까는 한바탕 큰소리로 웃고나서 웬일인지 어색할만큼 친절하게 와시까에게 일러주었다. 《어서 가봐라. 살통속에 물고기가 가득 들었을거야. 물고기들은 잡아안가서 하품만 하고있을지도 몰라!》

이튿날 이른 아침에 와시까는 갈구리를 가지고 강으로 갔다. 그러나 어쩐지 쎄료즈까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세번이나 갈구리를 던졌는데 그때마다 허탕을 쳤다. 네번만에야 노끈이 팽팽하게 켕겼다.

(정말 그 애가 살통을 훔쳐가지 않았댔나?) 와시까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구리에 걸린것을 바삐 잡아당겼다. (응, 정말 훔쳐가지 않았구나.… 야, 이놈이 이제야 나오는구나.… 참, 우리는… 바보야!)

무거운 살통이 물우에 나타났다. 살통안에서 무엇이 이리저리 엎치락잦히락하며 출렁거리는것을 본 와시까의 머리에는 희망이 무지개처럼 비꼈다. 모래와 흙탕투성이가 된 살통이 강가에 나와 넘어졌다.

와시까는 무엇이 그렇게 많이 잡혔을가 하고 빨리 다가갔다.

살통아가리를 열고 스무마리에 가까운 죽은 개구리를 땅우에 털어낸 와시까는 놀라고 실망하였다.

(이런 망할놈들이 어떻게 잔뜩 기여들었을가?) 와시까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개구리가 한마리쯤은 잘못해서 들어갈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두마리도 들어간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붕어새끼 한마리, 가물치새끼 한마리 안잡혔구나. 제길 사람을 놀리는셈인가. 개구리만 잔뜩 잡히고…)

그는 살통을 물속에 도로 처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라침판을 훔친건 쎄료즈까가 아닐는지도 모르지만 개구리가 가득찬 살통은 그전부터 그 자리에 있은것이 아니라 엊저녁에 갖다놓은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며 몹시 의심하였다.

와시까는 창고에서 쇠줄묶음을 들고 기계수리소로 달려가고있었다. 이때 어머니가 창문밖을 내다보면서 그를 불렀다.

그러나 와시까는 머리를 흔들며 더 빨리 뛰여갔다.

어머니는 와시까에게 집에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혼내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큰소리로 야단쳤다. 《꼬집어주겠다.》, 《때려주겠다.》, 《귀바퀴를 비틀어놓겠다.》 하는 어머니의 욕이 와시까의 귀전에서 울렸다. 그러나 와시까는 어머니가 된욕을 하여도 그대로 실천에 옮기리라고 믿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사실 그는 지금 짬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뛰여가려고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웬 흰 종이장을 내두르면서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와시까의 눈은 먼데도 잘 보기때문에 그는 이 흰종이가 방금 받은 편지라는것을 대뜸 알아차렸다. 편지라면 어느 먼 고장에 가서 철공일을 하는 빠웰형님한데서밖에 올데가 없었다.

와시까는 빠웰형님을 매우 좋아했으며 그가 휴가를 받고 돌아올 때를 몹시 기다리고있었다. 편지는 사태를 전변시켰다. 호기심이 난 와시까는 쇠줄묶음을 울타리에 걸어놓고 어머니때문에 제가 수고를 하게 된것을 알아달라는것처럼 이마살을 찌프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와시까야, 이걸 좀 읽어다오.》 와시까가 정말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욕을 해도 쓸데없다는것을 알고있는 어머니는 약은 올랐으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부탁하였다.

《어머니는 일하는 사람을 괜히 불러다가 무얼 읽어라, 읽어라 해요!》 와시까는 툴툴거리면서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어머니가 읽어보지요? 내가 이완 미하일로위츠한테 글배우러 다닐 땐 어딜 그리 돌아다니느냐고 욕만 하더니 이젠 읽어라, 읽어라 하고 성가시게 구네.》

《와시까야, 내가 언제 글배우러 간다구 욕하더냐?》 어머니는 미안한듯이 변명하였다. 《네가 공부하러 갔다가 흙탕투성이가 돼서 돌아오기에 욕했지. …》

와시까는 편지를 책상우에 놓더니 국자를 들고 물을 마시고와서야 저녁때까지 그냥 앉아있으려는것처럼 책상을 마주하여 편안히 앉았다.

어머니는 그가 이렇게 길게 차비하는것을 보자 마침내 성급히 소리질렀다. 《애야, 어서 읽어라!》

《곧 읽을테니 해빛을 가리우지 말고 좀 비키세요.》
빠웰형은 간이역마을에 공장이 서게 되므로 철공이 필요하다는 소문을 들은 모양이였다.
그는 자기네 건설공사가 다 끝났으므로 고향에 돌아오겠다는것이였다. 그리고 겨울전에는 공장사택이 마련될것이니 어머니가 이웃의 다리야 예고로브나아주머니에게 말하여 여름 한철만이라도 저희네 부부가 살 방 한칸을 빌리도록 부탁해보라고 하였다. 와시까도 어머니도 이 소식을 받고 매우 기뻐하였다.
어머니는 온 가족이 한데 모여산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언제나 바랬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간이역마을에는 일자리가 없었으므로 그것은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리고 빠웰형은 얼마전에 색시감을 얻었다고 하였으므로 집안식구들은 그가 어떤 녀자일가 하고 무척 보고싶어했다. 다리야 예고로브나에게 부탁해보라는 말만은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또 뭐라고 씌여있니!》 그는 와시까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다싶이 나꾸채여 글을 읽을줄 모르면서도 귀중한 글자들의 획과 점들을 들여다보면서 흥분하여 말하였다. 《그럼, 우리가 다리야 예고로브나네보다 못산단말이냐?… 지금은 우리가 단칸집에서 살지 않아. 방이 둘이나 있고 현관방도 있고 부엌간도 따로 있는데, 한방엔 우리들이 살고 다른 방엔 빠웰네가 들면 되지 않니. 우리들에게 방이 둘씩이나 있어서 뭘 하겠니?》
어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으며 오래지 않아 그와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무척 기뻤다.
어머니는 행복에 겨워 자기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낡은 감시막을 허문다고 아까와했으며 새집을 타박했으며 마스고 허물고 새로 짓는 일을 꾸며낸 사람들을 나무라던 일을 지금은 깡그리 잊어버리고말았다.

14

요즘 와시까와 뻬찌까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뻬찌까는 이전과는 달리 와시까를 서먹서먹하게 대하였다.

그는 같이 놀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고 말을 안하는가 하면 어떤 날은 하루종일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집마당에서 누이동생 엘렌까하고만 놀군하였다.

어느날 와시까는 목공소에서 쎄료즈까와 함께 망치에 자루를 끼우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점심전에 미역을 감고싶은 생각이 났다.

그는 오솔길로 가다가 거기서 뻬찌까를 보았다. 뻬찌까는 누가 자기를 볼가봐 겁이 나는지 자주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걸어갔다.

그래서 와시까는 이 얼빠진 이상한 녀석이 어디로 이렇게 몰래 가는지 그의 뒤를 밟아보기로 작정하였다.

무더운 바람이 불었다. 숲은 설레였다. 그러나 와시까는 발자국소리가 날가봐 두려워서 오솔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하여 뻬찌까의 뒤를 바싹 따랐다.

뻬찌까의 걸음걸이는 고르지 않았다.

그는 무엇을 결심한듯이 때로는 뛰기 시작하여 한참 달음질치기도 하였다. 그때문에 와시까는 앞을 가로막는 덤불과 나무들사이를 뚫고 간신히 그의 뒤를 쫓아갔다. 뻬찌까는 또한 이따금 멈춰서서 근심스러이 뒤를 돌아보다가는 마치 더 걸어갈 맥도 더 가고싶은 생각도 없지만 뒤에서 누가 쫓아오기때문에 마지못해 가는것처럼 천천히 걷기도 하였다.

(도대체 이 녀석이 어디로 갈 작정인가?) 뻬찌까의 흥분한 모습을 보고 와시까는 자기도 흥분되여 이렇게 생각하였다.

갑자기 뻬찌까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한참 서있었다. 그의 두눈에는 구슬같은 눈물이 반짝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그는 맥이 풀린듯이 고개를 숙이고 시적시적 되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겨우 몇걸음을 떼였다가 다시 서서 머리를

흔들더니 숲속으로 들어서서 와시까가 있는쪽으로 곧장 달려왔다.
이럴줄 몰랐던 와시까는 깜짝 놀라 덤불뒤로 닁큼 물러섰다.
그러나 벌써 때는 늦었다. 삐찌까는 와시까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숲이 흔들리면서 버스럭거리는 소리는 들었다. 그는 으악소리를 치고 오솔길쪽으로 허겁지겁 달아났다.
와시까가 오솔길에 나와보니 거기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벌써 저녁때가 다 되였고 바람이 이따금 급작스레 불어오군하였으나 무척 더웠다. 하늘엔 매지구름들이 떠다녔다. 그러나 이 구름장들은 소나기구름으로 한데 모이지 않았으며 태양을 가리우지도 않고 스치지도 않으며 하나씩 떠갔다.
아리숭하고 뒤숭숭한 불안감이 점점 더 와시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삐찌까가 그처럼 무서워하던 그 불안스럽게 설레는 숲이 와시까에게도 갑자기 낯설고 싫은 숲같이 생각되였다.
그는 걸음을 다그쳐 잠시후 찌히강변에 이르렀다.
매끈한 모래터는 강가의 무성한 버들숲속에 있었다. 와시까는 늘 여기서 미역을 감았다. 이곳은 물결이 잔잔하였으며 밑바닥도 고르고 딴딴하였다.
그러나 강가에 다가간 와시까는 물이 불고 흐려있는것을 보았다. 강물은 거품을 일구면서 무섭게 소용돌이치고있었다. 방금 깎아낸 나무쪼각들과 널쪼각이며 토막나무들이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헤여지기도 하며 소리없이 엎어졌다 젖혀졌다 하면서 떠돌았다.
아래쪽 제방쌓는 공사장에서 동을 막기 시작한 모양이였다.
그는 옷을 벗었다. 그러나 이전처럼 단번에 물속에 뛰여들지 않았으며 하얗게 번쩍이는 날치떼들이 놀라 달아나게 물속에서 즐겁게 첨벙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한손으로 나무가지를 잡고 지금은 잘 알수없게 된 물밑을 더듬으면서 조심스레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몇번 물속에 몸을 잠갔다가 나와서 그만 집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었다.
집에 오니 쓸쓸하였다. 그는 밥도 조금 먹고 실수하여 국자의 물을 흘리고는 제풀에 성을 내며 말없이 밥상에서 물러났다.
그는 쎄료즈까를 찾아갔으나 그도 역시 송곳에 찔린 손가락에 방금 빨간약을 바른 뒤여서 얼굴을 잔뜩 찌프리고있었다.

와시까는 이완 미하일로위츠한테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그래 그는 집에 돌아와서 일찌기 자고 아침 일찌기 일어나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여름이 생각났다. 오늘 하루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고 실패만 거듭한때문인지 그는 지난해 여름이 정다왔다.
와시까는 요즘 굴착기가 파헤친 숲속의 풀밭이며 그렇게 맑고 깨끗하던 찌히강물이며 함께 즐겁게 장난치면서 사이좋게 놀던 뻬찌까가 갑자기 그리워졌다.
헌 감시막집을 허문 다음부터 어쩐지 우울해지고 슬퍼하다가 간이역마을에서 어디론지 가버린 누런 고양이 이완 이와노위츠까지도, 무거운 마치소리에 놀라 어디론지 날아가버린 소쩍새까지도 새삼스럽게 그리워졌다.
밤마다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를 들으며 건초더미우에서 잠들면 언제나 즐거운 꿈을 꾸던 와시까였다.
이런 생각들에 잠기면서 그는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다. 잠이 스르르 왔다. 그는 여태 꾸어보지 못한 꿈을 꾸었다. 검은 구름들사이로 그 구름과 비슷하게 생긴 날카로운 이발을 가진 커다란 금빛붕어가 헤염쳐갔다. 붕어는 와시까의 살통을 향하여 곧장 헤염쳐왔다. 와시까는 깜짝 놀라 웨쳤다.
《얘들아!… 얘들아!… 빨리 큰 그물을 가져와, 붕어가 살통을 찢고 도망치겠어.》
이 소리에 아이들은 대답했다.
《가져가겠어, 곧 가져가겠어, 종을 치고 가져가겠어.》
그리하여 그들은 땡!… 땡!… 땡!… 종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요란스레 종을 치는동안 산너머 저편 알레쉬노의 하늘로 불길과 연기가 기둥처럼 솟아올라갔다. 사람들은 떠들썩하며 소리치기 시작하였다.
《불이다! 불이야! 아주 큰불이 났어!》
이때 어머니가 와시까를 불렀다.
《와시까야, 일어나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쨍쨍하고 퉁명스러웠다. 그래 와시까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눈을 떴으나 캄캄하였다. 어디선지 멀리서 종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거라, 와시까야.》 어머니는 재촉하였다. 《어서 다락에 올라가 바라보아라. 알레쉬노에서 불이 난가보다.》
와시까는 재빨리 바지를 입고 가파론 사닥다리를 타고 다락으로 기여올라갔다. 그는 어둠속에서 울퉁불퉁 내민 들보들에 걸려서 비틀거리며 창문으로 가서 머리를 내밀고 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캄캄한 밤이였다. 공장건설장과 창고들에는 어슴푸레한 등불이 켜있으며 철도선좌우켠에는 신호주의 붉은 신호등불이 환하게 비치고있었다. 앞쪽에는 찌히강물이 희미하게 바라보였다.
그러나 강건너편 어둠속에서는 수풀만 설레일뿐 알레쉬노부락쪽에는 타오르는 불길도 바람에 날리는 불꽃도 불빛이 빨갛게 비치는 연기도 보이지 않았다. 거기는 먹을 풀어놓은듯한 새까만 어둠이 가로놓여있었으며 교회당의 종소리만 땡강땡강 들려왔다.

15

깨끗하고 향기로운 마른 풀더미가 쌓여있다. 지친 뻬찌까는 오솔길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늘진쪽에 몸을 가리우고 누워있었다.
그는 꼼짝않고 누워있었다. 조심스러운 커다란 까마귀가 사람이 누워있는줄 모르고 풀더미에 꽂혀있는 장대우에 날아와 앉았다.
까마귀는 주둥이로 번쩍거리는 튼튼한 날개를 다듬으며 태연히 앉아있었다.
뻬찌까는 이럴 때 총을 쏘면 저놈을 면바로 맞힐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이 뜻하지 않은 생각은 그가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었다.
검은 까마귀는 어리둥절하여 머리를 돌리고 아래쪽을 굽어보더니 날개를 펼쳐 장대에서 높은 봇나무로 옮겨앉았다. 그리고 외로이 울고있는 소년을 호기심 가득찬 눈으로 바라보고있었다.

빼찌까는 고개를 쳐들었다. 알레쉬노쪽에서 쎄라핌아저씨가 말고삐를 잡고 오고있었다. 말발통에 징을 갈아박으러 가는것 같았다. 그다음 빼찌까는 오솔길로 해서 집에 돌아가는 와시까를 보았다. 이때 불현듯 빼찌까의 머리에 한가지 짐작이 떠올라 숨이 막히는것 같았다. 오솔길에서 벗어나 숲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와시까가 나를 봤을지 모른다. 와시까는 벌써 다 알고있거나 무슨 눈치를 채지 않았을가? 그렇지 않으면야 그가 내 뒤를 좇아올리가 없지 않는가? 아무리 숨길래야 나중엔 다 알게 되는 법인 모양이군. 그러나 빼찌까는 와시까를 불러다 털어놓고 이야기할대신에 눈물을 깨끗이 닦고나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리라 굳게 속다짐하였다. 알겠으면 알고 말겠으면 말고 될대로 되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서니 빼찌까는 마음이 한결 거뜬해졌다.

빼찌까는 설레이는 알레쉬노의 수풀을 얄미운듯이 바라보다가 격분한듯 침을 탁 뱉고 욕질을 하였다.

《빼찌까야!》 그는 뒤에서 누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엉거주춤 뒤를 돌아다보니 뜻밖에도 이완 미하일로위츠가 서 있었다.

《누가 너를 때리던?》 늙은이는 물었다. 《흥, 그렇지 않다고?… 그럼 누가 욕하던? 그렇지도 않다.… 그럼 너 왜 그렇게 눈이 퉁퉁 부었니?》

《갑갑해서 그래요.》 빼찌까는 뾰로통해서 대답하고 고개를 외로 돌렸다.

《갑갑하다니? 그렇게 즐겁게 잘 놀던 애가 갑자기 갑갑해? 와시까와 쎄료즈까와 다른 아이들을 좀 보려무나. 그 아이들은 늘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있지 않니. 그런데 너는 늘 혼자서 노는구나. 그러니까 갑갑할수밖에 없지. 우리 집에 놀러오너라. 이번 수요일에 우린 모두 메사구잡일 하러 간단다. 넌 가지 않겠니?》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빼찌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물었다.

《넌 어디 아프냐? 어딜 앓는가보구나? 아이들은 그런줄도 모르고 날더러 〈빼찌까는 늘 얼굴을 찡그리고 쓸쓸해해요!〉 하고 불평하

던데…》
《난 이가 아파요.》하고 뻬찌까는 얼른 대답하였다. 《그 아이들이 무얼 아나요.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요. 남은 아파서 그러는데 이상하다고 뒤소리만 해요.》
《내가 혼을 내줘야겠다!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말했다. 《돌아가는 길에 의사한테 가보자. 내가 말하면 네 이발을 단번에 뽑아줄게다.》
《난… 지금은 그다지 아프지 않아요. 어젠 몹시 아팠는데 오늘은 벌써 다 나았어요.》뻬찌까는 잠시 잠자코 있다가 변명하듯 말하였다. 《오늘은 이가 아프지 않고 머리가 아파요.》
《그것 봐라! 그러니까 쓸쓸할수밖에 없지. 의사한테 가자. 물약이나 가루약을 줄게다.》
《난 오늘 머리가 몹시 아팠어요.》
뻬찌까는 이를 뽑고 시큼한 물약과 쓴 가루약을 먹일가봐 겁이 나서 둘러댈 말을 골라가면서 말을 이었다. 《아까는 몹시 아팠어요!… 몹시 아팠어요!… 지금은 벌써 다 나아서 괜찮아요.》
《거 보지. 이도 안아프고 머리도 다 낫고 아주 좋다구.》하고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좀 누렇게 된 흰 수염속에서 소리없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괜찮아요!》하고 뻬찌까는 속으로 한숨을 쉬였다. 《괜찮은데 썩 시원치는 못해요.》
그들은 오솔길을 따라 좀더 와서 거멓게 된 굵은 통나무에 걸터앉아 다리쉼을 하였다.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담배주머니와 담배대를 꺼내였고 뻬찌까는 잠자코 옆에 앉아있었다.
이완 미하일로위츠는 갑자기 뻬찌까가 자기한테로 바싹 다가와서 오른팔소매자락을 붙잡는것을 느꼈다.
《왜 그러니?》로인은 소년의 얼굴이 핼쑥해지고 입술이 떨리는것을 보고 물었다.
뻬찌까는 잠자코 있었다. 웬 사람이 노래를 부르며 비칠거리면서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오고있었다.
그것은 울적한 아무 뜻도 없는 이상한 노래가락이였다. 술취한 사람의 침울한 노래였다.

에ㅡ 헤라! 가는구나 에헤라…
간다 간다 에헤라…
얼씨구 왔구나… 에헤라
에헤라! 에헤라…

이 노래는 뻬찌까가 씨네예호수로 가다가 길을 잃던 날 저녁에 들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노래였다. 그는 로인의 소매자락을 꽉 붙잡고 겁에 질려 숲속을 바라보았다. 나무가지에 부딪치며 몹시 비틀거리면서 예르모라이가 굽이길에서 나타났다. 예르모라이는 걸음을 멈추고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고 어쩔 작정인지 위협하듯 손가락질을 하더니 잠자코 지나갔다.

《몹시 취했군!》이완 미하일로위츠는 뻬찌까를 깜짝 놀라게 한 예르모라이를 나무라면서 말하였다.

《뻬찌까야, 이젠 괜찮다. 술주정뱅이야. 저런 놈들이 우리 마을에 한두사람뿐이냐.》

뻬찌까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눈섭을 찡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떨리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한듯 갑자기 얼굴에 이상한 웃음을 띠였다.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사건을 지금 처음 알게 된듯이 그는 두번 다시 굽힐수 없는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이완 미하일로위츠할아버지,》그는 늙은이의 눈을 곧바로 쳐다보면서 쟁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 예르모라이란놈이 예고르 미하일로브를 죽였어요.…》

밤 열두시가 거의다 되였을무렵 쎄라핌아저씨는 불안스런 소식을 가지고 안장없는 말을 타고 간이역에서 알레쉬노로 달려가고있었다.

그는 길바닥에 뛰여내려 마을의 첫 집창문을 채찍으로 두드리며 이고쉬낀을 부르고나서 위원장네 집으로 빨리 가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다시 말을 몰아가다가는 어느 한 집의 어두운 창문앞에 말을 세우고 동무들을 부르군하였다.

그는 위원장네 집대문을 요란스레 두드렸다. 그는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릴사이도 없이 울타리를 뛰여넘어서 빗장을 벗기고 말을 마당에

끌어들이고는 집안에 뛰여들어갔다. 집안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사람들이 불을 켜고 뛰여나왔다.

《웬일이요?》위원장은 언제나 온순하던 쎄라핌아저씨가 이렇게 허둥지둥 뛰여들어오는것을 보고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이보시오.》 쎄라핌아저씨는 탄알에 맞아서 구멍이 나고 피가 말라서 거멓게 얼룩이 진 격자무늬천의 꾸겨진 모자를 상우에 놓으면서 말하였다. 《이런 변이 어디 있소! 예고르는 도망친것이 아니라 저 숲속에서 암살당했소.》

마당안으로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다. 예고르가 알레쉬노에서 도시로 가던 길이였다. 전우인 이완 미하일로위츠네 집에 들리려고 간이역마을로 통하는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이 사람의 입에서 저 사람의 입으로 전해졌다.

예르모라이는 예고르를 죽인 뒤에 죽은 사람의 모자를 숲속에 떨어뜨렸다. 그후 그는 숲속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모자를 찾아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길을 잃고 그쪽으로 잘못 들어간 뻬찌까소년이 그 모자를 얻었던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모여든 농민들앞에 마치 밝은 불빛이 번쩍 켜진것 같았다. 그때에야 비로소 많은 문제들이 똑똑히 알려졌다. 그 믿음직한 좋은 동무인 예고르 미하일로브가 수치스럽게도 꼴호즈의 돈을 가로채가지고 도망질쳤다는 헛소문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만은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이때 예고르가 도망쳤다는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올적마다 늘 외면하고 가버리군하던 바로 그 절름발이 씨도르가 갈린 목소리로 문가에 앉은 군중들속에서 웨쳤다.

《예르모라이가 뭐요? 총이 누구것이겠소? 뒤에서 작간한 놈들이 있소! 그놈들은 사람을 죽이는데만 그치지 않았소.… 멀쩡한 분을 모독하였소. 그분이 돈을 가지고갈 때 총으로 쏘아죽이고는 도망쳤다.…도적놈이다 하고 소문을 퍼뜨렸소. 그러면 꼴호즈원들이 돈때문에 격분할것이고 망할것이니… 풀밭을 도로 찾아가지자는것이였소. 예르모라이가 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작간이요!》

그러자 저마다 화를 내며 큰소리로 떠들기 시작하였다. 집안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서서 비좁았다. 원한과 분노는 열어젖힌 창

문과 대문밖으로 터져나갔다.
《장본인은 다닐라요!》 누가 소리쳤다.
《그건 그놈들이 한짓이야!》 노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울리였다.
그때 교회당에서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떨리는듯한 종소리는 증오와 통분으로 몸부림치는것만 같았다. 예고르가 애매한 죄를 벗게 된것을 기뻐하는 마음과 놈들에 대한 원한이 뒤섞이여 앞뒤를 분간못한 절름발이 씨도르가 제마음대로 종루에 기여올라가서 미친듯이 종을 두드렸던것이다.
《그냥 치라고 내버려둡시다. 말리지 마시오.》 쎄라핌아저씨가 웨쳤다. 《온 마을사람들이 다 일어나야 할 때는 왔습니다!》
이집저집에서 불이 켜지고 창문들이 열리고 대문들이 여닫기는 소리가 났다. 온 마을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경종을 때리며 야단법석들인지 알려고 광장으로 달려갔다.
이때에 뻬찌까는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모든 일은 다 지나갔다. 그를 못견디게 짓누르던 무거운 멍에는 드디여 벗겨지고말았다. 그동안 그는 몹시 괴로왔다. 다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용감하기도 하고 겁이 많기도 하며 적적하기도 하고 무엇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이따금 하기도 한 뻬찌까는 자기의 조그마한 잘못이 드러날가봐 겁이 나서 큰일을 오래동안 숨겨왔던것이다. 취한 노래소리에 놀라 집으로 달아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땅에 떨어져있는 로동모를 발견했었다. 라침판을 싸쥐였던 제 모자를 풀우에 놓고 로동모를 집어든 그는 그것이 격자무늬천으로 만든 예고르아저씨의 모자인것을 알았다. 그것은 구멍이 뚫리고 피가 말라붙어 어지러웠다. 그는 와들와들 떨다가 로동모를 떨구고 제 모자와 라침판도 잊어버린채 그냥 도망질쳤다.
그는 제 모자를 찾아서 그 얄미운 라침판을 개울이나 진펄에 처넣은 다음에 예고르의 모자를 얻었다고 이야기할 작정으로 여러번 숲속으로 남몰래 들어갔으나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할수 없는 무서움에 사로잡혀 매번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군하였다.
다시말하면 라침판이 들어있는 그의 모자가 총알에 뚫린 로동모옆에 있었기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지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것이다. 그 얄미운 라침판때문에 쎄료즈까가 이미 경을 쳤고, 와

시까에게는 거짓말을 하였고 그리고 삐찌까자신이 예고르아저씨를 도적놈이라고 동무들앞에서 욕한 일이 여러번 있었다.

그런데 자기자신이 바로 도적놈이라는것이 갑자기 드러나게 되면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만해도 무서운 일이였다. 그러면 쎄료즈까한테 경칠것은 뻔한 일이며 아버지한테도 단단히 혼날것은 두말할것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것을 감추고 숨기고 잠자코 혼자서만 걱정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그는 바로 어제저녁에 노래소리를 듣고 그것이 예르모라이이가 부르는 노래며 그가 산속으로 무엇을 찾아다니고있는지 짐작이 갔다. 그래 그는 이완 미하일로위츠에게 사실 그대로를 처음부터 하나도 숨기지 않고 죄다 이야기하였던것이다.

16

이틀후에 공장건설장에서는 경축모임이 열리였다. 이른 아침부터 악대가 왔으며 조금후에는 도시로부터 공장대표들과 삐오네르축하단과 연설할 사람들이 오게 되여있었다.

이날은 공장기본건설의 착공식을 하는 날이였다.

이 행사는 매우 흥미있을것이였다. 그러나 바로 이날에 알레쉬노에서는 피살된 예고르 미하일로브위원장의 장례식이 열릴것이였다. 마을사람들은 어둠침침한 깊은 산골짜기에서 나무가지들을 덮어 감춰놓은 그의 주검을 찾아내였다.

아이들은 어느쪽으로 갈것인가 하고 망설이였다.

《알레쉬노로 가는것이 좋겠어.》하고 와시까가 말했다. 《공장건설은 방금 시작됐으니까. 공장은 언제나 여기 있겠지만 예고르아저씨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니.》

《너는 삐찌까하구 둘이서 알레쉬노에 가렴.》쎄료즈까는 말하였다. 《나는 여기 남아서 구경하겠어. 장례식은 후에 너희들한테서 이야기를 듣지. 나도 착공식이야기를 너희들한테 해줄게.》

《그렇게 하자!》 와시까는 동의하였다. 《우린 혹시 건설장의 모임이 거의 끝날무렵에라도 와볼수 있을지 몰라.… 삐찌까야, 채찍을 들어라! 말을 타고 내달리자.》

어제 낮에 더운 마른바람이 불더니 밤중에 가랑비가 내렸다. 아침은 맑게 개이고 서늘하였다.

해빛이 쨍쨍 쪼이고 그 해빛을 받으며 새 기발들이 펄럭거려서인지 혹은 풀밭에서 음악소리가 울리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공장마당으로 줄달아 모여들어서 그런지 마음은 류달리 즐거웠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장난하며 뛰놀며 웃고싶을 때 느끼던 그런 즐거움이 아니였다. 머나먼 길을 떠나기전에 뒤에 남겨놓고 가는것이 아쉬워지는 마음과 목적지에 가서 만나게 될 새롭고 훌륭한것에 대한 기대로 하여 가슴이 울렁거리게 되는 마음이 뒤섞인 그러한 즐거움이였다.

이날은 예고르아저씨의 장례를 치르는 날이였다. 이날은 알루미니움공장 기본건설의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날이였다. 그리고 바로 이날은 제216호 간이역이 《비행기의 날개》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는 날이였다.

아이들은 발을 맞추어 천천히 오솔길로 뛰여갔다. 조그마한 다리옆에서 그들은 달리던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서부터 오솔길은 좁아지고 좌우켠은 진펄이였다.

저쪽에서 이리로 사람들이 오고있었다. 손에 권총을 쥔 네명의 사람들이 앞뒤에 두명씩 서서 세명의 죄수들을 끌어가고있었다. 그들은 예르모라이와 다닐라 예고로위츠와 벤뚜닌이였다. 익살을 부리며 돌아다니던 부농 자그레빈만이 없었다.

경종이 울리던 그날밤에 먼저 눈치를 챈 그놈은 살림살이를 내버리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말았던것이다.

아이들은 오솔길 한옆에 말없이 비켜서서 죄수들을 증오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뻬찌까! 무서워하지 말아!》와시까는 뻬찌까의 얼굴이 핼쑥해지는것을 보고 속삭였다.

《난 무섭지 않아.》 뻬찌까가 대답하였다.

《너는 내가 이놈들이 무서워서 여태까지 잠자코 있은줄 아니?》죄수들이 옆으로 다 지나가자 그는 말을 덧붙였다. 《난 바보같은 너희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

뻬찌까는 여느때 이런 욕된 소리를 했다가는 와시까한테 한대 주어맞았을것이였다. 그러나 와시까는 그가 자기를 정다운 눈길로 똑바로 쳐다보는바람에 그만 먼저 빙긋 웃으며 《구보로 갓!》하고 구

령을 쳤다.
사람들은 예고르 미하일로브를 공동묘지에 묻지 않고 마을뒤에 있는 높고 가파론 찌히강 언덕우에 안장했다.
거기에 올라서면 밀보리가 무르익는 벌판들과 시내물이 흐르는 넓은 자벨린초원이 한눈에 안겨왔다.
바로 이 초원을 둘러싸고 그처럼 맹렬한 투쟁이 벌어졌던것이다.
온 마을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가하였다. 건설장으로부터 로동자대표들이 조상하러 왔다. 도시에서 추도연설을 할 사람이 왔다.
로파들은 어제저녁에 교회당정원에서 제일 크고 아지가 잘 뻗은 들장미를 캐다가 무덤가까이 그의 머리말에 심어놓았다. 이 나무에는 봄마다 새빨간 꽃들이 수많이 필것이다.
《활짝 피여라!》
아이들은 들꽃을 꺾어서 묵직하고 큼직한 꽃다발을 만들어 소나무판우에 놓았다. 장갑렬차기판사이던 이완 미하일로위츠로인은 벌써 어제저녁부터 이곳에 와서 젊은 화부의 마지막길을 바래주고있었다. 로인의 걸음은 무겁고 두눈은 눈물이 글썽하고 울분이 가득차있었다.
뻬찌까와 와시까는 무덤가까이의 언덕진 곳에 올라서서 추도사를 들었다.
도시에서 온 낯선 사람이 말하였다. 그는 비록 낯선 사람이였지만 마치도 피살된 예고르와 알레쉬노의 농민들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있는듯, 마치도 그들이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죄다 손에 꿰들고있는듯이 말하였다.
그는 5개년계획에 대하여, 무연한 꼴호즈벌판에 나타나게 될 수천수만의 기계와 뜨락또르에 대하여 말하였다.
모두다 그의 말을 열심히 듣고있었다.
와시까와 뻬찌까도 듣고있었다.
그는 억세고 꾸준한 노력이 없이, 굴할줄 모르는 타협없는 투쟁이 없이는 새로운 생활을 꾸릴수도 건설할수도 없다고 말하였으며 투쟁에서는 때로 실패할수도 있고 희생자를 낼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아직 흙을 덮지 않은 희생된 예고르의 무덤우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은 투쟁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건설할수 없다는 그 사람의 말을 정녕 믿었다.

와시까와 뻬찌까도 믿었다.

그리고 비록 여기 알레쉬노에서는 장례식이 거행되고있으나 이웃마을에서는 거대한 공장건물의 착공식이 있으므로 오늘은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연설자의 말이 씩씩하고 힘있게 울리였다.

한편 공장건설장에서는 경축모임이 열리는 즐거운 날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설자는 오늘은 경사로운 날임에 틀림없지만 보통날이나 경축하는 날이나 다 모든 곳에서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간이역에 남은 쎄료즈까는 바라크지붕우에 올라가서 그의 연설을 듣고있었다.

경축모임참가자들은 피살된 이웃 꼴호즈위원장을 추모하여 모두 일어서서 모자를 벗었다. 악사들은 경축모임에서 장송곡을 연주하였다.

알레쉬노에서도 공장에서도 연설자들이 그렇게 말한것은 공장이나 꼴호즈가 다 큰 덩어리의 한부분이기때문이다.

와시까는 언덕우에 서서 뚝에 가로막힌 강물이 뒤설레고있는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이곳 농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있으며, 무엇을 의심하고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것이였던가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있었던것처럼 이야기한 도시에서 온 낯선 연설자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모두가 다 한집안식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벌써 간이역이 아니라 《비행기의 날개》역으로 된 제216호역도, 알레쉬노도, 새로운 공장도 무덤옆에 서있는 이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와시까도 뻬찌까도 모두다 쏘베트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크고 억센 덩어리를 이루는 토막들이였다.

이 단순하고 뚜렷한 생각은 흥분된 와시까의 가슴속깊이에 아로새겨졌다.

《뻬찌까야!》 와시까는 처음으로 느끼는 이 이상하고 알지 못할 흥분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이지 뻬찌까야, 너나 나나 예

고르아저씨처럼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대도 좋겠지?… 우린 죽어도 아쉽지 않아!》

《아쉽지 않아!》 뻬찌까도 와시까와 같은 생각과 기분을 가지고 산울림처럼 되뇌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아직 음악소리와 합창소리가 들려왔다. 경축모임은 지금이 한창이였다.

늘 그러하듯이 급행렬차가 기적을 울리며 우르릉거리면서 산굽이를 돌아 나는듯이 달려갔다.

급행렬차는 머나먼 쏘베트씨비리로 곧장 달음질쳐갔다.

아이들은 기차를 보고 반가이 손을 저으며 낯모를 손님들에게 《안녕히들 가세요.》하고 웨쳤다.

1932년

츄끄와 게끄

씨니예산부근의 숲속에 한 사람이 살고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많이 하였지만 일감은 줄어들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갈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하도 갑갑해진 그는 마침내 상부의 승인을 받아 자기 안해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한테로 놀러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츄끄와 게끄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멀리 떨어진 크나큰 도시에서 살고있었는데 그 도시는 참으로 훌륭한 곳이였습니다.

그 도시의 탑꼭대기에는 낮이나 밤이나 붉은 별들이 반짝이고있었습니다. 두말할것도 없이 그 도시는 모스크바였습니다.

편지를 가지고온 우편통신원이 계단으로 올라가고있을 바로 그때 츄끄와 게끄는 싸움을 하고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그저 엉엉 울어대면서 서로 주먹질을 하고있었습니다.

무엇때문에 그 주먹질이 시작되였던지 나는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기는 츄끄가 게끄의 빈 성냥갑을 가만히 훔쳐냈던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게끄가 츄끄에게서 구두약통을 몰래 가졌던

것 같았습니다.
방금 이 두 형제가 주먹으로 한개씩 서로 쥐여박고 두번째 달라붙으려고 할 때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두 형제는 근심스러운듯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온것이라고 생각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머니는 성격이 이상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싸움을 한데 대하여 책망을 하거나 큰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저 싸움군들을 서로 딴 방에다 갈라넣고 한시간 아니면 두시간쯤 함께 놀지 못하게 할뿐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시간이라는것은 시계가 똑딱똑딱 하고 옹근 60분을 움직이는 동안이며 두시간이라면 그보다도 더 오랜 동안입니다.
두 형제가 얼른 눈물을 훔치고 문을 열려고 달려간 까닭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을 열고보니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편지를 가지고온 우편통신원이였습니다.
그래 두 형제는 큰소리로 웨쳐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구나! 정말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어!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시는거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안락의자에서 껑충껑충 춤을 추고 곤두박질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모스크바가 아무리 훌륭한 도시라 해도 일년내내 아버지가 집에 안계시고보니 그 모스크바에서도 심심해질수밖에 없었던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흥이 났던지 어머니가 들어온줄도 몰랐습니다.
귀여운 두 아들이 안락의자에 벌렁 나가누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우에 걸어놓은 그림들이 흔들거리고 벽시계의 태엽이 쩌렁거릴 정도로 벽을 차대는것을 보았을 때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무엇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가를 알게 된 어머니는 아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털외투를 되는대로 벗어던지고는 머리의 눈을 털 사이도 없이 편지를 받아쥐였는데 머리의 눈이 녹아내리면서 어머니의 진한 눈섭에서 물방울이 불꽃처럼 반짝이였습니다.
다 아는 일이지만 편지에는 반가운것도 있고 슬픈것도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츄끄와 게끄는 어머니가 편지를 읽는동안 어머니의

얼굴만 지켜보고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였습니다. 그래 그들도 얼굴을 찡그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순간 어머니는 방긋 웃는것이였습니다. 그래 그들은 그 편지가 반가운것이리라고 단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오시지 못한대.》하고 어머니는 편지를 놓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모스크바로 보내주질 않는다누나.》

속아넘어간 츄끄와 게끄는 어쩔줄을 모르고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편지는 무슨 사연이 씌여있든지간에 가장 슬픈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대번에 볼이 부어 씨근거리면서 무엇때문인지 생글거리고있는 어머니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오시지 못한대.》하고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신 우리를 모두 아버지한테 놀러오라고 하셨어.》

츄끄와 게끄는 후닥닥 안락의자에서 뛰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참 우스운 사람이야.》하고 어머니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전차라도 타고가면 되는것처럼… 글쎄 놀러오라는구나!》

《꼭 가야 해요.》하고 츄끄가 얼른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오라고 했으면 우리는 가야 해요.》

《너는 참 어리석구나.》 하고 어머니는 말하였습니다. 《거기까지 가자면 기차를 타고 천키로메터하고도 또 천키로메터를 더 가야 하고 그다음엔 말을 메운 썰매를 타고 밀림속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밀림속에서는 승냥이나 곰을 만날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런 곳으로 오라니 참 훌륭한걸 생각해내지 않았니! 너희들도 좀 생각을 해보렴!》

《문제없어요.》츄끄와 게끄는 오래 생각해보지도 않고 목소리를 합쳐서 천키로메터가 아니라 십만키로메터라도 가겠노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서운것이 없었습니다. 어제만해도 그들은 뜨락으로 뛰여들어온 남의 개를 돌멩이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손을 내흔들기도 하고 발장단을 치기도 하고 깡충깡충 뛰기도 하면서 오래동안 이야기를 하는것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더니 마침내

깔깔 웃어대면서 두 아들을 얼싸안고 빙빙 돌다가 안락의자우에다 넘어뜨리였습니다.

두말할것도 없이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그런 편지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성격이 쾌활하다보니 일부러 츄끄와 게끄를 골려주었던것입니다.

× ×

어머니가 그들에게 길 떠날 차비를 시킨것은 한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츄끄와 게끄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츄끄는 식칼로 단검을 한자루 만들었습니다. 게끄는 매끈한 막대기를 하나 얻어서 거기에 못을 박아 창을 만들었는데 만약 무엇으로 곰의 가죽을 뚫러놓은 다음 그 창으로 염통을 찌르기만 하면 아무리 큰 곰이라도 대번에 죽여버릴만큼 그 창은 단단하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차비가 다 되였습니다. 이미 짐도 다 꾸리고 집에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에는 덧쇠까지 잠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쥐가 끓이지 않도록 식장에서 빵부스레기며 밀가루며 쌀알들을 죄다 털어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머니는 래일밤 떠나는 기차표를 사려고 정거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없는 사이에 츄끄와 게끄사이에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 싸움이 어떤 불행을 가져오리라는것을 그들이 알기만 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만은 싸우지 않았을것입니다.

저축심이 많은 츄끄는 납작한 쇠통을 가지고있었는데 그는 거기에다 차를 쌌던 은종이, 과자를 쌌던 빨락종이(땅크나 비행기 또는 붉은군대를 그린것만), 화살에 꽂는 까문기의 깃털, 중국요술에 쓰는 알총, 그밖에도 여러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두었습니다.

게끄에게는 그런 쇠통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게끄는 약삭바르지는 못하였지만 그대신 그는 노래를 썩 잘 불렀습니다.

츄끄가 비밀장소에 감추어둔 쇠통을 꺼내러 갔을 때 게끄는 방안에서 노래를 부르고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우편통신원이 현관으로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오는 전보를 츄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게끄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만세! 만세! 만세!

돌격! 하나, 둘, 찔럿!》

하고 고함을 지르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츄끄는 전보를 자기의 쇠통 속에다 감춘 다음 게끄가 고함을 지르는 까닭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호기심에 가슴을 조이며 방문을 살며시 열고 방안광경을 들여다본 츄끄는 그만 화가 나서 두손이 부들부들 떨리였습니다.

방 한복판에 의자가 놓여있는데 그 등받이에는 구멍이 숭숭하게 창에 찔리고 갈가리 찢어진 신문지가 걸려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괜찮았습니다. 아니꼬운 게끄는 어머니의 구두를 넣었던 누런 마분지통을 곰의 몸뚱이라 가상하고 미친듯이 창으로 찔러대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츄크의것인 그 마분지통에는 양철로 만든 신호용 피리 한개와 10월혁명기념때에 달던 여러가지 색갈의 휘장 세개와 게끄처럼 망탕 쓰지 않고 먼길을 떠날 때 쓰려고 푼푼이 모아둔 돈 46꼬뻬이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 구멍이 뚫린 마분지통을 본 츄끄는 대번에 게끄의 창을 빼앗아 무릎에 대고 뚝 꺾어서 방바닥에다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게끄는 매처럼 츄끄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쇠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훌쩍 창문턱으로 뛰여올라가서 열려있는 환기창으로 그 쇠통을 내던졌습니다.

분통이 터진 츄끄는 엉! 하고 큰소리를 내여 울기 시작했으나 곧 《전보! 전보!》하고 부르짖으면서 모자도 안쓰고 덧신을 신을 사이도 없이 외투만 걸치고 밖으로 뛰여나갔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게끄는 츄크의 뒤를 따라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아무도 읽지 않은 전보가 들어있는 쇠통을 찾아보았으나 헛된 일이였습니다.

눈더미에 떨어져서 눈속깊이 파묻혔는지 아니면 길가에 떨어진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집어갔는지 모를 일이였지만 어쨌든 쇠통은 모든 물건과 아직 봉을 뗴지도 않은 전보와 함께 영원히 사라지고말았던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츄끄와 게끄는 오래도록 잠자코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서 둘이 다 책망을 듣게 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이미 화해를 하였던것입니다. 그런데 게끄보다 한살이나 나이를 더 먹은 츄끄는 꾸지람을 더 들을가봐 두려워서 두루 궁리를 하고있었습니다.

《얘 게끄야, 우리 어머니에게 전보이야기를 안하는게 어때, 응?

생각해봐, 전보는 해서 뭘해. 전보야 없어도 좋잖니.》
《거짓말하면 안돼.》하고 게끄는 한숨을 푹 내쉬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거짓말을 하면 더 노하지 않아.》
《그럼 우린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돼!》하고 츄끄는 환성을 올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전보를 어데 두었느냐고 물으시면 그때에 말하자꾸나. 어머니가 묻지두 않으시는데 먼저 지껄일 필요야 없지 않니? 우린 아첨쟁이가 아니거든.》
《응, 그러자.》하고 게끄는 찬동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게 하자. 얘, 츄끄야, 그건 참 잘 생각해냈구나.》
그들이 금방 이런 약속을 하였을 때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상급차표를 살수가 있었기때문에 매우 흡족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곧 귀여운 두 아들이 서글픈 얼굴을 하고있을뿐더러 울어서 눈까지 부은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얘들아, 대답해봐라. 나 없는동안 어째서 싸움을 했느냐.》 어머니는 옷의 눈을 털면서 물었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하고 게끄가 츄끄를 거들어나섰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려고 하다가 인차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렇게 생각한건 참 좋은 일이다.》하고 어머니는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외투를 벗고 안락의자에 앉아서 푸른 빛갈의 딴딴한 차표들을 그들에게 꺼내보였습니다. 한장은 큰것이고 두장은 작은것이였습니다.
그들은 곧 저녁들을 먹었고 이윽고 데까닥거리는 소리가 멎고 불이 꺼지더니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보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런만큼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 ×

이튿날 그들은 길을 떠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기차가 너무 늦어 떠났기때문에 츄끄와 게끄는 차간에서 차창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캄캄해서 재미있는것은 하나도 볼수 없었습니다.
밤중에 게끄는 목이 말라서 잠을 깨였습니다. 천정에 달린 전등불은 꺼졌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것—상보를 씌운 탁상우에서 진동하는

고뿌도, 지금은 설익은듯 푸르스레해보이는 누런 귤도, 가볍게 흔들리면서 혼곤히 잠든 어머니의 얼굴도 모두가 파란 빛으로 물들어있었습니다. 새하얗게 성에가 무늬진 차창으로 게끄는 달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모스크바에서는 볼수도 없던 굉장히 큰 달이였습니다. 그때 게끄는 기차가 달에 썩 가까운 높은 산우를 달리는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흔들어 깨워서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째서인지 물을 주지 않고 귤을 한쪽 떼여먹으라고 일렀습니다.

게끄는 짜증을 내면서 귤을 한쪽 떼여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게끄는 츄끄가 깨여나지 않을가 해서 그를 흔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츄끄는 화를 내면서 투덜거릴뿐 깨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끄는 장화를 신고 문을 살며시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차간의 복도는 폭이 좁고 길었습니다.

바깥쪽 벽에는 앉았다 일어서면 저절로 철컥 소리를 내면서 접히는 맵시있는 걸상들이 쭉 달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로 통하는 열개의 문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노랗게 금도금을 한 손잡이가 달린 번쩍번쩍하는 아름다운 문들이였습니다.

게끄는 한 걸상에 앉았다가 다른 걸상으로, 다음에는 세번째 걸상으로 옮겨앉아보면서 거의 복도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초롱불을 든 차장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자는데 뎅겅거린다고 게끄를 책망하였습니다.

차장이 가버리자 게끄는 얼른 자기 차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문을 닫고 폭신한 침대에 뛰여올랐습니다. 그런데 뚱뚱한 츄끄가 자리를 다 차지하였기때문에 게끄는 그더러 좀 옮겨누우라고 주먹으로 쿡쿡 찔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칼이 희고 얼굴이 둥그런 츄끄대신에 수염이 잔뜩 난 어떤 아저씨의 얼굴이 성가신듯 그를 바라보면서 엄격하게 묻는것이였습니다.

《이건 도대체 누가 사람을 막 쥐여박는거요?》

그러자 게끄는 있는 소리를 다 내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깜짝 놀란 손님들이 모두 침대에서 뛰쳐일어나고 전등불이 번쩍 켜졌을 때 자기 차간으로 온것이 아니라 다른 차간으로 왔음을 알게 된 게끄는

더욱 소리를 높여 울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곧 알아차리고 모두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텁석부리아저씨는 바지와 군복저고리를 입은 다음 게끄를 제자리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게끄는 살며시 자기 이불밑으로 들어가 누워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기차는 달리고 바람은 설레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둥실한 달이 흔들리는 고뿌며 흰 상보우에 놓인 오렌지빛귤이며 아들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꿈결에 어째선지 방긋이 웃고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또다시 파란빛으로 비쳐주고있었습니다.

마침내 게끄도 잠이 들었습니다.

× ×

…게끄는 이상한 꿈을 꾸었네
마치도 기차가 사람처럼 살아난듯
바퀴에서 바퀴로
전하는 말소리 들리는데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달리며
기관차에게 말을 거누나.
첫번째 차량… 동무! 앞으로!
밤은 어두운데 갈 길은 멀다.
두번째 차량… 아침이 빛날 때까지
조명등아, 환히 비쳐라!
세번째 차량… 불이야, 황황 붙어라!
기적아 힘껏 울려라!
바퀴들아, 동쪽으로 어서 달려라.
네번째 차량… 씨니예산까지 달린 다음엔
그때에는 이야기를 그만두자!

× ×

게끄가 잠을 깼을 때 바퀴들은 이미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덜컥거리면서 기세좋게 달리는데 얼어붙은 차창으로는 해빛이 비치고있었습니다. 침대들은 어느사이에 깨끗이 정돈되였고 츄끄는 벌써 세수를 하고 사과를 먹고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텁석부리 군대아저씨는 열어제낀 문어구에 마주 서서 게끄가 어제밤에 돌아다닌 이야기를 하면서 웃어대고있었습니다. 츄끄는 총알깍대기로 만든 노란 씌우개가 달린 연필을 게끄에게 비쭉 내여보였습니다. 그것은 군대아저씨에게서 선물로 받은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게끄는 물건같은것을 부러워하거나 탐내는 아이가 아니였습니다. 그는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얼뜨기였습니다. 그는 지난 밤에 남의 차간에 뛰여들었던것은 그만두고라도 자기 바지를 어디에 밀어넣었던지 인차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대신 게끄는 노래만은 썩 잘 불렀습니다.

세수를 하고 어머니에게 아침인사를 한 다음 그는 차거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지나는 곳이 어떤 지방이며 거기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일하는가를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츄끄가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쓸데없는 물건(누구는 고무로 만든 병마개를, 누구는 못을, 또 어떤 사람은 노끈오래기를)을 주는 손님들과 낯을 익히고있는동안 게끄는 차창으로 많은것을 보았습니다.

조그만 나무집이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왈렌끼를 신고 루바슈까를 입은 아이가 고양이를 부둥켜안고 현관으로 뛰여나왔습니다. 별안간 철썩! 숱진 눈더미에 고양이가 거꾸로 떨어지더니 푸석푸석한 눈우로 허우적거리면서 뛰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째서 고양이를 내여던졌겠습니까? 아마 고양이가 식탁에서 무엇을 훔쳐먹은 모양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나무집도 아이도 고양이도 사라지고 무연한 벌판에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벌판에 불그스레한 굴뚝들이 솟았는데 꺼먼 집채에 전등빛이 누렇게 비치였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무엇을 만들고있는것일가요? 저기 보초막에 털외투를 입은 보초병이 서있습니다. 털외투를 입은 보초병은 뚱뚱하고 어깨가 넙적한데 그가 쥔 총은 벼짚오래기처럼 가늘어보입니다. 그렇지만 나쁜놈이 기여들어만 보라지요. 당장 경을 칠걸!

다음에는 숲이 춤을 추면서 지나갔습니다. 가까운데 있는 나무들은 씽하고 날쌔게 달아나고 멀리 있는 나무들은 마치 큰 눈바다가 나무들을 빙 돌리는듯 천천히 움직여갔습니다. 게끄는 선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차간으로 돌아온 츄끄를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둘이 함께 창밖을 구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는길에 백대씩이나 되는 기관차들이 한꺼번에 칙칙푹푹하는 넓고 큰 정거장들도 보았고 얼른 말해서 모스크바에 있는 그들의 집 옆골목에서 여러가지 식료품을 팔고있는 조그만 상점만한 정말 보잘것 없는 정거장들도 보았습니다.

광석이며 석탄이며 또는 차량을 절반이나 차지하는 굵다란 통나무들을 실은 기차들이 씽하고 어기여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탄 기차는 황소와 암소를 가득 실은 기차를 따라잡았습니다. 그 기차의 기관차는 보잘것 없었고 기적소리도 호들갑스럽게 빽빽 울리였습니다. 그때 황소 한마리가 음머! 음머!…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기관사는 뒤를 돌아다보았는데 아마 큰 기관차가 자기의 기차를 앞서는줄로 생각한 모양이였습니다.

한 간이역에서 그들의 기차는 어마어마한 장갑렬차에 가지런히 가서 섰습니다.

방수포카바를 씌운 포신들이 포탑에 우뚝우뚝 솟아있는데 붉은군대아저씨들이 발을 구르면서 유쾌하게 웃기도 하고 벙어리장갑을 낀 두손을 마주치면서 손을 녹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죽외투를 입은 한 사람만은 무엇을 생각하는듯 장갑렬차옆에 묵묵히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츄끄와 게끄는 그 사람은 물론 지휘관일것이며 그 어떤 원쑤를 반대하여 전투를 개시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내리지나 않는가 해서 기다리고 서있는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많은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감스러운것은 창밖에서 눈보라가 휘몰아치기때문에 창문에 눈이 자주 콱 들어붙군 하는것이였습니다.

어느날 아침 그들이 탄 기차는 마침내 조그마한 정거장에 가닿았습니다.

어머니가 츄끄와 게끄를 내려놓고 군대아저씨에게서 짐들을 받아들기가 바쁘게 기차는 곧 떠나가버렸습니다.

트렁크들을 눈우에 내려놓고있느라니 나무로 지은 정거장은 곧 텅 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중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두 아들에게 짐을 지키게 하고는 썰매라도 보냈는지 알아보려고 말몰이군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사는곳까지 가려면 아직도 백키로메터가량이나 밀림속으로 더 가야 했기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매우 오래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있는데서 멀지 않은곳에 무섭게 생긴 염소가 한마리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염소는 언 통나무껍질을 갉아먹더니 갑자기 매—매— 징그럽게 울어대면서 츄끄와 게끄를 찬찬히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변강에서는 염소가 무슨 행패를 할는지도 모를 일이여서 츄끄와 게끄는 얼른 트렁크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락심해서 아버지가 정거장으로 말을 보내지 않은것을 보면 아마 떠난다는 전보를 받지 못한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몰이군을 부르게 되였습니다. 말몰이군은 기다란 채찍으로 염소의 잔등을 갈겨서 쫓아버리고 짐을 말아서 구내식당으로 날라갔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식당이였습니다. 매대 안쪽에는 츄끄의 키만한 육중하게 생긴 싸모와르의 물이 부글부글 끓고있었는데 푹씩거리면서 내뿜는 김이 구름인양 통나무천정으로 뭉씬뭉씬 피여오르고 그 천정밑에서는 몸을 녹이려고 날아든 참새들이 짹짹거렸습니다.
츄끄와 게끄가 차를 마시는동안 어머니는 밀림속의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데 삯전을 얼마나 받겠는가고 말몰이군과 흥정을 하고있었습니다. 말몰이군은 백루블리나 되는 무척 많은 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럴만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흥정이 되여 말몰이군은 빵이며 마초며 따뜻한 털가죽외투를 가지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벌써 온줄을 모르시다가 이제 우리를 보면 깜짝 놀라시면서 기뻐하실테지!》 하고 어머니가 말하였습니다.
《그래 참 아버지는 기뻐하실거예요.》하고 츄끄는 차를 훌훌 마시면서 의젓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도 놀랍고 기쁠거예요.》
《나도 그래요.》 하고 게끄도 찬성이였습니다. 《우리 가만히 가서 아버지가 어데로 나가고 안계시면 트렁크를 죄다 감추고 침대밑에 들

어가 숨자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와 앉아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실 거야요. 그래도 우리는 잠자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와! 하고 소리를 지르자요!》

《나는 침대밑에 들어가지 않겠다.》하고 어머니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구 소리도 지르지 않겠다. 너희들이나 숨어있다가 소리를 지르려무나. 그런데 츄끄야, 넌 무엇하려구 사탕을 호주머니에다 쓸어넣니? 그러지 않아도 네 호주머니는 쓰레기통처럼 불룩한데.》

《말에게 먹이겠어요.》하고 츄끄는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게끄야, 너도 과자쪼박이나 넣어두렴, 넌 늘쌍 아무것도 안가지고있다가 나한테서 졸라댈줄만 알거든.》

이윽고 말몰이군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넓다란 썰매에 짐을 싣고 마초를 깔아 자리를 푹신하게 만든 다음 모포와 털외투로 몸을 감싸고 올라탔습니다.

잘 있으라! 커다란 도시들이여, 정거장들이여, 마을과 촌락들이여! 이제부터 앞길에는 숲과 산들, 가도가도 울창한 밀림뿐이다.

× ×

그들은 우거진 밀림을 보고 오! 아! 하고 놀라와 감탄의 목소리를 지르면서 해질녘까지 날저무는줄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말몰이군의 등뒤에 앉았기때문에 앞길이 잘 내다보이지 않는 츄끄는 차차 갑갑증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더러 소를 넣은 빵이나 계란빵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물론 소를 넣은 빵이나 계란빵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무룩해진 츄끄는 심심풀이로 게끄를 쿡쿡 찔러주면서 가녁으로 밀쳐내였습니다.

게끄는 처음에는 꾹 참고 밀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츄끄에게 침을 탁 뱉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츄끄는 발끈 성이 나서 싸움을 걸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털외투를 입은 그들은 손을 쓸수가 없었기때문에 털모자를 쓴채 이마를 맞쪼아보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보고 씽긋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몰이군이 채찍으로 말들을 후려갈기자 말들이 씽하고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흰털이 보들보들한 토끼 두마리가 행길로 뛰여나와 깡충깡충 춤을 추고있었습니다. 말몰이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끼놈들! 물러서라!… 썰매에 치우겠다!》

장난꾸러기 토끼들은 신이 나게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마주 불어오자 츄끄와 게끄는 하는수없이 서로 꽉 껴안았습니다. 이윽고 그들이 탄 썰매는 밀림과 이제는 썩 가까와진 씨니예 산마루로 천천히 떠오르는 달을 향하여 산기슭을 달리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덮인 조그만 귀틀집앞에 이르렀을 때 아무 구령도 없는데 말들이 제절로 멈추어섰습니다.

《여기 내려서 자고 갑시다.》하고 말몰이군이 눈길우에 뛰여내리면서 말하였습니다. 《이건 우리 정거장이웨다.》

그 집은 작기는 하였지만 든든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살고있지 않았습니다.

말몰이군은 얼른 차관에 물을 끓이고 썰매에서 음식주머니를 들여왔습니다. 순대는 어찌나 땅땅하게 얼었는지 그것으로 못이라도 박을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순대는 끓는 물에 담그고 빵덩이는 뜨거운 철판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츄끄는 뻬치까뒤에서 꼬불꼬불한 웬 용수철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짐승이나 잡는 덫에 쓰는 용수철이라고 말몰이군이 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용수철은 녹이 쓸어서 아무 쓸모없이 딩구는것이였습니다. 츄끄는 첫눈에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차를 마시고 먹을것을 다 먹고나서는 모두 누워서 자기로 하였습니다. 벽쪽에 널다란 나무침대가 놓여있는데 거기에는 마다라스대신 마른 나무잎이 깔려있었습니다.

게끄는 벽쪽이나 복판에 끼여서 자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녁에 누워 자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장자장 우리 아가 가녁에는 눕지 말아.》하는 자장가를 들어왔지만 그래도 언제나 가녁에 누워서 잤습니다. 그를 침대복판에 눕히기만 하면 잠결에 이불을 모두 차던지고 팔굽으로 옆의 사람을 떠밀어내고 무릎으로 츄끄의 배를 차는것이였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은채 털외투를 덮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츄끄는 벽쪽에 눕고 어머니는 가운데 눕고 게끄는 맨 가녁에 누웠습니다.

말몰이군은 초불을 끄고 뻬치까우에 올라가 누웠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게끄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또 목이 말라서 잠을 깨였습니다.

그는 아직 잠에 취한채 장화를 신고 식탁으로 가서 차관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창문밑에 놓여있는 걸상에 걸터앉았습니다.

달은 구름속에 숨었는데 조그만 창문을 통하여 눈더미들이 검푸레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멀리도 와계시누나!》하고 게끄는 놀라마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좀 더 가면 아마 이 세상은 끝날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게끄는 문득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문밖에서 무엇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니 그것은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무슨 육중한 발에 밟혀 눈이 빠그덕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어둠속에서 무엇이 씩 숨을 내쉬더니 움칠거리면서 몸뚱이를 뒤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게끄는 창밑으로 곰이 지나가는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흉악한놈의 곰같으니. 뭣하러 왔어? 그래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 그렇게 먼길을 가는데 아버지를 영 만나보지 못하게 우리를 잡아먹고싶단말이냐?… 안돼, 백발백중하는 총이나 삐죽한 검을 가지고 사람들이 네놈을 죽여버리기전에 어서 사라져라!》

이렇게 생각하며 중얼거린 게끄는 속으로 좀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었지만 호기심에 끌리여 얼어붙은 뙤창유리앞에 이마를 꼭 대고 바싹 달라붙어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빨리 지나가는 구름속에서 달이 불쑥 나오자 검푸른 눈더미들이 희뜩희뜩 비치였는데 여기에서 게끄는 곰이 온게 아니라 고삐가 풀려서 놓여난 말이 썰매주위를 빙빙 돌면서 건초를 먹고있는것을 보게 되였습니다.

게끄는 속은것이 분하였습니다. 그는 곧 침대에 기여올라가서 털외투를 쓰고 누웠는데 방금전까지 좋지 못한것을 생각했기때문에 그는 꿈속에서도 스산한것을 보게 되였습니다.

× ×

게끄는 이상한 꿈을 꾸었네
마치도 뚜르보론(괴물의 이름)이
설설 끓는 침을 뱉으며
쇠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는듯
사방 불바다에서 총창이 번쩍이는데
그 어떤 무서운 련대들이
구리로 만든 북을 울리면서
먼 나라에서 싸움을 걸어왔네.

《서요!》 하고 게끄는 그들에게 소리질렀습니다. 《당신들은 그리로 가서는 안돼요! 그리로는 못가요!》

그러나 누구도 멈추어서지 않았고 또 누구도 게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성이 난 게끄는 츄끄의 마분지통에 들어있던 양철로 만든 신호나팔을 꺼내서 힘껏 불어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던지 생각에 잠겨있던 장갑렬차지휘관이 고개를 번쩍 들고 손을 휙 내저었습니다. 그러자 대번에 그의 어마어마한 대포들이 쿵하고 일제히 불을 토하였습니다. 그래 게끄는 《잘해요!》하고 칭찬하였습니다. 《한번만으로는 부족해요. 한번 더 쏴주세요.…》

어머니는 귀여운 두 아들이 량쪽에서 못견디게 치닥거리는바람에 그만 잠을 깨였습니다. 그리하여 츄끄쪽으로 돌아누운 어머니는 무엇인지 꿋꿋하고 삐죽한것이 옆구리에 마치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두루 더듬어본 어머니는 이불밑에서 덫에 쓰는 용수철을 얻어내였는데 그것은 저축심많은 츄끄가 슬며시 잠자리로 끌어들였던것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용수철을 침대밖에다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달빛에 비친 게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가 무서운 꿈을 꾸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꿈은 물론 용수철이 아니기때문에 내던질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여버릴수는 있는것입니다. 어머니는 반듯이 누워있는 게끄를 모로 돌려눕히고 가만가만 흔들면서 그의 이마에 대고 입김을 조용히 불어주었습니다.

이윽고 게끄는 코를 쿨쿨 구르면서 히죽이 웃었는데 그것은 나쁜 꿈이 사라졌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습니다.

이윽고 어머니는 일어나서 장화도 신지 않고 양말바람으로 창문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직 날은 밝지 않았고 하늘에는 뭇별들이 총총하였습니다. 어떤 별들은 하늘 높은데서 깜빡이고 또 어떤 별들은 우중충한 밀림우에 낮추 걸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였습니다! 바로 이때 어머니도 나어린 게끄가 생각한것처럼 일에 바쁜 남편이 가있는 그곳에서 좀 더 가면 모름지기 세상땅이 거의 끝날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튿날은 온종일 산을 넘고 밀림속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올리막길을 갈 때면 말몰이군은 썰매에서 뛰여내려 옆에서 눈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대신 가파로운 내리막길에서는 썰매가 어떻게 빨리 내달리는지 츄끄와 게끄는 자기들이 말과 썰매와 함께 하늘에서 땅우로 곧바로 떨어지는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해질무렵, 사람도 말도 이미 지칠대로 지쳤을 때 말몰이군이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다 왔습니다! 이 산굽이를 돌아서면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기지가 있습니다.… 쯧 쯧, 이놈들아, 빨리 가자!》

츄끄와 게끄는 너무 기뻐서 새된 소리를 지르면서 썰매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썰매가 훅 앞으로 내달리는바람에 그들은 썰매우에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빙긋이 웃으면서 털수건을 벗어던지고 털이 복실복실한 모자만 썼습니다.

산굽이에 이르렀습니다. 썰매는 씽하고 기세좋게 돌아서 바람이 둘려막힌 아늑한 산기슭에 우뚝우뚝 서있는 세채의 자그마한 집앞에 가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였습니다. 개 한마리 짖지 않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뻬치까굴뚝에서는 연기조차 오르지 않았습니다. 길이란 길은 모두 깊은 눈에 덮이였고 주위는 겨울날의 묘지처럼 괴괴하였습니다. 다만 옆구리가 흰 까치가 몇마리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한가로이 날아다닐뿐이였습니다.

《당신은 대관절 우리를 어디에 실어다 놓은거예요?》하고 겁에 질린 어머니가 말몰이군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분명해요?》

《약속한대로 모셔왔지요.》 하고 말몰이군은 대답하였습니다. 《바

로 이 집들을 〈제3호 지질탐사기지〉 라고 합니다. 여기 말뚝에 간판까지 나붙어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십시오. 혹시 부인께서는 제4호기지로 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약 2백키로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안예요, 안예요!》 하고 어머니는 간판을 보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가 옳아요. 그렇지만 좀 보세요. 문들은 죄다 잠겨있고 층층대는 눈에 덮여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관절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도 모르겠는데요.》 하고 말몰이군도 놀라는것이였습니다. 《전주일에 우리는 이곳으로 밀가루며 파며 감자같은 식료품을 실어왔는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죄다 있었지요. 대원이 여덟명인데 대장까지 아홉명이구 집지기까지 치면 열명이 있었지요.… 참 걱정거리가 생겼는걸! 승냥이가 죄다 잡아먹지야 않았겠지요.… 잠간 여기 계시우. 내 집지기를 찾아보고 오리다.》

그리하여 말몰이군은 털외투를 벗어던지고 눈길을 헤치면서 맨 끝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그는 돌아와서 말하였습니다.

《집은 비였지만 뻬치까가 따스한걸 보면 집지기는 남아있는데 아마 사냥을 나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가 돌아오면 부인께 죄다 이야기할겝니다.》

《그 사람이 무슨 신통한 말을 해주겠어요!》 하고 어머니는 후 한숨을 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간지 벌써 오래다는거야 저도 뻔히 알고있는걸요.》

《글쎄 그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는지 낸들 어떻게 알겠소만.》 하고 말몰이군은 대답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는 무슨 말을 해줄겝니다. 그는 집지기니까요.》

그들은 겨우 집지기네 집 층층대앞까지 썰매를 몰아갔는데 거기서부터 숲쪽으로 좁다란 눈길이 나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선 그들은 거기에 세워둔 삽이며 비자루며 도끼며 몽둥이옆을 지나 쇠갈구리에 걸려있는 꽛꽛 언 곰가죽옆을 지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말몰이군은 짐들을 날라들였습니다.

집안은 훈훈하였습니다. 말몰이군은 말에 먹이를 주러 나가고 어머니는 아무말도 없이 어리둥절해있는 아이들의 외투를 벗겨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먼길을 왔는데 이렇구나!》

어머니는 벽에 붙인 걸상에 앉아서 생각에 잠기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가? 되돌아갈것인가?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말몰이군에게 삯전을 물어줄 돈이나 겨우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집지기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지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정거장이나 전신국이라 해도 근 백키로메터나 떨어져있지 않겠습니까!

말몰이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집안을 휘 둘러보면서 흥흥 냄새를 맡아보더니 뻬치까로 다가가서 아궁문을 열었습니다.

《집지기는 오늘밤에 꼭 돌아올겝니다.》 하고 그는 안심시켰습니다. 《아궁안에 국그릇이 있습니다. 만일 집을 비울 작정이면 국을 찬데다 두었을것입니다.… 어쨌든 좋을대로 하십시오.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나도 모른체는 않겠습니다. 당신들을 정거장까지 무료로 태워다 드리지요.》 하고 말몰이군은 제의하였습니다.

《안예요. 안가겠어요. 정거장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하고 어머니는 말몰이군의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물을 끓이고 순대를 데워서 요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어머니가 짐짝들을 정리하는 사이에 츄끄와 게끄는 따스한 뻬치까우에 기여올라갔습니다. 거기서는 봇나무비자루며 양털, 소나무토막들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수심에 잠겨 잠자코있다보니 츄끄와 게끄도 역시 시무룩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도 오래도록 입을 다물고있으려니 갑갑해진 그들은 곧 혼곤히 잠이 들고말았습니다.

그들은 말몰이군이 떠나가는것도 몰랐고 어머니가 뻬치까우에 올라와서 자기들곁에 눕는줄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잠을 깼을 때에는 이미 집안이 캄캄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층층대에서 쿵쿵 발구르는 소리가 나더니 현관에서 무엇이 쾅하는바람에(아마 세워두었던 삽이 넘어지는 모양이였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잠을 깨였던것입니다.

이윽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초롱불을 든 집지기가 털이 북실북실한 큰 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깨에 멨던 총을 벗고 잡아온 토끼를 걸상우에 훌 내던지더니 초롱불을 뻬치까에 비쳐대고 묻는것이였습니다.

《웬 손님들이 이렇게 와있소?》

《저는 지질탐사대장 쎄레긴의 안해예요.》하고 어머니는 빼치까에서 뛰여내리면서 말하였습니다.《그리고 이 애들은 그분의 아들들이고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증명서를 보여드리지요.》

《빼치까우에 앉아있는 이 녀석들이 증명서로군요.》하고 집지기는 웅얼거리면서 근심스럽게 바라보고있는 츄끄와 게끄의 얼굴을 초롱불로 비치였습니다. 《그 녀석들 꼭 아버지를 닮았군! 특히 여기 이 뚱뚱한 녀석이.》하고 그는 손가락으로 츄끄를 가리키면서 말하였습니다.

츄끄와 게끄는 그 말에 그만 화가 났습니다. 츄끄는 자기를 뚱뚱하다고 했기때문이고 게끄는 츄끄보다도 자기가 더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해왔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오셨소?》하고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집지기가 말했습니다. 《오지를 말라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다니요? 누가 오지 말라고 했단 말씀이얘요?》

《오지 말라고 하지 않구요. 내가 정거장에 가서 쎄레긴대장의 전보를 치고 왔는데 똑똑히 씌여있었지요. 〈출발을 두주일 연기하라. 우리 탐사대는 긴급한 일이 있어 밀림으로 떠난다.〉하고 말이지요. 일단 쎄레긴대장이 〈연기하라〉고 전보쳤으면 연기할것이지 부인께서는 왜 제멋대로 왔소.》

《전보는 웬 전보를 쳤어요?》하고 어머니는 되물었습니다. 《우린 아무런 전보도 받지 못했어요.》그리고 당황한 어머니는 지지라도 구하려는듯 츄끄와 게끄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길과 마주치자 츄끄와 게끄는 어쩔줄을 모르고 서로 눈이 휘둥그래서 얼른 빼치까구석에 숨어버렸습니다.

《얘들아.》하고 어머니는 두 아들을 미심쩍게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내 없는동안에 전보받은 일 없었니?》

빼치까우에서는 마른나무쪼각이며 비자루들이 우직거릴뿐 얼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야, 이 애군들아, 썩 대답을 못해!》하고 어머니는 다그쳤습니다. 《나 없는새 전보를 받고도 나한테 안줬지, 응?》

그래도 얼마동안 잠잠하더니 별안간 빼치까우에서 엉! 하고 한꺼번에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츄끄는 굵직한 소리를 길게 뽑고 게끄는 가는 소리로 흑흑 느껴울었습니다.

《너희들때문에 속상해죽겠구나!》하고 어머니는 소리질렀습니다. 《너희들 성화에 죽고말겠다! 잉잉거리지 말고 어떻게 됐는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봐.》

그런데 어머니가 죽고말겠다는 말을 들은 츄끄와 게끄는 한층 더 크게 울어댔습니다. 그리고 얼마동안 그들은 렴치없이 죄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서로 다투다가 마침내 그 슬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 ×

이런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몽둥이로 그냥 때려주겠습니까? 감옥에다 집어넣겠습니까? 족쇄를 채워서 정배를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어머니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한숨을 후 쉬고는 두 아들더러 뻬치까에서 내려와 코를 닦고 세수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집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집지기는 지질탐사대가 긴급한 명령을 받고 알까라슈협곡으로 떠나갔으니 열흘전에는 도저히 돌아오지 못하리라는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열흘동안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해요?》하고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먹을것이 조금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구려.》하고 집지기는 대답하였습니다. 《빵은 내가 드리지요. 그리고 이 토끼를 드릴테니 가죽을 벗겨서 삶으시우. 나는 래일 밀림으로 가서 한 이틀 있다가 오겠수다. 덫을 돌아봐야겠으니까요.》

《그건 좋지 않아요.》하고 어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이런 외딴곳에 우리들만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우리는 여기 사정을 조금도 모르지 않아요. 더군다나 숲속에 짐승이 욱실거리는데…》

《그러면 예비로 가지고있던 총을 한자루 두고 가지요.》하고 집지기는 말하였습니다. 《장작은 처마밑에 있고 물은 언덕너머에 있는 샘물터에서 나옵니다. 쌀은 자루안에 있고 소금은 단지에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들을 돌봐드릴 사이가 없습니다.…》

《참 나쁜 아저씨야!》하고 게끄는 소곤거렸습니다. 《얘, 츄끄야, 우리 저 아저씨에게 좀 말해주자.》

《얘, 좀 가만 있어!》하고 츄끄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 저 아

저씨가 우릴 당장 쫓아낼게야. 지금은 잠자코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죄다 일러바치자.》

《아버진 무슨 아버지야! 아버지는 오래 있어야 오실텐데…》

게끄는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에 올라앉아 눈살을 잔뜩 찌프리고 투박한 집지기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보았습니다.

집지기는 털외투를 벗어들고 식탁에 켜놓은 불결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게끄는 그의 털외투가 거의 허리등까지 어깨에서 잔등으로 쭉 찢어진것을 보았습니다.

《뻬치까안에서 국을 꺼내시우.》하고 집지기는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반에 숟가락과 사발이 있으니 가져다가 식사들을 하시우. 나는 외투를 좀 꿰매야 하겠수다.》

《당신이 주인인데 당신이 꺼내다가 우릴 대접해야지요.》하고 어머니는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투는 이리 주세요. 당신보다는 제가 아마 잘 기울테니까요.》

집지기는 어머니를 쳐다보는 서슬에 게끄의 사나운 눈길과 마주쳤습니다.

《에 그 녀석! 고집이 세겠군!》하고 중얼거리면서 그는 외투를 어머니에게 내여맡기고 선반에서 식기들을 내리웠습니다.

《이 외투가 왜 이렇게 째졌어요?》하고 츄끄가 찢어진 자리를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곰하구 좀 좋게 지내지를 못했지. 그놈이 그렇게 허비여놓았거든.》하고 마지못해 대답하면서 집지기는 국이 담긴 무거운 질그릇을 식탁우에 덜컹 올려놓았습니다.

《얘 게끄야, 들었지?》집지기가 현관으로 나가자 츄끄가 말하였습니다. 《그는 곰하구 싸웠대. 그래서 아마 저렇게 성만 내는거야.》

게끄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게끄는 그 사람이 비록 곰을 상대하여 싸울수 있었다 해도 자기 어머니를 노엽히는것이 싫었습니다.

× ×

이튿날 새벽에 집지기는 배낭과 총을 멘 다음 스키를 타고서 개를 데리고 밀림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부터 손수 살

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셋이서 함께 물을 길었습니다. 언덕너머에는 눈속에 깎아세운듯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서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 물에서는 끓는 차관에서 김이 물물 나듯 김이 났습니다.

그러나 게끄가 그 물에 손가락을 대였을 때 그것은 얼음보다도 더 찼습니다.

다음에 그들은 장작을 날라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로씨야식뻬치까에 불을 피울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작이 잘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자 얼마나 활활 잘 타는지 맞은편 벽창문에 잔뜩 얼어붙었던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얼음이 녹아내리니 유리창을 통하여 나무에 까치들이 날아다니는 숲기슭이며 바위가 삐죽삐죽한 씨니예산의 봉우리들이 환히 내다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닭을 튀할줄은 알지만 토끼가죽을 벗겨본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토끼 한마리를 처리하는데 황소나 암소를 한마리 잡아서 처리하는것만한 시간이 걸리였습니다.

게끄에게는 토끼를 튀하는 그 일이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츄끄는 좋아서 그 일을 돕고 그 대가로 토끼꼬리를 가졌는데 그것은 털이 함함하고 가쁜하여 삐치까우에서 훌 내던지면 락하산처럼 사뿐 마루에 떨어지는것이였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그들은 셋이서 산보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츄끄는 어머니더러 총을 가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알만이라도 가지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총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총을 높은데 있는 말코지에 걸어놓은 다음 걸상을 받치고 올라서서 총알을 웃쪽선반에 올려놓고나서 만일 선반에서 총알을 하나라도 꺼내기만 하면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고 츄끄에게 경고를 하는것이였습니다. 츄끄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슬금슬금 피해갔습니다. 왜냐하면 츄끄의 호주머니에는 벌써 총알이 하나 들어있었던것입니다.

산보는 참으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들은 좁다란 오솔길을 따라 한줄로 서서 샘물터로 걸어갔습니다. 머리우에는 파란 하늘이 싸늘하게 걸려있는데 씨니예산의 삐죽삐죽한 바위들이 옛말에 나오는 루각이나 탑들처럼 그 하늘을 떠이고 우뚝우뚝 솟아있었습니다. 주위는

얼어붙은듯 괴괴한데 호기심많은 까치들이 깍깍 울어대고있었습니다. 우거진 잣나무가지에서는 재빛다람쥐들이 날쌔게 뛰놀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밑에 함뿍 깔린 숫눈우에는 이름모를 짐승들과 날새들의 괴이한 발자국이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밀림속에서 무엇이 우지직우지직하다가 우쩍 하더니 와시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나무꼭대기에 쌓여 얼어붙었던 눈이 나무가지를 부러뜨리면서 떨어지는 소릴것입니다.

게끄는 이전에 모스크바에서 살 때는 그 모스크바가 곧 세계의 전부라고 즉 다시말해서 거리와 집들과 전차와 뻐스들이 곧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커다란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여기 이 밀림이 곧 세계의 전부를 이루고있는듯이 그에게는 생각되였습니다.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만일 자기 머리우에 태양이 빛나고있으면 게끄는 이 세상의 모든곳에는 비도 구름도 없는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에게 즐거운것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좋고 즐거울것이라고 생각했던것입니다.

× ×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으나 밀림속으로 갔던 집지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눈에 덮인 조그만 집은 불안속에 잠기였습니다.

더우기 저녁때와 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현관문과 방문을 꽁꽁 닫아걸고 짐승들이 불빛을 보고 오지 못하도록 양탄자로 창문을 꽉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연 반대로 했어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란 사람과는 달라서 불빛을 무서워하기때문입니다.

뻬치까는 불이 얼마나 잘 드는지 굴뚝에서 제법 윙윙 바람소리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언 눈덩이를 벽과 창문에다 휘뿌릴 때면 밖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마구 밀어대면서 허우적거리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려고 뻬치까우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에서 밤이 깊도록 그들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도 해주고 옛말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머니는 잠이 들었습니다.
《츄끄야!》하고 게끄가 물었습니다. 《왜 여러가지 이야기들과 옛말에는 마술쟁이들이 나오나? 그래 정말 그런것들이 있으면 좋겠지, 응?》
《그래 악마나 귀신도 있었으면 좋겠니?》하고 츄끄는 되물었습니다.
《안야!》하고 게끄는 실쭉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귀신들은 필요없어. 그까짓것들이야 무엇 해? 그렇지만 마술쟁이들은 우리가 부탁만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훌쩍 날아가서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왔다고 전해줄테거든.》
《그럼 게끄야, 그가 무엇을 타고 날아가겠니?》
《무엇을 타는고 하면말이야… 팔을 훨훨 젓든가 또 어떻게 하면 되겠지뭐. 그런건 그가 다 알고있어.》
《지금은 추워서 팔을 젓기는 힘들거야!》하고 츄끄는 말하였습니다. 《이봐, 나는 장작을 날라들일 때 장갑우에 덧장갑을 끼고서도 손가락이 막 얼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마술쟁이가 있으면 좋겠지?》
《난 모르겠어.》하고 츄끄는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슈까 끄류꼬브가 살고있는 집뜨락 지하실에 어떤 절름발이가 살고있던걸 알잖니. 그는 가락지빵도 팔고 별의별 녀편네들과 할머니들이 찾아오면 누군 복이 있고, 누군 복이 없다고 점도 쳐주댔어.》
《점을 잘 치댔나?》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안원들이 와서 그를 붙잡아가고 그의 방에서 남의 물건들을 많이 끌어냈다는것만 알고있어.》
《얘, 그럼 그는 마술쟁이가 아니구 협잡군이였지뭐.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야 물론 협잡군이였지.》 하고 츄끄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술쟁이도 다 협잡군일게라고 나는 생각해. 그렇잖니, 글쎄 그들이 어떤 조그만 구멍으로라도 숨어들어갈수 있다면 일을 할 필요가 없잖니? 그저 소용되는걸 막 훔치면 되겠는데… 근데 게끄야, 이젠 그만하고 자라. 난 이젠 너하고 이야길 더 하지 않을테야.》
《왜 그러니?》
《너는 그따위 시시한 소리만 하다가는 밤에 꿈을 꾸면서 남을 팔굽으

로 찔러주고 무르팍으로 차주니말이야. 그래 어제밤에는 주먹으로 내 배를 쥐여박고도 잘한줄 알어? 어디 네 배를 그렇게 쥐여박아보자.…》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는 땔 장작을 어머니가 손수 패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리고 토끼고기는 이미 다 먹어버리고 그 뼈다귀는 까치밥이 되였습니다. 점심에는 기름과 파를 넣고 맨죽을 끓였습니다. 빵도 다 떨어져서 어머니는 밀가루를 얻어서 기름빵을 구웠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난 게끄는 시무룩하고있었는데 어머니가 보니 그에게는 열이 좀 나는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게끄더러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일러놓고 츄끄에게 외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츄끄를 데리고 물도 길어올겸 숲기슭에서 나무옹이며 나무가지들을 주어오려고 바께쯔와 썰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두면 이튿날 아침 뻬치까에 불을 때기가 쉬울것이였습니다. 그래 게끄는 혼자 남게 되였습니다. 그는 오래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기에 갑갑증이 난 그는 그 무엇을 생각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 ×

한편 어머니와 츄끄는 오래동안 지체하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썰매가 뒤집히는바람에 바께쯔의 물이 쏟아져서 다시 샘물터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다음에는 츄끄가 숲기슭에 뜨스한 벙어리장갑을 두고온것을 도중에 알게 되여 또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어졌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와보니 게끄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게끄가 뻬치까우에 올라가 양가죽뒤에 숨었을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게끄는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츄끄는 능글맞게 싱글거리면서 게끄가 틀림없이 뻬치까밑에 들어가 숨었을것이라고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게끄더러 어서 기여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게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츄끄가 기다란 부저가락을 가지고 뻬치까밑을 쑤시였습니다. 그러나 뻬치까밑에도 게끄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어 문곁의 말코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게끄의 털외투도 털모자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 집주위를 한바퀴 빙 돌아보고 현관에 들려서 초롱불을 켜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컴컴한 헛간속도 들여다보고 장작을 쌓아둔 처마밑도 찾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게끄를 불러보기도 하고 욕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우에는 어느덧 어둠의 장막이 내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으로 뛰쳐들어와 벽에서 총을 벗겨메고 총알을 꺼내쥔 다음 초롱불을 들고 츄끄에게 방에서 한걸음도 나가서는 안된다고 이르고는 밖으로 뛰여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나흘동안에 눈우에는 숱한 발자국자리가 나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서 게끄를 찾았으면 좋을는지 몰랐습니다. 게끄가 혼자서 숲속으로 들어갔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기때문에 어머니는 행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행길은 텅 비여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총을 재워가지고 한방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기울여보고 또 한방 또 한방 거듭 놓았습니다.

문득 아주 가까이에서 응답하는 총소리가 울리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도우려 달려오는것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한테로 마주 달려가려고 하였으나 눈길에 발이 빠졌습니다. 그바람에 초롱불이 눈우에 떨어져 유리가 깨지면서 불이 꺼지고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지기네 층층대에서 츄끄의 째지는듯한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총소리를 들은 츄끄가 게끄를 잡아먹은 승냥이가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달려든것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초롱불을 내던지고 헐떡거리면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외투도 입지 않고 나와 서있는 츄끄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총을 한구석에 던지고 국자로 얼음같이 찬 랭수를 떠서 꿀꺽꿀꺽 마시였습니다.

이윽고 층층대에서 쿵쿵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개가 뛰여들고 그 뒤를 따라 몸에서 김이 문문 나는 집지기가 들어왔

습니다.
《무슨 일이 났소? 총은 왜 쏘았소?》하고 그는 인사도 없이 외투도 벗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하나 없어졌어요.》하고 말한 어머니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서 말을 더 못하였습니다.
《울음을 거두시우!》하고 집지기는 웨쳤습니다. 《언제 없어졌소? 오랬나요? 방금인가요?… 스멜릐, 돌아섯!》하고 그는 개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어서 말하시우. 그렇지 않으면 난 되돌아가겠수다!》
《한시간전이예요.》하고 어머니는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물을 길러 갔댔는데 돌아와보니 그 애가 없어요, 외투까지 입고 어디로 나갔어요.》
《한시간동안이면 멀리는 못갔을게구 외투도 입고 장화까지 신었으니 쉽사리 얼지는 않을거웨다.… 스멜릐, 이리 왓! 자 냄새를 맡아봐!》
집지기는 말코지에서 털모자와 덧신을 벗겨서 개의 코에 갖다대였습니다.
개는 킁킁하고 그 물건들의 냄새를 자세히 맡고는 령리한 눈으로 주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날 따라왓!》하고 문을 열면서 집지기는 말하였습니다. 《스멜릐, 어서 가서 찾아봣!》
그러나 개는 꼬리를 저으면서 그냥 한자리에 서있었습니다.
《앞으로 갓!》하고 집지기는 엄격하게 되뇌였습니다. 《제꺽 가서 찾아봣! 스멜릐!》
개는 불안스레 코를 내두르고 발을 번갈아 디디면서 좀체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지랄이야?》하고 집지기는 버럭 성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번 게끄의 털모자와 덧신을 개의 코밑에 가져다대서 냄새를 맡게 하고는 목테를 잡아당기였습니다.
그래도 스멜릐는 집지기를 따라오지 않고 빙빙 돌다가 돌아서서 문과 마주선쪽 방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개는 커다란 나무궤짝앞에 멈춰서더니 텁수룩한 발로 그 뚜껑을 벅벅 긁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한테로 돌아서서 늘어빠지게

컹 컹 컹 세번 짖었습니다.
  여기서 집지기는 어리둥절해서 어쩔줄을 몰라하는 어머니의 손에 다 총을 넘겨주고 궤짝으로 다가가서 그 뚜껑을 열어제꼈습니다. 그리고보니 그속에서 여러가지 헝겊이며 양가죽이며 자루같은것들의 잡동사니우에 털외투를 쓰고 털모자를 베개삼아 베고 누워서 게끄가 세상모르고 쿨쿨 자고있었습니다.
  그들이 게끄를 궤짝안에서 꺼내여 잠을 깨웠을 때 그는 아직 잠이 채 깨지 않은 눈을 슴벅거리면서 왜 여기서 그렇게 떠들썩하며 좋아들하는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입맞추며 울어대였고 츄끄는 그의 손이며 발을 잡아당기면서 껑충껑충 춤을 추며《얘! 얘! 얘!》하고 소리를 질러대는것이였습니다.
  털이 북실북실한 스멜리는 츄끄가 낯바닥에 입을 맞추는통에 부끄러운듯 외면을 하고 돌아앉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재빛꼬리를 휘휘 저으면서 식탁에 놓여있는 빵덩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어머니와 츄끄가 물을 길러나간 후 갑갑증이 난 게끄는 장난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털외투와 털모자를 가지고 궤짝안으로 기여들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츄끄가 돌아와서 자기를 찾으면 그속에서 무섭게 소리를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츄끄가 너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그냥 누워서 기다리다가 자기도 모르는사이에 그만 잠이 들고 말았던것입니다.
  이때 집지기가 벌떡 일어나서 식탁으로 다가오더니 묵직한 열쇠와 구겨진 푸른 봉투를 그 우에 꺼내놓았습니다.
 《자, 이걸 받으시우.》하고 그는 말하였습니다.《방과 창고를 여는 열쇠하구 쎄료긴대장한테서 오는 편지웨다. 대장동무는 나흘후면 대원들과 함께 돌아와서 마침 새해를 맞이하게 될거웨다.》
  그러고보면 이 무뚝뚝하고 우울한 늙은이가 어데로 사라졌댔는지를 알만하였습니다! 그는 사냥을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스키를 타고 멀고 먼 알까라슈계곡으로 달려갔던것입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뜯기전에 일어서서 늙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하의 말에는 아무 대답도 않고 궤짝안에 넣었던 탄알깍지통을 엎질렀다고 게끄를 꾸짖기도 하고 초롱의 유리를 깨뜨렸다고 어머니를 나무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오래동안 중얼중얼 잔소리를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마음씨 좋은 이 괴벽한 늙은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저녁 어머니는 한시도 게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디로 사라질가봐 겁이 나는지 게끄가 조금만 어쩌면 그의 손을 꼭 붙잡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게끄만을 보살폈던지 츄끄는 참다못해 화를 내면서 자기도 궤짝안에 들어가 숨지 않은것을 몇번이나 마음속으로 뉘우쳤습니다.

× ×

이제는 모든것이 유쾌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집지기는 그들의 아버지가 살던 방을 열고 뻬치까에 불을 뜨뜻이 땐 다음 그들의 짐을 거기에 옮겨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넓고도 환한 방이였습니다. 그러나 방안에는 모든것이 되는대로 여기저기 쌓여있어서 질서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곧 청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루종일 모든것을 규모있게 정돈하고 긁어내고 물로 씻고 닦았습니다. 저녁때 장작을 한단 묶어서 지고온 집지기는 전과는 딴판으로 깨끗해진 방을 보자 어리둥절해서 문밖에 우뚝 선채 얼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멜릐는 들어왔습니다. 깨끗이 닦아놓은 마루바닥을 아무 꺼리낌없이 막 밟고 들어온 스멜릐는 게끄에게로 다가가서 산뜻한 코끝으로 그를 쿡쿡 찔러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얘, 이 바보야, 내가 너를 찾아냈으니 그 값으로 너는 나한테 무엇을 좀 먹여줘야 한다.》 하는듯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을 써서 스멜릐에게 순대를 한토막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집지기는 밀림속에서 개한테 순대를 먹이면 날아가던 까치들을 웃긴다고 하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지기에게도 순대를 반가락이나 베여주었습니다. 그는 《고맙쉐다.》 하고 나가면서 모든것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는듯이 머

리를 끄덕거렸습니다.

이튿날은 설맞이 소나무를 장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장난감을 만드는데 무엇인들 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낡은 잡지에서 여러가지 그림들을 죄다 오려내였습니다. 그리고 헝겊쪼박들과 솜을 가지고 짐승이며 인형을 만들고 아버지의 책상서랍에서 담배종이들을 털어내서 종이꽃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뚝뚝하고 푸접이 없는 집지기 늙은이도 장작을 가지고 와서는 문곁에 서서 한참씩 그들이 연방 만들어내는 새 장난감들을 보고 감탄하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참지를 못하고 달려가서 차를 쌌던 은종이와 구두를 수리할 때 쓰던 큼직한 밀납덩이를 그들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훌륭한것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놀음감공장이 대번에 양초를 만드는 공장으로 되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양초는 솜씨가 서툴러서 미끈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상점에서 파는 맵시있는것들보다 못지 않게 불빛이 환하였습니다.

이제는 소나무를 구해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지기더러 도끼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대답도 않고 스키를 타고 숲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시간후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되였습니다! 소나무에 단 놀음감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못하였지만 헝겊쪼박을 무어서 만든 고양이 비슷한 토끼들이며 인형들이 모두 코가 민뜻하고 눈이 퉁방울처럼 생긴것이 똑같은 얼굴을 하고있었으며 또 은종이로 싼 잣송이가 깨지기 쉬운 유리로 만든 놀음감처럼 반짝거리지는 않았지만 그대신 모스크바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그런 명절맞이 소나무였습니다.

그것은 가지들이 멋지게 뻗어나서 꼭대기에서 별이 반짝이는듯해보이는 밋밋하고 키높은 진짜배기밀림의 소나무였습니다.

이일저일 분주히 돌아치는 사이에 어느덧 나흘이 지나가고 드디여 섣달 그믐날이 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벌써 츄끄와 게끄를 집구석에 박아둘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금시 아버지와 대원들이 숲속에서 불쑥 나타날것만 같아서 추위에 코끝이 퍼렇게 얼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지켜서있었습니다. 이때 목욕물을 데우고있던 집지기가 아버지의 일행은 점심

때가 돼서야 돌아올테니 공연히 추운데 나와서 얼지 말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과연 집지기늙은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들이 금방 점심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집지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얼른 외투를 걸치고 층층대로 나가보았습니다.

《찬찬히들 보시우.》하고 집지기는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저기 오른편 높은 산마루턱의 경사면에 그이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밀림속으로 들어가서 반시간이 지나면 모두 여기에 와닿을거웨다.》

사실 그가 말한대로였습니다. 처음에 짐을 실은 썰매를 끄는 개들이 고개턱에 뛰여나오더니 그 뒤를 따라 스키를 탄 사람들이 씽하고 달려나왔습니다. 커다란 산에 비하면 그들은 우스울 정도로 정말 조그마하였습니다. 그러나 층층대에서는 그들의 팔과 다리와 머리가 똑똑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펀펀한 산등성이에 가뭇가뭇 나타났다가 곧 숲속으로 사라지군 했습니다. 그리하여 꼭 반시간이 지나자 개짖는 소리, 삐걱거리는 소리, 웨침소리가 들리였습니다.

굶주린 개들은 집을 알아보고는 있는 힘을 다 내서 어느덧 숲으로부터 집을 향해 달리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 아홉명의 스키수들이 숲기슭에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층층대에 어머니와 게끄와 츄끄가 서있는것을 본 그들은 스키대를 쳐들면서 우렁차게 《만세!》하고 웨쳐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게끄는 참지를 못하고 층층대에서 뛰여내려 맨앞에서 누구보다도 우렁차게《만세!》를 웨치며 달려오는 껑충한 텁석부리를 향하여 장화에 눈이 들어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여갔습니다.

× ×

낮에 그들은 옷을 깨끗이 손질한 다음 면도를 하고 목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녁에는 다같이 설맞이소나무앞에서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다 차려놓았을 때 등불을 끄고 양초에 불을 켜놓았습니다. 그러나 츄끄와 게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어른들이였기때문에 어떻게 놀았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요행 한사

람에게 손풍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흥겨운 무도곡을 켜기 시작하자 모두 성큼성큼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고싶었던것입니다. 모두들 춤을 썩 잘들 추었는데 어머니에게 춤을 청하였을 때에는 특히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춤을 출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힘이 세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였습니다. 춤은 고사하고 그가 그저 방바닥으로 걸어가기만 해도 식장에 있는 그릇들이 죄다 흔들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츄끄와 게끄를 무릎에다 올려앉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였습니다.

이윽고 춤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게끄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게끄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것을 알고있었을뿐만아니라 또 그것을 자랑삼아 불러왔던것입니다.

손풍금수는 반주를 해주고 게끄는 거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무슨 노래를 불렀던지 지금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훌륭한 노래였다는것만은 기억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말을 그치고 조용히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기때문입니다. 어찌도 조용하였던지 게끄가 숨을 돌리느라고 노래를 멈출 때에는 초불이 찌륵찌륵 타는 소리와 밖에서 바람부는 소리까지다 들리였습니다.

게끄가 노래를 다 불렀을 때 사람들은 모두 떠들썩하게 웨쳐대면서 그를 손에 받들어가지고 공중 추어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들의 손에서 얼른 게끄를 빼앗아내였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흥분한김에 게끄를 나무천정에 올려박을가봐 겁이 났던것입니다.

《자 이제는 다 앉읍시다.》하고 시계를 쳐다보면서 아버지가 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일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일어서서 라지오에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앉아서 잠잠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곧 웅웅하고 삑삑하는 소리가 나고 이윽고 쏴—하는 소리가 나더니 어딘가 먼곳에서 아름다운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크고 작은 종들이 어울리여 울리는것이였습니다.

뗴르릉—뗑, 뗴르릉—뗑!

떼르릉—뗑, 떼르릉—뗑!

츄끄와 게끄는 서로 마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슨 소리라는것을 짐작했습니다. 그것은 머나먼 모스크바 크레믈리의 붉은 별밑에서 스빠스끼탑의 금시계가 종을 울리는것이였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이 종소리는 지금 도시에서도 산속에서도 초원에서도 밀림속에서도 푸른 바다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원쑤를 반대하여 전투를 개시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하게 기다리는, 그 생각에 잠긴 장갑렬차의 지휘관도 물론 이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서로 새해를 축하하고 행복을 축원하였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그것은 사람마다 자기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실하게 살고 일을 많이 하며 쏘베트국가라고 부르는 그 행복한 대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튼튼히 지켜야 한다는것을 잘 알며 또 그렇게 리해하고있었습니다.

1939년